

大邱市史

第二卷(政治・行政)

大邱市史編纂委員會

題字：戊子新刊 嶺營藏板《詩傳》에서 集字(朝鮮 純祖 28年; 1828年)

目 次

第八篇 政 治

第1章 解放直後の政治動向	13
第1節 8・15解放の感激	13
Ⅰ. 日本の敗亡과 地域動靜	13
Ⅱ. 그날의 市民表情	15
第2節 政治勢力들의 動向	16
Ⅰ. 建國準備委員會와 治安團體들	16
Ⅱ. 政黨活動의 萌芽	18
第3節 麻痺와 波瀾의 社會秩序	20
Ⅰ. 行政機能의 麻痺	20
Ⅱ. 社會秩序의 紊亂	21
第2章 美軍政時代	22
第1節 美軍政의 實施過程	22
Ⅰ. 美軍의 進駐	22
Ⅱ. 美軍政의 施政	23
第2節 美軍政下の 政黨團體動向	27
Ⅰ. 政治團體와 言論機關의 亂立	27
Ⅱ. 獨立促進運動과 政黨團體活動	29
Ⅲ. 信託統治反對運動	31
Ⅳ. 10・1暴動事件	38
第3節 過渡政府宣布	44
Ⅰ. 立法議員選舉	44
Ⅱ. 過政宣布와 政黨活動	47
Ⅲ. 美・蘇共委의 決裂	49

第3章 第1共和國時代	50
第1節 大韓民國政府樹立	50
Ⅰ. 總選舉까지의 政治動向	50
Ⅱ. 5·10總選舉	52
Ⅲ. 大韓民國의 誕生	54
第2節 政府樹立直後의 政治動向	55
Ⅰ. 大邱 6聯隊將兵叛亂事件	55
Ⅱ. 反民族行爲者 調查特委	56
Ⅲ. 第2代 國會議員選舉	57
第3節 6·25戰爭期間의 政治動向	59
Ⅰ. 臨時首都 大邱와 洛東江 防禦	59
Ⅱ. 戰爭中の 大邱 政治動向	62
第4節 自由黨時代의 政治動向	66
Ⅰ. 第3代 國會議員選舉	66
Ⅱ. 大邱每日新聞 被襲事件	68
Ⅲ. 第3代 正·副統領選舉와 開票中斷事件	69
Ⅳ. 地方自治團體의 選舉	71
Ⅴ. 第4代 國會議員選舉	73
Ⅵ. 民選 大邱市長 受難事件	74
第5節 2·28과 4·19	75
Ⅰ. 2·28 學生義舉	75
Ⅱ. 3·15 不正選舉	77
Ⅲ. 4·19 革命	79
第4章 第2共和國時代	81
第1節 過渡政府下の 政治動向	81
Ⅰ. 許政 過渡內閣의 出帆	81
Ⅱ. 內閣責任制 改憲案의 採擇	81
Ⅲ. 學園 및 社會混亂	82

第2節 民主黨政府의 出帆과 政治動向	84
Ⅰ. 民·參議院選舉	84
Ⅱ. 新政府의 構成	86
Ⅲ. 地方自治團體選舉	89
第3節 政黨團體의 亂立과 混亂	94
Ⅰ. 民主黨의 分黨	94
Ⅱ. 革新系 政黨團體의 續出	95
Ⅲ. 새 社會秩序와 混亂	96
第5章 第3共和國時代	102
第1節 5·16軍事政變	102
Ⅰ. 5·16前夜의 雰圍氣	102
Ⅱ. 軍政의 課業과 大邱	104
第2節 軍事政府下의 政治動向	104
第3節 第3共和國 樹立過程	105
Ⅰ. 民政移讓 準備過程	105
Ⅱ. 政治活動의 再開	107
Ⅲ. 第5代 大統領選舉	111
Ⅳ. 第6代 國會議員選舉	114
第4節 第3共和國時代의 政治動向	118
Ⅰ. 韓日協定과 政治的 昏迷	118
Ⅱ. 第6代 大統領選舉	121
Ⅲ. 第7代 國會議員選舉	124
Ⅳ. 改憲案과 國民投票	126
Ⅴ. 第7代 大統領選舉	130
Ⅵ. 第8代 國會議員選舉	133
第6章 第4共和國時代	135
第1節 10月維新宣言과 國民投票	135
第2節 初代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選舉와 8代 大統領選舉	138

第3節 第9代 國會議員選舉	141
第4節 第2代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選舉와 9代 大統領選舉	144
第5節 第10代 國會議員選舉	151
第6節 維新反對運動과 大統領弑害事件	154
第7節 過渡危機管理時代의 政治動向	156
第8節 5·17戒嚴과 國保委	158
第9節 改憲案과 國民投票	161
第10節 立法會議時代와 政治活動再開	162
第7章 第5共和國時代	165
第1節 大統領選舉人團選舉와 第12代 大統領選舉	165
第2節 平和統一諮問會議 構成	170
第3節 第11代 國會議員選舉	171
第4節 第12代 國會議員選舉	176
第5節 民主化運動과 4·13護憲措置	185
第6節 6月抗爭과 6·29宣言	189
第7節 改憲案과 國民投票	193
第8章 第6共和國時代	194
第1節 第13代 大統領選舉	194
第2節 第13代 國會議員選舉	198
I. 改憲後의 첫 總選舉	198
II. 在野의 制度圈 進入	206
第3節 3黨合黨과 大邱의 政治動向	206
第4節 第14代 國會議員選舉	207
第5節 地方議會選舉	214
I. 基礎議會選舉	214
II. 廣域議會選舉	218
第6節 第14代 大統領選舉	222

第九篇 行政

第1章 行政體制	229
第1節 地方制度의 變化	229
Ⅰ. 美軍政期	229
Ⅱ. 地方自治 導入期	230
Ⅲ. 地方自治制度 中斷期—中央集權의 行政先導期	234
Ⅳ. 地方自治制度 復活期	237
第2節 行政區域	240
Ⅰ. 解放後 大邱府의 行政區域과 洞名改正	240
Ⅱ. 大邱市의 行政區域	241
Ⅲ. 大邱直轄市의 行政區域	244
第3節 市政機構	258
Ⅰ. 市 長	258
Ⅱ. 市本廳 行政機構	275
Ⅲ. 區政機構	305
第4節 公務員	316
Ⅰ. 地方公務員制度의 發展	316
Ⅱ. 大邱市公務員 定員의 變化	325
第2章 市議會	330
第1節 地方議會制度의 變遷	330
Ⅰ. 概 括	330
Ⅱ. 制度의 變遷	331
Ⅲ. 自治 中斷期의 地方制度	337
第2節 基礎議會 時代	339
Ⅰ. 實施의 意義	339
Ⅱ. 基礎議會 出帆	341
Ⅲ. 基礎議會와 市長과의 關係	376

IV. 基礎議會時代 議長團 變遷	389
V. 常任委員會의 變遷 및 構成	392
VI. 基礎議會時代의 教訓	393
第3節 廣域議會時代	394
I. 地方自治의 復活	394
II. 初代議會	398
III. 廣域議會와 市長과의 關係	410
第4節 議會의 住民參與 趨勢分析	412
第3章 市政施策	421
第1節 建國初期와 50年代의 市政施策	421
I. 戰亂收拾과 秩序維持	422
II. 糧穀行政	424
III. 保健行政	429
IV. 救護行政	436
V. 建設行政	442
第2節 60年代와 70年代의 市政施策	443
I. 發展行政과 새마을 運動	444
II. 保健行政	466
III. 社會福祉	476
IV. 環境行政	484
V. 治安, 民防衛 및 消防	491
第3節 大邱直轄市의 市政施策	507
I. 發展計劃의 樹立과 對話行政	507
II. 經濟行政	527
III. 保健行政	551
IV. 社會福祉	567
V. 環境行政	591
VI. 治安·民防衛·消防 및 水防	606

第 4 章 都市計劃과 都市開發	619
第 1 節 大邱市 都市計劃 變遷의 背景	619
Ⅰ. 都市의 成長과 市街地 擴張	619
Ⅱ. 都市計劃制度 變遷의 概要	645
Ⅲ. 國土計劃과 大邱市의 位相變化	672
第 2 節 大邱市 都市計劃樹立內容의 變化	681
Ⅰ. 日帝時代 都市計劃: 都市空間 基調의 形成	681
Ⅱ. 1960年代 都市計劃: 立案技法의 導入	689
Ⅲ. 1970年代 都市計劃: 變化의 過渡期	710
Ⅳ. 1980年代 都市計劃: 새로운 都市計劃體系	718
第 3 節 大規模 土地開發	761
Ⅰ. 概 觀	761
Ⅱ. 土地區劃整理事業	763
Ⅲ. 公營開發事業	772
Ⅳ. 工業團地 造成	779
第 4 節 部門別 都市開發	785
Ⅰ. 住 宅	785
Ⅱ. 上 水 道	797
Ⅲ. 道 路	812
Ⅳ. 通 信	829
Ⅴ. 大邱는 都市開發의 王都였는가?	841
第 5 章 財 政	853
第 1 節 大邱市 財政 概觀	853
Ⅰ. 序 說	853
Ⅱ. 財政 推移	855
Ⅲ. 地方財政制度의 變遷	869
第 2 節 大邱市 收入	874
Ⅰ. 年代別 概觀	874

Ⅱ. 地方稅	883
Ⅲ. 稅外收入	909
Ⅳ. 地方交付稅	926
Ⅴ. 國庫補助金	936
第3節 大邱市 支出	942
Ⅰ. 年代別 概觀	942
Ⅱ. 支出의 機能別 分類	943
Ⅲ. 機能別 構成比	946
Ⅳ. 機能別 伸張率	955
第4節 特別會計	960
Ⅰ. 特別會計 制度	960
Ⅱ. 大邱市 特別會計 概要	961
Ⅲ. 個別 特別會計	965
Ⅳ. 年度別 特別會計 內譯	985
第5節 地方公企業	1009
Ⅰ. 地方公企業 制度의 發展	1009
Ⅱ. 地方公企業의 範圍	1010
Ⅲ. 分野別 地方公企業	1011
第6節 公有財產管理	1019
Ⅰ. 概 說	1019
Ⅱ. 公有財產管理制度의 變遷	1020
Ⅲ. 大邱市 公有財產 實態	1025

第 一 卷(通史)

第 一 篇 自然的 基礎

第1章 位置와 地理的 特性

第3章 地 形

第2章 地 質

第4章 氣 候

第5章 土壤・植生

第二篇 先史 및 古代

第1章 青銅器時代 以前の 文化情況

第4章 三韓時代의 大邱

第2章 青銅器時代

第5章 三國時代의 大邱

第3章 初期鐵器時代

第6章 統一新羅時代의 大邱

第三篇 高麗時代

第1章 後三國 鼎立期の 大邱地域과 公山戰鬪

第3章 民亂과 外侵

第2章 大邑中心의 郡縣制度 整備과 大丘縣의 變遷

第4章 高麗의 文化와 大邱

第四篇 朝鮮前期

第1章 地方雄府로서의 大丘都護府의 成長

第3章 朝鮮前期 文教政策과 大邱의 文化

第2章 大丘府의 社會・經濟的 成長

第4章 倭・胡兩亂과 大邱

第五篇 朝鮮後期

第1章 支配體制의 變化와 行政都市로의 定立

第3章 文化의 새 氣運과 文化都市로의 發展

第2章 社會構成의 變動과 經濟都市로의 成長

第4章 外勢의 侵略과 地域民의 抵抗

第六篇 日帝強占期

第1章 日帝 植民支配와 大邱地域의 行政

第4章 大邱地域의 教育

第2章 大邱地域의 産業과 經濟

第5章 大邱地域의 文化

第3章 大邱地域의 獨立運動

第七篇 現 代

第1章 政治狀況의 變遷과 大邱市

第2章 大邱直轄市時代

第三卷(産業・經濟)

第十篇 産業・經濟

第1章 總 說

第4章 流通 및 서비스産業

第2章 農・林・畜産業

第5章 對外貿易

第3章 鑛工業

第6章 金 融

- 第 7 章 建設과 住宅
- 第 8 章 交通·運輸·情報通信業
- 第 9 章 에너지産業
- 第 10 章 物價 및 消費動向 推移
- 第 11 章 企業, 企業人 및 企業經營

- 第 12 章 勞動運動과 勞使關係
- 第 13 章 觀光 및 「레저」
- 第 14 章 經濟團體 및 經濟關聯 研究機關
- 第 15 章 大邱經濟의 課題와 展望

第 四 卷(社會)

第 十 一 篇 社 會

- | | |
|-------------|----------------------|
| 第 1 章 人 口 | 第 6 章 社會福祉 |
| 第 2 章 住 宅 | 第 7 章 市民意識 |
| 第 3 章 交通·運輸 | 第 8 章 大邱市域 村落社會의 都市化 |
| 第 4 章 情報·通信 | 第 9 章 大邱의 建築 |
| 第 5 章 環 境 | |

第 五 卷(文化)

第 十 二 篇 文 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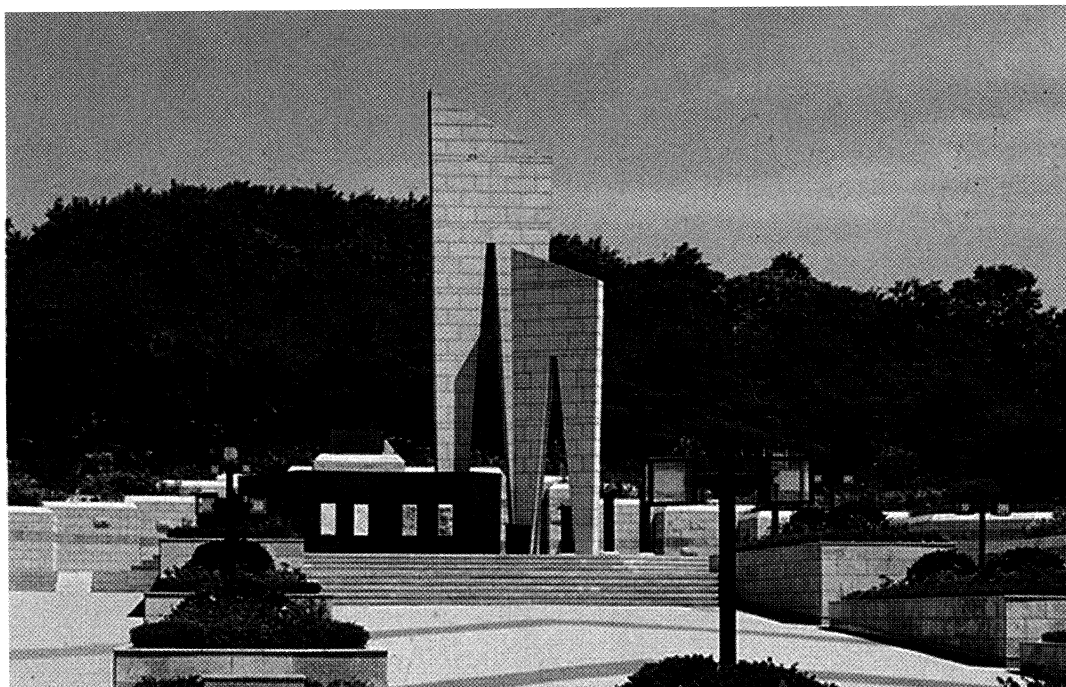
- | | |
|-------------|--------------|
| 第 1 章 教 育 | 第 5 章 體育·스포츠 |
| 第 2 章 藝 術 | 第 6 章 宗 教 |
| 第 3 章 言論·出版 | 第 7 章 民俗文化 |
| 第 4 章 文 化 財 | |

第 六 卷(資料)

第 十 三 篇 資 料

- | | |
|--------------|--------------|
| 第 1 章 三韓時代 | 第 7 章 日帝強占期 |
| 第 2 章 三國時代 | 第 8 章 政 治 |
| 第 3 章 統一新羅時代 | 第 9 章 行 政 |
| 第 4 章 高麗時代 | 第 10 章 産業·經濟 |
| 第 5 章 朝鮮前期 | 第 11 章 社 會 |
| 第 6 章 朝鮮後期 | 第 12 章 文 化 |

第八篇 政治



大邱 2・28 記念塔

- 第 1 章 解放直後の政治動向
- 第 2 章 美軍政時代
- 第 3 章 第1共和國時代
- 第 4 章 第2共和國時代
- 第 5 章 第3共和國時代
- 第 6 章 第4共和國時代
- 第 7 章 第5共和國時代
- 第 8 章 第6共和國時代

第八篇 政 治

第1章 解放直後の 政治動向

第1節 8・15 解放의 感激

I. 日本의 敗亡과 地域動靜

日帝의 강점에 끈질기게 저항해 온 우리민족은 제2차 세계대전이 日本의 패망으로 끝나게 되자 35년간의 고통과 질곡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日本의 패망과 우리민족의 해방은 이미 日本의 분수를 모르는 야만적 확전으로 벌써부터 그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었다. 1943년 12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연합국의 수뇌들은 전쟁수행과 전후문제를 논의한 결과를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韓國의 자주독립 보장을 명백히 약속했던 것이다. 그리고 1945년 7월, 포츠담에서 연합국들은 패전국 獨逸의 전후처리의 결정과 함께 日本의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는 이른바 포츠담선언을 발표하면서 韓國의 독립문제를 재확인했던 것이다.

獨逸의 패전으로 日本의 패망은 눈앞에 다달았다. 1945년 8월들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자 日本은 극도로 당황했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던 것이다. 8월 9일 심야엔 이른바 그들이 現人神이라 일컫는 日王이 주재하는 지휘부모임의 어전회의를 열고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튿날 10일 오전 10시, 최후의 어전회의를 열어 군부를 주축으로한 일부 주전론자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연합국의 포츠담선언을 정식으로 수락하고 전쟁종결을 결정지었다.

그러나 이같은 무조건 항복의 결정은 즉시 공포되지 않아 대부분의 韓國民族은 물론 日本人들도 알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패전후의 日人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日本으로의 무사귀환을 위해 韓國내의 영향력있는 유지들에 대한 협조공작을 벌이기도 했다. 그런 한편 애국지사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해 훗날 日人들의 안전을 위해 애국적인 韓國人 유력 인사들을 집단학살할 흉계를 꾸몄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大邱지역의 많은 애국지사들과 유지들은 1945년 8월 6일부터 慶尙北道 경찰부의 예비검속으로 연행돼 大邱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었다. 이때 검속의 앞잡이 역할을 한 日警은 慶北警察部 고등과 경부澤田永出로 그는 朝鮮人으로 본명은 徐永出이었다. 검속된 지사들은 진우연맹의 주동자였던 方漢相, 하종진, 義烈團 폭탄 반입 사건의 관련자였던 金觀濟, 農友會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劉載奇 등이 대표적인 인사들이었다. 日帝경찰은 어전회의의 항복 결정 후에도 이들 애국지사들에게 고문만행을 자행하다가 14일들어서야 중지했던 것이다.



〈사진 1-1〉

해방

日帝는 항복발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14일 저녁뉴스에서 다음 날인 15일 정오에 「천황의 중대방송」을 예고했고 日人유력자들은 발표내용을 짐작하게 되었다. 물론 韓人들중에서도 日人들의 동정과 패전소식으로 미루어 日本의 패망이 임박했음을 알아차렸다. 8월 15일 정오, 日王의 포츠담선언 수락 선언으로 日本의 항복은 천하에 공포되었

다. 이날 아침 구라시마 慶北도청 내부부장은 청내 3백여명의 직원을 집합시켜 중대방송의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방송이 끝난 뒤 日人간부들은 울음을 터뜨렸는가 하면 金大羽지사는 잠고대같은 大東亞 共榮論을 40여분에 걸쳐 훈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大邱부청에서는 항복 방송 직후 우에노(上野彦八)부윤이 출입 기자들과 만나 자신은 종전후에도 사랑하는 大邱부민으로 남겠다고 다짐하고 기자들의 협조를 바란다는 아부성 헛소리를 했다.

또 南龍岡町(현公平洞) 법원가의 와다나베(渡邊) 지법원장과 이쓰이(五井節藏)검사장, 에가미(江上綠輔)검사정(檢事正) 등 大邱 지방법원과 大邱복심법원(復審法院), 그리고 대구 검사국의 현직 법조관리들도 방송이 끝난뒤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인사도 없이 헤어지고 말았다.

大邱 경찰서의 日本人 경찰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朝鮮人에게 저지른 죄악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자신들이 보관해온 기밀 문서를 소각했고 朝鮮人출신 경찰들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大邱 慶北지역의 유일한 지방신문이었던 日本語版 大邱일일신문은 이날에도 1면 머리 기사는 「敵新型 爆彈正體」란 6일전의 나가사키 신행폭탄 투하사건의 속보를 실어 어용

지로서 항복사실을 끝까지 은폐했다. 그러나 日人사장은 제법 호방한 체 방송직후 조선인 기사들에게 맥주로 축하 건배를 해주는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다른 한편 이날아침 9시께, 신아홉번째 생일을 맞아 생일잔치를 핑계로 日帝항복을 축하하려던 독립운동가 徐相日의 댁에는 朝鮮軍 大邱지구 헌병대장 간다(神田) 대좌가 찾아왔다. 간다는 徐相日을 헌병대로 데려가 日帝가 물러갈 때까지 치안에 협력해 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이다. 협력을 요청한 것이지만 그의 태도는 「아직 무기는 우리들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은근히 시사하며 위압감을 주는 것이었다. 그럴뿐아니라 이날오후 5시께는 일부 유지들이 大邱형무소를 찾아가 日人교도관에게 韓國人 정치범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으나 형무소의 日本人책임자는 상부지시가 있을 때까지 참아달라고 사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오후엔 日本상점들은 일찍 철시하고 가두에는 日人들이 자취를 감춘 반면 태극기를 손에 든 한국인들이 함성을 지르며 거리를 메우기 시작했다.

애국지사들은 16일야 석방됐다. 마중 나온 친지들과 시민들은 기쁨에 넘쳐 만세를 외쳤고 지사들의 얼굴에도 감격과 환희가 물들어 있었다.

Ⅱ. 그날의 市民表情

14일 저녁 방송을 통해 이튿날 정오에 중대방송이 있다는 예고에 접한 시민들은 15일 오전부터 라디오앞에 모여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日本軍 헌병대좌 간다로부터 이날 아침 日本의 패망을 미리 확인한 徐相日의 댁에는 마침 그의 생일을 겸한 모임을 가진 大邱의 지도급 인사들이 함께 방송을 들었다. 짹짹 잡음과 함께 흘러나오는 日王의 침통한 항복을 선언하는 육성을 들은 이들은 일제히 「조선독립만세! 해방이다. 만세!」하고 환호를 올렸다. 이밖에도 3·1만세운동을 비롯 日帝에 대한 저항으로 옥고를 치르고 필박을 받던 많은 애국지사들은 감격에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다.

오후 들면서 大邱 시내 곳곳에서 만세 소리가 터졌다. 조양회관이 자리한 新町(현 大新洞)을 비롯해 주로 朝鮮人들이 살고 있는 明治町(현 桂山洞) 豎町(현 仁橋洞) 橫町(현 西也洞) 八雲町(현 壽昌洞) 등지에서 먼저 해방의 기쁨에 못 이긴 군중들이 몰려나오기 시작했다. 얼마안가 大邱의 중심지역인 中央通(현 중앙로)는 말할 것도 없고 幸町(현 太平路1가) 東城町1目(현 東城路1가) 등 역주변에까지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다. 삼삼오오, 혹은 십여명씩 무리를 지어 다니며 환호하는 인파들 가운데는 종이에 급히 그려 만든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고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日章旗에 태극과 팔괘를 덧칠해 급조한 태극기를 가지고 나오기도 했

다. 손빠른 인쇄소에서는 종이 태극기와 함께 애국가 가사를 찍어 파는 데도 있었다. 몰려드는 시민들은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얼싸안고 기쁨에 겨워 어쩔줄 몰랐다. 또 新町에 있는 큰 장(서문시장)에서는 지금까지 구하기 힘들었던 의약품과 식료품이 쏟아져 나와 거래되는 등 해방의 자유를 더욱 실감기도 했다.

그러나 日本人들은 완전히 풀이 죽어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 여인들은 길을 가면서도 흐느꼈고 아는 朝鮮人을 찾아다니며 재빠르게 인사를 나누거나 재산정리를 위해 혈안이 되어 돌아다니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그렇게도 날뛰던 日警들은 당혹한 나머지 몸둘 바를 몰랐다.

거리에 넘치는 인파들 가운데 일부 청년들은 애국가 가사를 「울드랭사인」이란 서양 이별곡 가사에 맞추어 노래불렀고 오후 5시께는 유지들을 앞세우고 삼립정2정목(三德洞2街)의 大邱 형무소로 몰려갔다. 애국지사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던 이들은 日本人 형무소책임자의 상부조치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애원에 흥분을 식이지 못하고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日本人집 유리문을 부수기도 했다. 한편 밤8시쯤에는 日軍비행장이 있는 達成郡 解顔面 東村(현 東區 枝底洞, 芳村洞)일대에는 청년 수백명이 자청하여 공공건물을 지키는등 치안유지에 앞장서기도 했다. 日軍들을 자극함으로써 불필요한 불상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형무소와 유치장문이 열린 16일 오전엔 잡범들을 풀어주고 오후 2시쯤에야 애국지사들을 석방하면서 大邱경찰서 서장실에서 慶北의 치안총책인 요꼬야마(横山幸生)경찰부장과 면담을 가지게 했다. 요꼬야마는 지사들에게 사이다를 대접하고 공손하게 사과 발언을 했다. 연합국에게 항복조인식을 할때 까지는 日本측이 계속 치안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도급인사들의 협조와 지도를 요청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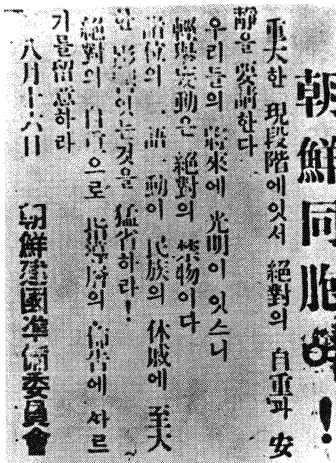
그들이 현관문에 내려섰을 때 마중나온 가족 친지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고 환영객들은 얼싸안거나 악수를 굳게 나누었다. 옥살이에 지친 지사들은 너무나 감격에 겨워 고통과 피로를 잊은 채 해방의 거리를 활보했다.

第2節 政治勢力들의 動向

I. 建國準備委員會와 治安團體들

해방의 기쁨속에 출옥 애국자를 환영하는 16일날의 半月堂 가두환영식과 오후의 제일예배당 환영식도 잠시뿐 애국지사들은 건국문제와 해방공간의 치안해결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중양에서는 이미 국내의 독립지도자의 한사람인 呂運亨이 45년 8월 14일에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 해방과 동시에 건국준비에 나서고 있었다. 日本총독부는 呂運亨의 建準에 국내치안



〈사진 1-2〉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벽보

유지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고 建準은 5개항의 요구조건을 총독부가 받아들인다는 합의 하에 이를 수락했다. 이로써 建準은 잠정적이거나 정부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게 됐고 전국적인 조직작업에 들어갔다. 大邱지역의 애국지사들도 16일저녁부터 건국대업을 두고 열띤 토론에 들어갔다.

그 결과 金觀濟를 비롯 그가 경영했던 復陽堂漢醫院에 모였던 李慶熙, 鄭雲海, 李相薰, 蔡忠植, 鄭雲駟, 白基萬, 崔文植, 李再福, 黃泰成, 李善長, 李元式 등은 建國準備委員會慶北支部를 결성기로 결의했다. 한편 朝鮮軍大邱지구 헌병대장 간다로부터 치안유지의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있던 徐相日은 같은날 자택에서 白南採, 裴恩希 嚴成文, 徐東辰, 張仁煥, 李在榮, 宋箕贊등과 협의, 건국의 우선 과제인 치안유지를 위해

慶北治安維持會를 발족기로 결의했다. 이같은 결의에 따라 치안 유지회의 결성대회는 17일 오전10시부터 大邱일일신문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엔 약1백명의 각계 대표와 유지들이 참석했고 이 회의 공식 명칭을 경상북도 치안유지회로 결정짓는 한편 徐相日을 대표로 선출했다. 이튿날인 18일에는 大邱역앞 大邱공회당(현 시민회관 자리)에서 大邱지역 전체 동장·반장회의를 소집 치안유지회 결성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공회당 입구에 현관을 달고 이곳에 사무실을 냈다. 한편 17일오전 남성정 제일 예배당에서도 전날의 결정대로 慶北建準이 대중적 기반위에 출범했음을 공포하는 시민대회를 열었다. 建準은 이날부터 경북보호관찰소자리(현 韓一극장)에 본부사무실을 정하고 대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金觀濟는 慶北도내 각 시군에 독립운동가 애국유지들을 중심으로 건준조직을 결성 지휘하게 됐다.

결국 大邱에는 건국과 관련 유사한 조직이 두 갈래로 나뉘지고 말았다. 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는 이중 조직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金觀濟, 徐相日의 영도권을 둘러싼 두 단체의 분열에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다시 통합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8월22일 大邱공회당에서 합동 회의를 열어 건국준비 慶北치안유지회란 이름의 통합 단체가 발족됐고 위원장에 金觀濟, 부위원장에 白南採가 선출됐다.

그러나 建準慶北치안유지회도 그 자체의 조직으로 치안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미약한 상

태로 美軍이 진주해온 10월 초순까지 약2개월간 지속하다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그동안 8월 26일까지 해방전과 마찬가지로 체제를 유지해 오던 경찰조직은 그 이후 日本人 간부들의 자진사퇴로 외형상 경찰력은 조선인 손에 들어갔으나 원활한 기능을 하지 못했다.

26일에는 朝鮮人경찰간부들이 경찰을 慶北보안대로 개칭하고 日帝경찰의 고위직에 있었던 朴乙守경시를 대장으로 뽑았다. 그러나 慶北보안대는 널리 알려지지 못한 데다 日帝時경찰복상을 그대로 착용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호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그 무렵 敵産을 둘러싼 朝鮮人들의 마찰이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됨에 따라 힘있는 조직의 개입 필요성이 높아졌다. 建準慶北 치안유지회 내에서도 치안을 목표로 내세우는 단체들이 속출하게 된 것이다.

가장 먼저 치안대라는 별동조직이 생겨났고 徐東辰중심의 建準청년부가 탄생했다. 이어 秋達洙를 중심으로 한 영남보안대, 金聖妹가 이끄는 慶北부인동우회가 생겨 나기도 했다. 9월 들어서는 鄭雲海의 아들 鄭文澤을 지도자로 한 大邱청년동맹도 결성됐다. 특히 申哲洙를 대장으로 발족된 建準慶北 치안유지회 산하 치안대는 南城町 회도국민학교에 본부를 두고 약 50명의 건장한 대원을 거느리고 일시나마 위력을 떨쳤다. 이밖에도 李薰이 대표가 되어 慶北人民委員會가 조직되었고 建國保安隊, 建國兵團, 國軍準備隊 등의 이름을 가진 단체들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치안목적을 표방하고 나섰으나 대개는 해방정국에 자신들의 정치목적 실현하려는 특정 정파의 전위조직 역할을 하게 된다. 그것이 정당조직의 움직임과 더불어 드러나게 된다.

Ⅱ. 政黨活動의 萌芽

해방직후 권력의 공백상태에서 다급한 민생문제와 치안유지를 위해 생겨났던 단체들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정치적인 노선에 따라 정당형태의 새로운 단체가 출현하면서 離合集散하는 과정을 겪는다. 大邱지역에는 서울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정당활동이 배태되는 한편 지역의 강한 정치성향으로 인해 지역 독자적인 정치단체가 탄생하기도 했다.

해방이후 가장 먼저 발족한 정당은 朝鮮共產黨이었고 이어 韓國民主黨이 결성되었다. 共產黨계열은 해방이 되자 建準결성에 자극을 받아 8월 15일 밤 李英, 鄭栢, 李承燁 등이 종로에 있는 장안빌딩에 모여 당결성을 논의, 중앙의원 12명을 선임함으로써 장안과공산당이 탄생했다. 그리고 「M.L계」의 崔益翰, 李友狄 등도 동대문 밖에서 공산당조직을 결의하고 공산당서울시당부를 결성했다.

장안과 공산당이 각 지방당부 결성에 착수함에 따라 大邱의 좌익인사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朴憲永중심의 경성콤클럽과 화요계가 8월 20일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세칭 재건파)를 결성하고 이른바 「8월테제」를 발표, 인민정권수립을 위한 투쟁을 결의함에 따라 장안파등은 백기를 들고 이에 합류하게 된다. 세칭 長安派공산당이라 했던 高麗共產黨이 해체되고 朴憲永, 李康國중심의 朝鮮共產黨이 탄생된 것이다.

한편 建準은 당초 참여를 거부했던 宋鎭宇, 金炳魯, 白寬洙 등이 京城有志者大會를 열어 建準을 개편하자는 제의를 거절한 것을 계기로 좌경화의 길을 걷게 됐다. 8월 20일 建準선전부 책임자 趙東祐가 경성콤클럽에 합류했고 22일에는 李康國, 鄭栢 등 다수의 공산주의자들이 건준에 참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31일 建準결성의 주체였던 安在鴻 등 중도계 인사들이 탈퇴하게 되고 이에 따라 大邱에서도 建準慶北 치안유지회 참여인사들의 일부가 탈퇴하게 된다. 建準은 9월 3일 朝鮮共產黨과 발맞추어 인민공화국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해체되기에 이른다.

建準에서 탈퇴한 安在鴻 등은 朝鮮國民黨을 발족시켰고 宋鎭宇 등은 臨政還國을 계기로 韓國民主黨창당에 나서 좌익파의 정면 대결에 들어갔다. 9월 3일 환국을 앞둔 臨政의 金九주석이 임정의 당면정책과 성명을 발표하자 9월 4일에 白南薰, 金度演, 許政, 張德秀, 尹潛善 등이 韓國國民黨 창당발기대회를 열었고 원세훈, 김병노, 조병옥 등도 같은날 韓國民主黨창당 발기대회를 갖는다.

그러나 이같은 창단준비보다 먼저 임정지지선언, 연합국에 감사표명, 민정수습 방안강구 등을 위한 국민대회 소집준비위를 결성, 우파연합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때 徐相日도 金俊淵, 張德秀 등과 함께 활약하면서 韓民黨발기인 1천여명의 이름으로 人共타도를 표방하고 좌익파의 정면 대결에 나섰다.

한편 大邱에서도 서울과 같이 가장 먼저 정치조직을 과시한 것이 공산계보의 인물들이었다. 서울에서 장안과 공산당이 결성되자 8월 27일밤 大邱서도 朝鮮共產黨 大邱市委員會가 결성됐다. 그러나 서울에서 朴憲永계의 재건파가 장안파를 흡수한데 영향을 받아 장안파大邱市委員會는 大邱콤클럽과 慶北출신재건파에 밀려 해체되었다. 이들은 조직력을 과시하기 위해 大邱에서 최초로 재건파주도에 의한 적색대모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大邱지역에는 중앙의 정당세력과 직접 연계되지않는 독자적인 정당조직을 시도한 세력들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기도 했다. 大衆黨, 大同民主黨과 같은 정당이 그것이다. 大邱지방의 유지, 청년들로 조직된 정당들로 전국적인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몇달후 붕괴되었으며 일부 정당은 좌우의 분열로 명맥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第3節 麻痺와 波瀾의 社會秩序

I. 行政機能의 麻痺

해방은 민족적인 기쁨을 안겨주었지만 민족 스스로가 해방에 대비한 정부수립의 준비를 갖추지 못한 외세에 의한 해방이었던 만큼 그에 따른 혼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美軍이 진주하고 군정을 펴기까지 2개월간은 정치적 공백인 동시에 행정의 마비된 시기라 할 수 있다.

建準이 결성된 18일께 조선인들에게 반감을 샀던 日本人경찰들(조선인 포함)이 한때 억류됐다가 다시 석방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으나 8월 하순부터는 결국 실질적으로 日本人경찰들은 완전히 물려나고 말았다. 치안행정 뿐 아니라 일반행정도 17일의 도내 군수회의에서 해방후의 치안유지, 식량수급 문제를 집중협의했으나 결론없이 회의를 끝내 기능불능 상태에 빠졌다. 뿐만아니라 이 회의에 참석했던 군수들은 임지에 돌아가기를 포기함으로써 행정은 완전공백상태에 들어갔던 것이다.

경찰의 경우 8월말께 慶尙北道경찰부는 부·과장만 日本人들 이름을 그냥 없어두고 실질적으로 조선인들에게 맡겨졌다. 慶北지역의 경찰서는 모두 조선인들이 서장을 맡았으나 치안을 책임질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 한편 귀국하지 못한 日本人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철수때까지 한시적으로 世話會란 친목단체를 조직했다.

그때, 日本人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숨기기 위해 과오나 죄악에 관련된 서류들을 숨기거나 소각시켜 버렸다. 뿐만 아니라 美軍이 진주하기까지의 공백기간 동안의 혼란을 틈타 귀중한 재산들을 자기네 끼리 가르거나 빼돌리는데 혈안이 되기도 했다. 그들의 소유부동산이나 日本으로 반출하기 곤란한 물자들은 약썩빠른 일부 조선인들과 뒷거래를 통해 처분하고 그 대가를 받아 日本으로 가져가기도 했다. 이같은 행동이 자행되는 동안 日本人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日本人들은 경찰력이 마비되자 日本군인들을 파견시켜 무력을 시위하기도 했다. 당시 朝鮮총독부는 8월16일부터 금융기관에 현금을 인출하려는 인파가 몰려들자 공식적으로 업무단축을 지시했다. 그러나 日本人들과 附日조선인, 친일파등에게는 퇴직금, 대출금, 은사금등을 두둑히 지급해 그들의 실속을 차렸다. 또 그들은 창고에 비축해둔 식량, 기름, 옷등도 꺼내 팔았으며 조선은행권도 마구 남발,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게 했다. 8월15일, 약 50억 엔이던 통화량이 몇 주사이에 무려 80억 엔이상으로 팽창했던것이다. 현금과 재산을 챙긴 日本人들은 美軍이 진주하여 휴대물을 검색하기 전에 대부분 日本으로 빠져나갔으니 美軍政의 공식송환 이전에 귀국한 日本人은 한반도에 있던 66만명의

약4분의 3에 이르렀다. 이들이 가져간 것 중에는 우리나라의 귀중한 고미술품도 상당히 들어 있어 그 뒤에도 그때 반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Ⅱ. 社會秩序의 紊亂

日帝의 敗亡으로부터 美軍政의 실시까지의 기간동안 민족의 독자적인 행정체계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행정공백의 문란한 사회상이 연출됐다. 특히 日帝의 혹독한 압제와 만행에 시달려온 조선인들은 무한한 해방감과 함께 日政에 대한 반감이 무절제한 궤동으로 나타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져왔다. 그뿐 아니라 해방공간의 이념분쟁등을 둘러싼 조직간의 갈등이 사회혼란을 가중시켰고 게다가, 해외동포의 귀환등으로 식량난이 가중되는 바람에 사회질서는 극도로 문란해졌다. 그러나 민족내부의 자치역량으로 각종 치안단체, 구제단체등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파국적 상황은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 일어난 행정범죄는 日本人들이 떠난뒤 남은 敵産을 둘러싼 처리에 관련된 사건들과 大邱주변에 무성하게 자라던 산림을 함부로 벌채해 가는 것등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와 아울러 공중위생문제, 교통소통문제 등도 행정공백에 따른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현상과 관련된 사건들가운데 美軍先發隊 100명이 도착한 이튿날인 9월 25일, 이들의 환영과 환영식에 따른 치안문제의 주도권 싸움으로 민족내의 다른 조직끼리 다툼 일과 日本軍의 무력시위가 있었던 일들이 그것이다. 이날 慶北보안대휘하의 경찰대일부와 치안대 사이에 충돌이 발생 建準의 金觀濟위원장이 경찰에 감금되고 반대로 경찰간부가 치안대에 감금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때문에 慶北도청앞 日本헌병대에서는 문앞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삼엄한 경계를 펴기도 했다.

또 9월27일에는 大邱 최초의 적색대모가 벌어져 건준소속의 일부 간부들과 좌익청년들이 50여대의 트럭에 나눠타고 大邱역광장에 집결 중앙통으로 시위를 벌렸는데 이 과정에서 慶尙北道인민위원회를 구성하려던 大邱의 유지들과 마찰을 빚었다. 주로 철도 노동자들이 참여한 이날 시위는 유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행됐고, 이들의 적색시위에 불만을 가진 嶺南保安隊단체원들은 28일 시위주동자들을 건준사무실에 무력으로 감금하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29일 새벽에는 大邱지역의 최초 대형 열차사고가 발생, 귀국동포 73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객차의 연결기 고장과 기관사의 정지신호판오인에 의한 어처구니없는 과실로 빚어진 것으로 이 또한 해방정국의 행정마비가 불러온 가장 큰 사건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사건으로 고통을 당한 사상자와 이재민에 대한 구제는 행정차원의 구제가 불가능했으므로 각종 자생단체의 동포애로 어느 정도 수습이 가능했다.

第2章 美軍政時代

第1節 美軍政의 實施過程

I. 美軍의 進駐

「8·15」日帝의 패망에 따라 美軍이 韓半島에 진주한 것은 9월 8일이었으나 大邱에 美軍이 처음 들어온 것은 9월 24일이었다. 그러나 美軍이 大邱에 정식진주한 것은 10월 1일이었고 24일 大邱에 온것은 美24군의 정식 주둔을 앞둔 선견대 약 1백명이었다.

美軍은 서울에 진주한 후 바로 총독부 대표로부터 정식항복을 받고 9월 9일, 북위 38도선 이남에 美軍政을 실시한다는 미군사령부의 명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때부터 韓半島는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美軍이 북쪽에는 蘇聯軍이 분할점령 하게되고 南韓에서의 美軍에 의한 잠정적 점령행정이 시작되었다. 美軍政은 당초 日帝관료들의 협력을 얻어 행정을 펴다 韓國人들의 강한 불만으로 점차 日人관리와 親日관리출신이 아닌 韓國人들을 등용하기 시작했다.

24일, 大邱에 온 선견대는 존스대령의 지휘아래 열차편으로 大邱에 도착, 이튿날 慶北도청사, 日軍주둔부대, 朝鮮은행대구지점 등을 거쳐 시내를 시찰한 다음 지역 각 단체대표들을 만나고 서울로 돌아갔다. 10월1일, 기계화 부대의 일부인 전차대와 트럭에 만승한 美육군보



〈사진 2-1〉

진 주 미군

병부대는 육로로 大邱에 들어왔다. 팔달교를 건너 원대가 도로 긴 행렬을 지어 도심으로 들어오는 美軍들을 환영하는 大邱시민들은 연도에 들어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고 박수를 치는 등 온통 축제분 위기를 이루었다.

이날 美軍부대는 연합군만세를 부르는 군중들의 환호속에 총지휘관 익매스대령의 지

회에 따라 옛 日軍영사와 관구사령부에 나누어 주둔한 다음 이튿날 日軍의 무장해제를 실시하고 뒤이어 慶北도청, 大邱부청, 大邱경찰서 등 주요 관공서를 접수했다. 이날 진주군 환영석상에서 쉬퍼중령은 「우리는 결코 여러분을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을 원조하러 온 것임을 명백히 말할 수 있다」고 말해 시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그후 慶北지방 공식환영식은 11월 10일 大邱키네마구락부(현, 한일극장)에서 대구합창단, 趙澤元무용단에 의해 성대하게 치러졌다.

10월 19일에 에드윈.A. 헨美軍대령이 慶北지사로 취임하였고(발령은 11월 3일자, 군정청사령 제27호) 이에 앞서 10월 13일자로 金大羽지사를 비롯한 日本관리들이 정식 파면조치됐다. 그러나 金大羽는 오만한 자세로 13일자로 도청의 3개부서부장, 각 과장, 군수, 도내주요지역 세무서장, 大邱부의 주요 간부직 등 45개요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고 이때문에 大邱지역의 해방정국에 갈등과 마찰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金大羽자신은 새로 부임한 美軍政의 헨지사에게 지사자리를 물러나지 않겠다고 항변하는 촌극을 벌였는가하면 金大羽가 임명한 관리들이 慶北전역에 美軍政을 실시한 11월13일 이후에도 행정을 장악했다.

따라서 大邱의 美軍政은 金大羽가 美軍政廳의 법령 제1호에 따른 직제개편을 받아들여 인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헨지사의 취임이전인 10월초부터 실시된 셈이다. 그것도 패망한 日帝관리 金大羽가 권한을 행사한 역사의 흐름을 역류한 것이었다.

그리고 27일에는 日帝 식민수탈의 선봉기관이었던 東洋拓殖株式會社가 美軍에 의해 접수되었고 慶北전역에 軍政이 실시되면서 행정체계의 틀이 잡혀갔다.

Ⅱ. 美軍政의 施政

美軍政의 시작은 日帝의 강압적 식민행정에서 西歐式 민주행정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시발점이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점령지의 질서확립과 민생행정을 위한 美軍政은 언어소통 문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통역정치를 가져오기도 했다.

美軍政은 체제면에선 철저한 중앙집권주의를 실시했으나 행정방식은 선거로 민의를 묻는 등 歐美式 민주주의이념을 구현하게 됨으로써 우리 민족사에 큰 정치적 변혁을 초래했던 것이다.

45년10월9일 미군정은 군정법령11호에 의거 韓國人の 자유를 억압했던 日帝의 악법들을 폐기처분했다. 이에 따라 출판법, 정치범처벌법, 신사법, 치안유지법, 정치범보호관찰령, 예비검속법, 집회취체령, 조선불온문서취체령, 조선임시보안령 등이 폐기된 것이다. 이들 악법이 폐기 처분됨으로써 한국인들은 비로소 언론, 집회, 결사 등 정치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

고 이를 계기로 大邱에서도 각종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정당들도 생겨나 활동을 개시했다. 뿐만아니라 종래 日本人소유의 日帝官治言論대신 한국민의 자유로운 지역언론기관이 탄생돼 활동을 벌이게 된 것이다.

美軍政廳은 이같이 정치적 자유를 보장한 외에 지방행정기구도 개편, 종래 식민통치를 위주로한 직제를 주민의 교육, 후생, 복리를 위한 것으로 고쳐 나갔다. 해방당시 慶尙北道의 행정기구로 知事官房, 企劃部, 內務部, 財務部, 鑛工部, 農産部, 警察部 등이 있고 그 밑에 21개과를 두었으나 이를 크게 바꾸어 나갔던 것이다.

경찰업무에 속했던 보건위생사무가 일반행정사무로 분리돼 道단위에선 위생부가 신설됐고 大邱시도 이를 일반행정에서 관장하게 됐다. 이밖에 道 단위에선 敵産을 관리하는 財産管理部를 신설하고, 내무부에 속했던 학무과를 학무부로 승격 독립시켰는가 하면 경찰업무에 편입시켜 왔던 출판, 영화사무, 정당관계 사무를 관장하는 공보업무를 內務部로 이관, 公報課에서 취급토록 했다. 또 도지사관할에 속했던 경찰부가 별도 지휘체계로 개편되면서 第5管區 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각종 행정위원회를 신설, 행정결정이나 처분에 앞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사를 반영시키도록 노력했다.

이같은 업무기구의 신설개편과 함께 慶尙北道와 산하의 大邱시 등 각 시군부에 한국인 행정고문제를 두어 官選과 民選으로 임명하는 한편 각부와 과의 실무부서에 美軍위관급장교감독관을 배치, 행정실무를 감독보조케 했다. 특히 이 행정고문제와 관련, 사상 처음으로 西歐式 민주적 선거절차에 따라 행정고문을 선출한 것은 정치적 의미를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한편 관선고문은 美군정청이 大邱출신의 독립지사인 徐相日, 崔允東을 慶北도정발전을 위한 특사로 내려보내 지역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토록 주선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적 성향의 인물들이 선임됐다. 현慶北지사는 도고문 10명, 부고문 8명, 군임시대표 16명 등 34명을 임명했다.

◆ 道고문

金燦洙, 張基相, 李相武, 張仁煥, 鄭雲駟, 吳麒洙, 朴魯洙, 金觀濟, 崔鍾徹, 金在明

◆ 府고문

金鍾耆, 金兌熙, 梁圭植, 鄭雲駟, 朴來承, 金夏鼎, 李在榮, 尹龍基

관선고문임명후 12월2일 실시된 府고문선출을 위한 대의원선거는 유권자 39,835명중 16,702명이 투표에 참가해 42%의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 선거에서 173명의 대의원을 선출, 이들이 12월18일 府회의실에서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민선府고문 22명을 선출했다. 또 이들 22명의 府고문들은 12월19일, 부청에 모여 무기명투표로 도고문 3명을 선출했다.

◆ 민선부고문

李廷雨, 金成坤, 崔壬出, 金周鎬, 鄭浣秀, 全炳熙, 李根庠, 朴在英, 申哲洙, 嚴成文, 崔圭澤
申允承, 李相文, 李鍾完, 裴永璣, 金承煥, 徐正度, 朴錫潤, 朴明茁

◆ 민선도고문

李相薰, 鄭雲騏, 李在榮

이어 12월 20일에는 도고문 전체회의를 열어 의장에 崔鍾徹, 부의장에 張仁煥, 서기대표에 朴魯洙, 서기에 吳麒洙를 뽑았다. 한편 府상임고문이었던 鄭雲騏가 도고문에 선출됨에 따라 그 자리에 嚴成文을 보임했다. 뿐만아니라 이날 도고문 전체회의는 美군정지사를 대리할 한국인 대리지사로 金宜均을 추대하고 부대리지사로 李慶熙를 추대, 46년부터 정식 취임했다.

이같이 美軍政이 大邱지역의 민의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민주적 선거방식에 의한 행정고문을 선출해 한국인에게 西歐민주주의의 외양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평가받긴했으나 한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이 선거가 우선 국민선거가 아닌 군정선거란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도가 낮았을 뿐만아니라 日帝잔재를 청산한 바탕위에서 치러진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의원 당선자의 약 60%가 친일인물이었던 사실이 문제점으로 남았다. 특히 친일인물들은 해방후의 불안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온갖 방법을 동원, 금전살포,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의 씨앗을 뿌렸고 친일 인물들의 득세기반을 만든 부작용을 가져 오기도 했다.

이들 친일세력이 해방된 美군정에 발을 붙여 새로운 지배층으로 다시 등장할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美軍政은 당초의 민족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점차 신망을 잃는 결과를 낳았다.

■ 사회문제와 그 대책

이같은 미군정의 전개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회현실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었다. 日本人 중심으로 운영되던 각종 제조업은 해방정국의 급변한 여건으로 생산기능이 마비되었고 이에따른 실업자의 증가와 해외에서 돌아오는 귀향민들로 엄청난 실업인구를 발생시켰다. 게다가 위생대책의 부실속에 전염병이 만연되고 각종 재해로 인한 구호대상자는 격증한 반면 식량난과 의약품 부족상태는 극에 달했다.

사회혼란을 틈탄 각종 사회범죄는 꼬리를 물고 일어났고 박봉의 공직자 독직사건과 부정상인들의 폭리사건은 사회를 더욱 수렁속으로 몰아넣었다. 日帝의 수탈과 약탈지주에 시달리던 가난한 농민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도시로 몰려와 도시 인구증가에 따른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에 대해 군정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켰으나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① 인구문제

1946년 8월 15일 현재 大邱의 인구는 약 27만명으로 추산됐던 것이 이듬해 8월 15일에는 약 30만명으로 늘어 한햇동안 3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래서 慶北도 당국은 귀향민들에 대한 지방분산정책을 추진했다. 1947년 7월에는 大邱이재민 수백 세대를 浦項오천 비행장으로 이주시켜 후생촌을 건설한 것을 비롯 각 지방의 인구유치운동을 전개했다.

② 실업자문제

1947년 5월 현재 大邱에는 약 3만5천명의 실업자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경제적여건으로 군정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극빈자에 대해 구호식량과 물자를 공급하는 수준에 머문 상태였다.

③ 농촌문제

농업을 주된 산업으로 삼았던 당시의 우리농촌은 소작제가 지배적인 상황이었고 소작료는 총생산량의 40%~60%에 달하는 혹독한 고율이었다. 이때문에 농촌경제의 파탄상은 극도에 이르렀고 농민들의 빈곤은 더할 수 없는 극악한 상태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美군정청은 1945년 10월 5일 법령 제9호를 반포, 소작료를 생산총액의 3분의1을 넘지못하게 했다. 그러나 군정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주와 소작사이에 소작료를 둘러싼 쟁의가 폭발적으로 발생했다. 1946년 한햇동안 慶北도내에서 발생한 소작쟁의만해도 무려 1,552건에 달했다.(당시 慶北도 농무과 통계) 그래서 美군정은 1947년초 획기적인 토지개혁을 단행하려다가 포기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후로 미루었지만 新韓公司관리로 있는 귀속농지만은 1948년 3월 22일 군정법령 제173호로 연작물의 20%로 15년간 균분연부 상환방법으로 분배했다. 이것은 본격적 토지개혁에 앞선 획기적 조치였다.

④ 실업 및 노동, 구호대책

해방으로 인한 귀향민의 증가에 따라 실직인구가 격증했고 동시에 이들은 도시빈민층을 형성했다. 이에 따른 구호대책이 행정의 긴급사안으로 부각됐다. 1947년 5월말 현재 慶北도보건후생국통계로는 大邱 시내 귀향이재민수는 82,241명이며 이중 구호대상자는 40,125명으로 집계됐다. 후생당국은 민간 구호단체의 협력을 얻어 식량, 주택, 직업 등의 공급 알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 군정청은 법령 제19호, 제97호, 제121호 등을 공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법령 제70호로 공창제도 폐지를 비롯 여권신장을 위한 제반 시책을 단행했다.

第2節 美軍政下の 政黨團體動向

I. 政治團體와 言論機關의 亂立

해방과 더불어 건국준비와 치안을 목적으로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속출하다가 美軍政의 실시로 언론, 집회, 결사와 정치활동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자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정치단체로서 가장 먼저 조직된 건국준비위원회의 大邱·慶北조직을 비롯 慶北青年會, 嶺南保安隊, 慶北婦人同志會, 大邱青年同盟 외에 정당으로는 共產黨과 韓民黨의 지방조직(慶北道黨과 大邱市黨)이 美軍政下에서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한편 독자적인 大邱지역의 정당조직으로 大衆黨과 大同民主黨 등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美군정이 실시되면서 특징적인 활동을 보인 것은 가장 일찍부터 세력을 강화했던 진보성향의 단체들이었다.

중앙의 건국준비위원회가 9월7일에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14일엔 일방적으로 인민공화국각료를 발표한데 이어 각 지역에서 도, 시, 군 인민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사건이었다. 10월 16일 大邱시 인민위원회가 大邱공회당에서 결성되었고 이날 徐永魯가 위원장으로 뽑혔다. 10월 18일엔 慶北도인민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에 李相薰이 선출됐다. 건준조직을 탈바꿈시킨 지역인민위원회는 중앙에서와 마찬가지로 ①완전 자주국가건설 ②일제잔재와 봉건잔재의 일소 ③노동자 농민의 생활향상등을 정강으로 채택했다. 미군정은 전국인민위원회를 토대로 성립을 선포했던 인민공화국을 12월12일자로 해체시켰으나 전국의 인민위원회 조직은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는 뜻에서 활동을 보장해 주었다. 그 결과 大邱의 인민위 활동도 계속됐다. 이 밖에도 좌익성향이 강한 朝鮮勞動組合 大邱地方評議會가 12월 24일에 결성되었고 27일에는 慶



〈사진 2-2〉

임정요인 환국 환영대회

北도내 각군대표 약 3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全國農民組合慶北聯盟이 조직되었다. 이 단체 역시 좌익세력이 주동이 되어 결성된 것이었다. 이 같은 정당과 사회단체의 활발한 진출과 함께 美군정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함으로써 언론사의 난립과 출판물의 홍수를 이루었다. 〈表 2-1〉

政 黨 團 體 現 況

〈表 2-1〉

명 칭	주 소	성 명
韓民黨 大邱支部	大邱府 新町, 朝陽會館內	金 完 燮
韓民黨 青年部	동 상	李 源 萬
韓民黨 達成 支部	동 상	金 禹 植
韓民黨 慶北道黨部	동 상	
韓獨黨 大邱支部	大邱府 大和町 67	孫 仁 植
女子國民黨 大邱支部	大邱府 大和町 67	金 壽 仁
社會民主黨 慶北支部	大邱府 大和町 67	金 成 國
慶北青年會	大邱府 華町 1	徐 東 辰
獨促青年聯盟	大邱府 東城町2丁目 161	崔 海 清
光復青年會	大邱府 大和町 67	孔 元 相
大成會	大邱府 鄉校內	裴 東 甲
天主教 青年會	大邱府 天主教會	李 孝 祥
慶北基督教老會	大邱府 南山町 50	鄭 載 舜
慶北基督教青年會	동 상	鄭 光 淳
佛教 婦人會	大邱府 德山町	李 命 俊
佛教協會	동 상	金 永 煥
獨促慶北國民會	大邱府 上町 52	金 夏 鼎
獨促慶北大邱支部國民會	동 상	李 在 榮
獨促達成國民會	동 상	裴 東 甲
儒道會慶北支部	大邱府大和町 67	金 在 坤
慶北基督協會	大邱府南城町 50	金 奉 道
大邱勞農青年聯盟	大邱府大和町 81	梁 雲 峰
民族統一總本部	동 상	鄭 一 雲
督促青年婦人會	동 상	金 雲 騏
慶北人民委員會	大邱府元町 1丁目 16	李 相 愛
慶北大邱人民委員會	동 상	徐 永 熏
人民黨大邱支部	동 상	崔 永 魯
共產黨慶北道委員會	大邱府元町 1丁目 17	張 文 植
共產黨大邱市委員會	동 상	金 一 植
民戰慶北道委員會	동 상	李 相 薰
民戰大邱市委員會	동 상	裴 昇 煥
民青慶北委員會	大邱府東城町 1丁目 23	金 東 瓚
民青大邱市委員會	동 상	李 完 求
革 志 會	大邱府元町 1丁目 16	鄭 享 模
民族革命黨道支部	大邱府南城町 73	金 鎮 濟
新民藝道委員會	大邱府德山町 31	金 正 圭
婦女同盟	大邱府本町 1丁目 51	李 春 壽
大邱市婦女同盟	동 상	禹 信 實
解放運動者救護會	大邱府元町 1丁目 17	蔡 忠 植
勞動組合大邱詳議會	大邱府錦町 1丁目 208	尹 章 赫
農民組合慶北道廳聯盟	大邱府元町 1丁目 16	張 何 薦

慶北道內 新聞社 現況

〈表 2-2〉

제 호	창간년월일	발행종별	발행주소	대표자
大邱時報	1945. 10. 11	일간	大邱府 東雲町 297	張仁煥
嶺南日報	1945. 10. 11	일간	大邱府 南町 15	金泳普
民聲日報	1945. 10. 15	일간	大邱府 本町 1丁目 47	
南鮮經濟	1946. 3. 1	일간	大邱府 大和町 74	
慶北新聞	1946. 4. 15	일간	大邱府 村上町 29	
南鮮民報	1946. 4	일간	大邱府 大和町 74	
婦女日報	1946. 3. 17	주2회	大邱府 元町1丁目	
民論	1946. 4. 1	격일간	大邱府 南龍岡町 13	鄭泰永
嶺南經濟	1946. 4. 15	주간	大邱府 南町 15	嶺南日報社
大邱新聞	1946. 3. 20	주간	大邱府 東雲町 241	崔榮浩
南鮮商工週報	1946. 3. 5	주간	大邱府 錦町1丁目 21	元相哲
產業時報	1946. 5. 1	주간	大邱府 元町1丁目	金鍾原
大邱프리스	1945. 11. 24	주간	大邱府 東城町2丁目 162	姜命榮
勞働者新聞	1945. 12. 20	순간	大邱府 元町丁1目 74	都必永
大衆新聞	1946. 4. 20	주간	大邱府 村上町 7	張時漢
時事新報	1946. 6. 10	주간	大邱府 東城町3丁目 12	金文운

악명높던 日帝의 출판법에 묶여 민족의 언론과 정론이 봉쇄당한 채 살아왔던 한반도의 지식인들은 서구식 언론자유를 비로소 맛보게 된 것이다. 1946년 5월말 현재 大邱 시내에는 16종의 신문이 발간되고 21종의 월간잡지가 간행되었다. 언론자유가 붓물처럼 터져나온 것이다. 그러나 5월 29일 군정청이 법령 제88호를 공포하면서 신문등 정기 간행물의 발간을 허가제로 전환하자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그후 용지 부족과 경영난이 심화되자 기존 출판물도 자진 폐간 등으로 그 종류가 줄어 들었다. 당시 慶北도 공보책임자는 이 같은 용지난을 들어 가치있는 신문 창간을 방해하지는 않을 의도이나 무분별한 大邱지역의 신문창간의 자속을 요망하기도 했다.

Ⅱ. 獨立促進運動과 政黨團體活動

解放과 더불어 실시된 美군정은 西歐式의 정치적 자유를 가져온 측면도 있었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政黨, 社會단체의 난립은 민족의 독립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위 38도선을 분기선으로 美·蘇가 점령한 韓半島는 민족내부의 정치적 분렬로 獨立이 더욱 혼미해 지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愛國, 愛族을 자처하는 각종 政黨과 社會團體들이 벌이고 있는 활동은 民族의 力量을 결집시키기보다 자기 파벌의 득세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일 때가 잦았던 것이다. 해방초기의 들뜬 분위기에서 시간이 갈수록 냉정을 되찾은 민중들은 이들 政黨과 團體의 분파적 행동에 회의와 염증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같은 비판적 시각에 각 政黨團體들도 반성의 태도를 갖기 시작했다. 각 政黨, 團體들은 민족의 自主, 獨立을 위해 단체의 통합과 행동의 통일이 절실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통합과 통일을 부르짖었지만 내면적으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거나, 심지어는 온갖 술책으로 배제하려 힘썼고 자기 입장을 합리화하려고 애썼던 것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주독립이란 대의명분 앞에 통일운동을 버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진 2-3〉 동양 여운형

1945년 10월들면서 서울에서 많은 政黨지도자들이 행동통일을 위한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한민당, 국민당, 공산당, 인민당의 전신인 建國同盟의 지도자들에 의해 政黨統一期成會를 조직, 국가 전체 이해관계 문제에 대해선 행동통일을 취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러한 중앙의 움직임에 자극받아 大邱에서도 이미 조직된 바 있는 대구유지 간담회가 주동이 되어 시내에 난립돼 있는 많은 정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해 10월 30日 國民統一會의 결성을 보게된 것이다. 자주 독립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해 大邱지역의 政黨, 團體들이 國民統一會를 구심점으로 行動統一을 기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이 때문에 國民統一會는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行動統一을 도출하기 위해 이 모임의 임원을 어느 단체에도 기울어져 있지 않는 중도인사 6명을 선임했던 것이다.

政黨, 단체의 行動統一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던중 같은해 10월 16日 귀국했던 李承晩을 중심으로 새로이 行動統一의 골간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 서울의 정당통일기성회는 李承晩의 귀국을 계기로 다시 政黨團體대표들과 회합을 여러차례 가진 끝에 광범한 行動統一의 방안을 李承晩에게 일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李承晩은 각 政黨, 團體로 부터 1명씩의 대표를 소집하여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25日에는 그 명칭을 獨立促成中央協議會라 정하여 李承晩영도하에 정식 발족을 보게 된 것이다.

중앙에서 政黨統一期成會가 獨立促成中央協議會로 개편 발족하자 大邱지역에서도 행동통일을 위해 조직된 國民統一會를 정당대표 연합방식의 독립촉진회 조직의 일원으로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그해 11월 1日 獨促中央協議會의원인 慶北 출신 李甲成, 金鍾泰등을 초청하여 중앙정세를 청취한 다음 조선독립촉진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大邱의

韓國民主黨, 국민당, 朝鮮共產黨, 조선인민당(결성준비위) 등 6개 정당 대표들이 11월 7日, 南山町 대구향교에 모여 李承晩이 주창한 통일정당노선을 만장일치로 가결, 朝鮮獨立慶北추진회를 결성했다. 朝鮮獨立慶北추진회는 행동강령으로 ①조선의 급속한 독립완수를 기함 ② 독립추진을 위하여 민족의 총단결을 도모함 ③생산을 장려하여 민중생활의 안정을 기함 ④계몽운동을 진작하여 민도 향상을 기함 ⑤일본제국주의 잔재의 일소를 기함 등 5개 항을 채택 언론을 통해 널리 홍보했다.

慶北추진회에 大邱의 좌익세력을 포함한 6개 정당이 참여했던 것은 하루 빨리 미군정이 물러가고 독립정부가 서야한다는 대전제에 동감한 때문이나 慶北도인민위원회는 李承晩에 대한 반감으로 공식적으로 불참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좌익단체와 인사들은 이 추진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간부진용은 보수정당소속의 우파일색으로 바뀌었고 이들은 시군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많은 우파단체들을 조직속으로 끌어들이는 활동을 전개했다. 11월 16日에는 기독교협회가 합류했고 그 달 28日엔 시내 일반사회단체대표 60여명을 회동 민족통일대표자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참여했던 사회단체는 유학생동맹, 학생동맹경북본부, 경북원호회, 영남체육회, 대구 불교청년회, 중등학교동창연합회, 영남민보단, 대구금융대책위원회, 경북기독교장로회, 경북 불교협회, 경북상공대책위원회, 경북토목건축협회, 대구의사회, 대구치과의사회, 대구주택대책위원회, 경북불교부인회 등이었다.

그해 11월 23日, 金九주석등 임시정부요인 15名이 귀국하자 大邱에서는 독립추진회와 공산당이 함께 이를 환영하는 기념대회를 가졌다. 이는 해방직후 金觀濟 중심의 慶北건준과 徐相日주도의 慶北치안유지회가 합하여 건국준비 경북치안유지회로 통합된 이래 慶北독립추진회가 부분적으로나마 좌우합작을 이룬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움직임속에서 자주독립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일시적으로 고조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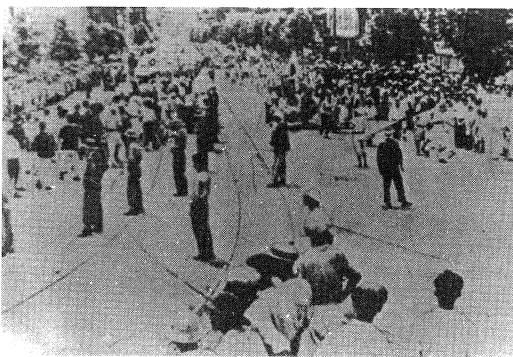
Ⅲ. 信託統治反對運動

1. 거족적 신탁통치반대

그러나 그같은 自主獨立의 기대는 1945年 12월 17日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소·영 연합국 외상회의 결과에 따라 失望으로 변하고 말았다. 전후처리 문제를 論議한 연합국 외상회의는 그달 24日과 28日 두차례에 걸쳐 決定한 事項을 온 世界에 發表한 가운데 韓國問題에 관해 향후 5개년간 미·영·소 중4개국(중4개국)이 공동후견으로 신탁통치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韓國문제에서 신탁통치결정외에 韓國의 완전독립때까지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것과 이 임시 정부수립방책을 결정하기 위해 당시 韓國에 주둔하고 있던 美·蘇 양군의 代表로 共同委員會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美·蘇 양군의 韓半島진주가 治安維持와 日本軍 무장해제를 위한 조치란 군정당국의 發表를 믿고 멀지않아 自主獨立이 될것으로 기대한 한국민들에겐 너무나 놀라운 사태였다. 「신탁통치는 조선민족에 대한 모욕이다」, 「죽음이나, 자유나, 兩者擇一뿐이다, 반대의 봉화아래 뭉쳐일어나야한다」는 지역신문들의 목소리는 신탁통치결정에 대한 비분강개였다. 피정복국민이 아닌 자유민으로서 한국민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손상케 하는 處事로 그때까지 美·蘇의 분단점령과 군정실시에 韓國國民의 意思를 묻지 않았던 데 대한 울분까지 한꺼번에 폭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신탁통치안에 대해 각 政黨, 團體들은 일제히 반대성명을 표명하고 외상회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28日 韓國임시정부 金九주석과 趙素昂 외무부장 명의의 신탁통치반대 선언문을 4개 연합국정부로 전송했고, 이튿날에는 서울에서 신탁통치반대 투쟁위원회가 조직되어 鬭爭方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뿐만아니라 조선 공산당과 중앙인민위원회에서도 함께 反對성명을 發表했고 全評勞組에서도 신탁통치는 勞動者의 사활문제와 직결된다는 이유로 결사반대를 선언했다. 거족적인 신탁통치반대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서울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大邱에서도 거의 때를 같이하여 각 政黨, 團體들이 일제



〈사진 2-4〉 신탁통치안으로 인한 민족분열

히 반대성명을 發表하고 결연히 鬭爭할 것을 다짐했다. 29日, 獨立慶北促進會는 會議를 열고 ①조선신탁통치안 절대 배격한다 ②삼천만 民族이 總結束하여 결사적으로 대항한다. ③그리하여 우리의 강토는 우리의 손으로 사수한다는 決意를 하고 이를 미군정당국과 중앙요로에 보냈다. 이어 촉진회회원 2백여명은 大邱 시내 중심가에서 시위를 벌이며 반탁전단을 뿌리기도 했다. 또한 같은날 좌파세력의

분산이라 할 수 있는 경북도인민위원회도 신탁통치반대를 위해 산하단체 대표자를 召集, 決意文을 採擇發表했다. 이날 결의에 참가 서명한 團體는 慶北道 인민위를 비롯 大邱市 인민위, 달성군인민위, 농민조합경북도연맹, 조선노동조합대구평의회, 조선청년동맹경북도연맹, 대구여자청년동맹등 7개단체였고 決意文 內容은 다음과 같다.

모스크바 27日 AP합동통신에 의하면 3국외상회의에서 決定하였다고 전하는 報道가 發表되

었다. 즉 朝鮮은 미·영·소 중의 4개국에 의하여 5개년이란 기한을 두고 朝鮮이 獨立될 힘을 가질 때까지 信託統治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서 발표했던 조선 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朝鮮을 自主獨立시킨다는 約束에 違背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美·蘇양군이 朝鮮에 진주하는 것은 日本軍의 무장해제와 치안유지에만 그 使命이 있다는 約束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弱小民族을 노예상태에서 解放시키려는 연합국의 使命을 망각한것이며 朝鮮民族의 政治的 能力을 무시한 처사다. 이것은 朝鮮民族의 정치능력을 정당히 평가하지 못한 소치다. 우리 民族은 5천년의 獨立國家로서의 歷史를 가졌고 과거 36년간의 日本帝國의 살인적 탄압아래 가장 과감한 鬭爭을 계속하여 왔고 우리民族의 政治的 文化的 수준이 東洋의 어떠한 獨立民族보다 우월하다는 것과 8·15 이후 우리民族의 政治的 能力이 여실히 國際舞臺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民族의 빛나는 歷史와 政治 能力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信託統治案을 절대 반대함을 表明하는 바이다.

이 내용은 비록 特定團體의 決意文이긴하나 韓國人 일반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信託統治의 반대는 이같이 좌우정파에 관계없이 하나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래서 12月 30日 저녁에 大邱 시내 76개 단체가 大邱公회당 지하층에 긴급회동, 조선신탁관리반대 共同鬭爭委員會란 이름의 共同鬭爭組織을 결성기로 하고 「우리는 自主獨立을 위하여 信託管理反對鬭爭을 끝까지 敢行할것」을 決意했다. 반탁투위는 사무실을 중앙통의 대구금융조합(현 대우증권대구 지점) 2층에 두기로하고 31日 하루동안 유흥업소의 휴업종용, 1月 1日엔 공회당에서 반탁강연회를 열고 2日 오후엔 大邱역전에서 반탁시위대회를 가지는 한편 3日엔 시내 각 機關이 總罷業을 하기로 強度 높은 決意를 하는 등 鬭爭活動을 強化시켜나갔다. 이같은 決意에 따라 大邱市街地는 46年 1月 1일부터 근심에 잠긴 조용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 태극기만 찬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그러다 1月 3日 오후 1시 신탁통치배격 시민대회가 개최되자 이날 아침부터 大邱 시내 1백여 政黨·團體 代表들과 市民·學生 수만명이 태극기와 플래카드를 들고 역전광장에 모여들었다. 대회는 애국가 제창에 이어 특위 대표위원인 崔成煥의 개회사와 선언문, 결의문 낭독이 있던 다음 오후 2시부터 시가행진을 벌였다. 반탁결의로 상기된 市民들은 反託을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는 단호한 決意와 意氣를 감격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에 앞서 大邱 시내 곳곳에선 벌써부터 산발적인 반탁실천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간부들을 포함한 慶北道廳과 달성군청직원들은 31日 각기 모임을 갖고 신탁통치가 실현되면 총사직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했다. 大邱 이재민동맹과 경북불교협회에선 분격을 금치 못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慶北기독교협회는 한결 강도 높은 反託實踐을 위해 3日間 단식기도회를 가

졌다. 1日 오전 6시부터 南城町 제일예배당을 비롯한 대구 시내 8개 교회가 비장한 단식기도에 同參한 것이다.

1月 3일부터는 大邱 시내 각 언론사에 투쟁기금이 모여들었고 반탁운동의 열기는 일부 청년 조직들이 경찰주재소를 습격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으나 관련 조직에서는 반탁을 이유로 파괴적 행동을 자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1月 5일에는 慶北教育協會 주최로 반탁교육자대회를 개최하여 교육계도 결사투쟁을 선언하고 나섰고 12일에는 중앙의 반탁국민총동원회의 特派員으로 李在晩의 7명이 大邱에 와서 도내 각 지방에 반탁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協議한 후 大邱의 인사들과 함께 5대(隊)의 조직으로 편성 慶北일원에 나갔다. 15일에는 2차로 大邱역광장에서 신탁통치 반대국민대회를 개최하였고 대회에 이어 사가행진을 벌이며 自主獨立과 신탁반대를 고창했다.

2. 탁치지지와 좌우분열

전국적인 信託統治反對運動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외상회의의 결의에 따라 서울에서는 美·蘇 共同委員會가 개최될 무렵 범국민적 自覺에 따른 自主的 과도정부수립을 위한 非常政治國民會議가 대동되고 있었다. 이것은 그동안 반탁으로 결집된 國內政治勢力間의 統一戰線의인 효과에 힘입은 것으로 李承晩중심의 중앙협의회와 金九 중심의 임시정부계통, 그리고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간의 상호갈등과 마찰을 지양하고 民族統一戰線을 형성하려는 것이었다. 臨時政府系가 주동이 된 것이었다. 한민당, 국민당, 인민당, 공산당의 4개 政黨代表會議를 통해 民族戰線統一과 과도정부의 自主的 수립이라는 두가지 課題를 논의하고 구체적 결론을 얻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과제가 논의되는 과정인 1946年 정초, 좌익계에서 갑자기 태도를 변경하여 연합국의 신탁통치안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옴으로써 民族陣營과 좌익계의 統一戰線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그때까지 잠재해 있던 양진영의 대립이 또 다시 표면화하기 시작했다. 우익진영과 民族陣營은 갑자기 탁치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꾼 좌익계를 民族을 배신했다고 공격했고 공산당등 좌익계에선 신탁지지를 하게된 데 대한 변명과 합리화를 하기에 바빴다.

결국 비상정치회의는 우익과 民族陣營 인사들만으로 추진되어 그해 2월 1일 서울 천주교회강당에서 政黨團體代表 및 각 地方代表 등 195명이 참석하여 組織 강령을 채택하는 한편 議長, 副議長 등 執行部를 선임했다. 그리고 2월 3일에는 최고정무위원회 의원 28명을 선출했다. 이 최고정무위원회는 2월 14일 미군정청 공식 자문기관이 되어 이른바 民主議院이라 했다.

한편 좌익계열에서는 信託統治支持의 표명으로 民族陣營 등으로부터 배신의 낙인이 찍히고

4개 政黨會議에서 이탈되자 곧 좌익계열은 독자적으로 統一戰線을 추진하였다. 그해 1월 19일, 서울 寬勳洞 실업동맹회관에서 인민당과 공산당 공동주최로 29개단체 대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民主主義 民族戰線 結成準備委를 구성하고 2월15일에 서울 종로 기독교 회관에서 약 600명의 代議員이 참가하여 執行部와 議決機關 등의 任員을 選任했다. 呂運亨, 朴憲永, 許憲 金元鳳, 白南雲을 의장단으로 한 民族戰線中央協議會를 조직한 것이다.

이렇게 獨促中央協議會와 임시정부를 주축으로 하는 우익민족진영과 이른바 民主主義 民族戰線을 결성한 좌익진영이 각각 타치문제를 둘러싼 政治路線을 다르게 표명하면서 대립상태에 들어가자 지방 정가도 새로운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大邱의 좌익계 단체는 중앙의 지령에 의해서 信託統治支持態度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은 곧 신탁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우익계와의 결별을 의미할뿐더러 共同鬭爭委員會를 構成하여 열열히 信託反對運動을 전개했던 처지로서는 매우 난처한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좌익계는 처음에는 입장표명을 주저하다가 결국 중앙의 지시에 따르면서 聯合國외상회의 결정사항을 단지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부자연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뿐만 아니라 信託은 반대하지만 後見은 지지한다는 이전까지 내세우지 않았던 논리로 聯合國외상회의 결정을 받아 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좌우파가 합작으로 만들었던 타치반대 공동투쟁위원회를 어떻게 끌어가느냐가 문제였다.

반탁공동투위는 1월 17일 공회당에서 常任委員會를 열어 신탁(후견)만은 우선 반대한다는 애매한 의견의 일치를 보고 행동을 같이 하기로 했으나 20일의 확대간부회의에서 좌우파는 갈라서고 말았다. 처음 常任委員會에선 ①삼상회의 결정문제 ②민족통일전선문제 ③앞으로의 반탁문제 ④반탁국민총동원위 慶北本部問題 등을 둘러싸고 장시간 論難를 벌였으나 그중 삼상회의 결정에 대한 반대 성명만 美蘇공위에 보내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1월 20일, 조양회관에서 열린 투위의 확대 간부회의에서 촉진회측이 統一戰線을 가속화 시키기위해 제시한 3개항이 부결됨으로써 투위탈퇴를 宣言, 會議는 결렬되고 만 것이다. 제의한 내용은 첫째, 나아갈 노선을 명확히 할 것. 둘째, 반탁을 반대하는 단체에 항의문을 보낼 것. 셋째, 대표를 中央에 파견하여 통일노력을 강조할 것과 아울러 투위의 노선이 朝鮮獨立運動의 상징인 임정산하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족 당시 좌익 산하단체가 대거 參與한 투위가 이를 부결 시킨 것은 피할 수 가 없는 결과였고 이에따라 촉진회 측은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변질된 투위에 머물 수 없음을 밝혔던 것이다. 한편 촉진회측이 되장한 가운데 계속된 회의는 그 자리에서 투위해산을 정식결의하고 반탁 공동투위의 좌파조직을 새로운 조직으로 탄생시키면서 民主主義民族戰線大邱市委員會로 명명키로 했다. 이때부터 大邱 地域에는 좌우의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됐던 것이다.

우익계에서는 2월 8일 서울에서 臨時政府系가 주동이 되어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던 탁치반대국민총동원회와 이승만 중심의 조선독립 促成中央協議會는 무조건 합작을 단행하여 새로 大韓獨立促成國民會가 발족했다. 이같은 中央의 움직임에 따라 3월 4일과 9일 두차례에 걸쳐 大邱에서도 朝鮮獨立慶北促成會와 탁치반대 國民總動員慶北委員會가 會합을 갖고 이 두 組織의 발전적 해산을 결의하고 大韓獨立促進慶北國民會를 새로이 발족시키기로 했다. 그 결의대로 3월 17일 大邱市內朝陽會館에서 산하 정당단체대표와 町 洞 대표 2명이 참석해 獨立促進國民會를 결성했다. 반면 좌익계의 민족전선 결성준비 委員會서는 민전 大邱示威委員會 발족에 이어 3월 5일에는 각 市郡 대표 300여명이 大邱 공회당에 모여, 慶北道委員會를 결성했다.

좌우익진영은 이같이 조직을 재정비, 확대 강화하는 한편 1월16일부터 열리고 있던 美 蘇 공동위원회에 대해 탁치반대 혹은 지지성명을 보내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과격한 정면대결을 벌이지 않은것은 제1차 美蘇共同委員會의 성과를 지켜보기 위한 태도를 가진데다 당시 미군 정청이 美 蘇共同委員會가 개최되는 동안 집회를 금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3월 들면서 좌우 양진영은 서로의 주장을 관철 시키기 위해 대규모 市民大會의 준비와 시위를 계획한바 있어 긴장상태는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던중 5월 6일 美 蘇共委가 臨時政府組織에 대한 참여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끝내 결렬되고 말자 이를 둘러싼 좌우익의 움직임은 행동화하기 시작했다.

15일 오후 大邱驛 廣場에선 獨立促成慶北國民會, 경북기독교협회, 천주교협회, 불교협회, 대한독립촉성 경북청년연맹 등 우익진영의 단체가 당초 38선 철폐 국민대회란 집회를 독립쟁취 경북국민대회로 이름을 바꾸어 성대히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①우리는 반동파괴주의자들에의한 美蘇會談의 무기휴회의 책임을 규명하며 국제여론의 심판을 구함 ②우리 손으로 자주 政府의 자율적 수립을 촉진하여 민의의 귀일을 기함 ③우리는 민족통일의 암인 38선 장벽의 철폐를 목표로 국민등 국민동원의 실적을 기함 ④반역의 망동을 일소하여 민족기강의 숙청을 도함 ⑤우리의 자주독립을 부인하는 신탁통치를 삼천만의 총의로써 한사코 배척함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같은 우익진영의 집회를 노골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인 大邱의 좌익진영은 대회당일 기자회견으로 이날 집회를 공격하고 5월 26일 민전위원회주최로 같은 驛廣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렇게 민족전선산하 각 단체대표들과 일부 市民들이 모여 美·蘇 공위속계촉진 市民大會를 개최, 우익의 공세에 맞불을 놓았던 것이다.

3. 좌우의합작운동

46년 6월부터 美·蘇 공위가 장기휴회에 들어가자 集會와 성명으로 힘 겨루기를 해오던 大邱地域의 좌우의 진영은 다시 화합의 기운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呂運亨의 좌파중도계와 金奎植의 우파중도계가 중심이 되어 대내적으로 民主共和制, 대외적으로 선린우호의 체제를 전제로 좌우합작회의가 열리는데 대해 지방정가에서도 찬동하고 기대를 가지는 분위기가 확산된데 자극받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양식기근으로 아사자가 늘고 콜레라의 창궐로 병사자가 급증함으로써 政治圈이 모두 힘을 합쳐 대처해야 한다는 위기감도 감돌았던 것이다. 이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慶北軍政廳公報課長 단칸 소령의 주선에 따라 6월 28일, 한국민주당, 조선공산당, 한국독립당, 인민당 등 大邱의 주요 4개 정당들이 경북도 공보과에서 첫모임을 갖고 좌우합작을 성공 시켰던 것이다. 이들은 각 정당에서 5명씩의 대표로 구성되는 大邱共同委員會란 명칭의 좌우합동 상설기구를 발족시켰다. 한때나마 당시 전국에서 볼 수 없었던 좌우의 합작이 大邱에서 실현됐던 것이다. 이 共同委員會에 대해 慶北道當局은 정치적 색채를 띄지않는 행정시책의 기획에 참여 한다는 것과 좌우 합작의 실증을 보여서 전국민을 이러한 방향으로 고취시키는데 있다고 했다. 7월 2일 道公報課에서 첫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①테로행위 방지책 ②미국 독립축하 기념행사문제 ③전문위원회 구성문제 ④방역대책 ⑤부담금 문제 ⑥식량대책등 광범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그후에도 여러차례 회의를 갖고 당면한 주요시책에 관해 논의하고 道政에 반영 시키기위해 노력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좌우합작의 정치회담이 계속되고 있었다. 7월 20일에 좌익진영에서 먼저 합작의 조건으로 5원칙을 내세운 대해 우익진영에선 이를 거부하고 합작의 8원칙을 제시했다. 이렇게 합작이 타결되지 못한채 대립이 계속되는 동안 大邱에는 몇개의 정당이 진출했다. 5월 15일, 시내만경관에서 任永信계의 여자국민당경북지부가 결성 되었고 6월25일에는 金元鳳이 주도하는 민족혁명당경북지부가 결성됐다. 7월 2일에는 呂運亨계의 社會民主黨大邱支部가 발족했고 7월 6일에는 獨立同盟의 후신인 남조선 신민당경북지부 결성 준비위가 구성되기도 했다.

8월에 접어들면서 각 정파들은 8·15 첫돌 기념 행사준비를 시작했고 좌우의 간부들은 미군정측의 중재와 여론에 따라 大邱 공위를 중심으로 공동개최에 합의했다.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8·15 해방 1주년기념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어 8월 8일에는 大邱 달성공원에 위치한 일제시대의 유물인 도리이(鳥居)와 신사(神社)내부를 철거, 기념행사에 대비한 첫 작업을 마무리했다. 8월 15일에는 전국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좌우의 團體와 각계가 한덩어리가 되어 驛

廣場에서 기념행사를 가지고 다음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① 전인류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약소민족의 해방과 세계평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는 연합국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② 8·15 해방의 감격과 환희로서 분열의 장벽을 철폐하고 민족의 완전통일을 기하여 民主主義 國家建設에 매진한다. ③ 완전자주 독립은 조선민족에게 부과된 지상명령이니 사대사상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서 이의 급속한 實現을 기한다. 기념식이 끝나고 참석했던 市民들은 1년전 解放의 감격을 되새기며 시가행진을 벌였고 大明洞을 행진하던 일부 시위대는 일제시대의 유물인 구 忠魂塔을 철거, 감격의 환성과 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8·15 기념행사가 끝난뒤 大邱의 좌우정당들은 행사과정의 정치선전 시비로 기념행사 전보다 더한 대결상황으로 뒷걸음질쳤다. 大邱 공위가 유야무야 하게되고만 것이다.

Ⅳ. 10·1 暴動事件

이같은 좌우익 대결속에 1946년 대구에서 발생했던 10·1사건은 해방정국 가운데 우리 민족이 獨立과 建國을 주체적으로 담당하지 못했던데서 빚어진 가장 참혹한 동족 살륙의 비극적 사건의 하나였다. 당시 한반도 전체를 진동시킨 피비린내 나는 이 사건은 한마디로 解放直後 발생한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 혼란과 무질서가 극도에 달한 상태에서 일부 극렬 좌익의 자극으로 폭발한 것이다.

2차대전이 日本의 패망으로 끝나고 우리민족의 獨立政府가 수립되지 못한 채 점령군에 의해 國土가 분단되고 그들에 의한 군정이 시



〈사진 2-5〉

10·1 대구폭동

작되면서 많은 政治的 社會적 문제가 파생되기 시작했다. 정치적으로 자주독립 노선과 信託問題를 둘러싼 민족의 분열, 군정의 행정조직과 경찰내부에 남아있던 친일 관료들의 여전한 군림과 횡포 등으로 국민의 긴장감과 불만이 팽배 했던 것이다. 經濟的으로는 日帝의 資本, 技術 철수에 따른 생산부진과 그들이 조장해 둔 악성 인플레이션에 의한 물가 앙등, 극심한 식량난 등으로 國民生活이 도탄에 빠지게 된 것이다. 특히 大邱地方은 해방직후부터 전국에서 가장 심한 식량기근을 겪으면서 호남지방으로부터 식량을 사들이기 위해 온갖 고초와 말썽을

빚기도 했다. 그래서 大邱地域에는 식량기근으로 굶어죽는 사람이 생겨났고 굶기야는 46년 7월 大邱市民들의 식량소요가 발생해 社會不安이 조성되고 있었다. 거기다 미군정의 식량행정 미숙으로 市民들과 行政當局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었다.

뿐만아니라 7월 들어서는 콜레라가 창궐하기 시작, 분지에 위치한 大邱에서 전국 제1의 발병율을 기록 수백명의 병사자가 발생해, 식량난으로 인한 아사자에 겹쳐 사회불안이 극도로 팽배했다. 이러한 사회상을 배경으로 좌우익 합작의 결렬에 따른 세력다툼이 심화되면서 일부 극렬한 좌익세력들이 선량한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들을 선동해 폭도로 변하게 한 것이었다.

1. 남조선총파업

10·1 사건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사건발생 1주일 앞두고 남한 일대에 일어난 주요 지역의 파업사태였다. 全評이 남조선 총파업 투쟁위원회란 이름아래 美軍政 운수부 현 교통부 산하 전국 4만여 철도 노동자를 앞세우고 총파업에 돌입한 것이 大邱에서 유혈 소요를 몰고 온 것이다. 당초 全評의 파업 돌입계획은 46년 9월 24일부터 일제히 단행하려던 것이었으나 釜山 철도기관구가 하루 앞선 23일 0시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7천여명의 부산철도 노동자들은 전국 철도노조가 이미 9월 15일 미군정청 운수부장 앞으로 낸 임금인상, 일급제반대등 6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부분적으로 태업해오다 해답이 없자 먼저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와 때맞춰 大邱 운수노조와 철도노조종업원 1천여명도 24일 대구철도 쟁의단을 조직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파업성명서를 통해 ①일급제반대 ②임금인상 ③쌀 4홉배급 ④해고반대 ⑤급식제 부활등의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당시 파업철도 노동자들의 평균월급은 쌀 1말값에 해당하는 약 1,400원에 불과했다. 이날 서울에서도 철도종업원들의 일제 파업이 시작됐고 서울쟁의단 본부는 대구 쟁의단에 격려전보를 보내 교섭결과 예견불능, 본쟁의부는 만단준비완료, 동무들의 건투를 빌고 최후까지 일사불란을 맹서하자 며 고무했다.

미군정청당국은 파업에 대해 군정청은 법적인 수속을 밟아 집단적으로 제출하는 요구에는 협의할 수 있으나 아무런 사전교섭과 요구도 없이 파업으로 들어간 이번 鐵道罷業은 不法으로 인정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철도쟁의단측은 제시했던 다섯가지 요구조건이 하나도 관철되지 않고 오히려 罷業이 불법으로 취급되자 이를 부당하게 여기며 당국을 성토, 더욱 강경한 자세로 돌아섰다.

특히 大邱에서는 鐵道勞動者들의 罷業이 24일부터 27일사이에 걸쳐 시내각종 業體와 機關

에 연쇄적인 동조파업을 몰고 왔다. 460명의 대구우편국 직원들이 26일부터 總罷業에 돌입한 것을 비롯 25개의 生産工場이 罷業을 단행했다. 뿐만아니라 좌익지인 민성일보와 중도지인 영남일보, 우익지인 대구시보, 경북신문, 경북인쇄소 등의 소속 노조원들조차 罷業을 벌여 30일자 이후엔 大邱에 新聞發行이 중단되고 유언비어가 난무하기 시작했다.

27일 경북도 당국은 鐵道와 郵便의 罷業에 당황한 나머지 노조간부들과 긴급협상을 벌였으나 협상의 주의제인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결렬되고 말았다. 이날 늦게 파업을 주도해 왔던 勞評幹部들은 大邱驛 앞에 위치하고 있던 노동평의회 본부사무실에서 남조선총파업 대구시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총파업대구시투쟁위원을 결었다. 總罷業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지나도록 당국과 노조간의 협상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한채 사태는 악화일로 치달았다.

2. 10·1 사건의 발생

鐵道勞組의 總罷業을 중심으로 각종 製造業體의 연쇄파업은 大邱 뿐만아니라 남한의 주요 도시에서도 잇따라 발생해 社會不安은 갈수록 깊어지고 민심은 흉흉해 지기만했다. 이를 틈타 각종 불순세력들이 암약하기 시작했고 사회혼란은 더욱 조장되고 있었다. 사태악화에 당황한 행정 당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파업사태를 힘으로 막으려 서둘렀다. 제5관구 경찰청 현 경북도경 당국은 勞動評議會의 幹部들과 대화를 통해 어떠한 시위행동이나 선동행동도 용인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勞動評議會 幹部들도 공안을 문란케하는 지나친 행동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勞動評議會 本部에는 각 勞組員들이 집결하여 농성시위가 계속됐고 大邱 거리에는 9월 29일부터 地方警察署에서 일부 警察들이 차출됐고 무장경찰대와 기마경찰대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들과 대치했다.

10월 1일, 權寧錫 5관구 警察廳長이 직접나서 勞動評議會 幹部들에게 사전허가도 얻지않고 罷業鬭爭委員會란 간판을 내거는 것은 불법이라며 간판철거를 종용했다. 그러나 勞評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고 警察과 勞評은 간판철거를 둘러싸고 대립했다. 그러다 이날 오후 5시경 警察은 그 간판을 강제 철거했다. 이 바람에 경찰과 노조측은 감정대립이 격화됐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수많은 남녀노조원들이 勞動評議會 본부로 집결되기 시작했다. 일부 市民學生들도 가세하여 모여 들었다.

오후 5시부터 어둠의 장막이 내린 오후 7시경 역전부근에는 警察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스런 사람의 물결로 붐비고 있었고 수천명의 공장종업원을 앞세운 시위 군중들은 驛廣場 入口에서부터 勞動評議會 본부에 이르는 대로에 줄지어 더러는 적기가를 부르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군중들의 과열 분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무장경찰관이 공포탄을 쏘면서 시위를 진압

하려 했던 것이 유혈사태로 번졌다. 어둠속에 총성에 놀란 군중들은 극도로 흥분한 나머지 勞動評議會 본부를 중심으로 한동안 아우성을 지르며 소용돌이쳤다. 밤이 깊어가면서 일반시민들은 흩어져 돌아가고 많은 노조원들은 계속 농성시위를 하는 가운데 날이 밝았다. 이날밤의 유혈사태가 이튿날 대폭발의 도화선이 되어 이른바 10·1폭동사건이라 불리워지게 된 것이다.

10월 2일, 날이 밝자 警察은 특수경비에 들어갔고 좌익간부들은 전날밤 警察의 시위군중에 대한 위협발사로 시민 1명이 사망했다는 미확인 소식에 좌익진영 전체회합을 소집, 전조직원을 동원 警察에 항의규탄과 책임을 추궁기로 했다. 아침부터 쏟아져나온 군중들은 시내 주요요소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전날밤 해산했던 노조원들도 驛廣場을 비롯 勞動評議會 본부와 제19구 경찰서 현 大邱警察署 주변에 집결했다. 여기에 大邱醫科大學生들이 신원을 알수없는 시체를 메고 시위에 나섰고 대구농대, 대구사범대, 남녀중고생들까지 시위에 가담하자 市民들도 합세해 제19구 경찰서앞에는 삼시간에 수만명이 운집했다.

오전 10시쯤, 역전 勞動評議會 본부 부근에는 전날과 비슷한 수천명의 파업노동자들이 몰려들어 전날보다 더 과격한 자세로 경찰과 대치했다. 9.9식장총으로 무장한 경찰관들은 이들을 제지하는 과정에 발포를 시작, 일부 시위군중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운반되는 등 희생자가 나게됐고 역앞의 군중들은 모두 해산됐던 것이다.

그러나 勞動評議會本部地域과는 달리 제19구 경찰서로 운집했던 학생, 시민들은 삼시간에 警察署를 포위했고 이들 군중사이에는 험악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때 시체시위를 벌였던 학생들은 모든 해결책을 학생에게 맡기고 일반군중들은 일체 간섭말 것을 요구하고 경찰측에 대해선 일단 무장해제를 요구했다. 이 요구조건이 성립되어 경찰측은 일단 무장을 해제했다. 무장해제를 하자 군중들은 삼시에 警察署로 밀고 들어가 서내의 주요기물을 마구 부수며 유치장을 파괴하고 죄수들을 탈주 시키는 한편 무기고도 부숴 버리고 총기류를 모두 빼앗는 등 警察署를 완전 점령했다.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쏟아져나온 일부 군중들은 이때부터 폭도로 화했다. 警察官들은 대부분 警察署 뒷담을 넘어 도주하고 일부는 좌익세력들의 불모의 신세가 되고 있었다. 폭도화한 군중들은 시내거리와 도처에서 警察官과 총격전을 벌였는가 하면 주요관청과 경찰관이나 행정요원, 우익계의 주요인사들의 가택을 습격, 약탈하고 온갖 폭력을 감행했다. 심지어 무자비한 살상도 서슴지않아 술한 인명피해를 가져왔고 그중에는 많은 경찰관의 희생을 빚었던 것이다.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大邱警察署와 達成警察署 현 대구남부경찰서 관내의 派出所 및 支署들의 상당수가 폭도들에 의해 점거당함으로서 大邱地域의 警察機能은 마비됐고 폭도들의 파

괴살상 행위는 더욱 심해졌다. 警察官의 시체가 뒹구는 거리에서 시민들은 충격과 당혹감에 빠져들었고 공공기관과 시중 은행은 모두 문을 닫았고 일반 상가도 일제히 철시했다.

치안 마비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던 미군당국은 2일 오후 들면서 보병선발대를 파견 위협정찰을 한데 이어 시위진압용 장갑차 4대를 투입 시위군중을 해산시켰다. 이날 오후 3시경에서야 좌익에 점령된 大邱警察署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오후 5시경에는 미군정이 포츠대구지구계엄사령관의 이름으로 계엄령을 포고하고 警察이 치안을 유지할 것과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오후 7시~익일 오전 6시까지 통행을 금지하며 화물자동차 등 제운수기관은 식량배급에만 허가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미군이 폭동진압에 나서자 警察은 다시 힘을 얻어 대열을 정비하고 시내 일원의 질서회복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아울러 그간 파괴살상행위를 저지른 폭도들과 폭동을 선동했다고 지목되던 노조간부 및 좌익계 요인들의 대거 檢舉에 들어갔다.

이같은 대구사태가 慶北道內 農村地域으로 전해지면서 미군의 힘이 직접 미치지 못한 농촌 지역에서는 농민조합, 民靑, 인민위원회, 부녀동맹 등 좌익계 조직의 선동으로 민중들의 폭동과 봉기가 계속 번져나가 警察官과 警察官署를 주된 대상으로 파괴 살상 행위가 자행했다.

3. 10·1 사건의 결과

이틀에 걸친 大邱에서의 소요폭동에 못지않게 영남일대의 각 지역에서도 폭동이 발생, 永川을 비롯 慶州, 迎日 등지에는 거의 무법천지를 이루었다. 10월 6일에는 경북군정관의 명의로 비상사태의 지역을 경북일원으로 확대 선포했으나 소요사태는 수그러 들지않고 지역적으로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계엄선포와 더불어 警察의 기능이 점차 강화정비되고 응원대의 활약이 증가되어 감으로써 폭동은 진압되어 갔고 질서도 점차 회복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에 난동주동자와 동조자들의 검거선봉이 일어나자 악에 복받혔던 일부 경찰대들과 우익 단체들이 보복적인 탄압과 폭행을 자행, 무고한 양민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당한 인사들도 속출했다.

이 때문에 10·1폭동으로 警察官과 官吏 및 家族 그리고 우익인사들은 폭도들에 의해 희생되거나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반대로 이 사건 뒤에는 난동분자들과 그 친지는 물론 난동지역의 주민들은 警察로부터 불순분자로 지목되어 탄압받는 비극을 연출했던 것이다. 후일 10·1 사건 대책위원회가 조사한 경북의 피해상황은 다음과 같다. <表 2-3>

〈表 2-3〉 10·1事件 調査 統計表 (1946.10.20現在)

地 域	區 分	사 망 자		부 상 자		건 물 전 소		건 물 파 괴	
		관 리	일반인	관 리	일반인	관 청	일 반	관 청	일 반
대 구	구 성	14	13	40	21	-	-	32	124
달 경	산 도	-	1	5	2	-	-	4	12
청 영	천 주	-	1	1	-	-	-	1	-
영 경	일 덕	36	28	22	27	4	6	8	79
영 경	송 성	-	-	7	19	-	-	4	126
청 의	송 성	-	8	2	2	-	-	4	9
의 군	위 주	-	2	2	-	-	-	-	5
군 영	화 경	-	-	3	5	-	-	-	2
영 봉	문 천	-	1	-	10	-	-	8	4
문 예	위 주	-	-	8	1	-	-	57	4
예 상	화 주	4	-	3	-	-	-	4	-
상 선	천 산	-	-	1	5	-	-	-	-
선 칠	주 곡	-	12	5	26	-	-	1	25
칠 성	주 령	1	-	-	1	-	-	17	99
고	주 령	-	-	23	-	-	-	-	-
합 계		8	7	7	9	-	-	29	25
		-	-	2	1	-	-	65	6
		-	-	1	-	-	-	5	5
		-	-	1	-	-	-	1	1
합 계		63	73	133	129	4	6	240	526

① 계엄하에 교통금지와 조사기관이 없는 관계로 누락된 것 많은 것으로 인정함.

② 물자 피해액은 영천군만 10억이상으로 판명함에 도내 피해액은 거대함.

③ 가구 의복 등을 탈취하여 간 것은 1천여호이며 현재 곤란을 당하는자 다수임.

④ 경찰관 및 일반인의 행방불명은 수백명이 추산됨.

⑤ 각 경찰관서의 무기를 다수 도난 당했음으로 안심할 수 없음.

10·1사건 대책위원

이 조사통계는 10·1 사건직후에 작성 되었기 때문에 도내 전반의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다고는 할수없다. 지역에 따라선 거의 조사가 행해지지 않았거나 혹은 미흡한 것이 많았다. 이 조사통계에서 보다 실제의 인적피해나 물적 손실은 더 컸다고 하겠다. 행방불명자가 수백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은 학살되었거나 혹은 도피한 자들이었다. 이 밖에도 이 사건으로 警察에 검거된 자는 총 3천7백여명이나 되었고, 그중에서 3백여명이 특별군정재판에 회부되어 사형 또는 유기형의 언도를 받아 처벌 되었다. 이 사건의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당시 좌익계의 일부 과열분자들의 조직적 선동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많은 부분들은 그 뒤에도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무지한 노동자, 어린학생, 순박한 농민들조차 여기에 합세함으로써 봉기적 성격을 보인것은 이미 앞서 지적한 바 대로 해방이후 누적돼 온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만, 불안등의 결과가 빚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第3節 過渡政府宣布

I. 立法議員選舉

미군정은 경향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정의 난맥상을 완화하고 美蘇共委의 유착이 장기화 됨에 따라 民政化 시책을 펴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즉 미군정 내에 한국인 대표로 구성되는 立法議院을 설치 할것을 결정한 것이다. 10·1사건이 발생 하기전 좌우합작문제의 논의와는 별도로 좌익쪽의 결속이 美·蘇 점령지역 양쪽에서 강화될 무렵인 1946년 8월 24일 군정 법령 제118호에 의하여 과도적으로 입법의원을 구성 한다는 것이다. 이 법령에 따라 미군정이 존속하는 기간동안까지 政治, 行政, 經濟, 社會改革의 基礎가 될 法令 및 政策案을 작성하여 군정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군정장관은 거부권을 가지게 했다. 立法議院의 정원은 90명으로하고 그중 45명은 민선으로 나머지 45명은 군정장관이 임명토록 했다.

이에따라 46년 9월에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내 입법의원인 道 및 區代表議員 선거에 관한 세칙을 발표 하였다. 도내선거구는 6개구로써 6명의 구대표와 1명의 도 대표를 선출, 총 7명의 입법의원을 뽑도록 했다.

선출방법은 먼저 유권자는 부락이나 동대표 2명을 선출하고 부락대표는 읍·면대표 2명을 선출하고 다시 읍·면대표는 군대표 2명을, 大邱의 洞 대표는 府 대표 4명을 각각 선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권은 23세이상의 남녀에게 주어졌고,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으로 하되 일제시대 고급관리를 지낸자, 道顧問이나 府顧問을 지낸자, 그리고 일제의 힘을 입어 악질적 민족반역행위를 한자 등은 피선거권자격에서 제외하였다. 投票의 방법은 기호 투표로 하되 직접, 보통, 비밀, 무기명투표 방법에 의하도록 했다. 우리민족사상 처음으로 실시하는 근대적 보통선거의 방식이었다.

1946년 10월 22일에 일차로 부락 선거부터 일제히 시작되었고 24일에는 大邱의 동대표 선거가 실시됐다. 26일에도 선출된 邑·面과 동대표에 의하여 각군 및 부대표가 선출되었다. 그리고 최종 도대표 구대표의 선거는 10월30일에 慶北道廳會議室에서 행해졌다. 그 선거상황은 다음 <表 2-4, 5, 6>과 같다.

이와같이 선출된 부대표 4명과 각 군대표 2명씩을 합친 총 50명의 부·군대표가 예정대로 30일 慶北道廳會議室에서 道代表 1명과 각 區代表 6명의 立法議員을 선출했다.

部落(정동) 代表選舉狀況

〈表 2-4〉

區 分	읍면수	유권자수	투표자수	유효표	무효표	기권자수	%
대 구	-	45,055	32,291	26,425	5,866	12,764	71
달 성	13	17,239	13,792	12,412	1,380	3,447	80
군 위	8	11,049	10,194	9,055	1,139	855	92
의 성	17	26,826	24,666	23,480	1,186	2,160	92
안 동	16	32,075	24,340	21,981	2,359	7,735	76
청 송	8	10,064	6,809	6,250	559	3,255	68
영 양	6	7,879	6,694	6,484	210	1,185	85
영 덕	9	9,962	8,568	8,391	177	1,354	86
영 일	15	36,363	27,326	23,968	3,358	9,037	75
경 주	13	37,585	27,170	23,568	3,602	10,415	72
영 천	11	24,826	22,935	20,415	2,520	1,891	92
경 산	11	18,578	17,488	16,100	1,388	1,090	94
청 도	9	16,394	15,254	14,754	500	1,140	93
고 령	8	10,378	10,236	8,957	1,279	142	98
성 주	10	15,846	11,508	11,202	306	4,338	75
칠 곡	9	15,068	12,766	11,741	1,025	2,302	84
김 천	16	27,611	22,171	21,040	1,131	5,440	80
선 산	9	15,214	12,274	10,679	1,595	2,940	80
상 주	18	34,504	29,873	29,406	467	4,631	87
문 경	10	18,180	15,499	14,501	998	2,681	85
예 천	12	21,396	20,220	10,730	3,490	1,176	94
영 주	11	18,411	17,261	16,761	500	1,150	93
봉 화	9	16,187	15,223	14,934	289	964	94
울 릉	3	2,321	2,035	1,954	81	286	87
계	251	488,971	406,593	371,188	35,405	82,378	83

邑·面 代表 選舉狀況

〈表 2-5〉

區 分	읍면수	부락대표자수	투표자수	유효표	무효표	기권수	%
대 구	-	-	-	-	-	-	-
달 성	13	546	546	-	-	-	100
군 위	8	336	335	334	1	1	99
의 성	17	818	815	814	1	3	98
안 동	16	687	675	675	-	12	98
청 송	8	294	288	287	1	6	97
영 양	6	222	219	219	-	3	98
영 덕	9	398	394	392	2	4	99
영 일	15	864	854	852	2	10	98
경 주	13	728	718	689	29	10	98
영 천	11	646	644	644	-	2	99
경 산	11	528	527	527	-	1	99

第2章 美軍政 時代

區 分	읍면수	부락대표자수	투표자수	유효표	무효표	기권수	%
청도	9	376	373	373	-	3	99
고령	8	178	178	178	-	-	100
성주	10	490	474	467	7	16	96
칠곡	9	330	328	327	1	2	99
김천	16	718	706	703	3	12	98
선산	9	396	392	390	2	4	99
상주	18	814	798	798	-	16	98
문경	10	474	469	469	-	5	98
예천	12	602	598	597	1	4	98
영주	11	484	482	482	-	2	99
봉화	9	372	367	367	-	5	99
울릉	3	52	52	52	-	-	100
계	251	11,353	11,232	11,182	50	121	99

〈表 2-6〉 府郡代表 選舉狀況

區 分	읍·면·수	동·읍·면대표자수	투표자수	유효표	무효표	기권수	%
대구	-	356	351	348	3	5	98.5
달성	13	26	26	26	-	-	100
군위	8	16	16	16	-	-	100
의성	17	34	34	34	-	-	100
안동	16	32	32	32	-	-	100
청송	8	16	16	16	-	-	100
영양	6	12	12	12	-	-	100
영덕	9	18	18	18	-	-	100
영일	15	30	30	30	-	-	100
경주	13	26	26	26	-	-	100
영천	11	22	22	22	-	-	100
경산	11	22	22	22	-	-	100
청도	9	18	18	18	-	-	100
고령	8	16	16	16	-	-	100
성주	10	20	20	20	-	-	100
칠곡	9	18	18	18	-	-	100
김천	16	32	32	32	-	-	100
선산	9	18	17	17	-	1	94.4
상주	18	36	36	36	-	-	100
문경	10	20	20	20	-	-	100
예천	12	24	24	24	-	-	100
영주	11	22	22	22	-	-	100
봉화	9	18	18	18	-	-	100
울릉	3	6	6	6	-	-	100
계	251	858	852	849	3	6	99.3

투표결과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도대표: 서상일(한민당) 17표

제1구(대구, 달성, 경산, 고령) 대표: 윤홍열(무소속) 4표

제2구(경주, 청도, 영일, 울릉도) 대표: 이일우(독촉 국민회) 4표

제3구(청송, 영덕, 영양, 안동) 대표: 김광현(독촉 국민회) 4표

제4구(봉화, 영주, 예천, 문경) 대표: 김용모(무소속) 2표

제5구(상주, 김천, 성주, 선산) 대표: 강익형(무소속) 3표

제6구(의성, 칠곡, 군위, 영천) 대표: 이활(한민당) 4표

당시 일반대중은 민주주의 선거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경향이 었다. 統計에 나타난 선거상황에 따르면 투표율이 높아 유권자의 선거 참여의식이 매우 열렬한 것처럼 나타나고 있으나 사실상 많은 유권자들은 부락지도자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지도하는데 따라서 참여하는 형식을 취한 데 불과했다.

주권 행사라든지 민주적 참여라는 인식이 대중화 되거나 일반화 되지 못한 채 갑자기 행해진 選舉였기 때문에 결코 주체적 능동적 참여라 보기는 어렵다.

전국의 민선입법의원 선거가 끝나고 이어서 군정청은 많은 물의를 일으키면서 관선입법의원 45명을 임명했다. 그리하여 1946년 12월 12일에 立法議院 개원식을 거행했다. 이 입법원의 성립으로 그 이듬해 2월~3월에 걸쳐 행해졌던 行政權의 민정화 시책과 더불어 한국민이 미군정의 통치에 적극참여 한다는 형식체제가 갖추어졌다.

뿐만아니라 입법의원인 발족한지 1개월후에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목적으로 법령제126호를 公布, 道 및 지방의 주요관리와 지방의회의원등을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군정하의 지방자치제는 끝내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1947년 6월3일에는 법령 제14호로써 미군정청을 “남조선과도정부”라고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래서 적어도 형식적으론 미군정기간이 45년 9월 19일 미군정청 설치가 선포 되면서부터 47년 6월 3일까지 1년8개월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상으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미군정 기간이 계속된 것이다.

Ⅱ. 過政宣布와 政黨活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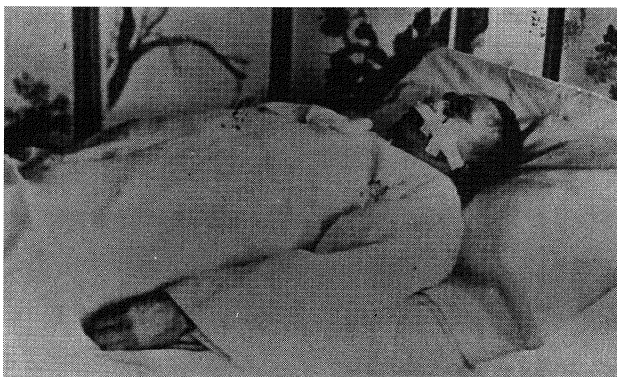
10·1사건이 발생하기 4개월 전부터 좌우합작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됨으로써 일반국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걸고 주목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8월 들면서 北韓에서 共產黨과 新民黨이 합

당하여 北朝鮮勞動黨을 조직했고 이와 아울러 南韓에서도 인민당, 공산당, 신민당의 합당문제가 제기돼 교섭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같이 좌익 3黨의 합당기운이 성숙하자 慶北 지방에서는 남한일대에서 파업 사태가 벌어질 무렵인 9월 27일, 중앙에 앞질러 3黨을 합쳐 南朝鮮 勞動黨 大邱市黨部로 발족했다. 중앙에서 합당이 늦은 이유는 좌익정당 내부의 복잡한 분파와 朴憲永의 체포령, 그리고 呂運亨의 좌우익 합작운동에 따른 정세관망등 때문이었다.

좌우합작위원회는 10·1 사건직후 합작7원칙을 제시하여 좌우양진영으로부터 어느정도 호응을 얻었으나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8월 하순에 발표했던 입법의원구성에 대해 좌익진영은 군정을 지연시키고 민의를 정당하게 반영시킬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으나 10월하순 立法議員選舉가 실시되었을 때 여러가지 조건의 불리함을 내세워 지역구선거에 불참했다. 그러나 군정청은 관선의원을 임명하면서 좌익불참에 따른 問題點을 의식 좌경중도 세력들을 대거 선입했다. 이에 대해 우익들의 비난이 거셌으나 결국 立法議員은 중도계가 지배하게됐다. 하지만 좌익에 대한 탄압과 더불어 韓民黨이 주도적 세력이 되고 말았다.

한편 그동안 합당을 추진해오던 좌익계 3黨은 11월 24日 합당을 이루어 南勞黨으로 改編하였다. 이는 좌우합작과는 상반된 움직임으로 좌익세력의 결속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무렵 大邱地方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정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9月26日 民族統一總本部가 대구에서 발족했고 11월 17日에는 앞서 2월에 결성됐던 독촉청년연맹의 일부인사들이 주축이되어 獨立勞動黨을 결성했다. 그리고 한민당 경북도지부가 정식으로 결성되었다. 47年 1월에 접어들자 民族靑年團 결성준비위원회가 조직되어 정식발족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47年 2월들면서 결렬되었던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개최된다는 소문과 함께 각 정당단체들은 해방후 두번째 맞는 3·1절 기념행사준비를 서둘렀다.



〈사진 2-6〉 현역육군소위 안두희에게
저격당한 직후의 백범 김구선생(1949. 6. 26)

민족진영에서는 독촉국민회를 중심으로 기미독립선언 기념식준비위원회를 構成하여 거도적 행사를 준비 3月 1日 당일 대구공회당에서 성대하게 치루게 되었다. 한편 10·1 사건후 지하로 잠적했던 大邱地方의 좌익세력은 3·1절을 앞두고 다시 표면에 나타나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民戰을 중심으로 3·1절 기념 3相 결정 실천 시민대회라는

名稱으로 우익진영과는 별도로 대구달성공원에서 大會를 가졌다. 이날 좌우익이 크게 충돌할 것이란 예측이 시민들간에 나돌았으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Ⅲ. 美·蘇共委의 決裂

그동안 무기 휴회에 들어갔던 미소공동위원회가 47年 5月 20일부터 역시 서울 덕수궁에서 재개됐다. 그러나 회의 벽두부터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정당단체의 협의 대상범위 결정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돼 결론을 얻지 못한채 난관에 부딪혔다. 蘇聯側 代表는 탁치반대투쟁위원회는 3상회의 결정에 반하는 단체인데도 美國이 이를 방치하고 있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美國側은 美蘇共同委員會는 원칙적으로 내정에 간섭할 수 없음을 들어 맞섰다.

제2차 美蘇共同委員會가 회의를 계속하는 동안인 6월 23일부터 서울에서 반탁시위가 재개되었고 大邱에서도 6월30일 독촉국민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탁시민대회를 열어 시위를 벌였다. 이때 경찰은 市街地에서 벌이고 있는 시위대열을 강제 해산시켰다. 그러나 7월 10일부터는 시위가 다시 허용되었고 우익진영은 탁치반대시위를 재개했다. 이에 맞서 좌익진영은 7월 27일에 美蘇共同委員會 속개 축하 및 臨時政府樹立促進市民大會를 달성공원에서 개최, 신탁지시시민운동을 전개했다. 慶北도 民戰산하의 좌익계단체가 총출동하다 싶이 많이 참가하였고 일부시민이 합세하여 모스크바 외상회의의 결정을 따를것과 美蘇共同委員會의 會談成功을 외쳤다. 그러나 大邱에서의 좌익계 공식 대규모 집회는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제2차 美蘇共同委員會의 會談이 결국 실패하자, 9월 17일 미국무장관은 韓半島의 독립문제를 유엔총회에 회부할 것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정식으로 제의했다. 이에대해 소련외상은 정면으로 반대했다. 결국 유엔에서 한국문제를 심의할 것을 41대 6으로 가결했다. 이때부터 韓半島의 정세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급속도로 변동해갔다. 이 무렵부터 大邱지역에서는 민족 우익진영에 속하는 정당들이 자체정비강화를 서둘렀고 지역의 지부 세력 확장을 추진했다. 10월 4일 韓民黨慶北支部는 위원회조직으로 기구를 개편하여 임원도 대폭강화하고 지방군지부의 세력확장에 박차를 가했다. 10월 8일에 새로이 大同青年團경북도단부가 결성되고 민족청년단도 기구를 확대시켜 조직강화에 나섰다. 이와같이 민족, 우익진영에서는 그 세력을 강화 확대시키려나간 반면 좌익진영은 점차 그 기세가 약화돼 갔다. 47년 11월에는 과격한 파괴활동을 하는 좌익분자에 대한 검거선풍이 慶北일원에 불고 있었다.

第3章 第1共和國時代

第1節 大韓民國政府樹立

I. 總選舉까지의 政治動向

左右合作運動과 美蘇共同委員會의 회담 실패는 결국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시켰다. 유엔은 자주독립을 갈망하는 대다수 한국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1947년 11월 14일 유엔한국위원단을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어 1948년 1월 8일에는 유엔한국위원단이 서울에 와서 이튿날 성명을 내고 한국의 民族代表와 협의를 거쳐 韓國人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함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자주독립국가의 수립방법을 첫째, 그해 3월말까지 총선거를 실시하며 둘째, 총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의 정부를 구성하며 셋째, 그 국민정부는 유엔한국위원단과 협의하여 군정 당국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유엔한국위원단의 이 같은 성명이 나온 후 국내 정치세력들은 양분되었다. 즉, 民族陣營에서는 이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위원단의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나, 左翼陣營에서는 위원단의 활동을 저지하려는 온갖 방해 공작을 하였다.

당시 大邱의 정당단체들은 크게 보아서 세 갈래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右翼陣營에서는 빠른 시일내 총선거를 거쳐 단독 정부라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반대로 민족전선 산하 左翼陣營에서는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左右中道陣營에서는 좌우협상으로 민족이 통일된 자주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원칙 밑에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었다.

이무렵 大邱에서는 민주독립당 大邱당부 창당준비위원회, 韓獨黨, 勤勞人民黨, 獨勞黨 등의 대표가 주동이 되어 韓民黨과 공산당계열을 제외한 각종 단체대표들로서 統一促成委員會를 구성하고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일련의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러나 유엔한국위원단이 38이북으로 발을 들여 놓는 것조차 거부했던 共產陣營에서는 1948년 2월에 들어서면서 이 委員團의 활동을 저지하고 자주정부수립을 파괴할 목적으로 남한일대에 소동을 일으켰다. 이러한 좌익진영에 의한 난동사건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우익진영에서는 미군정의 시책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조속히 자주정부를 수립할 것을 유엔 한국위원단에 요구하고 나섰다.

그해 2월 17일 유엔에서는 총회를 소집하여 동 위원단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總選舉를 실시하여 독립정부를 세우기로 가결하였다.

총선거가 5월로 정해지고 유엔 한국위원단의 선거에 대한 준비가 진척되자 大邱·慶北지방의 정당단체들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먼저 獨促國民會에서는 3월 10일에 각 단체 대표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총선거에 입후보할 후보들의 인선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선거에 대비하여 대열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즉 동 국민회 내부에서 혼전·난립을 막고 보다 많은 대표를 의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기구로서 자체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韓民黨에서도 선거에 대비하여 당세 확장과 아울러 선거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예상되는 후보난립을 조정하여 단일 입후보자를 내보내기 위한 작업을 서둘렀다. 그리고 내세울 정책으로서 남북통일, 토지개혁, 공출제도 없는 식량정책, 자본가와 노동자의 기업공영제, 통화 및 물가안정, 실업자 구제 등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韓獨黨은 중앙당 영도자였던 金九의 남북협상노선에 따라서 單獨政府 樹立을 반대하면서 南北協商의 진전을 적극적으로 성원하였다.

獨勞黨 도지부에서는 유엔한국위원단이 選舉를 보장한다고 하나 완전한 選舉가 불가능하며, 단독선거로는 현군정을 합법적으로 연장하여, 이것은 결국 자주독립을 지연시켜 골육상잔과 국제전쟁을 유발시킨다고 하면서 전국의 정당단체 대표와 진실한 애국자가 협의하여 자주적 선거법과 선거모체 실현에 노력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勤勞人民黨 大邱시위원회에서도 가능한 지역만의 선거란 單獨政府 樹立을 전제로 한 것이고, 자유로운 선거분위기 조성이 어려우며 결국 일부 특권계급만의 당선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선거 결과는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을 가져와 인민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며 南韓은 일부 특권계급의 무대가 되어 강토는 재차 식민지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를 철저히 배격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民主獨立黨 준비위원회에서도 창당 이념이 민족적 양심을 토대로 해서 정권운동보다는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의 이념에 배치되는 單獨政府 樹立은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를 표명했다.

女子國民黨은 불교부인회·애국부인회·천주교부인회 등 여성단체들과 제휴하여 여성대표를 의회에 진출시켜 여권신장을 위한 투쟁을 하겠다고 하면서 선거에 임할 대책을 세웠다.

그밖에 民族青年團, 大同青年團, 그리고 일부 종교단체 등도 선거에 임할 태세를 취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南勞黨은 지하로 잠적했으며, 民戰도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이면에서 선

거저지 및 파괴공작에 돌입하였다.

Ⅱ. 5·10 總選舉

1948년 3월 3일 行政命令 제14호에 의하여 김법린(金法麟), 이갑성(李甲成), 김동성(金東成)등 15명으로 국회선거위원회가 조직되었고, 동 선거위원회는 입법위원선거법(1947년 9월에 제정)에 규정된 선거위원회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어 3월 13일 선거공보 제1호가 공포되었는데 남녀평등한 普通選舉制로서, 그 주요 골자는 ①선거권을 만21세, 피선거권을 만25세로 하되 금치산 한정치산자, 일제때 귀족의 칭호를 받았던 자, 제국의회의 의원이었던 자는 제외한다. ②입후보자는 선거일 15일전에 선거인 2백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 등록하고 등록한 3일후에 선거위원회는 그의 성명, 연령, 소속정당을 공포한다. ③국회선거위원회는 모든 선거사무를 처리 감독하고 각 도 선거위원회를 조직한다는 것 등이었다.

새로 제정된 選舉法에 의한 전국의 선거구수는 2백개이고, 慶北은 大邱의 3개구를 포함하여 33개구였다. 선거사무국은 총선거에 대한 사찰 및 공안사무를 총괄할 목적으로 경찰청내에 설치하고 도공보실장을 선거사무국장에 임명하였다.

이어서 大邱 시내 선거구 선거위원회도 설치되었으며, 4월 4일에는 「딘」軍政長官이 大邱에 와서 선거사무 현황을 시찰하였고, 그 이튿날에는 유엔한국위원회의 지방감시반으로 프랑스, 중국, 엘살바도르의 3개국위원이 사무관계 직원 수명을 대동하고 大邱에 왔다. 이들은 시내 각 선거사무소를 돌아 보고 유권자의 등록수, 선거방해 유무, 선거에 대한 市民들의 태도 등



〈사진 3-1〉

5·10선거 투표소

을 조사했다. 한편 시행정직원들도 앞장서서 선거계몽과 市民들의 선거참여를 독려했었다. 그런데도 시내 도처에서는 선거등록을 방해하는 폭력사태가 빈발하였다.

이무렵 서울에서는 김구(金九), 김규식(金奎植) 등을 중심으로 南北協商運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大邱에서도 勤勞人民黨, 民主獨立

黨, 建國青年會, 그리고 統一獨立運動 慶北協議會 등이 남북협상을 지지하고 나섰다. 일부 학생들도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4월 16일로서 國會議員 立候補登錄이 마감되었다. 大邱市內 3개구의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12명이 등록하였다. 선거일을 며칠 앞둔 5월 6일에는 慶北道內 각지역과 大邱市內에서는 또다시 선거반대와 남북협상지지 슬로건을 내걸고 술렁이기 시작했고, 大邱市內 3개大學을 비롯한 6개 中學校가 맹휴에 들어갔고 그 다음날에는 國民學校 직원에까지 파급되어 7개 國民學校가 사실상 수업이 중단되었다. 또 일부 기업체에서는 파업소동이 발생했다.

마침내 5월 10일 大邱에서는 가랑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에 역사적인 총선거일을 맞이했다. 시내 각 요소와 투표소에 경찰과 청년단원이 경계하는 가운데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변두리 일부 투표소에서는 피한에게 습격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황청동에서는 투표함을 분실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당시 大邱市內 3개구의 평균 투표율은 약 80%에 달하는 80,889표였으며, 그 중 무효표가 11,018표라는 많은 숫자를 나타냈다. 각 입후보자와 투표상황은 <表 3-1>과 같다.

5·10 總選舉는 전국적으로 볼 때 좌익진영의 파괴공작과 중도세력의 불참속에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투표는 긴장되고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행해졌다.

10월 13일 제5관구 경찰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慶北道內에서 선거반대 소동으로 관민을 합쳐 20여명이 살해당했고 중경상자도 86명이나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소가 습격당한 곳도 39개소나 되었다.

大邱市 5·10 選舉狀況

<表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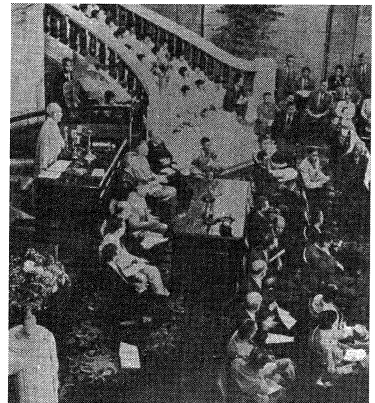
선거구	입 후 보 자	소 속	직 업	득 표 수
大邱 갑구	최윤동(崔允東)	한 민 당	무	8,577(당선)
	조경규(趙瓊奎)	대동청년단	의 사	4,333
	김영호(金英浩)	무 소 속	공 업	3,565
	김성국(金成國)	한 민 당	의 사	2,913
	김선인(金善仁)	여자국민당	의 사	2,875
大邱 을구	서상일(徐相日)	한 민 당	입 법 의 원	11,777(당선)
	손인식(孫仁植)	무 소 속	의 사	8,890
	박성하(朴性夏)	무 소 속	불 교 교 무 원	6,251
大邱 병구	백남채(白南採)	한 민 당	입 법 의 원	11,003(당선)
	이우출(李雨茁)	무 소 속	이재민자치회	8,031
	김용한(金龍翰)	"	교 육 자	4,185

Ⅲ. 大韓民國의 誕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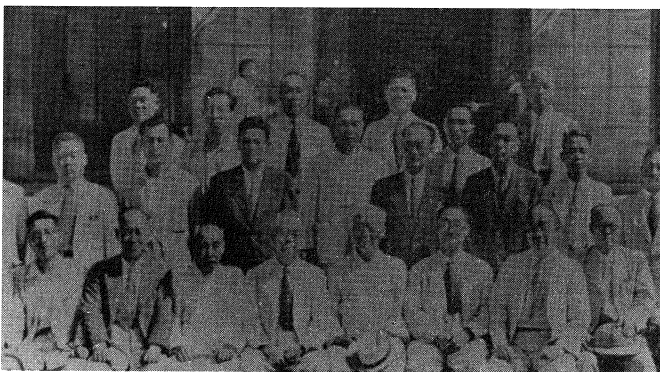
총선거가 끝난 후 20일만인 5월 31일 中央選舉委員會의 소집에 의하여 大韓民國 制憲國會가 개원되었다. 즉시 國會의 기구편성을 마친 다음 國會法을 비롯하여 大韓民國 憲法, 그리고 政府組織法 등의 심의에 들어가 정권수립에 박차를 가하였다.

6월에 들어서면서 國회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던 國회는 6월 23일 憲法起草委員會(위원장 徐相日)가 제출한 憲法 초안을 축조심의회한 후 7월 12일에 國會通過를 보았고, 동 17일에 國會議長(李承晩)명의로 정식으로 公布되었다. 이어서 7월 20일 초대 大統領(李承晩)과 副統領(李始榮)을 각각 선출하고, 7월 24일 中央廳 광장에서 정부통령 취임식을 거행했다. 8월 2일 大統領으로부터 제2차 지명을 받은 이범석이 國務總理로 國회인준을 받은 다음 大統領은 내각의 전각료를 임명하였다. 이리하여 1948년 8월 15일 大韓民國 政府樹立을 내외에 정식으로 선포하였다. 總選舉 후 政府樹立까지 大邱에서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움직임이 있었다. 즉 우익진영의 체제정비와 조직확대에 좌익진영의 끈질긴 저항이 그것이었다. 우익진영의 독주는 선거에서 승리했던 韓民黨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좌익진영의 저항은 지하화했던 남로당 계열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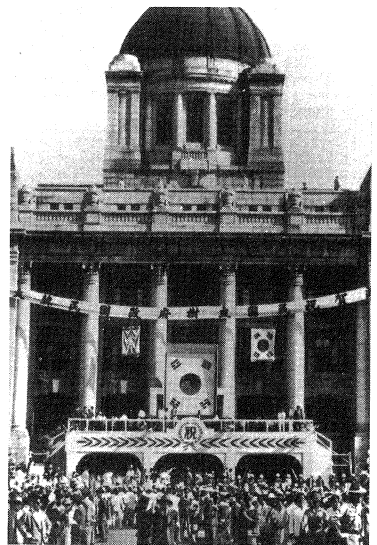
총선후 南勞黨係의 지하공작과 선동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반대하는 군중시위가 산발적으로 전개되었다.



〈사진 3-2〉 제헌국회개원



〈사진 3-3〉 제1공화국 헌법제정 기념촬영



〈사진 3-4〉 대한민국 정부수립
(1948. 8. 15)

6월 8일 오후 시내 계산동, 봉산동, 대봉동, 덕산동, 화전동 등 大邱의 중심가를 비롯하여 시외곽 11개처에서 시위군중들이 「人共樹立」을 호창하는 만세소동을 벌이는가 하면, 시내도처에 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전단, 벽보 등이 나붙는 등 시내 분위기가 여전히 불안하였다.

한편 警察當局은 좌익계의 지하공작을 분쇄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 그 결과, 6월 10일 慶北道の 商工局長을 필두로 수의과장, 광공과장, 지사비서 등 30여명과 大邱市廳 직원 10여명이 남노당의 관련자로서 總選舉를 방해하는 공작을 했다는 嫌疑로 檢舉되었으며, 6월 20일에는 慶北道 財産管理處의 課長級 2명과 係長級 1명을 검거하였으며, 25일에는 大邱地方法院과 檢察廳 서기 7명과 南電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하는 등 모두 62명을 8월 11일 공판에 회부하였다.

第2節 政府樹立直後の 政治動向

해방된 지 3년만에 獨立政府가 수립되기는 하였지만, 그 출발부터 많은 과제를 지니고 있었다. 國土의 분단과 民族의 분열로 인한 社會經濟的 혼란에다 일제때부터 왜곡되어 온 體質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전도를 낙관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안이 혼란스러웠다. 이 틈을 타고 나타난 사건이 政府樹立 直後の 좌익계의 공작에 의한 무장반란사건이었다.

I. 大邱 6聯隊 將兵叛亂事件

1948년 10월 20일에 발생한 이른바 麗順반란사건으로 전국이 어수순한 분위기에서 차츰 수습되어 갈 시점이었던, 11월 2일 大邱에서는 國防警備隊 6聯隊 소속의 4백 50여 將兵들이 무기를 탈취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당시 대부분의 주력부대 將兵들이 麗水, 順天地方의 叛亂事件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하고 잔류부대원 5백여명만 남아 있다가 돌발적인 叛亂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그날 정오경에 이 부대에 모종의 범죄사건을 수사하러 갔던 大邱地區 군기대 소속 曹成老소위가 살해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무장한 叛亂軍은 이를 제지하려던 將校 3명을 사살하고 세갈래로 나누어 시내로 진입했다.

약 70명의 先發隊가 시내로 진입한 다음, 100명가량의 2진은 신천동 방향으로 향하고, 약 280여명의 주력부대는 앞산을 거쳐 달성동 방향으로 진입하였다. 급보에 접한 군기대와 제5

관구 경찰청에서는 동일 오후 2시경에 大邱市 일원에 超非常警戒를 시달하는 한편, 주요 가두에 非常警戒線을 設置, 交通을 차단하고 그들의 진격을 저지하였으나, 4시경에는 叛亂軍이 달성공원 근처까지 돌진하여 경찰과 격전을 벌였다. 한편 선발대로 시내에 진입했던 병사들은 미군에게 거의 체포되었으며, 주력부대도 市民들의 협력과 警察의 반격으로 일부는 체포되고 대부분은 교외로 도망쳤다. 그 이튿날에 포화는 멈췄으나 험악한 사태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교외로 도주했던 반란군중에서 65명은 金泉地方에서 체포됨으로써 八公山으로 숨어든 극소수를 제외하고 거의가 체포되었다.

이 叛亂事態 발생 후 大邱市內의 민족청년단,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 학련등 청년단체와 독촉국민회, 한민당, 한독당 등 2천여명이 단합하여 민족 자위단을 조직하여 난동에 대비했다.

이 事件으로 인하여 4명의 警察官이 순직했고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리고 5명의 어린 학생이 유탄으로 희생되었고 11명의 민간인이 부상당했다. 사상된 叛亂軍은 12명이나 되었다. 그후 叛亂關係 피고들은 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되어 그 중 6명이 死刑宣告를 받아 銃殺刑에 처해짐으로써 事件이 일단락되었다. 이로써 國軍叛亂事件 자체는 진압되었으나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 긴장과 불안은 극심한 경제적 궁핍과 더불어 더욱 조장되었다.

Ⅱ. 反民族行爲者 調査特委

大韓民國 政府樹立 후 첫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日帝下에서 反民族 행위를 자행한 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문제였다. 憲法 제101조의 「이 憲法을 제정한 國會는 서기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범한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特別法을 제정할 수 있다」는 規程에 따라서 國會는 反民族行爲 處罰法의 제정에 착수, 1948년 9월 7일에 이를 통과시켜 12월 7일에 공포했다.

이 법 통과 후, 施行을 앞두고 慶北道 인사처에서 「國會議員에 선출될 자격이 없는 자」와 「관공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는 자」를 조사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자가 약 50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듬해 2월 慶北 特別調査委員會가 獨立鬪士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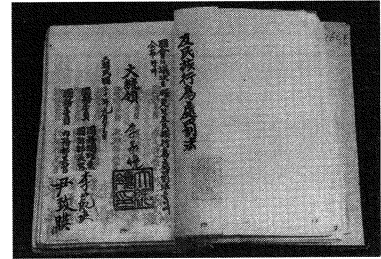


〈사진 3-5〉

반민행위처벌 특별재판부

로 조직되었는데, 위원장에는 鄭雲駟, 조사위원에는 宋桢度, 方漢相, 李龍魯, 權啓煥이 임명되었다.

3월 2일 시내 동성로 소재 大邱地方法院 少年部支院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 결과, 총 30건의 영장을 발부하여 그 중 18건이 조사 완료되어 3차에 걸쳐 혐의자를 서울 본부로 송치하였다. 그러나 日帝의 잔재를 일소하고 民族精氣를 바로 잡으려는 反民特委의 활동은 당초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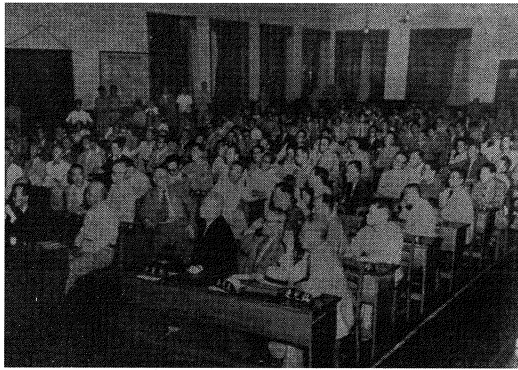
〈사진 3-6〉 1990년 8월 처음 공개된 반민족행위처벌법 원본

Ⅲ. 第2代 國會議員選舉

大韓民國政府 樹立後 「유엔」과 우방들로부터 韓半島의 유일한 合法政府로 승인받음으로써, 국가의 위상은 國際的으로 공고해졌다. 이에 병행하여 國內的으로도 점차 정계가 정비되는 중에 1950년 5월 30일에 제2대 國會議員 總選舉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당초 5월 10일에 실시하기로 예정했던 것이 국내정세와 준비관계로 30일로 연기된 것이다. 5월 6일 李承晩 대통령은 대북한 放送을 통하여 祖國統一을 平和的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北韓共產集團은 반성하여 고집을 청산하고 大韓民國 政府에 대의원을 보내는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북한에서는 겉으로는 平和統一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武力南侵統一을 위한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었다. 5·30 總選舉에는 制憲國會議員 선거에 불참했던 정치 세력들도 참여함으로써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全國의 立候補者 數는 2千 2百 30여명에 달했으며, 慶北에는 375名이 난립하였다.

〈表 3-2〉 大邱市內 5·30選舉 立候補 狀況

大邱갑구:	권헌길(權憲吉)	장영모(蔣穎模)	이병주(李丙周)	김종열(金鍾烈)
	최희송(崔熙松)	조경규(趙瓊奎)	서동진(徐東辰)	최윤동(崔允東)
	이재영(李在榮)	방한상(方漢相)	이응수(李應壽)	김성국(金成國)
	김한용(金漢容)	엄익재(嚴翼在)	이팔수(李八守)	박호근(朴晁根)
	구립본(具立本)			
大邱을구:	김종원(金鍾遠)	손인식(孫仁植)	서상일(徐相日)	최영호(崔榮浩)
	박성하(朴性夏)	김중학(金中學)	채수한(蔡洙翰)	
大邱병구:	우은호(禹銀鎬)	공원상(孔元相)	백남채(白南採)	박상학(朴相學)
	도경훈(都景勳)	강진국(姜辰國)	서진수(徐鎭壽)	유시대(柳時泰)
	김병희(金柄熙)	조병관(曹秉琯)	조용기(趙龍基)	주학진(朱鶴鎭)
	김용한(金龍翰)	조태영(趙泰泳)	서병무(徐丙武)	이우출(李雨茁)
	이갑성(李甲成)	서만준(徐萬俊)	최영조(崔英朝)	



〈사진 3-7〉 2대국회(피난, 부산 광덕전)

심을 얻기 위한 온갖 宣傳이 동원되었다. 가장 눈에 띄이는 宣傳은 입간판과 벽보였는데, 그 중에는 꺼적대기 간판과 낡은 新聞紙를 이용한 벽보가 상당 수 있었다. 그 이유는 選舉費用이 부족한 데도 있었지만, 어떤 立候補者는 이를 有權者들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다.

選舉가 임박하자 각 候補者들은 택시, 트럭, 지프 등을 동원하였고, 심지어는 마차에 꽃을 달아 有權者들의 눈길을 끌려는 宣傳도 볼 수 있었다. 선거 막바지에는 상호 중상모략하는 언동과 심지어는 불온 비라를 대중이 집합한 시내 극장 등에 살포하는 사태도 발생하여 긴장된 選舉雰圍氣를 조성하였다. 그 뿐 아니라 立候補者 중에는 選舉運動員을 앞세워 호별방문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 타락선거가 공공연히 자행되었다.

全國의인 選舉結果는 政府에 크게 불리한 狀況으로 나타났다. 우선 選舉結果 개선된 議員은 겨우 34名, 즉 大韓國民黨 14名, 民國黨 6名, 一民俱樂部 3名, 女子國民黨과 勞總이 各各 1名, 그리고 무소속 의원 9名 뿐이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제헌국회에 크게 진출했던 보수적인 政黨과 政治團體가 2대 國會에서는 그 進出率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축성국민회가 53名에서 12名으로 대폭 감소하고, 民國黨이 23名, 大韓國民黨이 24名, 大韓青年團이 10명만 진출한데 반하여, 무소속이 126名(60.4%), 처음으로 社會黨이 2名, 大韓勞總이 制憲國會에 비해 3명을 더 진출시켰다. 즉 5·10選舉를 거부했던 남북협상파의 選舉參與로 인하여 與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의원수는 도합 57名, 야당이었던 民主國民

그 중 大邱市 3개 선거구의 立候補者가 43명이었다. 등록된 立候補者 명단은 다음 〈表 3-2〉과 같다.

이들 立候補者 중에는 民主國民黨을 위시하여 朝鮮民主黨, 獨立勞動黨, 大韓民國會, 大韓勞總, 基督教, 佛教 등의 정당과 단체를 세력의 발판으로 한 자도 많았으나, 그 대다수는 무소속이었다. 등록을 마친 立候補者들은 저마다 투표활동을 시작했는데 유권자들의 환

〈表 3-3〉 大邱市內 5·30 選舉狀況

선거구	유권자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투표율
갑 구	남 21,425	17,318	4,107	80%
	여 22,689	18,163	4,526	
을 구	남 19,646	16,644	3,002	83%
	여 19,947	16,296	3,651	
병 구	남 23,178	18,443	4,735	80%
	여 23,344	17,738	5,606	
계	130,229	105,792	10,341	81.5%

黨이 겨우 24名으로 크게 감소한 데 반하여 무소속이 126名이나 議會에 進出하였다. 당시 大邱의 有權者와 投票者 수는 다음 <表 3-3>과 같다. 한편, 當選者 및 次點落選者의 득표는 다음 <表 3-4>같다.

5·30選舉後 정계는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고 기성 政黨의 合作運動이 展開되었다. 원내에서는 無所屬議員을 포섭하는데 열중하

였고, 또한 合黨運動도 성행하였다. 특히 李承晩을 중심으로 하는 新黨組織運動이 활발하였으나,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6·25가 발발하였다.

<表 3-4> 大邱 5·30選舉當選者와 次點落選者 得票現況

갑구 :	당선자 - 조경규(趙瓊奎)(국민회)	8,335표
차 점 -	서동진(徐東辰)(민국당)	6,512
을구 :	당선자 - 박성하(朴性夏)(무소속)	8,967
차 점 -	서상일(徐相日)(민국당)	8,921
병구 :	당선자 - 이갑성(李甲成)(무소속)	8,263
차 점 -	이우출(李雨茁)(무소속)	5,141

第3節 6·25戰爭期間의 政治動向

1950년 6월 25일 韓國戰爭이 발발하였다. 이 戰爭은 우선 國際적으로 第2次 世界大戰後 美蘇協力體制가 붕괴되고 美蘇가 지배하는 양극화된 冷戰體制가 성립함은 물론 분단된 韓國이 美蘇兩極化體制의 下位體制로 완결되는 계기를 이루게 되었다.

大韓民國의 成立을 前後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방해 및 파괴공작으로 인하여 그동안 政治 및 社會의 불안과 긴장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데다가 經濟生活에 있어서 물가는 앙등일로에 있었고 民生苦는 극심한 상태였다. 한편 南韓에 주둔하고 있던 美軍이 철수하고 미국이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이러한 와중에 5·30 第2代 國會議員選舉를 치루어 大韓民國의 政治的 기반은 그런대로 굳어져 가고 있었다. 이러한 때를 타서 北韓 共產集團은 단숨에 赤化統一을 할 목적으로 대거 武力南侵을 감행함으로써 피비린내 나는 同族相殘의 처참한 비극을 연출케 하였던 것이다.

I. 臨時首都 大邱와 洛東江 防禦

北韓 共產軍의 38線 침공소식이 전해졌을 때 처음에는 그동안 이따금 발생해왔던 北韓의 국부적인 挑發行爲로 간주되었고, 들려오는 放送도 國軍이 즉각적인 反擊을 하였다는 소식이 市民들은 어느 정도 안도하였다. 그러나 6월 27일 政府가 大田으로 천도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7월 8일 全國에 非常戒嚴令이 선포되었

고, 평택지구에서 反擊이 가해졌으나 실패하고 7월 16일 政府는 大田에서 大邱로 천도하였다. 共產軍은 계속 남진하여 호남일대와 영남의 東北部地方을 점거한 후, 최후의 거점인 大邱와 釜山을 향하여 맹렬한 공격을 가하였다.

大邱로 政府가 천도한 날부터 大邱의 긴박한 霧圍氣는 한층 고조되었다. 각급학교는 일제히 휴교에 들어갔고, 各種 戰鬪要員들은 반격을 가할 태세의 정비를 서둘러 있었다. 용감한 靑年들이 市民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자원입대하는 광경을 엿볼 수 있었다.

시내 各級學校를 비롯한 主要 施設은 군이나 군속기관에 접수되어 작전수행의 거점이 되고 있었다. 상공장려관을 비롯한 역주변의 各種 施設 혹은 민가에는 서울 등지로부터 남하한 避難民들에 의해 붐비고 있었다.

7월 7일 당시 救國總聯盟 委員長 趙炳玉은 역전광장 강연에서 수만 市民에게 국난타개에 총력기할 것을 호소하였다. 7월 21일에는 계성중학교 운동장에서 北韓의 만행을 규탄하는 國民總蹶起大會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7월 27에는 文化劇場에서 第8會 臨時國會가 소집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李 대통령은 거국일치로 國難을 극복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전세는 여전히 호전되지 않은 채 大邱危機說이 나돌기 시작했다. 共產軍은 왜관, 군위, 영천방면으로부터 10여만의 兵力으로 大邱 外廓線에 압박을 가하면서 일거에 공략하고자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이 때 「유엔군」 수뇌부는 戰略上의 이유를 들어 大邱에서 釜山으로 철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조병옥 內務部長官은 大邱와 釜山을 빈번히 往來하면서 大邱사수 결의를 표명함으로써 군경과 一般市民에게 勇氣를 크게 북돋아 주었다. 治安局의 非常警備總司令部 휘하에 全國에서 모여든 警察官으로 戰鬪隊가 편성되어 大邱防禦의 일익을 담당하였고, 여기에 힘입은 國軍 大邱地區防禦司令部는 大邱방어작전을 위한 군·경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效果的인 大邱防衛計劃이 구성되고 軍을 主軸으로 각 기관이 소임을 분담하여 방위에 완벽을 기하게 되었다. 특히 이 회의의 決定에 따라서 警察은 종전의 業務를 더욱 확장강화하여 적오열(敵五列)의 檢索 및 後方治安은 물론이고 一線戰鬪地區에도 배치되어 共產軍의 大邱浸透를 분쇄하는 戰鬪業務까지 맡게 되었다. 즉 서울시경 병력은 漆谷方面, 京畿道와 忠南警察은 八公山地區를, 忠北警察은 지천방면으로, 慶北警察은 청도 및 신동방면으로, 江原道警察은 靑松方面으로 각각 배치되어 國軍과 더불어 大邱방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共產軍은 8월 초순에 왜관方面의 洛東江 도하작전을 감행 「유엔군」 後方에 소수병력을 침투시키면서 大邱攻略에 초조한 빛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8월 17일 共產軍 약 4개사단 兵力이 군위方面으로부터 大邱로 향하여 맹렬한 攻撃을 개시하여 이튿 날에는 大邱 北方 12km까지 육박하였다. 이를 저지하는 가산혈전이 전개되고 있을 무렵 八達橋 너머 漆

谷 동명지점까지 잠복하여 浸透해 들어 온 적병이 발사한 3발의 박격포탄이 시내 太平路 미창앞 판자촌에 떨어져 市民들을 긴장케 하였다. 8월 18일 사태가 심상치 않게 되자 道廳에 자리잡고 있던 政府의 一部는 釜山으로 이전하였고, 大邱市에는 소개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곧 전세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자 당일 午後에 소개령을 취소하였다. 소개령으로 家産을 버린 채 남쪽으로 향하던 일부 市民들은 이 소식을 듣고 뒤돌아 섰고 끝내 大邱는 적군에 유린되지 않은 채 사수되었다. 그러나 성급하게도 政府는 大邱還都 35일만에 釜山으로 이동하였다.

戰爭 初期부터 後退를 거듭했던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에 최후의 교두보를 구축하여 北韓軍의 공세를 저지하고 있는 동안 「유엔」군의 후속 지원부대는 계속 釜山에 상륙하였다. 이른바 낙동강 방어의 成功與否는 大邱의 운명 뿐만 아니라 大韓民國의 운명까지도 좌우하는 狀況이었다.

당시 미8군 司令官이었던 「워커」將軍은 落東江 防禦線을 「워커라인」이라고 命名한 後 最後의 사선으로 설정하고 8월 3일 밤 일선장병들에게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一步의 後退도 不許한다는 엄명을 내렸고, 후속 증원부대도 낙동강 防禦線에 투입하였다.

정면으로부터의 大邱공격이 어려워지자 적들은 大邱와 釜山の 배후와 측면을 침공하려고 強力한 部隊로서 晋州와 馬山地區로 공세를 취했다. 특히 釜山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던 馬山方面으로의 적들의 공세는 8월 7일부터 10일에 걸쳐 「유엔」군의 반격으로 저지되었으며, 개전 이래 처음으로 적을 25Km나 퇴각시켰다.

그러나 浦項·安康方面으로 侵攻해 온 共產軍 第5師團의 공격은 맹렬하였다. 9월 2일 안강방면의 적군은 慶州를 위협하여 들어오고, 적 15師團은 永川을 향하여 침투함으로써, 적에 의하여 永川·慶州가도가 위협을 받았다. 이렇게 하여 大邱가 위험한 사태에 놓이게 되자, 9월 5일 陸軍本部도 大邱로부터 釜山으로 후퇴하였다.

이보다 앞서 「유엔」군은 이 중대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8월 16일, B29폭격기 99대로 왜관지구의 적의 집결지에 대하여 世界大戰後 最大의 폭격을 감행하여 이 地區의 敵軍에 타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적의 공세는 大邱에 疏開令이 내릴만큼 강렬하였다. 首都가 釜山으로 천도된 직후 美 海兵師團과 24사단의 지원을 받은 國軍 제1사단, 美 제1기갑사단, 英 제27보병여단의 방어로 적의 공격은 저지되고, 8월 20일까지 大邱정면의 적군은 격퇴되었다. 극도로 피폐한 敵은 最後의 힘을 다하여 9월 1일부터 大邱의 南北 兩面으로부터 일제히 공격을 재개해 왔다. 永川에 진입한 적은 국군 제2군단에 의하여 분쇄되었고, 적 제15사단은 砲兵聯隊와 함께 國軍의 포위망에 걸려들어 완전히 섬멸되었다. 그리고 의령, 창령방면으로 진격해 온 적은 美 海兵隊와 제9연대의 반격으로 저지되었다. 9월 초순경에는 개전후 가장 치열한

戰鬪가 洛東江邊 각처에서 벌어졌다. 9월 12일 美 8軍司令官「워커」장군은 洛東江防衛에 있어서 최대 위기는 지나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敵軍에게 결정타를 가한 것은 9월 15일에 있는 仁川上陸作戰의 성공이었다. 仁川上陸作戰의 성공이 전해지자 共產軍은 전면적인 후퇴를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反擊粉碎作戰이 전개되었다. 洛東江 防禦作戰의 성공으로 大邱 釜山은 위기에서 구출되었고, 또 그것은 大邱가 戰略上 거점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Ⅱ. 戰爭中の 大邱 政治動向

1. 自由黨의 登場

5·30 總選舉를 치른지 1개월도 못되어 韓國戰爭이 발발함으로써 한때 政治活動이 중단되었다가 전세가 호전되면서부터 다시 政界는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臨時首都 釜山에서는 초대 대통령선거를 1년여 앞두고 다시 政治的 激動이 일고 있었다. 5·30 總選 結果 野黨勢力이 대거 원내에 진출한데다가 부정부패의 상징적 사건으로서의 國民防衛軍사건과 居昌良民虐殺 사건 등으로 野黨의 공세에 위축되었던 집권세력은 李承晩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勢力의 만회를 노려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당시 野黨인 民主國民黨은 政府에서 國防, 內務, 法務 등 실권을 장악하였다가 일부 후퇴하였지만, 동당의 최고위원 金性洙를 부통령으로 지명하여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 있었던 國會에서 선출함으로써 그 세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유동적인 원내세력을 발판으로 하고 있었던 여당은 民主國民黨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政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1951년 8월 15일에는 李承晩大統領이 신당의 필요성을 표명하였다.

李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서 원내에서는 공화 민정회의 일부의원이 주동이 되고, 원외에서는 國民會, 青年團, 「노충·농충」등의 대표급 인사가 주동이 되어 신당발기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憲法改正案을 둘러싸고 利害關係가 엇갈려 원내파와 원외파로 분파한 채로 自由黨이 조직되었다.

민주국민당을 비롯한 반집권 세력을 견제하면서 李承晩 대통령은 1951년 11월 30일에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憲法改正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이듬해 1월 18일 표결 결과 재석의원 163명 중 143표의 부표로 부결되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이른바 정치파동이 발생하게 되었다.

2. 地方自治制 施行

憲法改正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을 무렵, 政府樹立後 처음으로 地方自治制 選舉가 실시되었다. 즉 정부는 1952년 4월 25일에 市, 邑, 面의회의 議員選舉를, 5월 10일에 道議會 議員選舉를 各各 실시할 것을 공고하였다. 1949년 7월 4일에 공포된 법률 제32호 地方自治法이 같은해 12월 15일에 개정되고, 1950년 12월에 지방선거를 실시할 計劃이었던 것이 6·25戰爭으로 연기되었던 것이다. 政府는 이에 大統領直選制의 改憲案을 제기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이 地方自治選舉는 大統領直選制를 예견하여 地方勢力을 형성하려는 執權勢力의 사전포석이라는 인상을 질게 풍겼다.

1) 市議員選舉

당시 大邱市 議會의 의원정수는 29명이었고, 선거구는 6개로 분리되었다. 3월 5일부터 立候補者 登錄이 시작되어 마감일인 동 26일까지 총 109명이 候補登錄을 하였다. 立候補者들의 所屬政黨을 보면 民主國民黨이 10名, 國民會 9名, 韓靑 9名, 自由黨 7名, 天主教 3名, 勞總, 義勇消防隊, 少年團에서 각 1명이었는데 반하여, 무소속이 68명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다.

政府는 地方選舉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 지역의 戒嚴令을 4월 21일을 기하여 해제하였고, 경북은 大邱市를 비롯하여 12개 시군에서 戒嚴令이 해제되었다. 選舉運動 期間中 10여건의 선거사범이 있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평온한 분위기에서 選舉가 進行되었다. 4월 25일의 투표후, 오후 8시부터 시작된 개표결과 大邱市의 總有權者 169,072명 가운데 122,714명이 투표하였으며 그 중에서 무효표가 2,841표였다. 當選者와 投票數는 <表 3-5>와 같다.

<表 3-5> 大邱市議員 選舉狀況(1952年度)

제1선거구 :	김영조(金永祚) 2,989	김석현(金錫顯) 2,315	최성환(崔成煥) 1,969
	김 홍(金 弘) 1,780	김귀봉 1,484	
제2선거구 :	황경수(黃京洙) 2,531	김정오(金正悟) 2,199	우천석(禹千石) 1,860
	황봉갑(黃鳳甲) 1,858	김봉문(金奉文) 1,596	최정복(崔正福) 1,318
제3선거구 :	서정래(徐廷來) 2,322	김학봉(金學奉) 2,298	박종규 1,469
제4선거구 :	이우출(李雨茁) 2,965	김명한(金明漢) 1,569	김일두(金鎰斗) 2,229
	김칠수(金七守) 2,002	김원구(金元九) 1,736	배영호(裵泳鎬) 1,553
제5선거구 :	유성금(劉聖金) 1,702	배정원(裵廷遠) 1,541	김희환(金熙煥) 1,528
	정남진(鄭南鎭) 1,419	천재기(千在基) 1,361	
제6선거구 :	박우석(朴禹錫) 2,840	정희진(鄭熙鎭) 1,739	서석현(徐錫現) 1,678
	윤항병 1,493		

그해 5월 5일에 大邱市 議會가 처음으로 발족하였다. 이날 개회 벽두에 초대의장 선출이 있었는데 議長으로 金正悟, 副議長으로 崔正福을 각각 선출하였다. 이어서 당일 地方自治法 제98조에 의거 市長選舉에 들어가서 3차에 걸친 投票結果 초대 간선시장으로 李浩錫이 당선되었다. 이 시장은 그해 10월에 의회의 불신임 결의로 물러나고, 제2대 시장으로 金鍾煥이 그 자리를 이었다.

1953년 11월에는 김종환시장과 自由黨議員의 대립, 즉 壁報事件으로 김봉준, 김일두의원 이 사퇴하고 54년 2월 5일에 있는 補闕選舉에서 이근상, 정해영이 시의원으로서 선출되었다.

2) 道議員選舉

시의회 구성을 마친 다음 5월 10일에 도의회 議員選舉가 實施되었다. 慶尙北道議會議員 정원은 총 61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大邱市의 選出人員은 6명이었다. 大邱는 甲, 乙, 丙 3개 구로 나누어 각구에서 2명씩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3월 20일부터 시작하여 4월 10일에 마감한 立候補 登錄狀況은 경북도 전역의 경우는 立候補 총수 165명 중 무소속 69명, 國民黨 35명, 自由黨 33명, 韓靑 16명, 國民黨 3명, 民國黨 2명, 朝民黨 1명, 기타 6명이었다. 大邱시의 경우는 총입후보자 28명 중에서 무소속이 21명으로 다수였으며, 國民會 2명, 自由黨 2명, 조민당 1명, 의용노인대 1명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후에 11명이 등록을 취소하여 다음 17명으로 확정되었다<表 3-6>. 5월 10일, 선거는 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 7시부터 시작되었다.

〈表 3-6〉 道議員 立候補者 登錄狀況

大邱市 제1구 :	최해운(崔海雲)	황하봉(黃夏鳳)	송두환(宋斗煥)
	서인수(徐麟洙)		
大邱市 제2구 :	장익환(張益煥)	송지영(宋志英)	박택선(朴宅先)
	배영덕(裴永惠)	최동희(崔東熙)	서강준(徐康俊)
大邱市 제3구 :	김팔석(金八錫)	김재권(金在權)	송명근(宋命根)
	조병관(曹秉琯)	윤중현(尹鍾顯)	정운기(鄭雲騏)
	권윤식(權允植)		

대체로 평온한 가운데 投票와 開票가 진행되었다. 이 날의 投票에는 總有權者 170,357

〈表 3-7〉 道議員選舉 當選者

제1구	송두환(宋斗煥)(11,692표)	서인수(徐麟洙)(8,529표)
제2구	서강준(徐康俊)(9,730표)	배영덕(裴永惠)(8,128표)
제3구	김재권(金在權)(6,372표)	조병관(曹秉琯)(6,268표)

명 중 56%가 投票에 참여하는 낮은 投票率을 보였다. 개표 결과 <表 3-7>과 같이 전부 무소속 立候補者 6명이 당선되었으며, 5월 20일에는 慶尙北道 議會가 정식으로 발족 하였다.

3. 第2代 正副統領選舉

1952년 4월 17일 國會議員 123명의 연서로 제출된 의원내각제 改憲案은 정국을 동요케 하였다. 123명이라는 숫자는 개헌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보다 한 사람이 더 많은 숫자였

다. 이렇게 되자 원외自由黨을 비롯한 18개 團體가 이 改憲案에 반대하는 全國政黨鬭爭委員會를 조직하여 政府와 國會가 전면적으로 대결하게 되었다. 그것은 곧 國회가 추구하는 의원 내각제에 반대하여 李承晩 政權의 大統領直選制 관철을 위한 대대적인 운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地方議會 의원선거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는 政府의 지원을 받은 여당인 自由黨의 대승으로 귀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政府와 國會간의 대결은 결국 5월 25일을 기해 공비잔당의 소탕이라는 구실로 선포된 慶南과 전북·전남에 걸친 非常戒嚴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國會議員 통근버스가 憲兵隊에 강제연행되었고, 國際共產黨에 관련되었다는 혐의로 10명의 國會議員이 체포되기도 했다. 각 도의회에서는 國會解散決議案을 통과시켜 이를 政府에 요청했고, 이에 대해 李承晩 대통령은 국회해산을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성명했다. 이 때 政府측에 의하여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발췌개헌안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國會를 해산하겠다고 위협했다. 구속중이던 10명의 國會議員이 석방되고, 피신중이던 의원들도 경찰의 연행 안내식으로 등원하여 며칠씩 연금되는 테러 속에서 7월 4일 밤 國會는 기립표결로 가 163, 기권 3표로 拔萃改憲案을 통과시킬 수 밖에 없었다. 이 拔萃改憲案은 동년 7월 7일에 공포되었고, 뒤이어 15일에는 大統領 副統領 選舉法案이 국회에 통과되어 18일에 공포되었으며, 그로부터 20일도 못되는 동년 8월 5일을 선거일로 확정하였다.

선거일이 확정되자 自由黨에서는 選舉戰의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大田에서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大統領 候補로 李承晩을, 副統領 候補로 이범석을 지명하였다. 그러나 李承晩은 족청파(族靑派)의 세력이 비대해짐을 우려하여 副統領 출마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與黨系 副統領 候補者가 나오게 하였다. 즉 이갑성, 이윤영, 임영신, 함태영, 백성욱, 정기원등이 난립했다.

관계적으로 조직된 自由黨은 기성단체와 警察을 이용하여 선거전에 대비할 만반의 準備를 갖추는데 반하여, 野黨側에서는 연합전선 形成이 실패로 돌아가고 地方의 選舉基盤도 취약한데다가 官權의 음성적 압력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野黨의 大統領候補로는 이시영, 조봉암, 신흥우가 출마하였고, 副統領候補로는 조병옥, 전진한이 출마하였다.

與黨系의 이갑성을 비롯한 6명의 副統領 出馬者들은 족청파의 비대를 끼리는 李承晩의 내심을 이용하여, 自由黨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副統領 立候補者 이범석을 무시하고 난립함으로써 自由黨 選舉對策에 혼선을 야기시켰다. 선거전이 종반으로 접어들자 官權은 李承晩의 돌발적인 지령에 의하여 함태영의 당선을 위해 壓力을 가했고, 족청계열은 오히려 官權에 의한 탄압을 받게 되어 內務部長官 金泰善과 治安局長 尹宇景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

다. 8월 5일 大邱市에서는 오전 7시를 기하여 시내 108개 投票所에서 일제히 投票를 하였다. 6·25戰爭으로 市民들은 극도의 피로에 젖어 있었는데 처음으로 행하는 정부통령 직선선거였다. 그러나 有權者들은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로 投票에 임하였고 選舉雰圍氣는 대체로 평온하였다. 당시 大邱의 有權者數는 169,717명이었는데, 그 중 投票에 참가한 有權者는 약 73%에 해당하는 124,341명으로 投票率이 저조하였다. 개표는 6일 오전 6시부터 시내 甲, 乙, 丙 개표구 選舉委員會에서 시작되어 당일 정오 12시에 완료되었다. 이 날 판명된 立

〈表 3-8〉 第2代 正·副統領選舉 大邱市域 開票現況

대통령 :	이승만(李承晩) 57,775	조봉암(曹奉岩) 28,252
	이시영(李始榮) 27,478	신흥우(申興雨) 2,776
부통령 :	조병옥(趙炳玉) 31,858	이범석(李範奭) 20,074
	함태영(咸台永) 19,794	이갑성(李甲成) 18,706
	이윤영(李允榮) 11,065	전진한(錢鎭漢) 6,762
	백성욱(白性郁) 5,427	임영신(任永信) 3,746
	정기원(鄭基元) 3,642	

候補者에 대한 大邱市の 得票 順位는 〈表 3-8〉과 같다. 全國의 開票結果 第2代 大統領에는 自由黨의 李承晩이, 第3代 副統領에는 그가 지지한 無所屬의 咸台永이 각각 당선되었다.

第4節 自由黨時代의 政治動向

I. 第3代 國會議員選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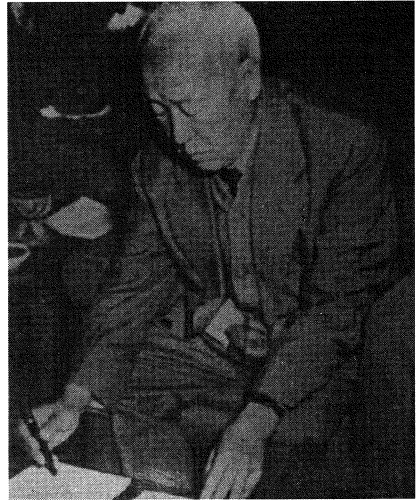
동란 기간에 실시되었던 地方自治團體長 選舉와 8·5 정부통령선거에서 그 기초를 닦았던 自由黨은 53년 5월의 제2차 전당대회에서부터 李承晩의 지시에 따라 족청계열을 숙당 제거해 가는 한편 이기붕체제로 전환해 갔다. 52년 11월을 前後하여 원내외 양파가 합당했던 自由黨은 그 당세를 확장함으로써 한때는 국회의석 過半數를 점하게 되었으며, 반대로 民國黨은 약화되어 제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원내 20여석에 불과하였다. 그 동안 院內 自由黨, 신라회, 무소속구락부 등 원내 교섭단체 등은 해산되고 말았다.

自由黨이 족청파를 배제하면서 이기붕체제로 그 組織을 강화함에 따라 국민회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 53년 11월에 全國代議員 大會를 개최하여 종래의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고 最高委員制를 채택하여 그 최고위원으로 李承晩, 배은희, 이갑성을 선출하였다. 한편 야당세력의 주축인 民主國民黨에서는 8·5 정부통령선거에서의 패배와 國會에서의 열세를 만회코자 전력을 기울였다. 제3대 민위원 議員選舉의 실시를 위한 選舉法과 선거일 選定問題를 둘러싸고 한

동안 政府와 野黨間에 논란이 거듭되다가, 동 選舉法의 새로운 제정이나 개정없이 既存法律로 실시하기로 타협함으로써 정부는 1954년 4월 9일 選舉日字를 5월 20일로 공고 하였다.

4월 10일부터 立候補者 등록이 시작되어 25일에 마감한 結果 慶北道內 立候補者 수는 216명이었고, 大邱 시내는 22명으로 평균 7대 1의 競爭을 보였다.

4월 13일 自由黨은 立候補者를 최종적으로 공천하였는데, 大邱시에서는 갑구에 서석현, 을구에 손인식, 병구에 이갑성 등이 공천되었다. 한편 民主國民黨에서도 공인 出馬者를 발표하였는데, 大邱의 갑, 을, 병구에 각각 서동진, 조병옥, 김재권 등이 공천되었다. 그 밖에 立候補者 가운데 國民會 소속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가 무소속 출마자였다.



〈사진 3-8〉 중임제한 철폐
개헌안에 서명하는 이대통령

選舉運動期間中에 選舉委員會가 주최하는 합동정견 발표회에서 野黨 입후보자들은 정부의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가열되자 한때 합동정견 발표회가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고 심지어는 野黨 立候補者와 그 운동원에 대한 暴行事態도 발생하였으며, 15일 밤에는 을구 입후보자 조병옥의 집에 폭발물이 투척되는 불상사가 있었으며, 16일 북명국민학교에서 개최된 합동정견 발표회에서는 野黨 立候補者 김재권이 政府施策을 과격하게 비난했다는 이유로 긴급 구속되는 사태로 발생하였다.

5월 20일 시내 유권자들은 구선거구에 마련된 141개 投票所에서 투표를 하였으며, 投票率は 비교적 높은 85%를 상회하였다. 選舉 結果는 야당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大邱시내 3개 선거구의 立候補者와 投票數는 〈表 3-9〉와 같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自由黨이 114석을 획득함으로써 압승하였다. 民主國民黨은 15석을 얻었고, 무소속이 67석을 획득하였다. 이와 같이 與黨인 自由黨의 압승은 與黨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범야당 대동단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自由黨은 무소속의원의 포섭공작을 벌여 6월 15일, 원내 交渉團體登錄時에는 136명에 달하게 되었다. 개헌선을 확보한 自由黨은 大統領 책임제, 대통령 2선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改憲案을 9월 6일 國會에 제출하였고, 원외에서는 국민회 주동하에 全國 愛國團體 宣戰協議會를 구성하여 개헌 운동을 추진하였다.

〈表 3-9〉

大邱 시내 5·20 선거 상황

大邱 갑구:	서동진(徐東辰)(민국)	21,211 (당선)	최희송(崔熙松)(무)	13,356 (차점)
	서석현(徐錫現)(자유)	7,043	최성환(崔成煥)(국민)	4,301
	송두환(宋斗煥)(무)	2,634	김충학(金忠學)(국민)	1,160
	김지현(金芝鉉)(무)	1,096	이병휘(李炳輝)(무)	548
大邱 을구:	조병옥(趙炳玉)(민국)	29,805 (당선)	손인식(孫仁植)(자유)	8,177 (차점)
	김봉문(金奉文)(무)	3,153	박성하(朴性夏)(무)	1,249
	김동학(金同鶴)(무)	1,204	최영호(崔榮昊)(국민)	683
大邱 병구:	이우출(李雨茁)(무)	26,650 (당선)	이갑성(李甲成)(자유)	17,182 (차점)
	조병관(曹秉瓘)(무)	2,026	김재권(金在權)(민국)	1,951
	공원상(孔元相)(무)	1,031	조태영(趙泰泳)(무)	280

改憲案은 11월 27일의 議會票決에서 在籍議員 203명 중에서 가 135표, 부 60표, 기권 6표, 무효 1표, 결석 1표로써 일단 부결로 선포되었던 것인데, 自由黨은 정족수 計算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단수계산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7일 본회의에서 野黨側이 퇴장한 가운데 27일의 宣布를 번복하여 가결을 선포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4사5입 개헌파동이다.

Ⅱ. 大邱 毎日新聞 被襲事件

5·20 總選舉에서 변칙적인 方法으로 憲法 改正을 강행함으로써 장기집권의 문호를 열어 놓았던 自由黨은 정부통령선거를 1년 앞두고 야당세력과 여기에 동조하는 言論彈壓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1955년 9월 14일 오후 4시 폭한들이 곤봉과 해머등 흉기를 지니고 大邱 毎日新聞社에 난입하여 印刷機 시설과 기재 및 통신시설 등을 마구 파괴하고는 發送準備中이던 신문까지 탈취 도주하였으나 미리 연락을 받은 당국은 警察 2명을 파견했을 뿐 충분한 警備를 하지 않았다. 이 襲擊事件을 유



〈사진 3-9〉

大邱 毎日新聞 테러

발시켰던 직접적인 도화선은 동신문 9월 13일자 「학도를 정치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사설이었다. 당시 嶺南地方의 유일한 野黨紙였던 동신문의 社說內容은 다음과 같다. “이즈음에 와서 中·高等學生들의 가두행렬이 다반사처럼 되어 있다. 모종행렬만이 아니라 최근 大邱市

內的 예로서 현관의 출영까지 學生들을 이용하고 도열을 지어 3.4 시간이나 귀중한 공부시간을 허비시켜 가면서 잔서의 폭양밑에 서게한 것을 목격하였다. 그 현관이 大邱市民과 무슨 큰 인연이 있고 또 舉市的으로 환영해야 할 대단한 國家的 功積이 있는 지 모르겠으나 수천 수만의 男女學徒들이 면학을 집어치우고 한 사람 앞에 10원씩 내어 수기를 사가지고 길 바닥에 늘어서야 할 지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당시 大邱에는 敵性監視委員團(休戰監視委員團)의 축출운동이 고조되고 있던 때이므로 동사설에 게재된 一部 내용은 적성감시위원단 축출운동을 비방하는 이적행위라고 해석했고, 현관이란 한 것은 당시의 주미대사 임병직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므로 執權勢力의 비위를 거슬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당국은 暴力事態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의법 차단하지 않고 오히려 問題의 사실 筆者인 동신문사주필 崔錫采에게 이적행위를 하였다는 죄목을 걸어 입건송치하였다.

이 事件은 마침내 국회에서 政治問題로 등장하여 여야간의 논쟁끝에 현지에 調查團이 파견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습격 관계자 일당은 실형을 선고 받았고, 大邱每日新聞社 주필 최석채는 한 때 구속 기소까지 당하였으나 56년 5월 確定判決에서 무죄 석방되었다. 결국 이 事件은 自由黨 정권의 言論彈壓의 한 형태로 남게 되었다.

Ⅲ. 第3代 正·副統領選舉와 開票中斷事件

四捨五入 改憲파동에 이어 제3대 정부통령 選舉가 박두하자 自由黨은 1956년 3월에 제7차 臨時代表者大會를 개최하여 동당 대통령 候補로 李承晩을, 부통령후보로 이기봉을 지명하였으며, 民主黨에서는 大統領候補에 신익희, 부통령 후보에 장면을 지명하였으며, 進歩黨(가칭)에서는 동당의 大統領候補로 조봉암, 부통령후보로 서상일을 각각 지명하였으나, 서상일의 사퇴로 박기출이 그 대신 지명되었다. 56년 5월 15일 제3대 정부통령선거를 1개월여 앞둔 4월 7일 立候補者 登錄을 마치자 選舉運動이 본격화되었다. 大邱에서 가장 먼저 유세를 시작한 것은 民主黨이었다. 4월 15일 수성천변에서 民主黨의 신익희, 장면 후보의 演說을 듣기 위하여 모여든 청중의 수는 10만 이상이었다. 29일에 같은 場所에서 행한 진보당의 조봉암의 유세에는 약 2만명이 운집하였고, 이어서 30일에는 大邱驛 廣場에서 이범석, 만경관 옆 소개지에서는 自由黨의 이기봉후보가 유세를 하였다.

각 당의 選舉運動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가던 중 5월 5일 民主黨의 신익희 大統領候補의 급사는 選舉樣相을 급변시켰으며 民主黨은 자연스럽게 부통령후보의 당선에 주력하였다.

5월 15일의 大邱 시내 141개 投票所에서는 大邱시 有權者 213,175名 중 84%에 해당하는 180,966名이 投票에 참여하였다. 투표결과 나타난 狀況은 <表 3-10>, <表 3-11>과 같다.

<表 3-10> 大統領選舉 狀況 (1956年)

투표구	선거인	투표자수			기권	투표율(%)	후보자별득표수		
		유효	무효	계			조봉암	이승만	계
大邱市 제1	72,834	47,625	14,081	61,706	11,128	84.7	34,125	13,500	47,625
大邱市 제2	64,045	42,604	11,528	54,132	9,913	84.5	31,997	10,607	42,604
大邱市 제3	76,296	49,704	15,424	65,128	11,168	85.4	34,998	14,706	49,704

<表 3-11> 副大統領選舉 狀況 (1956年)

투표구명	선거인	투표자수			기권자수	투표율(%)	후보자별득표수						
		유효	무효	계			장면	이기봉	윤치영	이윤영	백성옥	이법석	계
大邱市 제1	72,834	59,102	2,563	61,665	11,169	84.7	49,117	7,266	733	142	591	1,252	59,102
大邱市 제2	64,045	51,730	2,452	54,182	9,863	84.6	42,639	6,457	759	143	585	1,147	51,730
大邱市 제3	76,296	61,818	3,420	65,238	11,058	85.5	49,804	8,671	907	188	721	1,527	61,818

결과적으로 제3대 大統領으로 李承晩 제4대 副大統領으로 장면이 각기 당선되었지만 부통령 선거 開票過程에서 우리 선거사상 초유의 改票中斷事件이 大邱에서 발생하였다.

개표중단 사건의 무대였던 大邱市廳內에는 大邱시의 3개 開票所가 설치되어있었다. 開票業務가 진행되던 5월 16일 오후에 大邱시 제3개표소에서 당시 大邱시장 허흠(許洽)이 장면 후보의 유효표 100매철 속에 이기봉후보의 有效票 94매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데서부터 事件이 발단되었다. 大邱시장 허흠이 문제를 제기하자 곧 이어서 정체 불명의 괴한 20여 명이 제2, 제3 開票所에 난입하여 選舉委員, 개표종사원, 야당참관인 등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로써 장내 질서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따라서 제2, 제3 開票所는 완전히 폭력배의 지배 하에 들어 갔으며, 第1開票所까지 개표업무가 완전히 중단되었다.

이렇게 되자 全國의 이목은 大邱에 집중되었으며 自由黨, 民主黨의 간부진과 수백명의 내외 기자들이 大邱에 몰려왔다. 大邱를 제외한 他地域에서는 開票를 완료하여 장면이 이기봉을 8만7천여표 앞지르고 있었다. 大邱시의 開票結果에 따라 제4대 부통령의 당락이 결정되는 단계였으나, 大邱에서 이기봉이 승리하리라고 믿는 자는 거의 없었다.

17일 오후 5시 大邱市 3개 開票委員會는 개표장을 현상태로 大邱市長에게 보관을 위임하고 治安을 南大邱 警察署長에게 의뢰하고는 제1선거구 開票委員長 김동진의 20명의 공동명의로 사퇴를 결의하였다. 選舉委員會 改編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의견이 대립된 채로 개표 中斷事態와 공포분위기는 계속되었다.

19일 하오 장면의 당선을 시인하는 대통령의 談話發表와 함께 慶北道廳 회의실에서 자유민주 양당대표간의 연석회의가 진전을 보여, 결국 民主黨측이 제의하였던 5개항의 要求條件을 自由黨측이 수용함으로써 사태는 호전되어 20일 상오부터 개표 업무가 진행되었다.

결국 이 事件은 大邱市民의 입장에서서는 5일간의 주권수호 투쟁이었다. 이기붕의 당선을 위한 自由黨의 선거음모가 大邱市民에 의하여 저지되어 실패되고만 것이다. 5·15 정부통령선거를 통해서 大邱市民이 보여준 姿勢는 불의와 탈법에 대한 抵抗精神의 발로이었다.

IV. 地方自治團體의 選舉

1956년 2월 13일, 法律 第385號로써 地方自治法이 개정·공포되어 시·읍·면장의 선거는 간선제에서 住民의 직선제로 바뀌었고, 동년 8월 8일에는 시·읍·면장과 그 議會議員를, 8월 13일 서울특별시 시·도회의의원 選舉를 각각 실시하게 되었으니 임기가 남은 시·읍·면장 및 地方議會議員은 개정된 地方自治法 附則에 의하여 그 기득권이 인정되었으므로 大邱시의 경우 시장선거만은 58년 10월 2일에 행하여졌다.

1. 第2代 市議員選舉

大邱시의회 의원 선거구는 종전과 동일하였으나 다만 市議會 정원수가 종전보다 6명이 줄었기 때문에 각 선거구의 선출 議員數를 제1구 4명, 제2구 3명, 제3구 4명, 제4구 5명, 제5구 4명, 제6구 3명으로 총 23명이 배정되었다.

大邱시 6개구의 立候補者 總數는 68명으로 평균 3대 1의 競爭을 보였다. 政黨·團體所屬別로는 自由黨이 15명, 民主黨이 14명, 進歩黨이 1명, 國民會 1명, 農民會 1명, 勞總 1명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가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였다. 치열한 선거전 후에 8월 8일 대체로 평온한 분위기에서 投票가 진행되었으나 投票率은 저조하였다.

개표결과 전직 市議員 과반수가 재당선되었으나 노장급은 거의 낙선한 반면 신진들이 두각을 나타내었다. 選舉結果는 〈表 3-12〉와 같다.

8월 22일 제2대 大邱市議會가 개최되어 議長 副議長 選舉를 하였는데, 의장에는 배정원이, 부의장에는 이근상이 각각 선출되었다.

〈表 3-12〉

제2대 시의원 선거 상황표

선거구	유권자수	입후보 자 명	소 속	득표수	비 고	선거구	유권자수	입후보 자 명	소 속	득표수	비 고				
1	29,629	김 홍	민 주	2,847	재당선	4		육천쇠	무	2,668	당 선				
		김석현	자 유	3,338				이의원	무	1,718					
		최순봉	무	355	재당선			권영진	무	1,723	당 선				
		김영조	자 유	3,810				변금득	무	457					
		이석호	진 보	167	재당선			김 역	무	2,762	당 선				
		박만태	무	3,152				김진현	무	320					
		노만균	무	1,454	당 선			김상교	무	2,011	재당선				
		김상돈	민 주	3,355				서교양	민 주	1,495					
		이영집	노 총	1,488	당 선			배영호	자 유	3,014	재당선				
		김도한	민 주	1,633				상 식	민 주	1,703					
2	27,406	정재홍	민 주	5,864	재당선	5	41,232	김원구	자 유	2,801	재당선				
		황경수	무	3,031				황창하	자 유	1,218					
		지성영	무	3,181	당 선			송병구	민 주	1,570	재당선				
		최정복	무	1,224				김철수	국 민	1,504					
		이근상	민 주	4,818	재당선			6	33,460	유성금	자 유	4,442	재당선		
		우천석	무	818						이대환	무	4,427		당 선	
		황일용	국 민	1,068	재당선					강경배	민 주	2,292	당 선		
		3	33,242	김학봉						무	3,102	재당선		김주호	무
				정무한	무					1,251	유극창		민 주	1,975	당 선
				서정래	자 유					3,222	재당선	조병권	무	3,931	
전병희	무			3,229	재당선	배정원	자 유			5,443					
이재석	무			509		김희환	무			2,130					
박종균	자 유			4,692	재당선	정남진	민 주			2,420					
이정일	무			2,244		6	33,460			서석여	자 유	2,591	당 선		
정이수	민 주			2,584	이기훈			무	3,825	당 선					
강재순	농 민			1,922	박인호			민 주	2,461		당 선				
박익조	자 유			1,459	홍연천			민 주	4,884						
4	37,669	정해영	자 유	1,723	재당선			한위술	무	745	당 선				
		김재홍	무	1,377				서곤수	무	3,150					
		양주석	민 주	2,528				정희진	무	1,911					
		김명한	자 유	3,001				강판용	무	3,170					
		김태환	무	1,184				우사문	자 유	1,663					
		구자덕	무	433											

2. 第2代 道議員選舉

市議員 選舉에 이어 13일에는 제2대 道議員 選舉가 행해졌다. 慶北道議會의 정족수는 改正 地方自治法에 의해 61석으로 늘어났으며, 그 중 大邱市는 9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大邱市 選舉區는 3개에서 9개로 확대되었다. 이 9개 선거구에 출마한 立候補者 총수는 31명이었는데, 그 중 제1선거구에서는 無投票 當選者를 내었으나 제9선거구에서는 7명의 立候補者가 각축전을 벌였다. 13일 실시된 선거의 開票結果는 <表 3-13>과 같다.

<表 3-13> 第2代 道議員選舉 開票狀況

선거구	유권자수	입후보 자 명	소 속	득표수	비 고	선거구	유권자수	입후보 자 명	소 속	득표수	비 고
1		전세덕	자유	무투표	당 선	6	27,838 투표자 19,136 유효표 183,416	임규하 황용팔	민주	11,394 7,022	당 선
2	20,912 투표자 14,950 유효표 14,642	권영우 정기택 김중해 김팔석	민주	7,030 3,043 699 251	당 선	7	22,900 투표자 15,233 유효표 15,001	최상범 김봉문 최조희 최동태	민주	7,198 5,321 1,561 921	당 선
3	20,913 투표자 15,377 유효표 15,129	정복향 서강준 박택승	민주	8,425 4,363 2,341	당 선	8	22,556 투표자 14,038 유효표 13,321	김종환 최상규	무	9,495 3,826	당 선
4	28,383 투표자 20,810 유효표 20,487	배영덕 곽연곤 변영세 구원서 박중구	자유	7,494 4,574 4,215 3,042 1,163	당 선	9	24,602 투표자 17,288 유효표 17,004	김정호 배달수 김영진 김석환 최종문 이도곤 유원용	민주	8,909 2,872 2,458 1,105 749 485 426	당 선
5	25,269 투표자 18,291 유효표 17,821	김재권 조귀환 이영세	민주	10,091 6,025 1,705	당 선						

V. 第4代 國會議員選舉

제4대 민의원의원 총선거를 위한 選舉法改正을 둘러싸고 國會에서 與·野는 격돌을 피하고 協商을 추진하였다. 즉 公明選舉를 보장할 수 있는 國會議員選舉法을 마련하기 위해 57년 9월부터 與野協商이 추진되어, 58년 1월에 이른바 協商選舉法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 주요 골자는 선거구의 확대, 選舉委員會에의 野黨側 참여, 추천인제, 기탁금제, 선거운동원수의

한정 및 참관인의 권한 확대 등이 그것이다.

政府는 개정된 選舉法에 의하여 선거일자들 4월 2일로 決定·公告하고 3월 1일부터 10일까지 立候補登錄을 실시하였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大邱市의 選舉區는 6개구로 늘어났다. 이 6개구에 등록한 立候補者 총수는 23명이었다가 2명이 중도사

퇴하여 21명이 되었다. 5월 2일에 실시된 선거는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되었으나, 開票過程에서는 도처에서 말썽이 생겼다. 먼저 大邱 淸구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無效投票數가 쏟아져 피아노식 개표라는 말이 나돌았으며, 병구와 기구에서도 開票不正이 드러났다 하여 일시 개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개표결과는 <表 3-14>과 같다.

第4대 民議員議員 選舉狀況

<表 3-14>

大邱淸구 :	신도환(무소속) 15,623(당선)	서동진(민 주) 10,840(차점)
	배은희(무소속) 1,484	
大邱을구 :	이병하(민 주) 15,621(당선)	서상일(민 혁) 10,815
	손인식(자 유) 6,579	유 립(독 로) 1,437
大邱병구 :	이우출(무소속) 14,355(당선)	임문석(민 주) 13,677
	김재권(무소속) 3,537	김영호(무소속) 2,770
	김수한(민 혁) 1,238	
大邱정구 :	조재천(민 주) 30,125(당선)	주덕근(자 유) 11,404
	조병관(무소속) 1,111	
大邱무구 :	조일환(민 주) 16,332(당선)	배정원(자 유) 14,654
	김봉문(민 혁) 4,179	
大邱기구 :	이순희(자 유) 16,143(당선)	최희송(민 주) 15,895
	서석현(무소속) 4,762	

Ⅵ. 民選 大邱市長 受難事件

개정된 地方自治法 附則에 따라서 大邱市에서는 1958년 10월 2일 최초의 직선시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自由, 民主 양당의 공인 후보 2명, 無所屬 3명, 도합 5명의 候補者가 경합을 벌였다. 市選舉委員會는 投開票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하여 세밀한 준비와 불의의 사태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하였다. 평온한 가운데 실시된 선거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권자총수: 262,868, 투표자수: 174,036, 기권자수: 88,832, 무효: 6,600

입후보자 및 득표순위: 조준영(趙俊泳)(민주) 98,780, 김종환(金鍾煥)(무소속) 47,756

배정원(裴廷遠)(자유) 15,890, 권대일(權大一)(무소속) 3,119,

이호석(李浩錫)(무소속) 1,891.

選舉結果 초대 直選市長으로 선출된 조준영은 就任과 함께 시청요직을 개편하는 한편, 새시정을 집행해 나갔다. 그러나 시장과 의회사이의 相互對立으로 조시장의 시정은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하였다. 즉 야당시장과 여당우위의 의회의 갈등 때문에 시정이 마비되었다. 의사지

연, 의안의 부당한 부결과 폐기 등의 방법으로 시장은 궁지에 몰렸다.

그 해 12월 豫算審議를 위한 제60차 정기회에 제출된 豫算案이 까닭없이 익년 4월의 제67차 회기에 이르기까지 통과되지 못하였고, 이에 시장은 부득이 가 예산을 編成 執行하기 위해 慶北道에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으며, 그 외에도 市議會는 정실인사, 공금부당지출, 기강 문란 등을 구실로 시장을 공격하였다.

그 후 地方自治法은 다시 개정되어 市·邑·面長은 임명제로 되고, 地方議會는 市·邑·面長을 불신임할 수 있게 되어 大邱市議會는 59년 5월 14일, 自由黨議員들로서 조시장 불신임안을 提出하였고, 결국 이것이 가결되었다.

조시장은 議會의 처사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시장 不信任決意에 대한 執行停止假處分申請과 議會議決 請求訴訟을 大邱高等法院에 제출하는 한편, 시장불신임결의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이에 항거하였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는 야당시장의 受難事件인 동시에 執權 自由黨에 의한 大邱市民 民意 蹂躪事件이기도 한 것이다.

第5節 2·28과 4·19

I. 2·28 學生義舉

4·19가 3·15부정선거 자체에 항거해서 일어난 것이라면, 2·28은 부정선거운동에 항거해서 일어난 것이다. 3·15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自由黨과 그 사주를 받은 행정부는 집권의 연장을 위하여 온갖 수단을 강구하면서 선거에 대비하였다. 56년 제4대 부통령선거에서 自由黨이 民主黨에 패배하였다는 사실과 58년의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自由黨이 비록 원내의 안정세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하기는 하였으나 야당 특히 民主黨



〈사진 3-10〉 2·28의거 학생대열

의 팔목할만한 성장으로 自由黨의 원래 목표였던 개헌선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동당은 초조와 불안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것은 고령의 대통령이었던 李承晩의 대통령직 계승

권이 반대당인 民主黨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自由黨은 그 때까지의 선거경험에 비추어 제5대 부통령선거에 있어서 필승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民主黨의 대통령 입후보자 趙炳玉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대통령선거전은 사실상 李承晩의 독무대가 되어 버린 실정이어서 차기정권은 사실상 自由黨에 의하여 지속될 것이 확실시되었다. 그러나 自由黨의 사정으로는 총제 李承晩의 고통으로 4년간을 지탱할 지가 의문시되었다. 따라서 부통령 입후보자 李起鵬의 당선을 위하여 최후의 수단을 강구함에 이른다.

선거전이 고조됨에 이르렀던 1960년 2월 28일 民主黨의 부통령후보가 4년전의 선거에서 自由黨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의 승리를 결정지어 준 大邱에서 유세를 갖게 되었다. 이 날의 유세에 학생들이 참관하지 못하도록 自由黨의 지시가 내려지자 일부 중등학교에서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등교를 명하였다.

경북고등학교에서는 1학기 중간시험 일정을 변경하여 일요일 등교를 강요하였으며, 大邱고등학교에서는 토끼사냥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등교를 지시하였고, 大邱 상업고등학교, 大邱 공업고등학교, 심지어 여자고등학교 및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운동회, 졸업식연습, 보충수업 등의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일요일 등교를 명하였다.

각 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학교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27일 토요일 수업을 마치고 돌아간 경북고등학교 학생대표들은 학원탄압에 항의하는 데모를 감행할 것을 결의하고 決議文을 작성하는 한편, 大邱고교, 사대부고 등의 대표들과 접촉하면서 데모 결행에 관한 숙의를 거듭하였다.

28일 아침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정에 모여서 학교당국의 만류를 무릅쓰고 사전에 준비하였던 決議文을 낭독한 후, 자신들의 뜻을 사회에 알리고 執權者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가두시위에 들어갔다. 약 7백여명의 학생들이 모자를 손에 들고 「햇불을 밝혀라」「동방의 아들이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중앙통을 거쳐 도청사에 밀어 닥쳤다.

「학원의 정치도구화 반대」를 주장하며 도청광장에서 다시 宣言文을 낭독했다. 이 때 가두시위 행진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도청직원들은 철문을 폐쇄하고 일부 학생을 연행하는 한편 데모를 산발적으로 해체시켰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시청, 지사관사앞 등에 집결하여 끈떡지게 시위를 계속했다.

한편 大邱고교 학생들은 한 때 교직원의 제지로 인하여 100여명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이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가 28일 오후에 기어코 교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러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警察의 제지로, 중앙통까지 진출했을 때는 40여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

날 오후 7시경에는 교내농성을 계속하던 사대부고 학생들의 산발적인 가두 「데모」로 인하여 대邱 시내의 분위기는 흥분된 상태가 고조되고 있었다.

결국 이들 학생 「데모」는 그 날로서 警察力에 의하여 저지되고 말았지만, 이 날의 大邱 학생들의 의거는 마침내 自由黨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의 진원이 되었던 것이다. 官權의 억압으로 일반市民들로서는 생각하기조차도 어려운 여건이었는데도, 正義感에 불타는 어린 학생들이 自由黨 독재권력에 항거하는 횃불을 맨 먼저 치켜 올림으로써 기성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다.

Ⅱ. 3·15 不正選舉

제4대 대통령선거 및 제5대 부통령선거를 앞두고 自由黨은 그 승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필사적인 대책을 일찍부터 강구하여 왔다. 즉 조직의 확대와 자당의 정책 및 선거공약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려는 일련의 노력이 그것이었다.

1959년 9월 自由黨 중앙본부는 조직개편과 강화를 위하여 각급 지방당부에 「조직강화 실천방안」을 시달하였다. 保安法波動을 계기로 격화했던 야당측의 반정부공세에 한때 압도당했던 自由黨은 1959년 2월부터 각 도별로 「국난타개 시국강연회」를 개최하는 한편, 야당주도하의 「국가보안법개악반대국민대회」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 산하단체인 애국단체총연합회 명의하에 「국권수호 전국민 총궐기대회」를 구성하면서 국민의 動員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自由黨은 조직의 확대 강화를 목적으로 9인조 세포의 강화, 당원의 배가운동, 노총 조직과 여성조직의 강화, 각급 당간부의 부락별 순회좌담회 개최, 음성활용책으로써 경찰의 제3선활동과 일반 공무원의 제1선활동 등을 지시하였다. 선거의 해인 1960년에 들어서면서 自由黨은 범여(汎與)선거대책 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각 지방에서는 선거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民主黨은 1959년 11월에 정부통령선거 지명대회를 개최하여 후보자 지명을 한 다음, 이듬해 1월에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統一黨과 大韓女子國民黨에서는 각기 부통령후보만을 지명하고 대통령으로는 自由黨의 입후보자를 지지하고 나섰다.

1960년 2월 3일 自由黨정부는 조기선거를 반대하는 야당측의 주장을 묵살하고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선거일자를 3월 15일로 공고하였다. 야당측은 5월 중순경에 동선거의 실시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의 선거는 신병치료차 미국에 갔던 民主黨의 대통령후보 趙炳玉이 2월15일에 사망함에

따라서 처음부터 자유·민주 양당의 부통령후보인 李起鵬과 張勉의 재대전의 양상을 띄었다. 自由黨은 1956년의 패배를 설욕하고 李 대통령의 후계권확보를 위해서도 결사적인 選舉戰을 치러야 했다. 그 까닭에 말단조직으로 3인조, 5인조, 9인조 등을 편성하여 득표공작에 임했다.

自由黨의 득표공작의 핵심은 自由黨 후보자에의 투표를 피차 확인감시하는 일종의 공개적인 투표방식이었다. 自由黨은 이러한 부정득표작전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경찰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사전투표, 환표 등이 그것이었다. 전국에 걸친 경찰의 이러한 부정선거계획을 알게 된 自由黨 간부들은 이기봉을 통하여 그런 계획을 포기하도록 內務部에 압력을 넣도록 노력했으나 허사였다 한다.

3·15선거는 부정선거계획대로 진행되어 李承晩과 李起鵬은 엄청난 득표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단일후보였던 李承晩은 유효투표총수의 88.7%에 해당하는 9,633,376표를, 民主黨의 부통령후보였던 張勉은 1,843,758표를 얻은 데 반하여 自由黨의 부통령후보였던 李起鵬은 무려 유효투표총수의 79%에 해당하는 8,337,059 표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투표가 완료되었을 때, 民主黨은 즉각 3·15선거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즉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조기선거, 야당계인사 입후보등록의 방해, 무수한 유령유권자의 조작, 야당 선거운동원의 살상 자행, 대다수 참관인 신고의 접수거부, 신고된 참관인의 입장거부 또는 축출, 관헌 및 폭한에 의한 공포분위기 조성, 기권강요, 투표개시전 4할 무더기표 투입, 투표합검사 거부, 내통식 기표소의 설치, 3인조 강제 편성 투표, 집단대리투표 등을 들었다.

大邱市の 개표결과는 <表 3-15>와 같다.

<表 3-15> 3·15 正·副統領選舉 狀況表

대 통 령 후 보 자					부 통 령 후 보 자					
개 표 구	유권자수	이승만	무 효	기 권	이기봉	김준연	임영신	장 면	무 효	기 권
大邱 제1	38,878	28,159	8,160	2,562	20,960	426	180	14,178	572	2,562
大邱 제2	45,590	34,028	9,296	2,266	23,049	760	386	18,747	337	2,271
大邱 제3	50,143	34,766	9,693	5,684	23,252	666	355	17,872	2,314	5,684
大邱 제4	58,786	42,805	12,725	3,256	28,875	476	345	24,792	1,042	3,256
大邱 제5	48,698	35,186	9,826	3,577	22,109	1,931	1,452	18,495	1,124	3,577
大邱 제6	44,563	33,411	9,151	2,001	23,613	430	123	17,252	1,281	1,864
계	286,658	208,355	58,851	19,346	141,858	4,689	2,841	111,336	6,670	19,214

Ⅲ. 4·19 革命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를 전후하여 전국 각처에서 시위 및 소요사태가 발생하였다.

2·28 大邱학생의거를 필두로하여 대전·서울 등지에서 학생시위가 계속되다가 선거당일에는 마침내 馬山에서 유혈사태가 빚어지고 말았다.

마산사건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200수십명이 불법 감금되었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온 국민은 일대충격을 받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에 대한 政府의 미온적 조치는 국민감정을 더욱 자극하였다. 3월 24일 釜山에서 1천여 학생들이 마산에서의 경찰만행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4월 11일에는 마산에서 참혹하게 살해된 김주열(金朱烈)의 시체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사태가 더욱 격화되었다. 특히 시위대의 배후에는 공산당세력이 개재된 혐의가 있다는 요지의 當局의 발언은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이 무렵 大邱에서도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의분을 느끼고 있던 차에 4월 12일 大邱시내 民主黨 당원들과 일부市民들이 3·15부정선거 규탄 「데모」가 발생하여 경찰과 난투극을 벌였으며, 民主黨 간부를 필두로 한 약 200여명의 당원이 당사에서 철야 농성시위가 전개되었다.

4월 18일 서울의 高麗大學學生의 평화적 「데모」가 自由黨계열의 폭력배들에 의해 수많은 부상자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대학생의 분노를 야기하였다.

마침내 4월 19일 서울의 각 대학교 학생들이 총궐기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大邱에서도 慶北大學校 학생 2천명과 大邱大學學生의 궐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황급히 전국 주요도시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大邱시에서도



〈사진 3-11〉 4·19 大邱 大學教授團 데모

도 비상사태에 돌입하였다. 오후 7시부터 야간통행금지에 들어갔으며, 國民學校를 제외한 각 급학교는 문교부의 지시에 따라서 휴교상태에 들어갔다. 시내 요소에는 군에 의하여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었고 헌병이 배치되었다.

비상계엄이라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도 19일 밤에는 靑丘大學學生 약 1,500명이 경찰관에 포위된 채 自由黨정권을 규탄하는 시위행진을 감행하였다. 이 때 경찰에 연행된 학생 가운데 한 女學生이 심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자 한때 크게 물의를 빚었다.

4월 19일의 전국 학생들의 궐기로 사태가 악화되자 이튿날 李承晩은 「불만의 주요원인을

시정할 것」을 발표하였고, 긴급 소집된 國會는 시국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어서 民主黨 출신 張勉은 부통령직에서 사임의사를 표명하고 李承晩大統領의 인책 퇴진을 요구하였다. 유동적인 사태속에서 4월 24일 이기붕은 일체의 공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李承晩 대통령의 사태수습방안에 대해 國民은 다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25일 民主黨은 李承晩의 하야와 정부통령 재선거, 내각책임제 개헌을 요구하였으며, 서울의 각 대학 교수단은 李承晩의 사퇴 등을 골자로 한 14개 조항의 時局宣言文을 채택한 후 시위를 전개하였다. 서울 교수단의 시위가 있자 이에 호응하는 시위가 全國에서 다시 발생하였으며, 이에 李承晩은 改閣으로 사태수습을 기도하였으나, 4월 26일 전국 주요도시에서 발생한 국민들의 대규모시위로 마침내 自由黨 政權은 붕괴되고 말았다.

第4章 第2共和國時代

第1節 過渡政府下の政治動向

I. 許政 過渡內閣의 出帆

4·19의거로 이승만대통령이 하야 망명하면서 당시 외무장관으로 수석국무위원이던 許政이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아 60년 4월 27일 과도정부가 수립됐다. 이 과도정부는 자유당정권이 무너지고 제2공화국의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때까지 그절차를 관리하고 그동안의 정국을 수습하고 안정시킬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이다.

과도정부의 수립은 張勉부통령이 4월 23일에 사임하고 4월 27일에 李承晩대통령의 하야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됐기 때문에 張勉에 의한 민주당정권이 승계될 수 없었던데서 비롯된 것이다. 과도정부의 허정내각은 4·19가 義舉이지 革命은 아니라고 보고 自由黨정부가 왜곡 탄압한 자유민주체제를 회복하는데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방법도 혁명적이지 아닌 법절차에 따른다는 것이었다.

II. 內閣責任制 改憲案의 採擇

과도정부는 출범 이튿날 9部長官 가운데 6部長官을 경질한데 이어 전국 지방장관들의 사표를 일제히 수리하고 신규 임명했다. 이와함께 민심수습을 위해 부정선거의 수사에 나서는 한편 폭력배 소탕과 학원의 질서유지에 진력했다.

한편 국회는 4월 26일 본회의에서 ①李대통령의 즉시 하야외에 ②正·副통령재선거 ③과도체제하의 내각책임제 실시 ④개헌안 통과후 국회의 해산및 총선거실시 등을 결의하고 5월 2일에는 民議院議長에 郭尙勳을 선출했다. 또 5월 4일 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회는 대통령은 상하양원합동회의에서 간접선거하고 임기 5년동안 정당을 초월하여 국가의 원수로서 존재한다는등 29개항의 개헌요강에 합의했다.

9일에는 입법, 행정, 사법의 3부 연석회의에서 개헌안을 최종심의, 이튿날 개헌안 기초위원회에 의해 50개항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 11일에는 174명의 의원찬성 날인으로 6월 10일 본회의에 상정 23일 본회의에 통과돼 정부로 이송됐다.

과도정부는 27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7월 27일 민·참의원동시선거를 결의하고 국무원공고로 공표했다. 과도정부는 최단기간에 새정부 출범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던것이다.

Ⅲ. 學園 및 社會混亂

과도정부의 출범으로 새로운 정부를 창출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그동안 억제돼 왔던 갖가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욕구가 대중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같은 현상은 4·19를 주도했던 학원은 물론 정당, 사회단체, 노조등에서 산발적이면서 과격양상을 띠고 나타났던 것이다. 일부에선 민주화분위기에 편승한 무절제한 대중감정의 폭발현상을 보이기까지 한것이다.

5월1일 대구의 경북대학교, 청구대학, 계명기독교대학의 학생대표들은 ① 기회주의적인 정상배는 물리나라 ② 축재재산은 시급히 몰수하라 ③ 현 民議員은 총사퇴하라 ④ 순수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하라 ⑤ 보수혁신 양당책임정치를 확립하라 ⑥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라 ⑦ 신국가 보안법및 군정법령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라 ⑧ 자유당정권에 아부한 공무원은 즉각 처단하라 ⑨ 자유당정권에 아부한 학자단체 문화인, 예술인은 즉시 색출하라 ⑩ 반공청년단은 즉시 해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경북대학교 물리과 대학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총장, 대학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를 했다. 어용및 부정교육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학원의 혼란과 분규는 점차 격화돼갔다.

이런 가운데 5월 29일, 李承晩전대통령은 부인「프란체스카」여사와 함께 8시50분 전세기편으로 하와이로 망명했다. 이망명으로 세상은 다시 소란해졌고 정당들의 대정부공격성명에 이어 민의원본회의는 許政과도정부 수반을 불러 망명경위를 추궁했다.

이날 대구에서는 “4월학생혁명을 모독하지 말라”는 프래카드를 들고 학생1천여명이 시위를 벌이며 “도피하는데 방조한 許政내각과 매카나기 미국대사는 즉시 물러가라”고 외쳤다.

이밖에 대구 시내 주요 기업체에서는 자유당 치하에서 노동쟁의로 해고됐던 종업원들을 복직해 주도록 요구하는 새로운형태의 분규가 일어났고 시내 불교계는 과거 李承晩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물러나 있었던 대처승측에서 그들의 지위를 다시 확보할 목적으로 비구승들과 난투극을 벌이는등 소동을 빚었다. 또 5월3일 대구 시내 남녀 고교생 4천여명은 국회의 즉시 해산을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그 다음날도 일부 학생들의 데모가 계속됐다.

그동안 경북도청과 대구시청은 행정책임자의 공석으로 그 기능이 거의 마비상태에 있었다가 5월6일 민주당출신의 趙俊永이 경북도지사로 임명되었으며 16일엔 朴箕緒가 대구시장으로

임명되었다.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는 기능이 마비된채로 각의원들은 총사퇴할 것을 주장했다. 5월 27일 대구시의원 가운데 자유당 소속 21명중 14명이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능상실속에 해산을 맞았고 경북도의회는 7인위원회를 조직,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기위해 협의하는 한편 嚴昌燮의장의 사표를 처리키로 했다.

4월 29일에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던 대구지구 중고등교원 노동조합은 5월 7일 경북여고 강당에서 대구지방 43개 중·고교대표 280여명이 참석하여 정식으로 발족하고 여기서 대한교련에서의 탈퇴, 대구시 중고등교육회에서 탈퇴, 새로운 교육위원회 구성촉진, 교육공무원법중 노동운동에 저촉되는 부분시정, 전국노협과의 제휴등을 요지로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같은날 시내 45개 국민학교 교직원 1천여명도 대구국민학교 강당에서 교원권익옹호를 표방, 초등교원노조를 발족했다. 이어 대구지구 교원노조는 1천여명의 교원을 대구역광장에 집결시켜 학원정화의 단행과 어용교직자및 학원모리배 추방등 10개항을 걸고 시위를 벌였다.

그런 가운데 경북대학교 교수회의는 金相悅교수를 총장직무대리로 선출했다. 한편 대구사범을 위시한 경북고교생들은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수학여행길에 오르고 대구 五成중고등학교생들은 교장, 교감사퇴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다른 한편 대구시내에선 새로운 정당, 단체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5월 15일 대구 시내 일부 인사들은 한국혁신세력집결 경북촉진회 결성대회를 개최하고 세력규합에 나섰다.

대구에서 사회대중당이 혁신세력대동단합을 내걸고 발족한 것을 전후하여 중앙에서는 민족주의 민주사회당의 錢鎭漢, 민주혁신당의 金成璜, 사회당의 成樂勳등이 주동이 되어 한국사회당을 발족시켰으며 이는 사회대중당과 더불어 혁신정당의 양대주류를 형성하였던것이다.

보수정당의 쌍벽을 이루어왔던 자유당이 붕괴됨으로써 민주당이 독무대를 차지했던 당시로서는 건전한 혁신정당이 육성되면 한국정당정치는 보수, 혁신의 정치노선에 입각한 정책대결을 통해 발전해 갈 수 있다는 일반적 관점에서 정치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의 혁신정당은 기반조직과 정치자금의 빈약성, 주도자들의 정치노선불투명, 지도체제의 불통일성등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7·29총선후 자체분열을 가져온 요인이 되었다.

이 밖에 정당에 참여치 않고 있던 일부 인사들은 별도로 모여 민주구국동지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이들은 일제시대의 독립지사, 선렬의 친지, 유지들로서 약 60여명이 모여 새로운 시대에 민주국가 건설에 헌신한다는 결의를 보였던 것이다. 뚜렷한 정치이념이나 노선을 표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당이라 할 수는 없어도 사회변혁기에 정치참여를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정치집단으로 볼 수도 있었다.

第2節 民主黨政府의 出帆과 政治動向

I. 民·參議院選舉

이른바 해산국회는 60년 6월 15일 내각책임제를 담은 개정헌법을 공포하고 6월 23일엔 개정헌법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법을 공포한뒤 해산했다. 이에 따라 과도정부는 7월 29일 민의원의원과 참의원 선거실시를 공고했다.

이 선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참의원 의원을 처음 선거하면서 대선거구제를 채택, 직할시와 도단위로 의원정수를 2~8인으로 하고 연기명투표로 선출한것이다. 당시 大邱시가 포함된 경상북도는 유권자수가 가장 많아 8명을 선출했다.

7월 2일 민·참의원 후보등록 마감결과 민의원에 1,562명, 참의원에 214명으로 총 1,776명의 후보가 난립했고 특히 민의원 출마자 가운데 무소속이 995명이나 출마해 출마자총수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7월 29일엔 평온한 가운데 투표를 마쳤으나 하오7시부터 개표가 진행되면서 투표함의 소각, 탈취, 파괴사건과 부정개표, 무효표를 둘러싼 분쟁이 야기되는 바람에 개표함소실 35개, 개표함파괴가 13개에 이르러 부득이 재선거를 실시한 곳도 있었다. 어쨌든 총선결과엔 民主黨이 民議院 의석수의 3분의 2가 넘는 199석을 차지하고 정권을 담당하게 됐다.

그러나 제2공화국의 주도적인 정치세력인 민주당은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신·구파간의 대립이 격화됐다. 이에따라 6월26일, 226명의 민의원후보와 60명의 참의원후보를 발표했다. 이에 반발, 112명의 민의원후보와 3인의 참의원후보가 공천없이 출마, 신·구양파로 분리된 채 선거운동을 했던것이다.

한편 자유당은 4월혁명으로 대부분의 지도부는 구속되고 당원은 대거탈당해 붕괴상태에 있었으나 일부 잔류세력에 의한 당 재건운동이 시도돼 7·29총선에 54명의 민의원후보와 22명의 참의원후보를 출마시켰다.

혁신정당들은 사회대중당을 비롯 한국사회당, 혁신동지총연맹, 사회혁신당, 한독당 등이 당초 보수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혁신세력 선거대책협의회를 구성, 연합공천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회대중당이 독자적인 입후보자를 공천함으로써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공천을 받은 혁신계후보들은 선거자금부족과 조직미비로 대부분 출마를 포기 결국 사회대중당의 135명, 한국사회당과 기타군소정당에서 10여명이 출마했을뿐이다.

보수정당들은 민권신장에 기초를 둔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내 세운데 대해 이들

혁신정당은 민주적 복지사회, 민주적 사회주의사회를 내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선거공약의 내용을 보면 보수와 혁신사이에 두터러진 특성 차이는 보이지 않고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었다.

대구지방에서는 무소속 입후보자가 압도적 다수로 난립했으며 정당별로는 민주당과 사회대중당으로 압축되어 있었다. 자유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의 후보는 거의 없었고 일부 사회단체를 배경으로 한 입후보자가 극히 적은 수를 점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입후보자중에는 4월 혁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학계, 언론계등에서 처음 정계에 진출하는 인사도 많이 나타났다.

입후보등록이 시작되면서 과거부터 선거기반을 다져왔던 자유당의 일부세력이 도처에서 다시 두각을 나타냄에 따라 이를 규탄하는 폭력, 파괴, 방화등 난동사태가 발생, 일부지역은 결국 사고지구로 재선거를 실시하는 상황을 가져왔다.

대구에서도 반혁명세력을 봉쇄하기 위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전국대학생 민주수호 공명선거추진위의 이름으로 반혁명세력 규탄성명의 발표에 맞춰 대구 시내 각대학의 일부학생과 시민들이 부패반혁명세력 규탄대회를 수성천변에서 개최하고 횃불시가 행진을 감행하는등 서거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투표에서는 대구는 평온한 질서가 유지됐다. 다만 선거운동과정에서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간에 지나친 인신공격, 중상, 금품에 의한 매표공작등으로



〈사진 4-1〉

8·8민의원 개원식

폭로, 혹은 고발전을 벌이기도 했으나 일반적인 선거질서를 뒤엎을 정도는 아니었다. 7월 29일의 대구지역선거 결과는 〈表 4-1〉 및 〈表 4-2〉와 같다.

7·29 民議院議員 選舉狀況

〈表 4-1〉

선거구	유권자수	입후보자	소 속	득표수	비 고	선거구	유권자수	입후보자	소 속	득표수	비 고
갑구	38,876	서동진 최석채	민 주 사 대	21,208 7,530	당 선	정 구	61,031	조재천 양호민	민 주 사 대	31,672 11,610	당 선
을구	46,227	서상일 황봉갑 이근상 윤지화	사 대 민 주 무소속	12,443 9,147 6,845 643	당 선	무 구	52,984	조일환 윤중호 이동화 이우철	민 주 무소속 사 대 무소속	22,772 4,902 7,152 1,896	당 선
병구	54,685	김영섭 김학봉 김수한 임문석 이근하	무소속 무소속 사 대 민 주 무소속	4,023 4,767 4,967 11,207 973	당 선	기 구	48,450	이영옥 김말용 김정호 이석현 장영모 서곤수	사 대 노 협 무소속 무소속 민 주 무소속	2,506 5,533 8,629 895 17,534 6,625	당 선

參議院議員 當選者 得票狀況

〈表 4-2〉

선거구	당선자 (제1부)	소 속	득표수		선거구	당선자 (제2부)	소 속	득 표 수	
			대 구 시	경 북				대구시	경 북
경 북	백남익	민 주	54,419	214,300	경 북	이원만	민 주	37,159	165,600
"	이효상	무소속	50,616	192,167	"	권동철	무소속	16,401	15,447
"	송관수	"	27,767	184,794	"	김장섭	"	15,695	154,030
"	최희송	민 주	73,378	174,393	"	최달선	한 사	19,618	135,099

7·29총선결과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으나 신구양파의 대립은 총선후 더욱 노골화하였으며 특히 대통령선거, 내각구성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되어갔다. 결국 민주당은 민주·신민양당으로 분열되고 이로인한 정국의 불안은 국민경제의 위기와 더불어 날로 고조돼갔던 것이다.

Ⅱ. 新政府의 構成

1960년 8월8일 초대 참의원과 제5대 민의원이 개원되어 각원은 의장, 부의장을 선출한 다음 그달 12일 양원합동회의에서 대통령선거를 실시했다. 이어 18일 대통령의 제2차 지명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인준동의함으로써 23일 내각의 구성을 보게되어 제2공화국이 탄생됐다.

그러나 신정부의 출범과정에서 선거에 압승했던 民主黨은 신·구양파의 내분으로 많은 혼란과 난맥상을 빚었다. 그것은 民主黨이 단일정당으로 집권을 구상하지 않고 당내의 양계파가 나름대로의 단독집권을 구상했기 때문이다.

구파의 수뇌부는 尹潛善, 金度演두사람이었고 그 참모장으로 柳珍山씨가 있었는데 구파는 尹, 金두보스를 놓고 총리후보를 내세우는데 고심했다. 이때 新派가 재빨리 대통령 尹潛善, 총리 張勉이란 民主黨집권구상을 발표, 舊派의 대세를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新派의 이같은 제안에도 구파의 집권추진 23인 위원회는 대통령후보 尹潛善, 국무총리후보 金度演이란 자기파의 구상을 확정, 신구파의 의사가 일치하는 尹潛善후보만이 절대 다수의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그러나 총리인준문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尹대통령은 1960년 8월 16일, 민의원본회의에 제출한 총리인준요청서에서 구파측의 金度演씨를 총리로 지명했으나 투표결과 3표가 재적과반수에 미달되어 인준은 부결되었다. 8월 18일, 尹대통령은 2차로 新派의 張勉씨를 총리로 지명, 1백 17표로 과반수를 넘겨 張勉내각시대가 열린 것이다.



(사진 4-2)

새 민·참의장과 과정수반

집권경쟁은 끝났으나 구파는 여전히 패배를 승복지 않고 鄭憲柱의원이 교통부장관으로 기용되자 구파 당원 20여명이 鄭장관자택으로 쳐들어가는등 3일간이나 시위,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에 8월26일 국회에 나온 鄭장관은 구파규탄 발언의 포문을 열었고 이에 격분한 梁一東의원이 발언대로 뛰어올라가 鄭의원의 목살을 잡아 난투극을 벌였다. 郭尙勳의장은 사회를 구만두고 의사일정을 팽개친 채 산회를 선언했다.

신구파의 파벌싸움은 張총리가 구파에게 각료 5석배당의 약속을 저버림으로써 파벌싸움은 더욱 악화됐는데 그 결과 張총리는 내각구성 사흘만에 개각을 약속하고 한달만에 내각개편을 단행해야만 했다. 2차 개각에서 구파5부장관들을 받아들였으나 여기서도 구파의 전면 협조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民議院과 관계정부기관의 협동으로 구성된 부정축재처리 5인위원회는 10월 4일 제2차 처리방안을 성안하고 전장관과 국회의원의 배임을 엄중처단하기로 결정했다. 10월 8일에는 재판부가 3·15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4월혁명유족회」와 「4월혁명부상자」 약 2백명중 40여명은 「10·8판결」에 불만을 품고 가두시위끝에 張勉총리집앞에서 “원흉을 재수감하라”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튿날인 11에는 4월혁명후 정국은 가장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

원흉처벌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국회의 사당앞에서 시위를 하던 4월혁명 부상자들이 反民主逆徒단죄를 위한 혁명군법회의의 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심의중인 民議院本회의장에 난입하여 의장석과 단상을 점령, 수라장을 만들었다. 의정사상 처음 보는 의장석점령사건이었다.

4월혁명유족회와 부상학생동지회의 시위대가 해산된후 학생층과 젊은층으로 구성된 또 다른 일단의 시위대가 의사당앞에서 경비경찰관들과 육박전을 벌이다가 그중 일부가 의사당안에 난입했다. 혼란은 이렇게 계속됐으나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구파측은 의장단의사퇴와 張내각의 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침내 民主黨구파동지회는 12일 하오 新黨 발기추진을 결의하고 그것을 선언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서명작업을 전개해 분당을 맞게 됐다. 「11일사건」으로 인책사표를 제출한 민의원의장 및 부의장의 사표는 민의원 본회의 투표로 부결됐고 이에따라 張勉내각은 위기를 모면했다.

13일 「민주반역자처리법」이 참의원을 통과함으로써 「10·8판결」로 석방된 11명의 출감자중 소재가 판명되지 않던 8명에게 재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사진 4-3〉 장면 국무총리 탄생
(1960. 8. 19)



〈사진 4-4〉 尹潽善 대통령 취임

Ⅲ. 地方自治團體選舉

民主黨정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임명제로 되어있던 시·읍·면장을 주민의 직선제로 환원하고 신규로 도지사, 특별시장까지 주민의 직선제로 하였다. 60년 11월1일에 공포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그해 12월 12일에 서울특별시와 도의회의원선거를, 12월 9일에 시·읍·면의회의원선거를, 12월 26일에 시·읍·면장선거를, 12월 29일에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선거를 각각 실시하게 됐다.

이 개정지방자치법은 ①선거권의 연령을 20세로 하였고 ②서울특별시장, 도지사의 피선거권연령을 30세이상으로 하였으며 ③선거운동은 시·읍·면장과 각급의회의원선거는 대체로 국회의원선거법에 준하였으며 다만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구와 군단위로 합동연설회를 개최할것과 후보자는 개표구당1회의 개인연설회를 가질수 있고 또한 선거구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2종에 1회씩 선거에 관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했다.

1. 도의회의원선거

60년 11월 중순부터 각종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시작됐다. 가장 먼저 실시된것이 도의원 선거였다. 9월24일 내무부당국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의한 각도의회 의원정수에서 慶北의 도의원수는 61명에서 71명으로 늘어났고 그중 대구시의 정수는 12명으로 56년의 제2대 도의원선거때보다 증원됐다. 12월12일 선거공고에 따른 등록입후보자는 총305명에 달했고 그중 대구시 12개 선거구에 입후보한 수는 51명을 차지했다.

정당단체별로는 민주당, 민주당구파에서 창당한 신민당, 사회대중당이 각축을 벌였으며 무소속후보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30세미만의 청년층이 대부분이어서 4·19직후의 시대상을 엿보게 했다.

대구시내의 선거전양상은 정당을 배경으로한 선거운동이라기보다 오히려 사조직과 개인인기를 내세워 득표활동을 벌이는 경향이였다. 각후보자와 운동원들은 스피커를 동원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전의 열기를 보인 반면 유권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선거결과 엄청나게 낮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慶北도내 총유권자 1,774,495명중 67.3%의 투표율을 보였고 대도시인 대구에서는 총138,882명이 투표, 불과 45%의 투표율에 머물러 도시지역일수록 선거에 관심이 적었다. 구체적인 선거상황은 다음 <表 4-3>와 같다.

第3代 道議會議員 選舉 狀況

〈表 4-3〉

선거구	유권자수	투표율(%)	후보자명	소 속	득표수	비고	선거구	유권자수	투표율(%)	후보자명	소 속	득표수	비 고
제1구	19,146	40.6	이학돈 최순봉 이광희 김인식	민 주 무소속 신 민 무소속	2,918 2,330 1,490 972	당선				정우섭 장석구 김성배	무소속 " 신 민	338 806 1,882	
제2구	17,760	37.2	백대윤 권영우 박재홍 최지원	" 민 주 무소속 "	2,083 1,867 1,661	당선 사퇴	제8구	35,531	42	김태동 신현길 한덕기 주학진 강영훈 김갑진	무소속 " " 민 주 무소속 "	4,427 3,640 597 2,859 1,407 1,662	당 선
제3구	22,463	44	최 일 황해웅 김성덕 김영배 권오현	사 대 민 주 신 민 무소속 "	3,714 2,564 2,407 605 467	당선	제9구	23,090	57	최윤교 박상규 서무균 추연항 전수용	" 민 주 무소속 사 대 신 민	3,205 2,613 1,412 2,209 2,160	당 선
제4구	21,518	45	강철호 정복향	신 민 민 주	5,045 4,475	당선	제10구	29,691	49	신현석 최상범 권병의 신철봉	민 주 신 민 무소속 사 대	5,742 5,642 671 2,122	당 선
제5구	24,208	47	백홍용 김목일 유세향 신상호	무소속 민 주 무소속 "	4,795 4,598 1,528 1,157	당선	제11구	26,237	46	김정호 신현덕 이성우	신 민 무소속 "	8,345 2,664 743	당 선
제6구	29,816	45.1	변형세 손윤하	신 민 민 주	6,923 6,178	당선	제12구	21,585	61	서정학 송외술 전호삼	신 민 민 주 무소속	4,665 3,991 3,725	당 선
제7구	25,526	38	임규하 최성진 김태화	민 주 무소속 "	2,806 2,364 1,303	당선							

위의 표에서도 나타났듯이 투표율저조는 물론 무소속이 현저하게 진출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에 보냈던 국민의 지지가 크게 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民主黨의 분당상황은 선거를 앞두고 新民黨(民主黨舊派)의 경상북도 당결성준비위원회가 11월14일 하오 대구시 대안동 민주당사옥에 새현판을 걸려다가 서로 연고권을 주장하는 신구파간의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양파의 이 싸움은 몸싸움으로까지 발전할뻔했다가 결국 타협결과 민주당경북도당이란 현판 아래 신민당의 현판을 붙이는 해프닝을 낳기도 했다. 한편 사회대중당에선 당무위원장에李亨雨씨를 선출하고 4명의 전형의원에게 결당을 일임키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의원 73명중 民主黨이 29명, 新民黨이 3명, 社大黨이 2명, 무소속이 39명이나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선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5세~30세가 8명, 31세~35세가 13명, 36세~40세가 13명, 41세~45세가 15명, 46세~50세가 13명, 51세~55

세가 6명, 56세~60세가 5명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농업 29명, 상업 7명, 공업 2명, 수산업 1명, 광업 1명, 교통업 1명, 양조업 4명, 회사원 5명, 언론·출판업 6명, 기타 7명, 무직 10명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국문해득 8명, 국졸 15명, 중퇴 5명, 중졸 10명, 고퇴 1명, 고졸 7명, 전문졸 4명, 대학중퇴 5명, 대졸이상 18명이었다.

선거전의 과열현상은 선거후 경상북도 의회 소집첫날부터 議長團선거를 둘러싼 격돌을 몰고와 流會사태를 초래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무소속 의원들의 퇴장으로 의장단 선거를 못하고 최고 연장자인 尹滋正의원(民主黨)의 임시사회로 개회했으나 개회벽두부터 民主黨이 무소속의원 1인당 1백만원씩으로 매수했다는 야당측의 공세로 격론을 벌여 결국 의장단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이날 무소속의 金時璞의원과 대결한 民主黨의 李鶴敦의원은 35표를 받아 과반수인 37표에 미달됨으로써 부결되고 말았다. 2차투표에 들어가자 야당 무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하고 말아 선거는 무산됐다.

12월21일 의장선거 2차 투표에서 民主黨의 李鶴敦의원이 37표를 얻어 당선이 선포되자 야당의원들은 지지표 가운데 誤記 무효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임시 의장에게 당선선포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수라장을 만들었다. 야당측은 투표용지 전부를 증거보존하고 감사의뢰와 아울러 무효소송 제기를 선언했다.

4월혁명과 제2공화국의 출범에따라 공명선거에의한 건전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기대했던 경상북도민들에게 도의회는 개회 벽두부터 실망만 안겨주고 말았다.

2. 시의회의원 선거

대구는 11월19일에 제3대 대구시의회원의 선거를 공고했다. 시의원 선거구는 민의원선거구와 동일한 6개구이며 각 구마다 4명씩을 뽑아 총24명으로 시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투표구는 총180개가 설정됐다.

입후보등록 마감결과 118명이 등록, 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소속정당별로는 무소속이 압도적 다수로 70명이었고 민주당 20명, 신민당 19명, 사회대중당 8명, 노총 1명의 순위였다.

후보진영과 선거운동원들은 치열한 선거득표작업을 펼쳐 과열양상을 보였으나 유권자들의 반응은 오히려 냉담했다.

이는 4·19이후 민주화바람을 타고 정치인들이 과별투쟁과 야비한 술수를 쓰는 모습을 본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감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구시당국은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도의원선거에서 사상 유례에 없는 다수의 기권현상을 보고 시의원선거에서 그러한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기권방지를 위한 계몽반을 동원하

는 등 사전대비를 기했다. 그러나 시의원선거 결과 기권율은 도의원 선거때보다는 낮았으나 여전히 높은 기권율을 보였다.

12월18일 한파속에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대구 시내 도처에서 대리투표자가 발생했는가 하면 곳에 따라선 폭력사태가 발생해 참관인이 실신하는 등 선거법 위반사건이 속출하는 바람에 선거분위기는 혼탁해졌다. 유권자의 투표상황 및 당선자의 득표수는 다음<表 4-4>과 같다.

第3代 市議會議員 選舉狀況表

선거구	유권자수	투표자수 (%)	기권자수	당선자	소 속	득표수	선거구	유권자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당선자	소속	득표수
제1구	38,115	19,415 (50.9)	18,700	김상돈 노만균 안덕화 김창수	신 민 무 민 주 "	3,167 3,366 2,761 2,473	제4구	62,625	35,601 (56)	27,024	권영진 석종구 서교양 곽준영	민주 무 민주 "	5,319 4,788 4,620 5,678
제2구	45,239	24,860 (54.9)	20,379	황경수 김봉준 김희환 천만식	" " 민 주 "	5,427 4,299 4,424 4,585	제5구	53,858	34,108 (63)	19,750	김종률 김두천 최채봉 이태일	" 신민 무 민주	6,596 6,957 5,868 5,453
제3구	55,373	32,803 (59)	22,570	이만달 서길수 구원서 서경태	무 민 주 " "	6,462 6,121 4,968 4,812	제6구	49,091	29,641 (60)	19,450	나영호 구정희 양의강 정두진	무 " 민주 신민	5,706 6,178 4,870 3,567

3. 시장 선거

시의회선거가 끝난뒤 12월26일, 시·읍·면장선거가 실시됐다. 대구시장 등록은 11월27일부터 시작돼 민주당 공천후보에 李白熙, 신민당 공천후보에 朴箕緒, 무소속의 金鍾煥등 3명이 등록했다. 각 정당에서는 이 시장선거를 중요시하여 처음부터 입후보자 선정에 있어서 많은 고심을 겪었다.

입후보자가 결정되면서 후보진영은 열띤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민주, 신민 양당은 각기 자기당 후보자 당선을 위해 그들 정당의 중진급 인사를 선거사무장으로 삼고 12월 초순부터 선거막바지에 이르기까지 중앙당으로부터 중진급 인사들이 드나들면서 지원유세를 행하는 등 총력을 경주했다. 그러나 그들은 지원유세를 통해 상대당과 후보를 비방하는 경쟁으로 시종 유권자들에게 실망과 빈축을 샀다.

후보자들이 합동연설회서도 절실한 대구시정의 방향이나 정책제시의 대결이라기보다 경쟁

자의 인신공격에 열을 올리는 상태였다. 한편 정당의 배경이 없는 金鍾煥후보는 대구시장을 지낸 관록을 내세우고 자신의 강한 사조직을 동원, 득표활동에 진력했다.

이러한 분열과 타락양상에 빠져드는 민주, 신민 양집권정당에 대해 불신감이 팽배한 가운데 유권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투표율도 도의원, 시의원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저조했다. 정당에 대한 불신 분위기는 무소속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 金鍾煥후보가 당선됐다. 선거결과는 다음 <表 4-5>와 같다.

<表 4-5> 市長選舉 狀況表

선 거 구 별	박기서	이백희	김종환	비 고
제1선거구	3,709	7,075	8,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권자수 : 304,046 • 기권자수 : 160,014 • 투 표 율 : 46%
제2선거구	3,196	6,018	11,894	
제3선거구	3,496	9,382	11,875	
제4선거구	4,521	8,410	13,894	
제5선거구	3,700	7,824	12,166	
제6선거구	3,928	7,455	11,504	
합 계	22,550	46,164	69,760	

4. 도지사 선거

12월 29일에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시장, 도지사선거가 실시됐다. 후보등록결과 14명의 후보가 난립했으나 시장·읍면장선거를 치른지 3일만에 다시 실시하는 선거일뿐 아니라 연이은 지방자치단체 선거로 유권자들은 선거에 염증을 느꼈다.

더욱이 겨울선거로 투표일의 기온은 영하9도로 떨어져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극도로 저조했다. 때문에 합동강연회장엔 거의 청중이 모이지 않았다.

이같은 유권자의 무관심은 시·읍·면장 선거때와는 달리 조직을 배경으로한 정당후보가 유리한 입장에 놓였다. 정당후보들은 도내 일원에 걸쳐 각지구 핵심당부의 조직을 동원함으로써 무소속을 압도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도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민주, 신민 양당이 전부 승리했다. 시·읍면장선거에서 무소속후보들이 압승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경북지사는 민주당후보인 李浩根씨가 당선됐다. 입후보자 별 투표상황은 다음 <表 4-6> 및 <表 4-7>과 같다.

慶北道知事選舉 狀況表

경 북 유권자총수	투 표 자 수			기권자수	투표율 (%)	유효투표율 (%)
	유 효 표 수	무 효 표 수	계			
1,789,178 (43,617)	619,514	20,770	639,924 (27,499)	1,149,254 (16,118)	35.8	96.8

() 내부는 부재자수임.

立候補者 得票 狀況表

후보자 득표수	김정식	백남식	김동진	남병상	김태주	임근호	임황
경 북	25,003	27,622	90,419	25,357	15,103	13,167	11,265
대구시	2,670	2,909	18,145	1,399	2,291	1,179	1,138

후보자 득표수	안태석	유시영	이호근	박해준	김봉만	이규행	엄보익
경 북	39,353	21,421	202,336	10,741	7,368	9,727	120,225
대구시	3,941	2,139	2,139	1,091	931	1,625	18,150

第3節 政黨團體의 亂立과 混亂

4월혁명을 계기로 대구에는 많은 사회적 욕구의 분출로 사회는 크게 어수선했고 그중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겠다고 나서는 정치세력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수많은 정당, 사회단체들을 결성했다. 노동자, 학생, 교사, 교수, 정당등의 갖가지 억눌렸던 욕구들이 조직 내의 분규나 시위를 발생시켰고 정당도 보수·혁신의 대립상 노정은 물론 분파와 분리로 군소 정당과 단체가 난립되는 현상을 빚었다.

I. 民主黨의 分黨

이같은 분파와 난립은 4·19로 인해 집권세력으로 대두된 民主黨의 내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 새정부를 구성하는 첫 선거인 7·29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新·舊양파는 서로 자파세력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공천에 치열한 경합을 벌이면서 분당은 결정적인 과정에 돌입했던 것이다. 당시 공천에 떨어진 공천신청자들은 자파세력의 후원을 업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신·구양파의 주도권싸움은 이미 야당시절과 같은 당내 파벌의 단계를 넘어서 심각한 독립정당과 유사한 정권투쟁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총선거결과 원내에서 3분의 2를 넘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신·구양파가 각기 정권장악을 노려 치열한 경쟁을 거듭하다가 구파측은 양당정치의 확립이란 명분을 내세워 신파와의 결별을 선언하게 됐다. 그러나 구파내의 행동통일을 기하지 못해 결별은 일단 보류되었다. 하지만 그후 총리인준과 張勉내각의 구성과정에서 新·舊派의 갈등이 더욱 심각하게 전개되던 끝에 60년 8월 31일 舊派측이 정식으로 民舊同志會란 원내교섭단체를 등록함으로써 민주당의 원내세력은 사실상 분열되고 말았다. 내각의 일부개편으로 이를 수습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구파측의 불만이 해소되지 못해 결국 수습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10월초 舊派내의 협상파는 다시 제3의 씨클을 조직하여 개각을 주장하면서 신·구파의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국 양파는 결별을 선언했다. 舊派는 民舊同志會를 발판으로 그해 10월 18일 신민당으로 발족하였으며 新派는 민주당을 그대로 계승했다.

大邱지역에는 白南億, 蔣穎模, 李源万, 李炳夏, 權仲敦, 朴海楨, 趙俊永, 柳極昌, 嚴輔翼, 朴箕緒등이 주축이 되어 新民黨 慶北道黨을 결성했다. 한편 朱秉煥, 曹在千, 李浩根, 崔熙松, 徐東辰, 林文碩, 玄錫虎, 曹逸煥, 李白熙등 인사들은 민주당을 계승해 나갔다.

두당으로 갈린 양정당에서는 종래 사용해온 大邱 시내 大安洞소재 당사확보를 위한 분쟁을 일으켰으나 결국 新民黨이 시내 布正洞에 사무소를 넘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 그후 양당은 각기 지구당및 핵심당부의 조직강화를 서두르면서 12월에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권장악을 위한 민주당내 파벌대립이 분당사태에 이르면서 정국불안과 행정력침체를 가져옴에 따라 멀지않아 군부세력의 정권장악에 틈을 주는 계기를 만들었다.

Ⅱ. 革新系 政黨團體의 續出

7·29총선에 즈음하여 4·19후의 민주화 기류를 타고 급조된 혁신정당들이 대거선거에 참여했다. 사회대중당을 비롯 한국사회당, 사회혁신당, 한독당 등이 나름대로 후보를 냈으나 그중에서도 사회대중당이 大邱지방에서 혁신계의 총본산을 이루다시피 했다. 사회대중당은 60년 5월 15일 대구지방혁신세력집결축진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慶北도당 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

그후 7·29총선에 뛰어들었으나 그동안 지지세를 굳혀온 민주당 바람에 밀려 徐相日의 민의원의원 당선을 제외하고 모두 낙선하는 참패를 맞았다. 그러나 충분한 대비없이 총선거에 임한데 비해 예상 외로 많은 득표를 올려 민심의 향배에 관심을 갖게 했다.

선거후 사회대중당은 졸속한 창당의 후유증으로 정치노선과 이념, 파벌등이 제대로 융합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말았다. 金達鎬계의 사회대중당, 崔謹愚계의 사회당, 徐相日계의 통일사회당등 수계의 정당으로 분당됐다.

대구에서는 대체로 과거 진보당계가 사회대중당을 고수했고 과거 勤民黨계가 사회당의 핵심이 되었으며 과거 민주혁신당계는 통일사회당의 창당준비에 주류를 이뤘다. 이들 정당의 정치이념은 모두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해 성격상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으나 사회대중당은 비교적 급진세력에 속했고 통일사회당은 온건세력에 속했다.

대구에서는 이들 정당과는 별개로 사회대중당의 분당과 때 맞추어 몇몇 정치단체가 생겨났다. 민족자주 통일협의회를 비롯 통일민주청년동맹, 민주민족청년동맹, 민주자립연맹 등이 각 기 그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다. 이들 정치단체들은 혁신정당과 유사한 혁신정책을 내걸었으나 구체적 정치노선이나 이념에 있어서 뚜렷하지 못하고 다만 자주적 민족통일을 내세우는 점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졌다. 그중 부분적으로는 급격한 성격을 노출시킨 단체도 있었다.

이밖에도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정치운동에 가담했거나 참여한 사회단체로서 교원노조, 피학살자 유가족회등의 혁신계적 성격이 주목을 끌었다.

교원노조는 4·19후 가장 먼저 대두했던 단체로 다른 노동조합과 같이 노조원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표방했으나 권익투쟁의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조직 그 자체의 합법화와 정치적 성격의 운동을 벌였다. 운동방식에서도 단식투쟁, 집단휴가원의 제출등 극한투쟁을 함으로써 사회문제로 크게 관심을 모았다. 교원노조를 제외한 등록된 일반노조는 60년 12월 현재 대구에 59개의 단위노조가 있었다. 이들 노조는 한국노련 대구지구연합회 소속과 한국노련에 반대하여 결성된 대구시 노동조합연맹소속 및 대한노총계 잔류세력으로 결속된 대구시조합 연합회 등 3개의 노조연합체로 분립돼 있었다. 이들 3자통합이 한국노련에 의해 시도됐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또한 대구에서 가장 이색적인 사회단체의 하나가 피학살자 유가족회였다. 이는 10·1사건당시의 일반피학살자와 한국동란때 정당한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살해된 保導연맹원의 유가족들로 구성된 것이었다. 이 피학살자 가족회는 61년 2월, 24명의 민의원을 통해 정부에 질의서를 제출, 정부에 석연한 답변과 대책을 요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Ⅲ. 새 社會秩序와 混亂

自由黨정권의 폭압과 부정에 억눌린 국민들은 민중혁명적 성격을 지닌 4·19에 의해 등장한 民主黨정권의 집권과정에 갖가지 욕구를 분출시켰고 그에 따른 이해관계의 대립갈등으로

많은 혼란을 빚었다. 정치적으로는 7·29총선을 전후한 정당과 사회단체들의 난립과 충돌에서 불안을 가져왔고 학원소요, 식량기근 등 사회경제문제들이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속화시켰던 것이다. 특히 민주당정부의 무능과 실정은 일부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학생과 청년층들 사이에선 정부와 국가 진로에 대한 정치 토론의 열기가 높아졌다.

청년층과 학생들의 현실참여 욕구가 때로는 정도를 지나쳐 동맹휴학, 과격시위를 벌였는가 하면 막연한 통일에 대한 기대로 현실성없는 통일방안을 실천에 옮기려듬으로써 사회를 어수선하게 만들었다.

억눌린 언론도 다시 자유시대를 맞게 됨에 따라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언론기관의 질적인 저하와 일부 언론의 방종이 부작용으로 나타나 국민의 염증을 자아냈다. 60년말의 통계로는 일간신문, 통신사 수가 343개사, 주간이 420개사, 월간이 428개사, 기타가 171개사로 엄청나게 많은 언론사가 폭발적으로 생겨났다.

그중에서는 유명무실한 언론사도 상당수 생겨났고 일부는 경영과 언론활동의 사이비성으로 사회적 혼란을 부채질했다. 대구에서는 대구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시사신보 등의 일간지외에 한국노동신문이 있었고 서울의 일간지들이 지사 또는 지국을 시골 구석구석까지 설치해 좁은 영역의 大邱·慶北지역에 언론 과밀현상과 부작용을 빚었다. 이같은 사회질서의 혼란 배경에는 당시 경제생활의 빈곤상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대구의 사회불안은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빈곤으로 다수 시민이 절망속에 허덕인데서도 기인했다.

4·19에 의해 정치적으로는 민권이 신장됐으나 경제적으로는 대중의 궁핍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61년 1월에는 대구 시내 新川洞 일대 영세주민들은 굶주리다 못해 대구시청에 몰려가 시위와 농성을 벌였고 시당국은 긴급 구호양곡을 방출해 무마에 나섰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1만 1천호의 호별세 등급 2,3등의 시민에게 면세조치를 결의하는 등 긴급대책을 강구하기도 했다. 이같이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4월위기설, 농민봉기설이 나돌아 정부가 이에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검토하기도 했다.

당시에 특기할만한 사태는 다음과 같다.

1. 학원분규

4·19의 주인공인 학생들은 새로 등장한 民主黨정권에 기대를 걸었었다. 그러나 민주당정권은 당내 파벌분규와 감투싸움으로 이상이 높은 학생들의 기대는 물론 국민들의 기대에도 크게 미달했다. 그 결과 학생들의 불만은 상대적으로 크게 팽배했고 그것이 여러 형태로 표출했다. 더욱이 4·19의 여세로 학생데모가 만능이라는 풍조에 편승한 일부 학생들의 과격하

고 빗나간 행동은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기도 했다. 그것이 학원문제를 쟁점으로 삼았을때 심각한 학원분규를 일으켰던 것이다.

대구에서 일어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분규는 그같은 대표적 사례의 하나다. 어용 교수시비로 발단된 의대분규는 문교부가 60년 30일까지 정상수업을 중용하고 그렇게 안될 경우 교수총사퇴와 7월 1일부터 휴교처분을 명령함으로써 사태가 확대된것이다. 문교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7월 1일, 학생들이 배척해왔던 鄭昌洙, 李圭澤 두 교수 중에서 鄭교수를 납치,감금했기 때문이다.

납치 감금된 鄭교수는 52시간만에 풀려나 학생들을 피해 은신중인 李교수와 함께 문교부소환에 응해 상경했다. 이때 함께 상경했던 학생들은 문교부장관에게 ①鄭·李양교수를 즉각 파면할것 ②다른 20명의 교수들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할것 ③휴교령을 풀 것등을 요구했으나 문교부는 鄭·李양교수를 포함한 22명교수 전원의 사표를 수리하고 金相悅총장서리에게 학생들의 농성시위를 해산시키도록 강력 지시했다. 한편 鄭교수는 “이번 일은 학생들이 일부교수의 사주를 받고 움직여서 벌어진 것이다. 교수들이 사주한 것은 학벌싸움에 원인이 있으며, 일차적으로 피해자인 나(경성의전출신)와 李교수(세브란스의전출신)를 내쫓기 위한것”이라 주장했다. 이 사태로 농성중인 학생 38명이 건강악화로 입원하는등 심각한 국면을 빚기도 했다. 또한 대구사범학생1,2학년 350명은 61년 3월25일 하오 5시. 이 학교 表光浩교장의 인사조치를 문교부에 요구하며 예술관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듯 학원문제로 곳곳에서 분규가 벌어져 정상수업이 위협을 받았다.

2. 교원노조

교원노조의 진원지는 大邱였다. 大韓敎聯을 어용단체라 규정한 大邱지역 일부 교사들은 敎員勞組를 조직하고 60년 7월 3일, 大邱에서 전국교원노조연합회를 개최, 문교부장관의 사퇴 및 敎聯해체등을 결의했다. 그해 8월 15일, 경북교원노조연합회는 대구시내 靑丘대학에서 교조(敎組)에 대한 부당인사조치 및 탄압에 항거해 쟁기대회를 개최하고 21일까지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9천여명의 교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키로 했다.

8월 20일에는 대구에서 교원노조탄압반대전국조합원쟁기대회 및 대의원 대회가 열려 끝까지 극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8월 25일 문교부는 敎組분쟁수습을 위해 과도정부에서 내린 敎組에 대한 법률해석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으나 慶北교원노조는 대구역전광장에서 부당인사조치에 항거 총사퇴를 결행했다. 대구고등법원은 慶北교원노조가 제기한 부당 인사조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9월 26일에는 大邱·釜山지구 교원 약2천5백명이 「勞動法改惡反對」투쟁으로 단식에 돌입했다. 28일에는 「교원노조불법화반대 전국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각종 결의문을 채택, 국회의 사당앞에서 연좌데모를 벌였다. 이날 大邱에서는 시내 일부 중·고등학생들이 교사들의 단식투쟁에 호응 공동단식투쟁에 들어가기도 했다. 大邱의 교원노조단식투쟁으로 187명이 졸도하고 12명이 입원하는 불상사를 빚었다.

3. 韓·美經濟協定反對示威

61년 2월 22일 하오5시. 大邱역전광장에선 각 정당,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천여명의 군중이 참가한 가운데 「韓·美經濟協定反對 대구시궐기대회」가 열렸다.

대회가 끝난뒤 흩어지던 군중들은 “빵에 매달린 노예는 되기 싫다. 을사보호조약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당시 미국공보원(大邱역앞)앞에 묶어 놓고 가버렸다.

4. 2·28기념식과 3·1절기념행사

4·19의 성공적 결과로 2·28기념행사와 3·1절 행사에 새로운 정치적 의미가 부여됐다. 4·19의 도화선이 된 2·28대구학생의거는 61년 2월 28일로 1주년을 맞게돼 성대한 기념식을 거시적으로 치렀다. 이날 오전 대구종합운동장에서는 시내 58개중 고교생 4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식전이 베풀어졌고 그날의 의의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는 “2·28정신을 상기하자”는 개회선언과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민권을 위해 일어섰던 것”이라는 대회사가 낭독되는 동안 학생들은 “韓·美經濟協定을 결사반대한다” “전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완수하자” “韓·美行政協定을 조속히 체결하라” “학원의 민주화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퍼들었다. 이날 학생들은 민주당인사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화환을 거절하고 식이 끝난 뒤 가두행진에 들어가 첫 기념식부터 정부·여당과의 마찰상을 노출시켰다.

한편 61년의 3·1절은 대구시가 주최하는 행사와 혁신계 정당, 단체들이 주도하는 행사로 갈라져 해방 직후의 모습을 방불케했다.

이날 대구시가 주최하는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약 3천 명의 시민들이 대구역전광장에서 모여, 진행됐다. 이 행사가 열리는 동안 거리에는 「민주수호사회단체 연합기구」라는 이름의 단체가 나타나 하오 1시 달성공원에서 열릴예정인 「민족통일연맹」주최의「3.1 민족통일촉진궐기대회」를 비난하고 3·1정신을 모독하는 행사를 중지하라는 경고전단을 뿌렸다.

한편 「민족통일연맹」은 하오 1시 30분 달성공원에서 「3·1 민족통일촉진 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회장에선 “실업자여! 일터는 통일로써 이룩된다” “동포여! 일어서라! 통일만이 살 길이

다”라는 플래카드가 수없이 나부끼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학생들은 각자의 학교에서 기념식을 거행하고 집단적으로 거리에는 나오지 않았다.

5. 反共法・데모규제법 波動

정당, 사회단체, 언론기관의 난립과 무질서, 그리고 계속되는 각종 데모와 급진적 변혁을 요구하는 대중들의 집단행동에 물리고 있던 민주당정부는 61년 데모규제법과 반공특별법을 제안했다. 혼란한 사회질서를 바로 잡고 공산오열의 준동을 방지한다는 취지였다. 이 2대 법안이 제안되자 찬반양론으로 여론이 갈리면서 또하나의 혼란을 일으키는 불씨가 됐다.

이 2대 법안을 둘러싸고 이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연일 격론과 시위로 대립을 계속해 사회는 혼미를 거듭했다. 대체로 지지하는 쪽은 보수세력이었고 반대하는 쪽은 혁신세력이었다.

大邱에서 이를 전폭 지지하는 쪽은 民主·新民양당을 비롯 전우익단체 총연합회, 민주수호 사회단체연합기구등이었고 조건부지지를 표명한 단체로는 대한군인유족회,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부인회, 시국정화중앙위원회, 재일귀한교포위원회, 우국노인총본부 등이었다.

이 법안을 반대한 단체로는 반공특별법·데모규제법반대 공동투쟁위원회, 사회당,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 혁신당, 민족자주통일경북연맹, 통일민주청년연맹, 민주민족청년동맹, 경북과학살자유족회, 경북노동조합협의회, 경북교원노조연합회, 경북대민족통일연구회, 경북대국민계몽대등이었다. 이들 찬반세력은 신문지상을 통한 성명서로 의사를 밝히다가 마침내 시위를 감행했다. 특히 혁신세력들은 61년 3월 22일,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시에서 성토대회 및 가두시위를 대대적으로 벌렸다.

이 같은 분위기속에 대구에서는 3월 13일 소집된 慶北도의회임시회의는 이날 하오 3시 15분 「반공임시특별법」 및 「데모취체규제법」제정을 철폐하라는 대정부건의안을 재석55명(재적73명)중 30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지방의회로선 제일 먼저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3월 17일에는 「2대악법반대경북학생공동투쟁위원회」와 「민주수호」라는 반공단체가 찬반이 상반되는 집회를 열었고 3월 24일에도 대구역전 광장에선 오후 4시에 「2대악법반대학생투쟁위원회」가 반대집회를 연데이어 오후 6시엔 「4월 혁명학생동지회 경북도본부」가 찬성하는 뜻의 「학생투위성토대회」를 열었다.

악법반대 경북학생공동투위는 ①국회의원은 어떠한 반민주반민족적악법심의도 일체 거부하라 ②인간의 기본권과 3·4월항쟁의 성과를 사수하려다 구속된 3·22데모대원 전원을 석방하고 ③張정권은 악법개정강행으로 데모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즉시 물러가라는 등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데모에 들어갔다. 이들은 “통일만이 살길이다. 통일을 방해말라” “피흘려 찾은나라 張勉이가 다 망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햇불데모에 들어갔다.

데모대는 짚허수아비로 “신랑 李承晩”과 “신부 張勉”의 결혼식 가장행렬을 벌이면서 무장경찰과의 제지선을 세번이나 뚫고 중앙통을 거쳐 반월당으로 행진했다가 남산 파출소까지 갔다가 저녁 7시가 지나 해산했다. 한편 「4월혁명동지회 경북도본부」주최 「학생투위성토대회」는 약 1만명추산의 시민·학생들이 모여 反共法을 모르는 학생들이 반공법을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요지의 쫓겨나기를 채택했다.

악법반대 3차 대회가 4월 2일, 정당, 사회단체, 학생단체공동으로 가지기로 했으나 역전 50m지점에 위치한 당시 美문화원앞에 방어진을 편 경찰기동대의 제지로 좌절되고 말았다. 이때 경찰은 데모참가자 및 공동투위간부 43명을 구속했다. 이에따라 慶北도당국과 新民黨경북 도당부 사이에 날카로운 성명전을 벌여 民主黨분열 이후의 대결상을 드러냈다.

第5章 第3共和國時代

第1節 5·16 軍事政變

I. 5·16前夜의 霧圍氣

4·19혁명으로 집권한 民主黨정권이 각계의 욕구분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채 수습도 하기전에 군부에 의한 정권찬탈이 계획되고 있었다. 누적돼 왔던 군부내의 부패를 일소하고 침체되었던 군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기위해 시도된 군부정화운동(整軍運動)이 군부집권의 준비작업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에 의한 군부집권으로 헌정은 중단되고 民主黨정권은 불과 9개월만에 붕괴되고 말았다. “민주당정권하의 정치, 사회, 경제적 혼란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건 일부장교들의 거사로 군부집권에 성공을 거둔 것이다.

5·16군사정변에 있어 大邱는 서울과 함께 거사의 한 진원지를 이루었다. 정변을 주도한 朴正熙장군이 제2군부사령관으로 재임하고 있었던 관계로 수도 서울과 더불어 군부거사의 주요 거점이 되었다.

5월 16일 새벽2시 30분경에 서울의 군부거사 지휘본부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제2군사령부 참모장 李周一소장은 행동을 개시, 2군사령부휘하 장병에게 비상을 내리고 일제히 경비태세를 갖추었다. 그러는 한편 朴升圭통신참모로 하여금 서울거사본부와의 연결선을 제외한 모든 전화선을 절단케 하였다. 이어서 대구근교주둔 공병대를 주축으로한 군인들이 일제히 시내로 진주하여 경북도청및 경찰국을 비롯한 각 경찰서, 대구방송국, 대구전화국등 시내 주요 관공서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경북 대구지역에서 군사정변에 참여한 주력부대는 공병대와 통신대였다. 李周一장군의 지휘에 위해 공병참모 朴基錫대령과 통신참모朴升圭대령이 지휘참모의 역할을 수행했다.

일선기동지휘관의 임무는 제208건설 공병대대장 張東雲중령을 비롯하여 제 133야전공병대대장 金鎭國중령, 제5관구공병시설부장 徐相麟중령, 제1중건공대대장 任光燮중령, 제75통신대대장 咸壽煥중령, 2군사령부 의장대장 李定衡소령등이 담당했다.

그밖에 제2군 사령부작전참모차장 李愼得대령, 동통신참모차장 許建功대령, 제5관구통신참모 金學默중령, 동통신운영과장 兪致憲중령등이 이 거사를 뒷받침하였다.

5·16군부거사본부는 16일 새벽5시 중앙방송국을 통해 이른바 「혁명6개공약」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표해 군부집권의 목적과 방향을 밝혔다.

① 反共을 國是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反共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② U·N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③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舊惡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참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④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民生苦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⑤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⑥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는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거사에 일단 성공한 군부는 육군본부에 「군사혁명위원회」란 명칭의 조직을 설치하고 입법, 행정, 사법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16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 비상경제태세에 들어갔다.

대구에서는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제5관구사령관 朴基丙소장이 경북지구 계엄사무소장 직을 맡아 도지사실에서 집무하는 한편 康相熙 중령이 경북 경찰국장으로 임명되어 1205공병

단의 협조를 받아 경북치안을 담당했다.

군사정변의 소식이 알려진 첫날 大邱시민들은 매우 긴장했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위해 거리로 몰려나온 시민들로 시가지의 분위기는 어수선하기만했다. 관서의 공직자들은 겉으로는 별로 동요를 보이지 않았으나 불투명한 정국의 앞날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사진 5-1〉

5·16 군사정변

없었다. 정당별로는 民主黨측은 침통한 분위기였고, 혁신계는 불안을 감추지 못했으나 新民黨측은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다.

사회질서가 점차 회복되면서 옥외 집회금지가 완화되면서 경향 각지에서는 군부의 집권과 시책에 지지를 표시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5월 19일, 대구에서는 4월혁명동지회등 5대 단체가 주도하는 「5·16군사혁명 지지시민 쉼기대회」란 명칭의 5·16지지행사가 대구역광장에서 지역주민 약2만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Ⅱ. 軍政의 課業과 大邱

5·16군사정권의 첫과제는 폭력배의 검거, 부정공무원및 범법행위자의 색출과 숙청등 사회악을 일소한다는 것이었다. 집권 10일만에 대구시내 폭력배 184명을 검거, 중앙로거리에서 숙죄행진을 시킨후 군사재판에 회부 실행언도를 내림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군사정부는 또한 행정운영의 합리화, 능률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개혁을 단행했다.

아울러 자립경제확립을 위한 기초작업을 서둘렀다. 농어촌 고리채정리를 비롯 농촌부업의 장려, 농산물 가격조정에 의한 피해농어촌 구제등에 힘쓰는 한편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강력추진했다.

또 군사정부는 국민의 역량을 집결하고 국가재건의 기틀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재건국민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 각시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시군에 추진회를 두었다.

第2節 軍事政府下의 政治動向

5·16군부집권은 사실 18일에 이르러 성공이 확실히 된것이다. 이날 피신중이던 張勉총리가 국무회의실에 나타나 제2공화국 최후의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참석했던 8명의 국무위원들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총사퇴할 것과 군부집권에 대한 지지와 동시에 정권을 군부가 설치한 「혁명위원회」에 이양할 것을 결의했다.

이로써 제2공화국은 무너지고 19일 정권을 인수한 「군사혁명위원회」는 명칭을 國家再建最高會議로 바꾸고 의장에 張都暎이 취임하였고 청사는 민의원건물을 사용키로 결정하였다. 이어 20일에 군정의 내각이 조직되고 수반으로 최고회의의장이 취임했다.

군정은 5월 16일을 기해 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4호로써 4·19혁명의 결과 탄생된 민의원,

참의원, 지방의회등 일체의 代議制憲法機關을 해산했다.

5월 22일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6호로서 모든 정당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이 조치는 정권이양의 준비작업이 본격화될 때까지 계속됐다. 이에 따라 大邱시의회의 해산은 물론 지방의 정당들도 완전히 활동이 마비되고 말았다.

그러나 5월 19일, 大邱역광장에서 개최된 5·16군사정부를 지지하는 4월혁명 학생동지회, 학도의용군동지회, 반공건설청년회, 대한참전경찰 경북연합회, 서북반공청년회등의 정치적 시민결기집회는 허용됐다.

第3節 第3共和國 樹立過程

I. 民政移讓 準備過程

5·16에 의한 군정이 시작된 직후부터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들이 民政復歸와 실현시기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 그러던 차에 1961년 8월 12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민정이양 계획을 결정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혁명정부는 정권이양에 앞서서 진정한 민주정치질서를 창건하고 구악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초작업을 완수한 연후에 민간정부에게 정권을 이양한다.

첫째, 정치적, 사회적 모든 구악을 발본 일소하고 청신한 사회기품과 법질서를 확립하고
둘째, 모든 체제를 개혁하고 이를 발전시켜 어느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세째, 국민경제를 재건하고 빈곤을 없애기 위한 綜合經濟開發5개년계획의 제1차계획을 강력한 혁명정부의 행정력으로 추진한다.

② 정권이양 시기는 1963년 여름으로 예정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1962년도는 제반체제의 개혁및 육성단계이며 5개년경제계획의 1차년시행단계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는 혁명과업수행에 둔화를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치활동이나 국민행사등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한다.

둘째, 1963년 3월이전에 신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한다.

세째, 1963년 5월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정당활동 허용시기는 1963년 초로한다. 그후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권을 완전 이양한다.

③ 정부형태, 국회구성등에 관하여는,

첫째, 정부형태는 대통령책임제를 채택한다.

둘째, 국회구성은 100명내지 120명의 單院制로 한다.

세째, 선거관리는 철저한 國家公營制로 한다.

네째, 구정치인중 부정, 부패한자의 정계진출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조치를 취한다.

④ 이상은 혁명정부가 혁명공약을 실천하고 조국의 민주적인 변영을 기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과업과 시간이라고 판단하며 정부형태 국회구성등은 앞으로 광범한 국민여론을 참작하여 신헌법에 반영할 것이다.

최고회의가 발표한 이같은 민정 이양계획에 따라 군사정부는 군정종식과 함께 대두될 민정수립을 앞두고 먼저 헌법개정을 추진하였다. 최고회의 내에 憲法改正 審議特別委員會를 구성하였고, 이 위원회는 1962년 7월 11일 헌법심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①三權分立原則에 입각한 강력한 유기적 권력규정 ②정당과 선거제도의 합리적 쇄신 ③자유경제체제하의 경제발전촉구등을 헌법개정의 방향으로 정했고 11월 25일에는 신헌법작성에 따른 문제점 12개항목을 제시해 헌법공청회에 회부키로 했다.

한편 그해 10월 11일에는 최고회의가 國民投票節次法을 통과시켜 신헌법제정의 준비를 진행시켜갔다. 國民投票法의 주요골자는 만20세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법관, 변호사, 교육자, 언론인과 학식, 덕망있는 사회인사로 구성되 법관과 교육공무원이외의 공무원은 위원이 될수 없게 했다. 투표의 비밀보장 혼합개표, 국민투표 소송제도 등을 규정했다.



〈사진 5-2〉

제3공 헌법서명

1962년 11월 5일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전문5장 121조 부칙 9조로된 헌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공고하였다.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2월 6일, 개헌안을 통과시킨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민투표를 12월 17일에 실시키로 의결, 이 날자로 공고했다. 이때를 기하여 정부는 국민투표를 좀 더 자유분위기 속에서 실시키위해 계엄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12월 17일의 국민투표는 찬반이나 지지여부에 대한 활발한 의사표시 없이 실시됐다. 투표결과 투표자수의 78.78%의 지지율을 나타냈고 대구에도 비슷한 지지율을 보였다. <表 5-1>

<表 5-1> 大邱市內 國民投票 狀況

투표구	유권자수	투표자수	찬성수	반대수	무효투표수	투표율	투표비 찬성율
大邱市 甲區	38,459	28,932	22,540	5,787	605	75.2	77.3
大邱市 乙區	21,881	25,541	19,854	5,109	578	80.1	77.8
大邱市 丙區	66,496	55,831	43,954	10,843	1,034	84.0	78.2
大邱市 丁區	72,550	52,723	39,998	11,546	1,179	72.6	75.0
大邱市 戊區	77,461	61,736	47,876	12,540	1,320	79.7	77.1
大邱市 己區	65,013	55,066	43,582	10,197	1,287	84.7	79.2

전국 총유권자 12,412,798명중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는 10,585,998명으로 85.28%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이중 찬성이 8,339,333표, 반대가 2,008,801표, 무효가 237,864표였다.

Ⅱ. 政治活動의 再開

國家再建最高會議은 1962년 3월 16일에 부정부패 정치의 재출현 방지와 참신한 정치도의 확립, 굳건한 민주주의 토대구축등을 명분으로 구정치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政治活動淨化法을 공포하였다. 이 법에따라 구정치인은 적격심사를 받아야하며 그렇지않는 사람은 1968년 8월 15일까지 정치활동을 불허한다는 것이었다.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尹潽善대통령은 이를 반대하고 3월 22일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정부는 그해 3월 30일부터 세차례에 걸쳐 정치활동정화법 해당자 총4,374명을 확정발표했다. 5월 30일에는 정정법 해당자에 대한 적격심판 결과 1,336명의 정치활동 적격자 공고가 있었다. 10월 29일에는 그동안 주목을 끌어난 혁명주체세력의 거취와 관련 金鍾泌中央情報部長은 당초 4년간의 民政에 참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대통령직을 사퇴한 尹潽善은 1962년 12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汎野黨형성을 제창했다. 27일에는 朴正熙최고회의의장이 1963년 4월에 대통령선거를, 5월 하순에 국회의원선거를 치르고 8월 중순에 民政移讓할것을 발표하는 한편 자신의 대통령출마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정치활동 재개의 분위기가 고조돼갔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62년 12월 31일, 政黨法과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는 政淨法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돼 온 구정치인중에서 제1차로 171명을 해제한 것을 비롯 1963

년 2월 1일에는 473명을 해제했고 2월 27일에는 張勉 등 269명을 제외하고 전면 해금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정치인과 정치활동의 解禁에 따라 점차 정당조직활동에 활기를 띠어갔다. 특히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및 국회의원의 입후보 조건으로 정당추천제를 채택함으로써 정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그러나 민주정치 재건을 정당정치에 초점을 맞추었던 법개정의 취지와는 달리 입후보를 위한 수단으로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해 건전한 정당정치정착이 어려운 상황이 조성됐다. 민정 이양계획이 진전됨에 따라 군부집권 세력들도 民政참여를 위한 준비와 자신들의 정치목적과 이념을 계승한 정당을 조직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1963년 1월 7일 朴正熙의장이 신당조직방침을 천명하면서 일부 군부집권세력의 주동으로 적극적으로 신당을 발족했다. 즉 1월 10일 金鍾泌, 尹日善, 金東煥, 金晟鎭 등 12명의 신당 발기인은 제1차회의를 열어 자신들의 군사집권이념과 과업을 계승할 범국민적 정당을 만들기 결정하고 1월 18일에 발기위원회를 조직 발기 선언문을 채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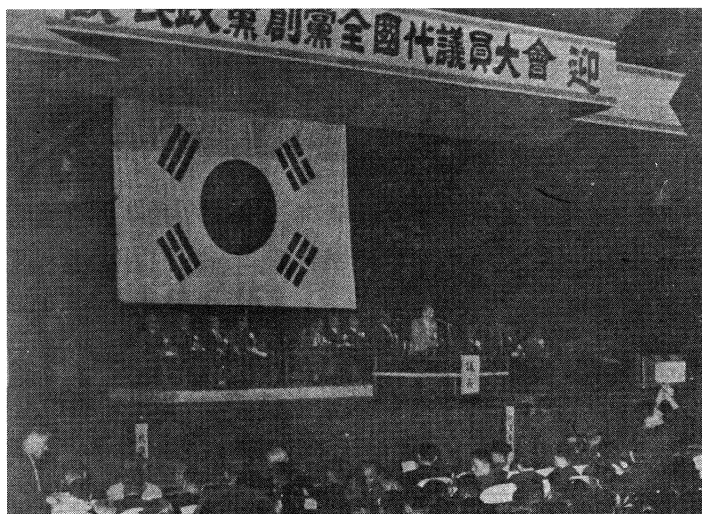
2월 2일의 창당준비대회를 거쳐 26일에는 서울시민회관에서 창당대회를 열어 民主共和黨을 발족시켰다. 군부 집권세력과 이에 동조한 일부 민간세력들이 民主共和黨을 창당하고 있는 사이에 기성 구정치인들은 군부집권세력의 민정참여를 반대하고 진정한 민간정부수립을 표방하는 범국민적 신당조직을 추진했다. 민간정치지도자 尹潽善, 金炳魯, 李仁, 錢鎭漢 등 4인은 1월 3일 민정의 기본을 확고히 하기위하여 범국민적 대동단결로 새정당 창당추진에 합의하고 政淸法대상자의 전면해제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의 7월중 실시를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民政黨을 창당기로 합의하고 1월 11일에 확대회의를 열어 신당의 기본노선과 조직원리를 검토하고 정강정책을 기초할 5인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같은 범야세력의 규합운동에 천주교, 천도교등 종교단체와 일부 사회단체가 참가하고 14일에는 舊民主黨계가 참가를 표명함으로써 초기단계에는 범야세력이 단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5일에 이르러 구민주당 대표가 일부 지도급 인사의 대통령 출마포기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범야단일 정당형성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고 구민주당계는 이탈했다.

民政黨창당 준비위원회는 1월 24일, 창당발기인 150인을 선정하고 27일 창당준비발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때 당명을 民政黨으로 확정하고 당지도체제는 6인의 지도위원으로 구성되는 집단지도체제로 하고 6개 부서를 설치해 발족을 보았다.

한편 범야단일 정당결성에서 이탈한 구민주당계는 무원칙한 단일정당 형성보다 범야단일 전선형성이 바람직하다면서 구민주당 부활운동을 추진했다. 그 결과 1월 31일 84인의 발기인이 발표되었고 2월 1일, 창당준비대회를 개최하여 당지도 체제를 집단지도 체제로 결정, 대표지도위원에 盧鎭高을 선출했다.

民政黨, 民主黨과는 별도로 반군정야당의 기치를 걸고 舊自由黨계 일부세력이 규합, 自由黨의 재건창당을 위한 발기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한편 구자유당계 일부와 무소속일부, 그리고 民主黨계 일부세력이 許政을 중심으로 新政黨발기를 추진하여 제2야당으로 급부상했다.



〈사진 5-3〉

民政黨 창당대회 (1963. 5. 14)

民主共和黨의 발기선언과 범야단일정당의 결렬로 정계의

세력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나자 중앙의 정치정세를 주시해오던 지방정계도 구조직의 수습정비를 비롯한 신진인사의 포섭등으로 활발한 조직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1월 25일 民主共和黨 慶尙北道 黨準備委員會결성을 위해 연락위원으로 張東雲, 鄭炳泰, 崔永斗 등이 중앙과의 연락을 맡았다. 그런 한편 경북도 당준비위원회 사무국장 金好七, 조직책 林承春 등이 중심이 되어 柳一之, 孫炳克, 李愚錫, 朴永淳 등 20명의 각 지구당준비책이 지구별로 조직을 서둘면서 李孝祥, 金鍾煥 등 도내 구정치인 가운데 일부 인사들과 신진 정치인그룹, 그리고 일부지식인층등 광범위하게 인물들을 포섭했다.

2월말의 창당대회준비를 착착 진행시켜갔다. 大邱지방의 舊新民黨系는 범야단일정당의 명분을 내세우고 구조직의 재건보다 문호를 개방 광범위하게 인사를 포섭, 民政黨창당을 위한 지방조직을 서둘렀다. 학계, 실업계, 청년층에 조직침투를 하면서 이들은 1월 22일 가칭 民政黨推進發起人會를 구성, 의장단에 柳極昌, 金禹錫, 白雲鵬을 선임하고 權東七, 李기훈등이 일선 조직책을 담당해 단일야당세력규합에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자 노력했다.

서울에서 단일야당교섭이 진행중일때부터 중앙과의 연락을 취해온 大邱지역의 舊民主黨系는 1월7일, 범야단일 정당이 결렬되자 독자적으로 정당결성준비에 들어갔다. 舊民主黨慶北道黨의 李根庠, 李白熙, 金顯文 등 인사를 중심으로 孫潤夏, 張文相, 權英燮 등 구간부들이 일선에서 지구별로 발기준비위원 포섭을 완료하고 조직기반 재정비에 들어갔다.

舊民主黨과 舊新民黨이 독자적인 정당조직을 추진해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大邱시내 自由黨系는 행동통일을 보지 못했다. 과거 그 지지기반이었던 國民會, 農民會, 大韓勞總 등 단체와

방대한 지난날의 조직을 정비하여 행동통일을 기하고자 세차례의 회합을 갖고 군사정부지지 방향의 행동통일을 결의했다. 그러나 독자적인 정당발족이나 정당선택 문제엔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채 많은 舊自由黨系인사들이 民主共和黨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舊自由黨系는 大邱지역에선 그 세력이 쇠퇴하고 말았다.

정치활동의 허용으로 정계는 다시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다. 야당의 분열과정도 그렇거니와 군부집권세력도 분열의 혼미를 맞는등 격동을 겪게된 것이다. 야당의 창당과정에서 민간정치인들은 한결같이 군사정부의 부정부패를 비판 공격했고 특히 군부집권세력의 민정참여는 당초 군사정부의 공약에 위배되는 처사라하여 민정참여를 극열히 반대하였다.

이러한 야당의 집중공세와 더불어 군부집권세력 내부에 있어서도 民主共和黨창당준비를 둘러싸고 심한 갈등과 분열을 가져와 결국 정국은 극도의 혼돈과 무질서에 빠졌다. 이같은 정국불안에 대해 朴正熙의장은 2월 18일 자신의 민정불참을 포함한 9개항의 정국수습방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고 대다수 정당지도자들은 이를 환영했다. 그러나 26일 군부집권세력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金鍾泌주도하의 民主共和黨창당준비위원회는 金鍾泌의 부재중 예정대로 창당준비대표 1,399인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열어 당헌, 강령, 기본정책을 채택하고 이어서 그 조직을 완성하였다.

그후 군일부의 반혁명음모사건및 현역장교시위사건등을 계기로 朴正熙의장은 3월 16일 군정연장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의한데 이어 정부는 비상사태 수습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하여 다시 정치활동 제한조치를 취했다. 이로인해 국민과 정계는 일대충격을 받고 정국은 혼미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그후 시국수습회의, 조야영수회의등을 개최 난국타개를 모색하던 끝에 4월 8일에 정부는 3·16성명을 철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2·18성명도 수정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정국의 긴장은 완화되고 정당활동이 재개됐다.

이 4·8성명으로 군부집권세력의 신뢰가 떨어진데다 民主共和黨마저 사전 조직설과 창당을 주도했던 金鍾泌의 4대 의혹사건 관련설, 집권주도 세력간의 분열등으로 참신성마저 잃게 됐다. 그런 와중에 金鍾泌의 석연찮은 외유로 民主共和黨의 창당체제가 변질됨으로써 집권정당으로서의 기대가 멀어졌다. 朴正熙의장마저 民主共和黨이 아닌 새로운 汎國民政黨의 출현을 기대했고 이에 부응하듯 그때까지 각정당, 정파에 이탈한 세력이 가담하여 汎國民的 정당의 창당을 추진했다. 汎國民政黨創黨 企劃委員會가 주축이 되어 6월 10일 창당발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4일에는 당명을 自由民主黨으로 결정, 7월 12일 발기인 2,156인의 명단을 발표하고 창당대회에 대비했다. 그러나 그후 自由民主黨은 당의 진로와 군부세력과의 관계를 둘러싼 내분으로 조직의 일부가 民主共和黨에 흡수되고 말았다.

한편 조직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야당으로 등장했던 民政黨은 조직 확장에 힘을 기울여 야당 단일세력 형성에 총력을 쏟았다. 5월 14일에 전국에서 850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당의 지도체계와 진로를 결정하는 한편 尹潛善을 동당대통령후보로 선출, 다른 당보다 앞서 대통령 선거전에 대비함으로써 단연 기선을 잡았다.

民主黨은 3월 4일에 新政黨과 합류키로 결정했으나 民主黨고수파의 반발로 7월 18일 단독으로 民主黨창당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합류 실패대신에 단일 대통령후보 옹립을 결의했다. 그러나 新政黨은 民主黨계의 합류여부에 관계없이 창당준비대회를 가져 이미 조직을 완



〈사진 5-4〉

民主黨 창당 (1963. 7. 18)

료한 상태였다. 야당세력이 다수의 정당을 창당했으나 朴正熙의장의 민정참여와 民主共和黨기반으로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것이 확실해진 7월말게부터는 단일 야당 후보 옹립을 위한 노력이 서로간에 활발하게 진행됐다.

그 결과 군정세력에 대항하는 기성정당, 정치인들의 대동단결을 기치로 내세워 “국민의 당”이 창당되었다. 金炳魯, 許政, 李範奭을 대표위원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金度演, 李仁, 安浩相, 李應俊을 지도위원으로 선출하여 전국에 지구당조직책을 선정하려 했다. 그러나 대통령후보지명과 지구당조직책 선정문제에 의견이 대립돼 民政黨계는 尹潛善을 다른 조직의 의사와는 별도로 대통령후보로 재확인했다. 그래서 대통령후보 단일화와 야당통합은 실패하고 남은 “국민의 당”은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許政을 대통령후보로 지명했다. 7월 27일 최고회의는 민정이양일정을 발표하고 이에따라 대통령선거는 10월 중순에 국회의원선거는 11월하순에 실시키로 결정했다.

Ⅲ. 第5代 大統領選舉

1963년 9월 5일, 정부는 민정이양을 위한 제5대 대통령선거일을 10월 15일로 정식공고했다. 9월 15일 입후보자의 등록이 마감됐는데 民主共和黨의 朴正熙, 民政黨의 尹潛善, 국민의

당의 許政, 自由民主黨의 宋堯讚, 政民會의 卞榮泰, 秋風會의 吳在泳, 新興黨의 張履奭 등 7명이 등록했다.

군부집권세력의 민정참여문제는 민정이양의 과정이 되고 있는 5대대통령선거에 가장 큰 쟁점이 되었다. 그런 가운데 군정의 최고지도자였던 朴正熙의장은 8월 30일, 예편과 동시에 民主共和黨에 입당, 이당의 대통령후보지명을 수락했다. 朴의장은 민정참여동기를 국민혁명완수의 책임을 느껴 그간 군사정부가 못다한 과업을 완수하고 조속한 정치안정을 이룩함으로써 자주와 자립의 당면 목표를 완수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民主共和黨은 5·16군사정부의 정치이념계승을 기치로 들고 나온 유일한 정당이 되었다. 民政黨을 비롯한 야당모두가 군정의 실질적 종식을 주장해 선거의 핵심쟁점이 된 것이다. 한때 군부집권이념을 계승할 것을 결의하고 출발했던 自由民主黨도 창당과정에서 군부집권세력과 집권과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함으로써 모든 야당이 군정종식에 일치된 주장을 펼친 것이다. 특히 民政黨, 국민의 당, 民主黨등의 인적구성도 구정치인이란 사실에서 반군정적 세력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이 선거에서 7명의 후보가 난립하였으나 선거전도중 국민의 당 許政후보와 옥중에서 출마했던 民主自由黨의 宋堯讚후보가 자진 사퇴함으로써 대통령 선거전은 사실상 民主共和黨의 朴正熙후보와 民政黨의 尹潽善후보의 대결로 압축되었다. 양당은 중앙과 지방에 각급선거 대책기구를 정비강화하면서 당 세확장과 득표활동을 벌였다.

民主共和黨은 선거공약으로 명실상부한 민정복귀로 혁명 과업완수, 공명선거의 보장, 정치풍토개선, 자주평화외교, 국방력강화,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보완, 중농정책, 교육자치제 실시등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民政黨은 군의 정치적 중립, 거국 내각의 구성과 국정쇄신, 정치의 안정과 법치주의의 확립, 자유평등한 경제외교추진과 韓日국교



(사진 5-5)

제5대 대통령(朴正熙) 취임

의 정상화, 재정안정과 물가안정, 국민조세부담의 경감등을 공약했다. 제5대 대통령선거는 군부집권의 정당성 심판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선거전에서 각후보의 정견은 다채로웠으나 군부집권의 목적을 설득하는 것과 이를 부정하는 논리의 대결이 부각됐다. 朴正熙후보는 4·19와 5·16이념을 계승하여 국민혁명으로 승화발전시켜 혁명과업을 범국민운동으로 완수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노선이라면서 사회정의의 실현과 자립경제 확립을 다짐했다.

尹潽善후보는 군사정부 2년간은 공포정치였다고 비난하면서 명실상부한 민주제도의 질서회복과 민심의 안정을 도모하여 능동적 정책보다 현실에 입각한 안정회복책을 강구하며 외국원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밖에 正民會의 卞榮泰는 공명선거를 보장하는 입법조치와 정권을 이권으로 여기는 정치풍토를 바로잡겠다고 했고 秋風會의 吳在泳은 완전고용이 가능한 경제사회의 건설및 행복을 누릴수 있는 국민복지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新興黨의 張履奭은 민족고유의 정신에 입각한 민주주의 국가건설과 자유경제체제를 통한 국민복리의 증진을 주장했다.

선거전은 처음 공명선거 시비가 이슈가 되었다가 중반부터는 이른바 “사상논쟁”으로 변질돼 표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됐다. 즉 “이 선거가 가장된 민주주의 즉, 이질적 사상과의 대결”이라고 한 民政黨 尹潽善후보의 全州발언에 대하여 民主共和黨 朴正熙후보의 “민족적 이념을 망각한 가식된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강력한 민족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대결”이라고 응수한 것이 그발단이였다.

그 같은 논쟁은 지방유세가 계속되면서 확산됐고 열기를 더해 갔다. 9월 28일 民政黨의 尹潽善후보는 大邱壽城川邊에서 약6만명추산의 대규모 청중앞에서 民主共和黨의 朴正熙후보의 사상이 국시에 어긋나는 것이라하여 사상논쟁을 노골화시켰다.

이어 10월 6일 尹후보와 같은 장소에서 民主共和黨 朴正熙후보의 대구강연이 열려 이에 대한 반박이 있었다. 이날 강연장에는 약 30만명으로 추산되는 大邱지방에서는 전무하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

白南檣, 閔寬植, 李萬燮의 찬조연설에 이어 등단한 朴正熙후보는 “이번 선거는 구악에 젖은 사대주의적 구정치세력과 새로운 기풍을 이룩하려는 신진세력과의 싸움”이라 규정하고 구결원조 지양으로 자립경제 확립을 약속했다.

사상논쟁과 인신공격으로 선거분위기가 악화되고 정국이 긴장되긴 했으나 대체로 선거는 무사히 치르졌다. 선거결과 民主共和黨의 朴正熙후보는 嶺南지방에서 압승을 거둔데 비해 民政黨의 尹潽善후보는 서울과 嶺東지방에서 압승했다. 朴正熙후보가 비록 근소한 차이로 승리

했지만 총투표자의 42.6%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5·16군부집권이 국민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해석됐다.

제5대 대통령선거결과 나타난 大邱지역 투개표 결과는 <表 5-2>와 같다.

第5代 大統領選舉 狀況表

개 표 구 명	투표 구수	선거인수	투 표 자 수		기권자수	투표율 (%)	후 보 자 별 득 표 수				
			유 효	무 효			張履爽	朴正熙	吳在泳	尹潽善	卞榮泰
大邱市中區	35	71,564	53,831	2,673	15,060	79.1	365	27,645	762	24,255	804
大邱市東區	39	84,460	61,981	4,363	18,116	78.6	715	33,120	1,460	25,569	1,117
大邱市南區	24	78,196	56,964	3,811	17,421	78.0	502	28,114	982	26,427	939
大邱市西區	30	69,802	49,252	3,625	16,925	75.8	756	23,413	1,512	22,724	847
大邱市北區	21	49,186	38,770	2,453	7,963	83.8	447	21,163	889	15,689	582

Ⅳ. 第6代 國會議員選舉

1. 大選後의 各政黨 動向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선거전에서 승리한 정당과 패배한 정당은 대통령선거일로부터 40일밖에 남지않은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다수 의석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열정비에 나섰다. 대선에 승리한 民主共和黨은 원내 안정세력 구축을 위하여 10월 23일 외유에서 귀국한 이당의 창당위원장이었던 金鍾泌을 중심으로 지도체계를 재편성했다. 그런한편 5月同志會조직의 전 면흡수와 국민의 당, 自由民主黨 政民會의 일부세력을 포섭하여 당세를 확장하고 당선가능성이 높은 인물의 공천작업을 서둘렀다.

제6대 국회의원총선거에 임하는 각정당의 당면과제는 짧은 시일에 공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선거전의 득표활동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특이하게도 여당인 民主共和黨과 일부 주도적야당의 공천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부 야당은 대통령선거 이전부터 이미 지역구국회의원 후보공천을 완료해 놓고 있었다.

民主共和黨의 중앙사무국은 국회의원후보 공천과 관련 「지역구및 전국구국회의원 후보당추천규정및 시행세칙」을 작성 지역구및 전국구국회의원후보 규정에 따라 공천후보기준으로서 당성이 강한자, 당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자, 국가에 유공한자, 당선가능성이 있는자, 청렴결백하고 덕망이 있는 자 등의 순위를 정했다.

공천후보절차는 소속지구당원 100명 이상의 추천서명을 받도록 하였고, 각지구당위원회에서는 신청자중 5인까지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市·道支部黨務協議會의 심의에 부치고

최종심의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무회의에서 결정한 후 당총재의 재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공천후보신청수는 매지구 평균 4명의 경합을 보였다. 民主共和黨은 10월말경까지 공천심사를 마치고 후보를 결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부 공천자중에는 지방당부의 의사는 물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의견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지구당에서 후보신청을 하지않은 인사가 포함돼 일부 당원들로부터 심한 반발이 일기도 했다.

民政黨은 대통령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던 점과 서울·京畿지역의 압승을 최대한 활용해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하기 위해 당세를 강화했다. 대통령후보를 내지 않았던 民主黨은 어떻게든 원내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오랜기간동안에 구축한 기반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지구당을 정비하였다.

국민의 당은 이 당의 대통령후보의 사퇴로 동요를 보였으나 당의 재정비를 마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의 주류를 형성한다는 목표로 후보공천 작업을 마쳤다. 自由民主黨은 民政黨系의 일부세력을 포섭하여 지도체제를 정비하면서 당세를 강화했다. 이밖에 새로이 韓國獨立黨의 재건이 이루어졌고 民政黨의 일부 소장파가 이탈해 保守黨을 발족, 선거에 참여했다.

2. 總選의 양상과 특징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된 선거법은 1963년 1월 6일 군사정부에 의해 제정공포된 것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피선거권자의 결격사유 강화

나. 선거구를 지역구와 전국구2종으로 하고 소선거구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병용 채택
다. 입후보자의 정당추천제 채택

라. 선거운동방법의 정당본위, 공영제확대, 선거운동의 규제강화

마. 1인 1표제로 전국구와 지역구후보자의 동시선택

바. 당선결정에 있어 전국구의 의석배분의 특례

사. 선거벌칙의 강화

아. 후보 1인당 선거비용 사전책정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한 선거비용한도액은 <表 5-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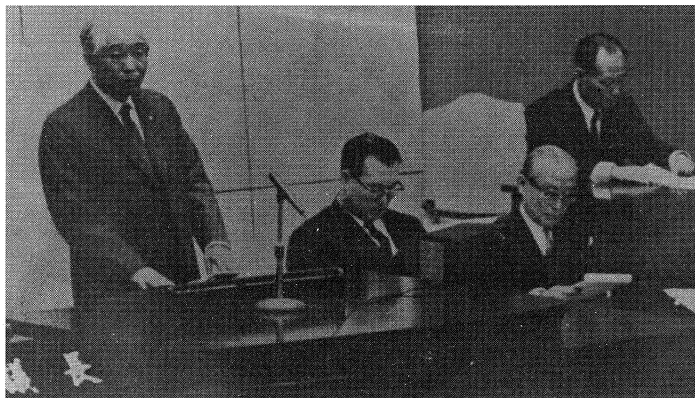
〈表 5-3〉 大邱市 國會議員選舉 費用制限額

선거구	구분 선거사무소 의 임대료, 유지비	선거운동원의 수당과 실비보상	연설회 소요경비	확성기,자동차, 선박등의 임대료 유지비	투·개표소 참관인의 수당,실비	방송·신문 광고,현수 막 게재비	후보자의 운동경비	기타연락 및 필요경비	계
大邱中區	451,900	1,358,400	85,100	16,000	86,000	277,200	66,600	160,000	2,645,400
大邱東區	258,200	894,900	105,805	160,000	104,000	277,200	59,100	86,800	1,946,000
大邱南區	171,300	627,800	69,000	160,000	72,000	277,200	55,700	53,900	1,486,900
大邱西北區	251,500	901,700	124,200	160,000	132,000	298,200	38,800	84,300	2,010,700

이같이 선거비용의 제한에다 엄격한 선거공영제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전은 출발부터 음성적인 득표공작과 과열된 선거공세가 펼쳐졌다.

民主共和黨은 대통령선거의 여세를 몰아 자금과 권력의 힘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었고 야당측은 당조직을 통한 선전공세에 주력하면서 입후보자 개인의 사조직 활용에 역점을 두었다. 大邱지역에는 民主共和黨의 공천지연으로 야당후보들이 일찍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의 기선을 잡았다. 각 정당은 저마다 화려한 선거공약을 내걸고 선거에 돌입했으나 與野는 정국안정과 독재방지를 구호로 맞섰다. 民主共和黨은 정국안정, 자립경제, 생활안정등을 내세웠고 民政黨은 독재방지, 민생고대책, 5개년경제계획의 수정개편등을, 민주당은 독재방지, 책임정치, 경제안정등을, 국민의 당은 공포없는 민주사회확립, 실업자구제 등을, 自由民主黨은 정당법폐기및 지방자치확립, 공무원처우개선, 공평한 세제확립등을 각각 표방하였다.

선거전에서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인 호소를 위해 사용한 구호는 당적으로 각 정당의 입장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냈다. 民主共和黨은 “정국안정없이 책임정치 할수없다”였고 民政黨은 “민정당에 표모아 독재횡포 막아내자”고 했다. 民主黨은 “한결같은 민주당 앞장세워 독재막자”고 했으며 국민의 당은 “우리의 당 너도 나도 한표주자”고 했으며 自由民主黨은 “공포정치, 구정치 모조리 갈아치자”고 했다.



〈사진 5-6〉

6대 국회개원

선거전의 쟁점 역시 안정이나 견제냐였다. 民主共和黨은 안정세력을 구축해야 정국안정을 기할 수 있고 강력한 경제정책을 수행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民政黨등 야당세력은 독재를 방지하고 민주

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여당에 과반수의석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야당국회를 형성하여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안정과 견제의 쟁점화외에도 대통령선거때의 사상논쟁을 재연시키기도 했다. 또 民主共和黨은 야당의 선제공세에 대항하여 구정치인의 실정과 부정·부패의 사례를 폭로하고 구정권의 비능율적 비생산적 국회활동을 맹렬히 비난했다.

야당진영은 입후자의 난립과 선거자금의 부족, 조직력의 약세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었으나 군사정부에서 발생한 부정과 의혹사건등을 폭로하면서 정부가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한다고 비난했다. 여당은 조직선거, 야당은 선전전으로 대결하는 선거전양상을 보였다.

3. 總選結果 第3共和國 宣布

제6대총선거는 총유권자 13,344,149명 가운데 9,622,183명이 투표에 참가 72.1%의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선거결과 전체지역구의원 131명 가운데 民主共和黨 88명, 民政黨 27명, 民主黨8명, 自由民主黨 6명, 국민의 당 2명이 각각 당선됐다. 전국구의원 44명 가운데 民主共和黨 22명, 民政黨 14명, 民主黨5명, 自由民主黨 3명이 뽑혔다.

大邱시내는 전체 4개 선거구에서 60%~70.2%의 투표율을 보여 전국 평균투표율 75.3%보다 훨씬 저조한 상황을 나타내 총선에 대한 냉담한 반응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개표결과 4개 선거구에서 모두 여당이 당선돼 여당도시 大邱의 이미지를 심게됐다. 大邱시내 선거상황및 당선자명단은 <表 5-4,5>와 같다.

<表 5-4> 大邱市內 地域區選舉狀況表

地域區名	管轄區域	投票區數	人口數 (1962.11.10 現在)	選舉人數	投票數	無效得票數	棄權者數	得票率 (%)	有效投票率(%)
제1地域區	大邱市中區	35	149,612	75,289	46,807(1,345)	1,812	28,482	62.1	96.1
제2地域區	大邱市東區	39	150,124	76,922	53,961(1,790)	1,322	22,961	70.2	97.5
제3地域區	大邱市南區	24	155,037	85,122	52,167(1,592)	2,551	32,955	60.0	95.0
제4地域區	大邱市北區 大邱市西區	51	235,202	124,722	81,055(2,626)	2,663	43,667	65.0	96.7

有 效 投 票 數											
政 黨 別					得 票 數						
自由黨	新民黨	自由民主黨	新興黨	韓國獨立黨	국민의당	保守黨	民主黨	民政黨	正民會	秋風會	民主共和黨
558	285	880	325	287	6,735	1,753	3,230	11,781	495	402	18,314
655	624	543	506	445	7,381	807	11,388	3,445	667	727	25,451
471	463	824	589	301	1,008	643	4,568	15,799	839	598	23,513
1,190	789	1,679	1,214	770	2,295	2,685	17,202	16,430	1,702	1,182	31,255
											計
											44,995
											52,639
											49,616
											78,392

〈表 5-5〉

大邱市 地域選舉區 當選者 名單

地域區名	管轄區域	政黨名	當選者姓名	性別	本籍	年齡	住 所	職 業	學 力 및 經 歷	得票數	備 考
1	大邱市中區	民主共和黨	宋寬洙	男	慶北	56	大邱市中區三德洞3街 15	無 職	大邱商業卒 慶北道知事 參議院議員	18,314	2選 (5,6代)
2	大邱市東區	"	李源万	"	慶北	59	서울 特別市鍾路區世宗1路	經 濟 人	日本大學政經科2年中退 參議院議員 會社長	25,451	2選 (5,6代)
3	大邱市南區	"	李孝祥	"	慶北	58	大邱市南區大明洞2148	農 業	東京帝大獨文科卒 參議院議員	23,513	2選 (5,6代)
4	大邱市西北區	"	金鐘煥	"	慶北	57	大邱市南區南山洞580	財團法人 慶北學生 會代表	大邱高普卒 3,8代 大邱市長	31,255	初選

전국적으로도 선거결과는 民主共和黨의 압승이었으나 국민의 지지는 총유효투표의 34%에 불과해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계속 군부세력이 집권하는데 대한 민심의 동향을 엿보게 했다. 야당은 유효투표의 66%지지를 얻었으나 정당과 후보의 난립에 따른 지지표 분산으로 의석을 제대로 얻지 못했다.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서울지역에서 야당이 압승했고 民主共和黨은 嶺南, 忠淸, 江原지방에서 압승했다.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民主共和黨이 원내에 안정세력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군정이 목표로 삼았던 각종 정부시책을 계속 추진할 수있게 됐다. 1963년 12월 17일 제39회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民主共和黨소속 大邱南區출신 李孝祥의원이 국회의장으로, 같은 당의 張炯淳의원과 民政黨의 羅容均의원이 각각 국회부의장에 선출되고 이어서 국회구성을 마쳤다. 한편 같은날 대통령당선자 朴正熙는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제3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다. 같은날朴대통령은 제3 공화국 초대내각의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행정부구성을 마쳤다.

第4節 第3共和國時代의 政治動向

I. 韓日協定과 政治的 昏迷

제3공화국은 이미 군사정부 시절부터 韓·美·日의 집단안보체제의 구축과 경제발전의 기초를 韓·日國交正常化에서 찾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日帝35년의 식민지배에 따른 배상문제를 비롯 韓日간의 현안들을 너무 조급히 매듭지으려 했던 나머지 국내의 큰 정치적 혼미와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 그같은 상황은 제3共和國 출발벽두부터 대일굴욕외교를 규탄하는 학생과

재야세력의 데모로 시작된 것이다.

韓日國交正常化회담은 1962년 11월, 군사정부하에서 韓國측의 金鍾泌과 日本측의 오오히라간에 작성됐다는 이른바 金·오오히라메모에 의해 시작된 이래 당분간 그 진행이 지연되다가 3공화국이 출범한뒤 1964년 3월, 民主共和黨 金鍾泌의장이 도쿄에서 오오히라 日本의 부부장관과 재회담합으로 다시 본격화된 것이다. 이 회담에서 4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韓日協定초안을 끝내고 5월초에 조인할것등의 계획에 합의한것이다. 이같은 합의내용에 학생, 재야세력, 야당등이 반대에 나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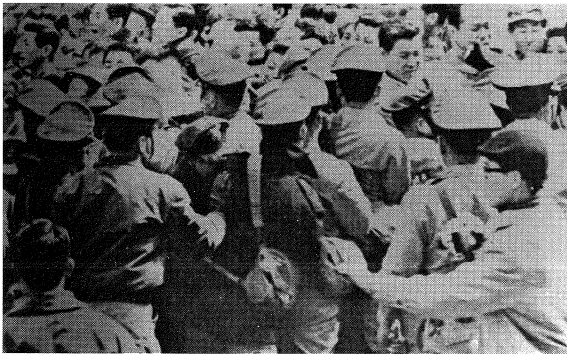
3월 24일 학생데모가 폭발했고 여야간의 대립이 격화됐었다. 정부는 데모진압과 수습에 나섰으나 6월 3일에 또 대대적인 학생데모가 일어나자 정부는 서울지구에 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大邱지역에서도 慶北大, 大邱大, 靑丘大, 韓社大등 각급 대학생들이 데모와 농성등으로 韓日굴욕외교를 규탄해 학원가는 온통 수렁에 빠졌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여야의 공방은 극한을 달리는 한편 여당 내부에서도 시국에 대처하는 인식과 방법문제로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다.

사무국우위의 2원조직으로 발족했던 民主共和黨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지구당 위원장들이 원내로 진출하자 사무국 기능과 마찰이 시작됐고 점차 원내외 세력간의 갈등과 주류 비주류간의 대립이 노출되었다. 이같은 당내외 사정을 배경으로 6·3사태를 즈음한 朴正熙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학생과 야당의 요구에 일차로 民主共和黨의 金鍾泌의장의 사퇴로 책임을 가리고 수습국면으로의 전환을 꾀했다. 6월 5일 金의장은 사퇴후 18일, 美國으로 2차외유를 떠났다. 그 후임으로 鄭求暎의원이 당의장서리가 되었다. 여당은 시국수습방안으로 언론윤리위원회회법과 학원보호법등 규제및 자주정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를 계기로 여야의 시국수습협상이 벌어진 결과 언론및 학원에 관한 2개사항을 여야공동으로 입법화할것에 합의한후 7월 28일 비상계엄이 해제됐다. 이어서 국회는 구속학생석방건의안을 채택하여 6·3사태이후 구속되었던 대부분의 학생을 석방토록 하였다.

한편 제1야당인 民政黨은 대여협상과정에서 柳珍山계의 온건파와 尹潽善계의 강경파로 분리 대립하였다. 계엄해제에 이르기까지의 시국수습협상은 온건파에 의해 추진됐으나 언론및 학원에 관한 보장입법이 국회에 통과되자 강경파에서는 온건파 대표 柳珍山の 제명을 서둘렀다.

강경파를 대표한 尹潽善은 절차에 따라 柳珍山제명을 단행한후 韓日국교정상화를 반대하는 야당진용의 결속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를 계기로 韓日協定문제를 앞두고 이를 반대하기 위한 야당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면서 먼저 民主黨, 自由民主黨, 국민의당 등 3당통합움직임이 있었다.



〈사진 5-7〉 한일비준문서 교환반대

그러나 지구당조직책비율문제등 이해관계에 얽혀 自由民主黨이 이탈함으로써 64년 10월 5일에 국민의 당이 民主黨에 흡수되는 형식으로 부분통합이 이뤄졌다.

그리고 여기서 이탈한 自由民主黨도 11월 27일 民政黨에 흡수통합됨으로써 야당은 民政·民主 양당으로 정비됐다.

65년 들어서면서 정부와 여당은 韓日協定の 조기타결 방침에 따라 5월 정식 조인, 9월 비준이라는 일정대로 추진해 갔고 이에 맞서 야당은 民政·民主양당의 통합을 추진했다. 65년 2월 야당통합전 권위원회가 구성되고 각파,계열간의 경합을 벌인 끝에 朴順天을 대표최고위원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의 통합야당인 民衆黨이 발족하였다.

그러나 가까스로 통합창당된 民衆黨도 65년 8월 韓日協定批准同意案이 국회특별위원회에서 民主共和黨에 의해 강행통과되고 이어 본회의에서 여당단독으로 처리되자 다시 분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여당이 비준안을 통과시키자 民衆黨소속의원 61명은 일괄 의원직사퇴서를 제출했고 尹潽善계와 自由民主黨계, 그리고

구 民主黨의 鄭一亨계등이 중심이된 강경파는 당해체를 주장하면서 탈당계제출을 고집했다. 65년 11월 당주도권장악에 실패한 강경파가 탈당하고 헌정질서유지와 오도된 당지도노선의 청산이란 명분으로 다시 당으로 복귀한 온건파는 분열된 민중당을 계속 이끌어 나갔다.

民衆黨을 탈당한 강경파와 韓日協定을 반대한 祖國守護協議會등 재야 강경세력은 66년 3월에 新韓黨을 창당하여 尹潽善을 차기 대통령후보와 당총재로 추대했다. 강경파가 이탈한 민중당은 원내 제1야당으로 당을 재정비하고 兪鎮午를 차기 대통령후보로 영입했다.

그리고 民衆黨은 그후에 제기되었던 越南派兵문제에 조건부반대를 하는등 온건한 자세를 보였으나 新韓黨은 역시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였다.

韓日協定批准과동으로 분열된 民衆·新韓양당은 1967년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승리를 위해 다시 합당을 시도했다. 그해 1월 들어 야당



〈사진 5-8〉

신민당 창당 (1967. 2. 27)

통합운동을 벌인 끝에 결국 대통령후보에 尹潽善, 당총재에 兪鎮午로 결정했고 합당이 성사돼 新民黨으로 발족했다. 그러나 이같은 야당통합과는 대조적으로 선거를 앞둔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등록정치단체인 新民會는 당명을 民衆黨으로 개칭하여 이 당의 대표자 겸 대통령후보로 金俊淵을 추대했고 혁신정당으로 민주사회주의를 정치노선으로 하는 大衆黨의 발족이 있었고 구 民主黨계 일부는 民主黨을 다시 창당하였다. 그밖에 統一社會黨, 正義黨, 韓獨黨, 自由黨등이 재건되어 총선거에 대비하는 등 선거정국이 형성돼 갔다.

Ⅱ. 第6代 大統領選舉

정부는 제6대대통령 선거일자를 1967년 5월 3일로 결정공고했다. 후보등록마감결과 입후보자는 모두 7명이었다. 民主共和黨은 4년 동안의 조직기반과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성과를 중심으로한 정책대결의 방침을 굳힌 반면 新民黨은 현정부의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공명선거를 구호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호소하는 선전전 태세에 주력기로 했다. 군소정당들은 대통령당선목표보다는 오히려 곧이어 실시될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한 당세확장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공명선거 실천과 관련 여야는 날카로운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은 방대한 조직력과 경제정책성공에 의한 민심확보로 공명선거에 대한 자신감과 실천약속을 한 반면 야당은 광범한 정보정치로 인한 의사표시의 부자유, 여당의 위법적 조직확대, 공무원동원, 선거자금살포등 여러사례를 들어 공명선거는 국민과 야당이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5대 대통령임기동안의 주요치적에 대한 평가시비도 크게 크로즈업되었다. 여당은 韓日協定, 越南과병등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강조하고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국민경

제미래의 전망이 밝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야당은 韓日國交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請求權의 내용과 漁業權協定の 불평등 문제등을 지적, 너무나 굴욕적이었음을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越南派兵은 그 선행조건으로서 韓美防衛條約을 개정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했을때 미국이 자동적으로 참가하고 美軍이 제멋대로 철수할 수없도록 해야하는데 그것을 못한것은 국방을 소홀이 한것이라 했다. 경제개발에 있어서도 소득계층간의 불균형이 극대화되고 있음은 시정돼야할 사항이라 지적했다. 3월 24일 대통령선거일이 공고되자 선거전은 초반부터 상호비방과 고발전으로 얼룩지기 시작했다.

民主共和黨은 대통령선거중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시도및 직능별로 운영위원회들을 책임분담시켜 선거에 대비하였고 新民黨은 역시 선거대책위원회를 두고 지방유세계획과 선거공약을 결정, 후보반, 당수반, 중진반, 청년기동반을 짜서 과상적으로 전국 각지에 파견키로 했다.

유세전에서 여당은 근대화를 향한전진세력과 퇴영적 수구세력의 대결이라 규정짓고 중농정책을 내세워 농촌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면서 도시주민에게는 공업화정책, 물가안정, 실업자구제, 주택난해결, 중소기업육성등을 공약하여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대해 新民黨은 도시중심의 유세를 통해 朴正권은 독재, 부패, 특권, 연속적인 정권이라 규탄하고 농촌지역 유세에선 정부, 여당의 곡가·비료정책이 기만적이라고 비판하고 농촌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쇠퇴해가고 있음을 들어 정권교체를 역설했다. 선거가 중반전에 들어선 4월부터 선거분위기가 과열되기 시작했다. 4월 6일, 新民黨 尹潽善후보는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또 국제신문협회와 UN韓國統一復興委員團에 한국언론 탄압에 관한



〈그림 5-9〉

제6대 대통령(朴正熙) 취임

소명서를 발송하여 자유언론 발전의 저해요인제거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 7일 安東경찰서가 5일 이곳에서 있었던 尹潽善후보선거유세의 찬조연사인 朴己出을 대통령선거범위반으로 입건한것을 비롯 선거사범입건사태가 속출했다. 여야는 상호 불법선거 폭로전을 벌였다. 4월 18일에는 新民黨의 대구 유세가 있었다. 약10만명이

넘는 청중이 모인가운데 찬조연사 兪鎮午당수를 비롯 張俊河, 朴己出의 연설에 이어 尹潽善 후보는 10대공약을 제시하면서 야당도시 大邱의 옛전통을 살려줄 것을 호소했다. 23일에는 民主共和黨의 大邱유세가 이를 맞아 열렸다. 이날 모인 청중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됐다. 金鍾泌, 李孝祥, 安浩相등의 찬조연설에 이어 朴正熙후보는 선거공약을 내세우며 “야당에게는 민족적 과제를 맡길수 없음”을 역설했다. 선거전 종반에 들어 徐珉濤 大衆黨대통령후보가 후보사퇴를 선언하였고 이어서 新民黨과 大衆黨은 公明選舉鬭爭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였다. 위원장에는 徐珉濤를, 지도위원에 兪鎮午, 咸錫憲, 金度演등을 선출하고 실무부서를 구성하여 부정선거를 적발규탄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투쟁을 전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5월 3일 치안국집계 선거사범은 총 699건으로 관련자는 1800명인데 그중 民主共和黨이 36건으로 50명, 新民黨이 388건으로 591명, 기타가 275건으로 367명이며 33명이 구속되었다. 이같은 선거사범통계는 야당이 부정선거운동을 심하게했다는 증거로 해석하기보다 선거사범단속에 관계기관의 편향성을 엿보게 하는 증거일 수도 있다.

투표결과는 朴正熙후보가 5,688,666표로 당선이 확정되었고, 尹潽善후보는 4,526,541표를 얻어 1,162,215표차로 낙선되었다. 그밖의 후보는 모두 합쳐 70만표를 약간 상회할 정도에 불과했다. 大邱시내의 투표상황은 <表 5-6>와 같다.

<表 5-6> 第6代 大統領選舉 投票狀況表

開票區名	開票區數	選舉人數	投票者數			棄權者數	投票率(%)	有效投票率(%)
			有效	無效	計			
大邱市中區	37	73,069	58,555	1,428	59,983	13,086	82.9	97.6
大邱市東區	46	92,147	72,104	2,937	75,041	17,106	81.6	96.0
大邱市南區	33	91,304	69,217	2,485	71,702	19,602	78.5	96.5
大邱市西區	30	83,798	66,864	2,328	69,192	14,606	82.5	96.4
大邱市北區	21	53,200	43,734	2,306	46,040	7,160	86.5	95.0

候補者別得票數						
李世鎮 (正義黨)	錢鎮漢 (韓國獨立黨)	尹潽善 (新民黨)	金俊淵 (民衆黨)	朴正熙 (民主共和黨)	吳在泳 (統韓黨)	計
314	492	14,972	538	41,354	885	58,555
480	823	16,938	974	51,257	1,632	72,104
394	746	18,347	749	47,747	1,234	69,217
481	922	13,940	986	48,901	1,634	66,864
267	491	8,800	515	32,825	836	43,734

Ⅲ. 第7代 國會議員選舉

제6대 대통령투표가 끝나자마자 정부는 5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를 1967년 6월 8일에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대통령선거에 대한 시비가 일고있는 과정에 각 정당들은 국회의원 선거전에 돌입하게 됐다.

각 정당들은 선거일공고 1주일후인 5월 15일까지 지역구공천후보자를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전국구 후보의 명단과 순위를 정하여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바쁜 일정에 쫓기게 됐지만 신속하게 선거전략을 세워나갔다. 民主共和黨은 대통령선거에 압승한 여세를 몰아 7대 국회에서는 개헌선을 넘어서는 압도적 승리를 목표로 전략을 마련했다.

대통령선거를 통해 드러난 취약지구에 집중지원할 방침을 세운데 대해 新民黨은 6대 대통령선거를 불법무효라 선언하고 이에 따른 대역투쟁을 국회의원 선거전략으로 삼아 원내에 충분한 대역견제세력을 구축할 목표를 세웠다.

5월 9일, 民主共和黨은 131개 지역구 공천자에게 공천장을 수여했고 新民黨은 124개 지역구후보자를 공천함으로써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제7대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 131명과 전국구 44명등 모두 175명을 뽑는데 11개정당이 난립했다.

그러나 결국 共和·新民양당의 대결로 집약되었고 여당의 원내안정세력확보 호소와 新民黨의 견제세력구축주장이 맞서게 된것이다. 전국적으로 5.4대1의 경쟁율을 나타냈으며 大邱시내는 제1지역구(中區)에 5명, 제2지역구(東區)에 5명, 제3지역구(南區)에 6명, 제4지역구(北區, 西區)에 5명이 각각 출마했다.

각 정당들은 대통령선거때 내건 공약을 기초로 지역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내세웠다. 5월 17일부터 여야각 정당 후보자들의 합동정견발표회가 개최되었고 각 중앙당의 지원유세반이 지방유세에 들어감으로써 선거전이 본격화됐다.

民主共和黨은 金鍾泌의장을 필두로 한 중앙유세반이 5월 25일 大邱, 星州에서 지원유세를 시작했고 新民黨은 3개유세반을 구성, 전국주요도시와 취약지구를 분담유세하면서 5월 28일엔 각유세반이 大邱에 합류하여 大邱의 新民黨후보를 집중지원하였다.

6·8總選이 중반에 접어들자 선거분위기는 금전살포와 선심공세로 선거분위기와 사회분위기가 극도로 혼탁해져갔다. 뿐만아니라 곳에 따라선 여야후보간에 상대방의 지지기반을 교란시키기 위해 흑색선전을 벌이는가 하면 호별 방문마저 성행해 선거양상은 혼란을 치달았다.

5월 31일 하루동안에 전국에서 111명이 입건됐고 6월 1일에도 102명이 입건된 사례가 이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6월 22일 치안국 집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968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됐고 그중 10명이 구속됐다. 각종 선거사범 가운데 후보자가 178명, 정당원이 374명, 행정공무원및 경찰관이 20명이나 됐다. 선거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지자 치안국은 6월 2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경계령을 내리고 24시간 근무를 지시했다.

6월 5일에는 永川군 내무과장이 大昌부면장 金容源을 통해 6·8선거에서 9개 항목에 걸친 부정선거를 지령했다는 내용이 이 면사업계장에 의해 폭로돼 金容源이 구속되기도 했다. 전국 여러곳에서 부정투표에 관한 물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6월 8일 투표가 완료되었고 야당의 부정선거데모가 벌어지는 가운데 개표가 진행됐다.

개표결과 民主共和黨102명, 新民黨 28명, 大衆黨 1명으로 당선이 결정돼 民主共和黨의 압승으로 끝났다. 전국구의석도 군소정당의 득표부진으로 民主共和黨이 27석 新民黨이 17석을 차지해 결국 民主共和黨이 129석, 新民黨이 45석, 大衆黨이 1석으로 집계돼 民主共和黨은 개헌선을 돌파하는 승리를 안게된 것이다. 大邱시내 투표결과와 당선자는 <表 5-7,8> 과 같다.

<表 5-7> 第7代 國會議員選舉 投票狀況表

地 域 區 名	管 轄 區 域	投 票 區 數	人 口 數 (1970.12.31 現在)	選 舉 人 數	投 票 數	無 效 得 票 數	棄 權 者 數	得 票 率 (%)	有 效 投 票 率 (%)
제1地域區	大邱市中區	37	163,304	84,489	50,911(1,771)	1,228	33,567	60.2	97.5
제2地域區	大邱市東區	46	189,487	98,107	64,159(2,292)	2,491	33,948	65.2	96.1
제3地域區	大邱市南區	33	200,109	97,459	64,712(2,172)	1,207	32,747	66.3	98.1
제4地域區	大邱市西區 北區	51	177,938 114,235	150,438	103,938(3,113)	2,684	46,455	69.1	97.4

有 效 投 票 數											
政 黨 別 得 票 數											
統韓黨	自由黨	民衆黨	正義黨	大衆黨	新民黨	民 主 黨	韓 國 獨 立 黨	自民黨	統 一 社 會 黨	民主黨	計
-	147	542	246	441	21,414	24,562	437	174	164	1,567	1,228
-	1,226	499	525	743	24,534	28,468	3,894	547	452	780	2,491
-	129	422	399	827	24,645	34,846	700	337	869	331	1,207
-	9,184	1,148	898	1,148	43,470	41,761	1,153	538	712	1,297	2,684

〈表 5-8〉

第7代 國會議員 地域區 選舉當選者 名單

地域區名	管轄區域	政黨名	當選者姓名	性別	本籍	生年月日	住 所	職 業	學 力 및 經 歷	得票數	備 考
1	大邱市中區	民主共和黨	李萬燮	男	慶北	1932.2.25 (35)	大邱市 中區 三德洞 1街 23	國會議員	大卒 新聞記者 國會議員	24,562	2選 (6,7代)
2	大邱市東區	民主共和黨	李源萬	男	서울	1904.9.7 (62)	大邱市 東區 新川洞 890의 2	國會議員	日本大學中退 參議院議員 第6代國會議員	28,468	3選 (5,6,7代)
3	大邱市南區	民主共和黨	李孝祥	男	慶北	1906.1.14 (61)	大邱市 南區 大明洞 692	國會議員	日本東京帝國大學卒 國會議員	34,846	3選 (5,6,7代)
4	大邱市西區 北區	新民黨	曹逸煥	男	慶北	1916.3.13 (51)	大邱市 中區 飛山洞 270의 1	農 業	日本明治大學法學部卒 第4,5代國會議員 新民黨慶北第4地區黨委員	43,470	3選 (4,5,7代)

6·8선거가 끝난뒤 共和·新民양당은 선거기간에 빚어졌던 불법, 탈법선거운동등 갖가지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먼저 정부 여당은 개표난동을 부린 당원과 일반선거사범을 엄벌치리함으로써 후유증을 수습하려했다.

그러나 新民黨은 부정선거지역으로 판단되는 지구에 대해 재선거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며 부정선거 규탄공세를 벌였다. 부정선거 규탄분위기가 팽배하면서 新民黨은 6월 14일 6·8총선 무효화 투쟁위원회를 구성, 전국적으로 규탄대회를 폈다. 이와 아울러 서울, 大邱등 경향의 대도시에서는 대학생들의 6·8선거규탄데모가 번져나갔다. 이같이 정국이 혼미해지자 朴正熙대통령은 16일 시국수습담화를 발표, 전국 6개지구의 民主共和黨당선자를 제명하는등 부정선거 규탄분위기를 무마함으로써 시국은 다소 진정기미를 보였다.

IV. 改憲案과 國民投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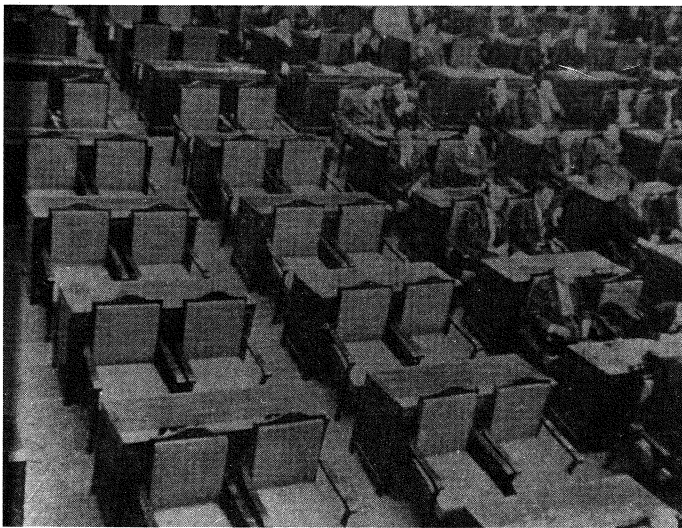
1. 개헌안의 발의과정

대통령임기를 두차례 마쳐갈 무렵인 1969년, 朴正熙대통령과 民主共和黨은 3선중임으로 장기집권의 길을 열기위한 헌법상의 대통령연임금지조항을 없애는등의 개헌을 추진할 방침을 굳혔다. 1월 6일 民主共和黨의 吉在號사무총장이 그다음날엔 尹致暎당의장 서리가, 각각 개헌의 필요성을 표명함으로써 개헌논의가 양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尹致暎 民主共和黨의장 서리는 “후진사회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의 과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연임금지조항을 포함한 현행 헌법상의 문제점을 개정하는 것이 앞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계기로 개헌논의가 표면화했다. 이어 1월 10일에는 朴正熙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개헌 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면 연말이나 내년초에 논의해도 늦지않다”고 하였고 民主共和黨내의 개헌을 추진하는 간부들은 여론이 성숙되면 개헌안을 조속히 처리할수 있다고 보고 당내 구주류의 반대 세력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펴나갔다.

이러한 여당측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新民黨측은 1월 17일 兪鎮午당총재의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운명을 걸고라도 3선개헌 저지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했고 2월 3일, 民主共和黨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찬반의견이 당의 의원총회에서 표면화되자 朴正熙총재는 더이상 개헌논의를 못하도록 지시해 이 문제는 당분간 잠잠한 상태로 넘어갔다. 그러나 6월들어서 朴正熙총재의 개헌 논의 금지지시는 번복되어 정부, 여당은 3선개헌문제를 공식화했고, 곧이어 民主共和黨 방침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民主共和黨과 正友會소속의원들을 상대로 개헌찬성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여당이 개헌논의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개헌작업을 추진하자 新民黨은 이에 크게 반발, 정치정화법 해금인사들과 회동하고 3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저지 투쟁에 나섰다. 大邱에서는 新民黨慶北道黨의 간부들과 재야인사들이 3선개헌반대 경북공동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각 시군단위로 투위를 구성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중앙의 투쟁위에서는 서울을 비롯 전국 주요 도시에서 유세를 통한 반대운동을 폈고, 慶北 투쟁위는 大邱를 중심으로 개헌반대강연회의 개최, 가두시위, 농성등에 의한 투쟁을 벌여나갔다. 6월중순부터 서울의 일부 대학가에서 3선개헌 반대데모가 산발적으로 일어난것을 계기로 점차 전국적으로 학생시위가 확산됐다. 大邱시내의 慶北大學校, 嶺南大學校, 啓明大學校,



〈사진 5-10〉

제7대 국회 공화당만으로 개원

韓社大學校 등 각 대학은 물론 慶北高, 大邱高 등 고등학생들까지도 3선 개헌반대운동에 가담, 시위농성 유인물살포등 장기간의 행동을 벌였다.

야당의 정부 여당에 대한 격렬한 공세와 학생들의 시위농성으로 정국이 긴장되고 사회불안이 극도에 달하자 朴正熙대통령은 7월 25일 개헌문제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 개헌과 관련 정부에 대한 신임을 연계

시키는 국민투표를 선언했다.

7개항으로 구성된 이 특별담화를 통해 여야 정치인들에게 개헌안부결때는 정부퇴진을 약속하는 제안을 함으로써 개헌을 국민투표일정에 맞춰 급속도로 추진됐다. ①기왕에 거론되고 있는 개헌문제를 통해 나와 이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 ②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될때에는 그것이 곧 나와 이 정부에 대한 신임으로



〈사진 5-11〉

9월 13일의 신민당 농성

간주한다. ③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때에는 나와 이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듯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는것으로 간주하고 나와 이정부는 즉각 물러선다. ④이에 따라 여당은 빠른 시일안에 개헌안을 발의해 주기 바라며, ⑤야당은 합법적으로 개헌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정부를 공격해온 사실이 정녕 민의에 근거를 두었다는 것을 국민투표결과에서 입증토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⑥개헌에 대한 찬반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표현되어야 할것이며 폭력과 불법은 배제되어야 한다. ⑦정부는 중립을 지켜 공정한 국민투표의 관리를 할것이다.

民主共和黨은 7월 28일 당무회의를 열어 개헌발의일정을 결정하고 개헌안 성안에 착수함과 동시에 의원총회를 소집, 개헌안 발의 서명을 받게 했다. 8월 8일, 民主共和黨은 개헌안 발의를 위한 국회소집을 요구, 제71회 임시국회가 열렸다. 결국 이 국회에서 개헌안을 民主共和黨의원 108명, 正友會의원 11명, 新民黨의원 3명, 합계 121명의 이름으로 발의했고 정부는 그 다음날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헌안 발의를 공고했다.

9월 정기국회가 개최되고 상정된 개헌안은 10일부터 심의에 들어가 13일에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新民黨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로 표결이 저지되자 새벽2시경 국회제3별관에서 개헌찬성의원 122명으로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2. 國民投票와 그 結果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이를 정부로 이송했고, 정부는 국민투표일을 10월 17일 결정하고 10월 8일에 이를 공고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전부터 사실상 찬반운동을

벌여온 여야는 개헌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본격적인 찬반운동에 들어갔다. 民主共和黨은 9월 17일 전국지구당위원장을 지구별 책임자로 한 국민투표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중앙당에서 훈련받은 8,000여명의 핵심요원으로 하여금 지구별 소단위설득공작을 벌리게 했다. 民主共和黨의 득표전략은 조직의 저변확대위주로 개헌쟁점의 예각화억제등을 통해 조용하게 대국민설득작업을 벌인다는 것이었다. 新民黨은 개헌안의 국회변칙통과를 이유로 불법무효라 주장하며 투표불참을 고려하다가 정부에 의해 개헌안이 공고되자 “부정감시를 위해” 투표참여로 입장을 선회했다. 新民黨은 개헌반대전략으로 ①9·14 변칙통과의 전면무효화와 불법성강조 ②개헌안 제69조 3항은 3선허용뿐 아니라 해석상 영구집권기도임을 강조 ③民主共和黨집권기간의 차관도입과 정치자금조달로 경제질서가 파괴되고 부정부패가 고질화 한것을 들어朴正권타도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는 등이 었다. 한편 반대유세는 3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와 연합으로 전략을 세웠다. 10월 1일을 기해 일제히 찬반유세전의 포문을 열었다. 新民黨은 각 지역별로 15개 유세반을 편성하여 전국 10개 중소도시를 기점으로 유세에 들어갔다.

유세에서 新民黨은 9월 14일 民主共和黨이 기습통과시킨 개헌안은 현정권이 영구집권을 위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반민주적 위험처사이므로 국민은 국민투표에서 이를 부결시켜 정권교체를 이룩해야 할것이라 주장했다.

民主共和黨은 당내간부진과 金鍾泌당의장을 주축으로 한 군부집권 주체세력들이 유세반을 편성, 전국40개 도시를 누비면서 정치안정과朴대통령의 지도력을 들어 개헌안통과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10월 17일 전국 8,471개 투표구에서 일제히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총유권자수 15,048,925명중 11,604,038명이 투표해 77.1%의 투표율을 보인가운데 찬성 7,553,655표, 반대 3,636,369표, 무효 414,014표로 찬성율을 66.5%로 개헌안은 통과됐다.

이중 大邱시내는 개표구별로 69.4%~73.7%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62.9~68.9%의 찬성율을 보였다. 大邱시내 투표상황은 <表 5-9>와 같다.



<사진 5-12> 1969년 3선개헌 국민투표 개표장 (대구 중구 개표소)

〈表 5-9〉 1969 年 施行 國民投票狀況表(大邱市)

開票區名	投票區數	投票人數	投票數	有效投票數			無效得票數	棄權數	投票率(%)	有效投票率(%)	贊成投票率(%)
				贊成	反對	計					
大邱市中區	37	74,913	52,759 (2,258)	33,187	18,472	51,659	1,100	22,154	70.5	97.9	62.9
大邱市東區	46	114,554	82,213 (3,216)	54,658	25,036	79,694	2,519	32,341	71.1	96.9	68.5
大邱市南區	30	109,850	77,839 (3,167)	48,104	27,678	75,782	2,057	32,011	70.8	97.2	63.4
大邱市北區	33	108,836	75,606 (2,397)	50,287	23,063	73,350	2,256	33,230	69.4	97.0	66.5
大邱市西區	21	60,697	44,734 (1,630)	30,831	12,728	43,559	1,175	15,963	73.7	97.3	68.9

V. 第7代 大統領選舉

개헌후 첫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71년이전부터 조기선거분위기가 조성된것은 7대 대통령 선거의 특색이라 할 것이다. 이미 개헌의도가 보여주듯이 民主共和黨은 개헌을 통해 朴正熙 대통령을 7대 대통령선거에 당후보로 확정한 것과 마찬가지로의 상태였는데다 新民黨 또한 이에 맞서기 위한 당내움직임이 일찍부터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新民黨은 야당단일후보였던 尹潽善씨의 패배로 40대 중견인물이 대통령후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른바 40대기 수론이 대두되면서 대통령선거의 분위기가 조기에 일기 시작한 것이다.

3선 개헌직후 新民黨에서는 金泳三의원이 대통령후보 지명전에 나설 것을 선언한데 이어 70년 들어 역시 40대의 金大中的원과 李哲承의원이 또한 대통령후보 지명전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결국 3자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당내 비주류인 金大中的원이 70년 9월의 新民黨대통령 후보지명대회에서 2차에 걸친 투표를 통해 당주류의 지지를 받은 金泳三의원을 누르고 지명을 획득했다.

후보지명을 받은 金大中的원은 그해 10월 하순부터 전국 9개도시와 그의 출신지인 湖南 지방을 누비며 유세를 전개해 야당분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金大中的원은 新民黨후보로서 지방유세를 통해 韓半島 주변 4강국에 의한 전쟁억제보장, 향토예비군제도의 폐지, 남북교류증진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民主共和黨은 “기존안보체제의 기저를 흔드는 중대한 망언”이라 단정하고 金の원의 언동을 중지토록 요구함으로써 이른바 안보논쟁을 이르켰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대통령 선거의 사전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했다.

新民黨이 조기 지명대회로 선거분위기를 조성한데 대해 民主共和黨은 조직정비로 득표준

비에 나서면서 조기 선거분위기의 과열현상을 억제하는데 주력했다. 民主共和黨은 선거공고 일 5일전인 3월 17일에 와서야 당총재인 朴正熙대통령을 다시 차기후보로 지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시 분열했다. 71년 1월 尹潽善을 중심으로한 재야인사와 新民黨의 일부 중진이 모여 國民黨을 결성했다. 총재로 추대되어 당의 대통령후보 지명권을 위임받은 尹潽善은 新民黨의 朴己出의원을 대통령후보로 지명하고 선명야당의 기치를 걸고 지구당조직에 나섰다.

이밖에 統一社會黨이 70년 12월에 전당대회를 열고 金哲을 대통령후보로 지명했고 正義黨에서는 陳福基, 自民黨의 李鍾潤, 民衆黨의 成輔慶등이 대통령후보로 나섰다.

정부는 3월 23일 제7대 대통령선거일을 4월 27일로 공고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7명이었으나 선거운동과정에서 金哲과 成輔慶후보가 사퇴하였다.

선거전략으로 民主共和黨은 與村野都현상의 타파와 득표의 지역평준화로 67년 선거의 116만표차보다 더큰 표차로 승리할 것을 목표로 정하고 유세득표보다 조직득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 득표목표를 정하고 지구당의 일반조직외에 청년, 부녀, 직능단체별로된 조직을 움직이게 하고 사조직등 방계조직을 활용, 유권자의 저변을 파고 들었다.

新民黨은 야당분 형성과 표지키기에 주력하는 한편 대도시표와 湖南표로써 승리할것을 목표로 정하고 표지키기를 위해 전국 각투표소에 배치할 新民黨추천 선거관리 위원과 참관인 6만명 외에 투표함 수송감시원 1만명을 확보할 전략을 세웠다.

선거전은 중반까지 유세대결전으로 점차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民主共和黨은 金鍾泌부총재

를 중심으로한 당중진 간부들이 지방도시에서 유세를 벌이며 당선거공약을 제시하고 朴正熙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新民黨은 金大中후보와 당간부들로 구성된 유세반이 慶北 義城을 기점으로한 嶺東지방유세로부터 전국주요도시로 확대해 갔다. 유세전은 4월 10일부터 朴正熙후보가 8개 대도시에서 유세를 펼치면서 朴正熙,



〈사진 5-13〉

7대 대선 朴正熙 입후보자 유세

金大中 양후보로 대결에 압축되는 치열한 양상으로 선거분위기가 변해갔다. 4월 17일 朴正熙 후보는 大邱壽城川邊에서, 金大中후보는 같은 시각 全州에서 각각 출신연고지 유세대결을 벌여 선거전은 최대의 열기를 뿜었다.

야당측이 ①향군폐지 ②4대강국보장론 ③남북교류등을 내건데 대해 朴후보는 이를 비현실적 망상이라 통박하고 안보를 당리당락에 이용하는 무책임한 정치인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공격했다. 朴正熙후보는 또 1,2차 5개년계획이 추진되었던 10년간이 이 나라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3차 5개년계획이 끝나면 국민소득이 배로 증가할 뿐만아니라 중공업시대가 열리고 영농기계화가 이룩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리고 4대강유역개발과 大邱一馬山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4월 24일 金大中후보는 大邱에서 마지막유세를 펼치면서 당시 쟁점이 됐던 지역감정문제에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다. 金후보는 大邱 유권자들에게 대통령자격은 있으나 全羅道출신이라 표를 못찍겠다면 그런 표는 안받아도 좋으나, 63년도 선거에서 朴대통령은 全羅道지지표로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또 金후보는 朴正熙후보와 자신과의 정책, 정치이념을 비교, 朴후보는 선거, 국회, 야당, 언론등을 집권을 합리화시키는 장식물로 생각하나 자신은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본질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문제를 두고 분배의 공정이 따르지 않은 경제건설은 정치사회의 불안을 초래하여 경제자체의 불안과 파탄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선거운동기간동안 서울, 大邱등지의 대학가에서는 교련반대데모가 산발적으로 일어났고 서울의 일부대학은 휴교조치가 취해졌다. 선거사범도 많이 발생해 전국에 730명이 입건됐고 그중 42명이 구속됐다.

선거결과 선거인총수 15,552,236명중 12,417,824명이 투표 79.8%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朴正熙후보가 6,342,828표를 얻어 5,395,900표를 얻은 金大中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大邱 시내 투표상황은 <表 5-10>과 같다.

<表 5-10> 第7代 大統領選舉 投票 狀況表(大邱市)

開票區名	投票區數	選舉人數	投票者數			棄權數	投票率(%)	有效投票數(%)	候補者別得票數					計
			有效	無效	計				朴正熙 民主共和黨	金大中 新民主黨	朴己出 國民黨	李鍾潤 自民黨	陳福基 正義黨	
大邱市中區	37	70,510	52,885	1,011	53,895	16,614	76.4	98.1	35,527	17,100	130	34	94	52,885
大邱市東區	50	138,483	105,132	3,118	108,250	30,233	78.2	97.0	70,147	34,282	336	88	279	105,132
大邱市南區	38	118,022	88,238	2,130	90,368	27,654	76.5	97.5	57,783	29,975	179	61	240	88,238
大邱市西區	42	126,568	91,981	2,731	94,541	32,027	74.7	97.1	60,965	30,113	301	100	331	91,810
大邱市北區	25	65,703	48,273	1,292	49,565	11,138	81.7	97.4	34,588	13,402	126	36	121	48,273

Ⅵ. 第8代 國會議員選舉

대통령선거를 치른 직후 정부는 5월 1일 제8대 국회의원선거일을 5월 25일로 결정 공고했다. 후보등록마감결과 6개정당이 참여했다. 民主共和黨과 新民黨은 전국 153개 지역구에 모두 공천후보를 등록했고 國民黨은 12개 지역구, 大衆黨은 53개지역구, 民衆黨은 37개 지역구, 統一社會黨은 60개 지역구에서 등록 총577명의 후보자가 등록함으로써 평균 3.8대1의 경쟁율을 나타냈다. 전국구에 있어선 民主共和黨40명, 新民黨33명, 國民黨14명, 大衆黨7명, 民衆黨13명, 統一社會黨14명의 후보자가 각각 등록해 입후보자 총수는 699명이었다.

대통령선거에 승리한 民主共和黨은 차기 정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원내안정 세력구축을 목표로 선거전략을 세우고 총선체제에 돌입했다.

대통령선거에 패배한 新民黨은 5월 1일, 공천자대회를 열고 총선거의 공명이 보장되지 않으면 전원이 후보를 사퇴한다는 조건하에 총선거에 참여기로 결정했다. 그같은 결정에 따라 모든 공천자는 총사퇴에 대비, 후보자 사퇴서를 미리 당수에게 맡겼다.

民主共和黨은 선거공명을 심각한 문제로 삼는 新民黨의 움직임에 아랑곳 없이 조직활동을 통한 득표전략과 병행 유세전을 펼쳤다. 朴正熙총재반을 비롯 金鍾泌부총재반, 白南檣당의장 반등 7개유세반과 시도및 지구당반을 편성, 전국에 걸친 유세에 들어간 것이다. 유세에 나선 연사들은 안정세력확보와 지역개발을 들어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고 “朴대통령 일하도록 民主共和黨밀어주자”는 구호로 선거전을 이끌었다.

新民黨은 5월 11일 새로운 지도체제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金大中전국유세반과 金弘壹, 朴永祿, 李哲承, 金泳三등의 중진반을 구성, 각지에 파견했다. 아울러 당선가능성이 높은 50개지구에 집중지원키로 하는 한편 정부여당의 부정선거방지를 위해 선거부정실태조사반의 파견과 기동독찰반도 가동키로 했다.

중반전에 가까울수록 선거양상은 民主共和黨과 新民黨양당으로 압축되어 갔고 나머지 정당 후보들은 전적으로 후보개인역량으로만 득표전을 벌였다.

新民黨이 공명선거 문제를 쟁점으로 계속 부각시켜나가자 5월 21일 民主共和黨 吉在號사무총장은 선거기간만바지에 선거부정행위등 사고를 내는 자당공천후보가 생긴다면 설사 당선이 된다해도 당에서 제명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선거결과 전국 9,406개 투표소에서 총유권자 15,610,258명중 11,430,202명이 투표에 참가해 73.2%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지역구당선자의 정당별분포를 보면 民主共和黨86석, 新民黨 65석, 國民黨1석, 民衆黨1석이었다. 정당별득표율은 民主共和黨이 48.7%, 新民黨이 44.3%, 國民黨이 4%, 民衆黨이

3%, 기타 1.4%로 전국구의석배분자격은 民主共和黨과 新民黨 양당만으로 득표비율에 따라 民主共和黨에 27석, 新民黨에 24석이 각각 배정됐다. 전체 의석으로는 民主共和黨은 원내과 반수 의석을 확보했으나 新民黨은 7대 국회때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해 더욱 강한 견제세력을 형성했다. 大邱시내는 7대 국회의원선거에선 4개 선거구에서 新民黨 1석 뿐이던 것이 8대 국회의원선거에선 5개 선거구에서 4명이 新民黨의원이 당선됨으로써 大邱는 야당도시로 변모하고 말았다. 大邱시내 지역구 선거상황은 <表 5-11, 12>와 같다.

<表 5-11> 第8代 國會議員選舉 投票狀況表(大邱市)

地 域 區 名	管 轄 區 域	投 票 區 數	人 口 數 (1970.12.31 現在)	選 舉 人 數	投 票 數	無 效 得 票 數	棄 權 者 數	得 票 率 (%)	有 效 投 票 率 (%)
제1地域區	大邱市中區	37	132,732	72,070	48,829(2,371)	842	23,241	67.8	98.3
제2地域區	大邱市東區	50	250,186	133,804	90,759(3,794)	1,529	43,045	67.8	98.3
제3地域區	大邱市南區	38	218,312	121,669	83,170(3,533)	1,630	38,496	68.4	98.0
제4地域區	大邱市西區	42	239,971	30,914	87,713(3,170)	1,437	43,201	67.0	98.4
제5地域區	大邱市北區	25	119,159	63,415	47,221(1,705)	930	16,194	74.5	98.0

有 效 投 票 數						
政 黨	黨 別	得 票 數				
民主共和黨	新民黨	國民黨	大衆黨	民衆黨	統一社會黨	計
20,265	27,266	110	131	94	121	47,987
39,356	48,504	453	113	351	453	89,230
34,740	45,658	505	147	316	174	81,540
41,247	43,571	539	149	250	520	86,276
23,566	21,194	1,119	91	189	132	46,291

<表 5-12> 第8代 國會議員 地域區 選舉當選者 名單

地域區名	管轄區域	政黨名	當選者姓名	性別	本籍	生年月日	住 所	職 業	學 力 吳 經 歷	投票數	備考
1	大邱市中區	新民黨	韓柄采	男	慶北	1933.7.3 (37)	大邱市 西區 內唐洞 804~100	辯護士	高麗大學校卒業 判事, 辯護士	27,266	初選
2	大邱市東區	新民黨	金正斗	〃	서울	1918.8.2 (52)	大邱市 中區 東城路 2街 68~18	辯護士	日本明治大學卒業 大邱地方法院·서울高等法院 部長判事, 辯護士	48,504	初選
3	大邱市南區	新民黨	申鎮旭	〃	慶北	1924.5.27 (46)	大邱市 南區 大明洞 1823	無 職	大學院修了 協成財團理事長	45,658	初選
4	大邱市西區	新民黨	曹逸煥	〃	慶北	1916.3.13 (55)	大邱市 西區 飛山洞 270~18	國會議員	日本明治大卒業 第45,7代 國會議員	43,571	4選 (45,78代)
5	大邱市北區	民主共和黨	姜在邱	〃	慶北	1928.6.22 (42)	大邱市 中區 太平路 6街 114	嶺南鑄物 (代表)	大邱大 大學院修了 民主共和黨 第5地區黨委員長	23,566	初選

第6章 第4共和國時代

第1節 10月維新宣言과 國民投票

야당과 재야, 학원가의 치열한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킨 1969년의 3선개헌에 의한 7대대통령선거와 8대 국회의원 선거로 제3공화국이 출범된지 1년 남짓만에 朴正熙대통령과 民主共和黨정부는 또 개헌을 기도했다. 朴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비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상계엄령선포를 의결한 뒤 이날저녁 7시를 기해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을 통해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중지 등 당시 헌법의 기능을 일부 정지시키고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이다. 이에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계엄사는 정치활동목적의 옥내외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지하고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검열을 받도록 했다. 또 각 대학에 대해서도 당분간 휴교조치를 취하므로써 헌정중단 사태에 대한 일체의 저항을 막았다.

정부는 계엄선포를 공고하면서 「1972년 10월 17일 정부의 비상조치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 시련을 극복하고 국토와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체제개혁을 단행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사회질서의 동요와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이는 7·4공동성명등으로 교류가 트인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월남전패망등 주변정세의 급변에 대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체제개혁

을 단행한다는 것이었다. 이 특별선언으로 2개월간 헌법 일부조항의 효력이 중지됨에 따른 국회의 권한을 비상국무회의가 대행했다. 이에따라 비상국무회의는 체제개혁의 내용이 되는 유신헌법안(제4공화국헌법안)을 10월27일 의결공고하고 11월 27일 국민투표에 붙이게 했다.

비상국무회의에서 朴正熙대



〈사진 6-1〉

헌정중단의 10·17특별선언

통령이 직접 낭독한 특별선언은 다음과 같다.

① 2개월 동안 일부헌법 조항을 효력정지 시키고 ② 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당 및 정치활동을 중단시켰으며 ③ 일부효력이 정지된 헌법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을 현행국무회의가 수행한다. ④ 비상국무회의는 71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여 이를 공고한 날



〈사진 6-2〉

유신헌법공포

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 ⑤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연말이전에 헌정질서를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에 걸쳐 선포된 비상계엄의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노재현대장이 임명 되었다.

비상계엄에 따라 신문, 방송 등 모든 언론에 대한 검열이 18일 부터 시행됐으며 18일오후 3시 국방부회의실에서 유재홍국방장관을 비롯한 육·해·공, 해병대의 참모총장, 사령관과 군관구 사령관급 이상의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가 열려 10월유신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경제인연합회등 각급 사회단체가 10월유신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大邱에서는 기자협회의 안유호 회장등 일부 간부들의 일방적 주도로 10월유신을 지지하는 경북언론인대회가 11월 1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구자춘 경북지사를 비롯 내빈다수와 500여명의 언론인이 제일모직회의실에 모여 10월유신완수를 위한 언론의 사명을 다짐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비상국무회의에서 비상국무회의법, 국민투표법에 관한 특례법 및 동시행령,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특례법 및 동시행령등 5개법령을 의결 공포했다.

정부가 공고한 유신헌법안은 전문과 총126조 부칙11개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기관의 최정상에 2천 내지 5천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고 ②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하며 ③ 대통령 및 국회의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④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은 대통령의 추천에 의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뽑으며 ⑤ 헌법위원회를 신설, 여기에 법률심사권, 정당해산권을 주고 ⑥ 대통령에 국회해산권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유신헌법안은 국토와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하려는 체제개혁이라는 정부의 제안 이유와는 달리 야당측은 이를 朴正熙대통령의 영구집권을 기도하려는 헌정 유린사태라고 보았다. 당시의 국제정세로는 닉슨 대통령의 中·蘇방문으로 국제적 해빙무드가 이뤄지고

동서독접근, 中·日외교관계수립, 월남전협상 진전등으로 통일여건이 조성되고 있었다. 그기에 남북적십자회담의 성사, 남북특사교환에 의한 7·4공동성명의 발표로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통일에따른 체제정비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반대의견 표시를 원천봉쇄하고 계엄령하에서 실시되는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투표 지지를 위해 유력인사나 명망가들을 동원하는 방법에 대해 회의를 표시하는 여론이 잠재해 있었다. 뿐만아니라 직선제와 중임금지조항을 폐지하는 개헌으로 손쉽게 영구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사실에 대해 야권은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것이 결국 유신반대의 거센 저항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유신정권의 비극적 종말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에 대한 지도 계몽계획을 수립, 학계등 각계 인사들로 시도 계몽반을 위촉 大邱 시내 2회 등 계몽회를 가졌다. 뿐만아니라 신문좌담, TV, 라디오대담을 통해 계몽활동을 벌이는 한편 직장단체별로 각1회씩 계몽강연을 가졌다.

大邱·慶北지역에선 연세대 김명희교수, 이화여대 김대환교수, 연세대 한기수교수, 고려대 최영막교수, 여석기교수, 심만양교수 등이 계몽반으로 활약했다.

大邱에서는 각 대학 학생대표38명이 11월 13일 저녁에 영남대 이윤근교수와 대건고교교감 김영식씨의 주재로 남선유지회사 회의실에서 10월유신에 대한 좌담을 가졌다. 이에 앞서 大邱지역의 대학가운데 경북대 김용규, 김문달, 차용석교수 등으로 구성된 경북대계몽반과 신도성, 이창우교수로 구성된 영남대계몽반은 각각 경북도내 북부와 동부로 나뉘어 국민투표에 대한 계몽강연을 가졌다. 또 大邱의 한국사회사업대학에서는 경북대 이우영교수와 대구시의 신동길보사국장이 국민투표 계몽을 하였다. 1972년 11월 13일 부터 大邱 시내에서 시작된 유력인사, 교수들과 남여학생들간의 간담회도 66개소에 약2천명에 이르렀고 야당계와 종교계, 심지어 4·19세력을 자처하는 단체도 지지성명을 내는 등 표면적으로 지지일색의 분위기가 흘렀다.

더욱이 국민투표일에는 모든 유권자들이 빠짐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종업원 5명 이상의 기업은 모두 휴업 또는 교대 근무토록했다.

국민투표 투개표상황을 시찰하기 위해 「엥커크 시찰단(메이어 주한 네덜란드대리대사)이 大邱·慶北지역을 돌아봤다. 11월 21일 실시된 투표결과 전국의 투표율 91.5%로 기록적인 높은 투표율을 보여 투표상황에 문제점을 보여준 가운데 1,300여만표의 지지표를 얻어 유신헌법이 확정됐다. 大邱지역은 5개의 개표구에서 86.6%~93.2%의 투표율을 보인가운데 84.5%~92%의 찬성율을 보였다.

大邱 시내 국민투표상황은 <表 6-1,2>와 같다.

〈表 6-1〉 國民投票狀況

開票區名	無 效 投 票 數							棄權數	投票率	有效投票率 (%)	贊成投票率 (%)
	1	2	3	4	5	6	計				
大邱中區	43	440	62	4	124	14	687	6,983	89.7	98.9	84.5
大邱東區	16	482	75	174	117		864	11,563	91.8	99.3	88.7
大邱西區		96	2,529	98	43	22	2,788	16,930	86.6	97.4	92.0
大邱南區		37	810	48	220	5	1,120	12,286	90.0	99.1	91.0
大邱北區	285	301	40	25	199	46	896	4,312	93.2	98.5	87.1

〈表 6-2〉 國民投票 開票狀況

開票區名	投 票 人 數	投 票 數	有 效 投 票 數		
			贊 成	反 對	計
大邱中區	67,634(2,860)	60,651(2,673)	51,265	8,669	59,964
大邱東區	140,886(5,250)	129,313(5,112)	114,735	13,724	128,459
大邱西區	125,924(4,793)	108,994(4,647)	100,296	5,910	106,206
大邱南區	135,024(4,118)	122,738(4,003)	111,739	9,879	121,618
大邱北區	63,735(2,308)	59,423(2,219)	51,785	6,742	58,527

第2節 初代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選舉와 8代 大統領選舉

제4공화국헌법(유신헌법)에 따라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가 1972년 12월 15일 오전 7시부터 실시됐다. 이 선거는 전국 15,802,435명의 유권자들이 각기 정해진 투표소에서 2,359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이 선거에선 전국적으로 5,876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1,630개 선거구에서 평균 2.5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大邱에서는 13개 선거구에서 59명을 선출하는데 168명이 출마해 2.8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大邱지역의 선거에서 입후보자와 당선자는 다음 〈表 6-3,4〉와 같다.

〈表 6-3〉 大邱市內 代議員 立候補者 名單 (0내 숫자는 정원수, ()의 숫자는 나이·직업)

中區一④	安牧丹(36 實) 韓碩愚(50 工) 鄭慶萬(37 藥) 金仕龍(56 변호사) 表大洙(39 출판) 禹炳根(50 예식장주) 金炳坤(40 사회사업) 奉基璉(56 商) 金永祚(58 안식원장) 林正達(59 종교인)
中區二③	鄭福香(62 양계) 鄭元永(43 醫) 崔東原(48 직물) 石南秀(46 商) 吳一龍(52 工) 李正魯(38 工)
東區一⑤	宋安濟(53 제조업) 文殆甲(47 醫師) 李明鎬(44 商) 吳基煥(40 토건) 金在田(35 工) 孫三憲(43 여관) 蔡明吉(32 商) 李鍾洪(40 商) 柳洪佑(32 工) 陳鍾植(48 제화업) 卞瑩世(58 商) 李秉哲(40 商) 金哲鍾(38 會社員) 朴鍾久(45 商) 朴泰重(35 금융업) 黃永旭(39 향군간부)

第2節 初代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選舉와 8代 大統領選舉

東區二⑤	李萬達(59 農) 李一鎔(45 工) 金炳機(41 한의원) 姜大海(58 양조업) 朴龍夏(36 商) 金學奉(57 사원) 林昭男(32 사원) 朴憲微(45 사회사업) 卞廷煥(40 한의원) 金松培(여 51 호텔업)
東區三⑤	李鍾汎(37 제조업) 李珽雨(62 商) 朴桂煥(40 사원) 宋永鎬(49 과수업) 徐玟洙(39 農) 金相先(36 醫) 金正道(52 토건) 尙炳吉(50 商) 夏在衡(45 農) 金五長(57 商) 李衡錫(55 農) 吳龍熙(48 사회사업) 孫孝植(48 교사) 朴洛明(41 건축) 黃寶性(38 商) 金龍基(46 제조업) 李秉世(31 商) 蔣濟榮(55 商) 南基煥(40 商)
西區一⑤	崔聖守(40 운수) 李株夏(44 工) 朴海東(47 한약) 姜相文(42 직물업) 金鍾弼(52 제조업) 金同鶴(50 商) 李吉容(35 實) 崔壽永(46 代書) 禹鎬瑨(33 통관업) 金錫烈(40 제조업) 金允錫(39 商) 金丹矯(55 商) 魯太杞(36 직물업) 崔熙鍾(39 건축) 金明煥(39 工) 都昌烈(40 직물업)
西區二⑤	李壽基(32 건설) 柳容浩(46 工) 李雨達(43 제조업) 安佑錫(52 제조업) 安炳俊(48 商) 孫晉天(43 商) 李壽鶴(57 제조업) 李昭鉉(37 사원) 姜濟遠(48 商) 崔鍾潤(40 農) 朴載燮(52 운수업) 姜相泰(39 農)
西區三⑤	金泓殖(44 양조업) 金龍煥(35 商) 黃敬道(42 工) 宋鍾潤(42 제과업) 金鍾夏(31 商) 金福煥(57 商) 金權永(53 工) 張達鉉(55 사원) 金正午(43 사원) 朴興俊(61 商) 金址皓(34 工) 金在洙(39 제조업) 金在三(37 農)
南區一⑤	裴洪杓(47 사원) 孫魚龍(40 商) 玉永浩(56 商) 河五明(36 商) 金相俊(54 언론인) 羅鍾浩(57 商) 禹貞澤(39 工) 李明雨(61 신부) 李東榮(46 醫) 朴昌海(43 인쇄) 崔井坤(49 건축)
南區二⑤	李德鎮(51 목장) 李在洪(40) 尹根相(48 원예) 安溶旭(48 商) 金海碩(33 재건국민) 金相德(47 흥행업) 金成龍(32 商) 朴宰洪(50 변호사) 盧順田(51) 具球書(45 實) 權海植(40 운수) 嚴昌燮(59 반공연) 金河翼(42 商) 金在浩(63 農) 朴魯千(59 商) 尹鳳壕(45 商) 鄭鎬康(51 보건업)
南區三⑤	安成鳳(58 商) 金秀一(31 사업) 金尙圭(41 예술인) 姜鳳吉(43 대학강사) 徐敦錫(48 임업) 南龍鎮(42 醫) 李愚弘(50 農) 徐沅(36 양조) 李昌根(42 건축) 李廷浩(43 商) 全炳烈(49 農) 朴春碩(54 農) 姜判龍(55 사원)
北區一⑤	梁炳浩(44 商) 韓命澤(47 대학강사) 裴雲學(62 藥) 朴紀東(49 工) 柳根鴨(54 직물업) 池鳳三(58 代書) 朴禹錫(50 育英) 朴在明(58 商) 金鍾隆(30 工) 南在鉉(34 사원) 朴重鉉(53 직물업) 具正會(47 건설) 李京男(39 商) 崔遠坤(36 학원장) 權寧宙(44 제조업) 梁義剛(47 商) 崔基南(47 商) 徐順珍(여 61 商) 金英植(56 승려) 朴光緒(40 工)
北區二⑤	徐相皓(49 農) 徐憲洙(49 원예) 徐正植(44 工) 孫重亮(47 사원) 裴孝眞(38 농협장)

〈表 6-4〉 大邱市內 代議員 當選者 名單

投票區	立 候 補 者 名	得票數	投票區	立 候 補 者 名	得票數
中區一	金在龍(56 변호사 大卒)	4,627	東區一	李炳哲(40 商業 高卒)	2,633
	韓碩愚(50 工業 大卒)	3,316		文始甲(43 의사 大卒)	3,313
	表大洙(39 出版業 大退)	3,316		吳基煥(40 토건업 大卒)	2,023
	禹炳根(50 商業 大學院卒)	3,053		孫三憲(42 숙박업 高卒)	2,291
中區二	吳一龍(52 工業 大卒)	8,221	東區二	宋安濟(53 제조업 大退)	3,556
	鄭元永(43 病院長 大卒)	4,564		金學奉(57 會社長 中卒)	4,866
	崔東原(49 직물제조 高卒)	3,143		卞廷煥(40 한의사 大學院退)	3,359

東區二	李萬達(59 農業 中卒)	3,107	北區一	朴紀東(49 工業 神學卒)	3,243
	朴龍夏(36 商業 大學院退)	4,426		權寧宇(44 제재업 大卒)	2,461
	姜大海(58 제조업 大退)	2,548		韓命澤(47 대학강사)	2,523
東區三	李鍾汎(37 제조업 大卒)	4,574	北區二	南在鉉(34 회사원 大學院卒)	2,368
	徐玟洙(39 農業 大退)	2,245		具正會(47 건축업 高卒)	2,807
	夏在衡(45 農業 中卒)	3,583	西區一	徐正植(44 工業 大學院卒)	3,615
	吳龍熙(48 사회사업 大卒)	4,073		裴孝鎭(38 농협장 大卒)	2,666
	權海植(40 운수업 大卒)	3,277		金龍基(46 제조업 기술교卒)	6,449
	具球書(45 言論人 大卒)	2,439		姜相文(42 직물 大卒)	5,071
	嚴昌燮(59 反共聯 專卒)	2,435		金鍾弼(50 製造業 農業校卒)	3,063
	金相德(47 흥행업 國卒)	2,371		李株夏(44 工業 大退)	2,511
南區一	裴洪杓(47 會社員 漢學)	6,056	西區二	崔壽永(46 代書 高卒)	2,444
	金相俊(54 言論人 專門시험)	5,942		都昌烈(40 직물 大卒)	2,264
	李明雨(61 神父 神學校卒)	5,303	西區三	李昭鶴(57 제조업 國卒)	4,051
	河五明(36 會社代表 大學院在)	5,288		李昭鉉(37 회사 大卒)	3,669
	孫漁龍(40 商業 中卒)	4,414		安炳俊(48 商業 陸大卒)	3,633
南區二	金海碩(33 商業 大卒)	2,731		孫晉天(43 商業 大卒)	3,041
南區三	徐敎陽(48 林業 大學院退)	3,744		柳容浩(46 工業 專退)	3,001
	南龍鎭(42 의사 大學院退)	4,940	西區三	金泓殖(44 양조 大學院退)	6,070
	徐發源(36 양조업 大卒)	2,788		金在三(37 農業 大退)	2,847
	朴春碩(54 農業 大卒)	2,341		金在浩(34 工業 大卒)	3,500
	李廷浩(43 商業 獨학)	2,472		金福煥(57 商業 中卒)	2,775
				金鍾夏(31 商業 大卒)	3,889

또 초대통일주체국민회의의원선거의 전국적인 투표상황(시도별)과 시도별선거구수와 대의원정수는 <表 6-5,6>과 같다. 이렇게 선출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2년 12월 23일 서울장충체육관에서 역사적인 첫 총회를 갖고 제8대 대통령에 단독 출마한 朴正熙 대통령을 압도적 찬성으로 선출했다. 총 2,359명대의원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朴대통령은 찬성 2,357표, 무효 2표로 당선됐고 유신헌

<表 6-5> 市·道別 選舉區 및 代議員 定數

市·道別	區分	管轄選舉區 選舉管理委員會	選 舉 區 數	代議員 定數
서울	울	19	67	303
釜山	山	8	24	104
京畿	畿	25	207	280
江原	原	19	111	145
忠北	北	42	107	172
忠南	南	18	185	231
全北	北	16	168	200
全南	南	27	242	312
慶北	北	33	268	354
慶南	南	26	236	278
濟州	州	3	15	25
合 計		206	1,630	2,359

법에 따라 11월 27일부터 임기 6년의 대통령에 취임했다. 계엄령선포에 따라 휴교상태에 있던 대학들은 11월 28일부터 휴교조치가 해제됐고 다른 금지조치도 12월 14일 0시를 기해 계엄이 해제됨으로써 모두 해제되었다.

統一主體 國民會議 代議員 選舉 狀況(1972.12.15 施行)
代議員 選舉 投票狀況

〈表 6-6〉

委員會別	區分	投票區數	選數人數	投票數	棄權數	投票率(%)	備考
서 울		1,063	3,113,767	1,773,454	1,340,313	57.0	
釜 山		534	941,884 (979,034)	642,641	299,243	68.2	
京 畿		1,058	1,664,447 (1,732,699)	1,152,723	511,724	69.3	
江 原		774	788,276 (849,788)	628,618	159,658	79.9	
忠 北		584	602,554 (703,464)	461,638	140,916	76.6	
忠 南		850	1,278,743 (1,388,733)	924,874	353,869	72.3	
全 北		1,100	1,092,516 (1,155,795)	838,197	254,319	76.7	
全 南		1,534	1,636,382 (1,912,531)	1,171,187	465,195	71.6	
慶 北		1,591	1,970,647 (2,231,460)	1,509,405	461,242	76.6	
慶 南		1,132	1,339,583 (1,551,104)	1,039,020	300,563	77.6	
濟 州		182	170,818 (184,050)	138,577	32,241	81.1	
合 計		10,420	14,599,617 (15,802,435)	10,283,792	4,315,825	70.4	

() 內書는 選舉를 實施하지 아니한 選舉區의 選舉人數를 포함한 選舉人 數임.

第3節 第9代 國會議員選舉

11월 27일 새 헌법이 공포되고 30일 정당법과 국회의원 선거법이 발표되자 72일간의 정치 동면에 접어들었던 지방정가도 제9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29일 비상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30일 오전 공포된 새국회의원선거법과 정당법은 무소속 출마허용, 중선거구채택,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국회의원선출등 새로운 방식을 채택했다. 종래 153



〈사진 6-3〉 9대 총선 유세장(경북공고)

개선거구에서 1구 1인씩 선출하던 소선거구를 73개선거구에 1구 2인씩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뀐것이다. 따라서 의원정수는 통일주체국민회의선출(유정회의원) 73명을 포함 종래보다 15명 늘어난 219명으로 조정되었다. 후보등록시 정당공천자는 200만원, 무소속은 300만원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도록 했다. 이 기탁금은 후보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 때에는 선거공보 및 벽보비용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에 귀속케 함으로써 후보의 난립을 막도록 했다. 그리고 한 정당의 공천낙천자가 다른 정당의 공천신청을 못하게 했다.

8대 국회해산 이후 정세상태에 있던 중앙정계는 일부 재편되는 상황을 맞았다. 1973년 1월중순 제 1야당이었던 新民黨이 분열되면서 新民黨을 뛰쳐나간 양일동계열이 통일당 결성대회를 가졌다. 2월들어 民主共和黨, 新民黨, 統一黨이 각각 공천자 심사를 마치고 12일에 공천자명단을 발표했다. 14일 입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전국에서 339명에 달했다.

새정당법은 무소속 출마를 허용했기 때문에 民主共和黨과 新民黨에서 공천을 얻지 못한 150여명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大邱시내는 大邱中·西·北區와 東·南區등 2개의 중선거구로 나누어져 中·西·北區엔 4명이 출마했고 東·南區엔 7명이 출마했다. 정당별로는 中·西·北區엔 新民黨이 2명의 복수공천을 했다. 9대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大邱 東·南區의 申鎭旭무소속후보가 구속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9대총선에서 大邱에는 중선거구의 효과가 나타나 2개구에 각 1명씩 공천한 民主共和黨이 2명 모두 당선자를 냈다. 大邱시내의 선거상황은 〈表 6-7,8,9,10〉과 같다.

〈表 6-7〉

大邱市内 立候補者 名單

▲大邱 中·西·北

朴燦(共和黨 48 高大 辯護士), 曹逸煥(新民黨 57 日明治大 4選 選對委員), 李大雨(新民黨 58 神學校中退 8代議員), 韓柄來(無所屬 41 高大 辯護士 8代議員)

▲大邱 東·南區

李孝祥(共和黨 67 東京帝大 3選 前國會議長), 辛道煥(新民黨 52 日明治大 2選 黨事務總長), 河岐洛(統一黨 53 慶北法大學長 政治委員), 金穆一(無所屬 42 大卒 前新民黨), 申鎭旭(無所屬 49 大卒 8代議員), 鄭遠容(無所屬 48 大卒 事業), 崔順福(無所屬 42 大卒 新聞支社長)

第9代 國會議員 各黨 公薦者 名單(大邱)

〈表 6-8〉

選 舉 區	共 和 黨	新 民 黨	統 一 黨
大邱中·西·北區	朴燦(48 辯護士)	曹逸煥(57 8代議員) 李大雨(58 8代議員)	金忠燮(前教授)
大邱東·南區	李孝祥(67 前議長)	辛道煥(52 8代議員)	河岐洛(53 前教授)

第9代 國會議員選舉 大邱市 立候補者名單 및 當選者得票狀況

〈表 6-9〉

選舉區	立候補者名	所屬	年 齡	學 歷	職 業	得 票 狀 況					其 他
						計	※ 選 舉 區 欄 參 照				
〈第1〉 大邱中・西 北 區	朴 燦	共和	47	高 大	辯 護 士	68,151	15,907	37,541	14,703		公薦 初選
	韓柄索	無	41	高 大	辯護士 8代議員	41,175	14,915	16,666	9,594		再 選
	李大雨	新民	58	神 退	8 代 議 員	22,875	8,315	8,384	6,176		新民 公薦
	曹逸煥	新民	57	日本明大	選 對 委 員	40,872	8,133	22,432	10,307		4 選 新民
〈第2〉 大邱東 南 區	李孝洋	共和	67	日本東大	前 國 會 議 長	76,245	37,085	39,160			公 薦
	辛道煥	新民	52	日本明大	黨 事 務 總 長	35,105	20,210	14,895			3 選 公薦
	河岐洛	統一	53		政治委員教授	8,251	4,143	4,108			3 選 公薦
	金穆一	無	42	大 卒	前 新 民 黨	11,898	9,146	2,752			統一 公薦
	朴宰弘	〃				3,459	2,159	3,010			
	申鎮旭	〃	49	大 卒	8 代 議 員	28,181	13,647	14,534			
	鄭遠容	〃	48	大 卒	事 業	10,844	7,513	3,331			
	崔順福	〃	42	大 卒	新聞支社長	2,997	1,732	265			

國民會議 選出 케이스 國會議員

〈表 6-10〉

政 界	서인석 (47 6대의원)
고재철 (59 7·8대 의원)	이종환 (40 조선일보 편집부국장)
구대회 (50 8대의원)	이진희 (40 서울신문 정치부장)
권갑주 (43 공화당 훈련원장)	임 삼 (50 한국일보 정치부장)
권 일 (61 8대의원)	주녕관 (45 서울신문 논설위원)
김봉환 (52 6·7·8 대의원)	咸在勳 (55 江原日報 社長)
김성두 (44 8대의원)	前職公務員
김영탁 (49 공화당 사무차관)	姜文奉 (50 6代議員)
김용성 (48 8대의원)	權孝燮 (47 國會事務處 議事局長)
김재순 (49 8대의원)	金成洛 (54 國際問題研究所 研究委員)
김종필 (47 6·7·8 대의원)	金聖洛 (51 前 中央情 分室長)
김진만 (55 3·4·6·7·8 대의원)	金世鍊 (56 財務部長官)
노진환 (44 8대의원)	金振鳳 (38 國務總理 政務秘書官)
민병권 (55 6·7·8 대의원)	徐丙均 (57 前 大檢檢事)
백두진 (64 전 의장)	吳定根 (43 國稅廳長)
정준한 (62 공주고육대 학장)	劉敏相 (52 法制處長)
言論界	李成佳 (51 지리大使)
문태갑 (43 동양통신 정치부장)	李永根 (49 國務總理 秘書室長)

前職公務員 張東植 (49 前 治安局長) 全在球 (45 前 中情局長) 鄭在虎 (43 前 國會議長 祕書室長) 崔永喆 (37 政무담당무임소장관실 정무조정실장) 黃昌柱 (59 光州高檢 檢事長)	女性界 具姁會 (54 大韓의학협회 常任理事) 金玉子 (41 8代議員) 朴貞子 (46 共和黨 부녀부장) 徐英姬 (35 경희大 教授) 李範俊 (39 梨大 교수) 李淑鍾 (68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장) 鄭福香 (62 여성단체 협의회장) 許戊寅 (63 釜山市 教育위원)
豫備役將星 金載圭 (46 前 보안사령관) 金昌圭 (53 前 공군참모총장) 宋虎林 (49 戰敎사령관) 安椿生 (61 前 국방차관보) 尹泰日 (55 前 서울시장) 지종걸 (43 정책연구실) 최영희 (52 전 장관) 함종빈 (49 5대의원) 현오봉 (49 4·6·7·8 대의원)	社會各界 金基衡 (47 前科技處長官) 金三峰 (44 大韓상이군경 회장 대한상이학생 회장) 李海浪 (56 前 예총회장, 8대의원) 崔龍洙 (48 前 大韓勞動위원장, 8대의원)
學界 갈봉근 (40 중앙대 교수) 강문용 (51 성균관대 교수) 구범모 (41 서울대 교수) 김명희 (49 연세대 교수) 김태규 (50 전남대 교수) 오주환 (50 고려대 교수) 한태연 (57 서울대 교수)	豫備후보 ① 宋孝淳 (48 재향군인회 사무총장) ② 金忠銖 (35 會社長) ③ 李承福 (49 共和黨 부녀分委員長) ④ 南相敦 (57 새마을 지도자) ⑤ 馬達千 (43 共和黨 道연락실장) ⑥ 李載錫 (38 무임소장관 정무조정관) ⑦ 金炳植 (57 새마을 지도자) ⑧ 卜泰奉 (48 새마을 지도자) ⑨ 趙炳鳳 (42 재향군인회 경기도지부장) ⑩ 金日秀 (33 새마을 지도자) ⑪ 尹汝訓 (35 韓赤국체부장) ⑫ 韓仁洙 (37 농촌사회 사업가) ⑬ 柳濟興 (44 교육자) ⑭ 金祥熙 (53 교육자)
教育界 김동욱 (63 서울계동국 교장) 임경섭 (67 대한사립 중고교 연합회장) 張昌國 (49 前 합참의장) 鄭光鎬 (50 前 해병사령관) 咸明洙 (45 前 해군참모총장)	

第4節 第2代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選舉와 9代 大統領選舉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는 1978년 5월 4일 오후 5시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18일에 투표를 실시했다. 선거결과 전국 1,665개 선거구에서 2,583명의 대의원을 선출케되었다. 2대 동대의원선거는 총 5,577명이 출마해 1대 선거때보다는 다소 낮은 2.16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등록후보자중 66.9%가 현직대의원이었고 전국 189개 선거구에서 232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시도별 경쟁율을 보면 江原道가 2.69대 1로 가장 높았고 釜山은 가장 낮은 경쟁율을 보였으며 선거구별로는 慶北 金陵郡 大德面과 京畿道 包川郡 永北面이 7대 1의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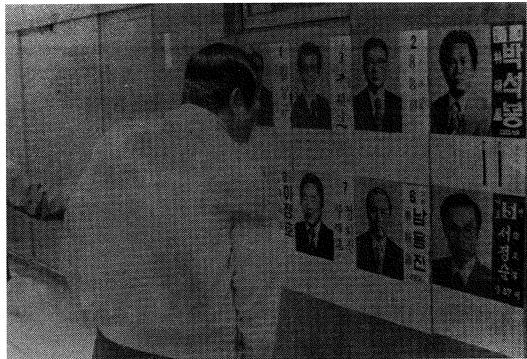
고경쟁을 나타냈다. 후보자의 직업별분포는 농림업이 전체의 45%로 가장 많았다.

慶北道內입후보자는 252명으로 도내에선 金陵郡 大德面과 尙州郡 靑里面이 7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선거구가 10개지구, 1.5대 1이하는 101개지구, 2.5대 1이하는 9개지구, 3대 1이하는 72개지구, 3대 1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51개지구였다. 이중 大邱市에서는 72명정원에 104명이 후보로 등록 평균 1.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 가운데 현직대의원의 후보등록은 33명으로 60%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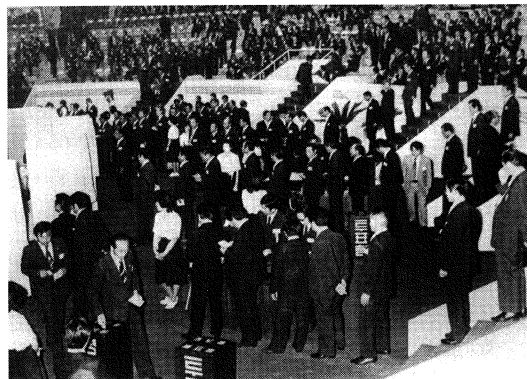
당선자 가운데 무투표 당선자는 慶北道內에는 19개선거구에 27명이나 됐고 大邱市內에는 2개선거구에 10명이 무투표당선된 것이다. 즉 무투표당선지역은 大邱에는 大邱南區 1선거구, 大邱 西區 1선거구 등이다.

직업별로는 전국적으로 농수산업이 436명, 서비스업이 153명, 제조업이 79명, 공직자 31명, 의료인 28명, 운수 및 광고업 각각 27명, 기업인 24명, 토건업 22명, 법조계 10명, 종교인 9명, 언론인 4명, 기타 31명으로 언론인이 가장 적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09명 50대가 254명, 30대가 170명, 60대가 47명이었다. 이 선거에서의 입후보 및 당선자명단과 선거상황은 <表 6-11, 12, 13> 과 같다.



〈사진 6-4〉 대의원선거 입후보자 벽보(1978)



〈사진 6-5〉 9대 대선 투표모습

〈表 6-11〉 大邱市內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選舉 投票狀況(無投票區除外)

건 명	선 거 구	선 거 인 수	투 표 수	투 표 율(%)
1	大 邱 西	59,739	48,013	80.4
	大 邱 中	65,356	50,504	77.1
	大 邱 北	124,488	100,261	80.5
2	大 邱 東 南	197,468	152,703	77.4
	大 邱 南	78,437	592,703	75.9

〈表 6-12〉 大邱市內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 立候補者 名單(1978. 5. 4)

〈 大邱市(정원 72명) 〉		
◆ 中區(정원 7명)		
1선거구(정원 4명)		
① 徐泳海(54·永進重機)	② 韓碩愚(56·한우직물)	③ 金홍식(50·금복주)
④ 金仕龍(62·변호사)	⑤ 朴英宰(44·朝光개발)	
2선거구(정원 3명)		
① 金宗필(58·신흥직물)	② 禹炳根(56·東園예식장)	③ 崔鳳錫(50·科食協會)
④ 崔東原(58·세화기업)		
◆ 東區(정원 19명)		
1선거구 (정원 5명)		
① 徐一文(49·상업)	② 趙宗浩(48·극동버스)	③ 李載先(42·和信주택)
④ 朴在元(36·大邱보이러)	⑤ 朴泰重(39·신용금고)	⑥ 朴龍夏(42·상업)
⑦ 朴秉世(37·범세화학)		
2선거구(정원 5명)		
① 金도희(53·三字실업)	② 金學奉(63·한영요업)	③ 趙敬濟(55·慶山변전소)
④ 陳永煥(46·백화점)	⑤ 張宰榮(40·인쇄소)	⑥ 林昭男(38·대림상사)
⑦ 卞廷煥(46·한의사)	⑧ 姜大海(64·양조업)	
3선거구(정원 5명)		
① 白基權(47·국일주택)	② 白茂基(50·상업)	③ 金正道(58·大邱重機)
④ 李衡錫(61·육영사업)	⑤ 孫三憲(48·무직)	⑥ 趙金龍(45·상업)
⑦ 金溶直(48·상업)	⑧ 朴桂煥(46·신명설비)	
4선거구(정원 4명)		
① 李壽鴻(51·남산토건)	② 金命祚(55·행정서사)	③ 金龍基(52·성화산업)
④ 徐민수(45·농업)	⑤ 李鍾汎(43·새한식품)	⑥ 洪大植(40·신화제제소)
◆ 西區(정원 15명)		
1선거구(정원 5명)		
① 李株夏(50·유양산업)	② 朴城亨(49·신라염직)	③ 朴龍寬(50·星安직물)
④ 金秉榮(42·우진기계)	⑤ 車석용(42·제일산업)	(이상 무투표)
2선거구(정원 5명)		
① 柳容浩(52·경대공업사)	② 金相煥(35·세무사)	③ 金潤富(35·건재상)
④ 李昭鉉(43·지적공사)	⑤ 朴重求(48·메리야스)	⑥ 崔中寶(38·중흥건설)
⑦ 李大煥(53·大邱織物)	⑧ 金容煥(44·건축업)	⑨ 裴相斗(44·대흥나염)
3선거구(정원 5명)		
① 趙一濟(52·서비스업)	② 李文和(49·대흥페차장)	③ 朴龍壽(51·상업)
④ 寓永讚(34·대아산업)	⑤ 姜泰寬(40·동보주택)	⑥ 金鍾夏(37·왕관국수)
⑦ 朴興俊(67·팔달신시장)		
◆ 南區(정원 18명)		
1선거구(정원 5명)		
① 金相俊(60·언론인)	② 河五明(42·三協化學)	③ 李東榮(52·남광의원)
③ 成道鎔(48·고려화학)	② 崔淸吉(36·三美주택)	(이상 무투표)

◆ 南區(정원 18명)

2선거구(정원 5명)

- | | | |
|-----------------|----------------|----------------|
| ① 金相德(53·신도극자) | ② 表大洙(45·출판업) | ③ 權海植(46·대덕버스) |
| ④ 金海碩(39市·마을금고) | ⑤ 安溶旭(54·인산약국) | ⑥ 車俊夫(38·유선학원) |

3선거구(정원 4명)

- | | | |
|----------------|----------------|----------------|
| ① 朴碩鳳(38·대원金銀) | ② 洪鍾鉉(50·대영건설) | ③ 尹碩遠(41·영남상사) |
| ④ 金尙圭(47·대한화보) | ⑤ 徐正淳(47·백화점) | ⑥ 南龍鎭(48·南醫院) |
| ⑦ 鄭輝進(42·현대택시) | ⑧ 李廷浩(49·대덕기업) | |

4선거구(정원 4명)

- | | | |
|----------------|----------------|----------------|
| ① 姜信出(38·남산합판) | ② 申翼鉉(54·신흥버스) | ③ 金海東(47·세동운수) |
| ④ 李忠基(42·이화염지) | ⑤ 李鉉英(46·성당상가) | ⑥ 徐潑源(42·대덕양조) |

◆ 北區(정원 13명)

1선거구(정원 5명)

- | | | |
|----------------|----------------|----------------|
| ① 宋命俊(38·대지약국) | ② 具正會(53·마을금고) | ③ 金成達(44·신흥공업) |
| ④ 朴東沼(50·북부목재) | ⑤ 李相洪(58·상신직물) | ⑥ 李京男(45·상업) |
| ⑦ 韓命澤(53·임상심리) | | |

2선거구(정원 5명)

- | | | |
|----------------|----------------|----------------|
| ① 朴承國(38·제일상공) | ② 金泰基(47·양곡상) | ③ 朴鍾甲(47·고시학원) |
| ④ 裴孝鎭(44·單協長) | ⑤ 徐正植(50·대원산업) | ⑥ 宋安濟(59·마을금고) |
| ⑦ 朴潤泰(50·慶北야고) | | |

3선거구(정원 3명)

- | | | |
|----------------|----------------|----------------|
| ① 吳學世(53·友星산업) | ② 鄭己植(48·경상여객) | ③ 金武龍(39·북경산업) |
| ④ 李鍾烈(45·협진주물) | ⑤ 秋淵大(42·정안건설) | ⑥ 金在三(43·행정서사) |

第2代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 名單

① 大邱市 中區(2구 7명)

〈表 6-13〉

선거구	성명	주소	직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제1선거구(4)	金仕龍	대구시 중구 삼덕동 2가 29	변호사	1916.10.28	일본중앙대졸	대구지검 검사장·초대 대의원
	金泓植	대구시 서구 원대동 2가 80	(주) 금복주 대표이사	1928. 1.20	서울대 경영대학원졸	반공연맹 경북지부장·초대 대의원
	朴英宰	대구시 중구 동인동 1가 301-1	조광개발공사 대표	1935. 8. 7	국학대졸	대한건설협회 경북지부 위원장
	徐泳海	대구시 중구 동인동 1가 347	영진종합중기(주) 회장	1924.11.23	영남대 경영대학원재학	경북체육회 배드민턴협회 회장
제2선거구(3)	金鍾弼	대구시 중구 대신동 1450	직조업	1920. 9.27	성주농업실수학교졸	신흥직물공장 대표·초대 대의원
	禹炳根	대구시 중구 하서동 34	동원예식장 대표	1922. 6.27	영남대 경영대학원수료	도청소년회관 관장·초대 대의원
	崔東原	대구시 중구 달성동 123	세화기업사 대표	1924. 5.17	경북여고졸	경북도 새마을부녀회장·초대 대의원

② 大邱市 東區(4구 19명)

선거구	성명	주소	직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제 1 선거구 (5)	朴龍夏	대구시 동구 범어동 385-15	동산테크 제조사 대표	1936. 1. 7	영남대 대학원 졸	향군대구시연합회장 · 신일 재건학교장 · 초대대의원
	朴在元	대구시 동구 신천동 430-1	대구보일러공업사대표	1942.11.28	영남대 경영대학원 재학	경북보일러제조(협) 부회장 · 동구방위협의회의위원
	徐一文	대구시 동구 신천동 857	금성섬유공업사이사	1929. 7.26	영남대 경영대학원 수료	신천4구 동장
	李秉世	대구시 동구 신천동 5구 276-5	범세화학공업(주)대표이사	1941. 5.22	영남대 졸	미8군 행정사무관 · 경명여중 · 고교 교사
	趙宗浩	대구시 동구 신천동 194-4	극동버스(주)대표이사	1930. 7. 1	영남대 경영대학원 수료	대구 한일라이온스클럽 회장
제 2 선거구 (5)	金道嬉	대구시 동구 파동 60-10	삼우실업(주)대표이사	1925. 2.27	경북대 졸	국제라이온스(협) 309D지구 총재
	金學奉	대구시 동구 신천동 1085-19	한영요업(주)사장	1915.11.16	영남대 경영대학원 수료	시의원 · 공화당 중앙상임위원 · 초대 대의원
	卞廷煥	대구시 동구 상동 165	제한동의학술원이사장	1932. 7.22	경희대 대학원 졸	국제동양의학회장 · 초대 대의원
	林昭男	대구시 동구 파동 110-109	백광제면공장대표	1940. 8.21	중대 졸	경북건축회관 총무
	張宰榮	대구시 동구 수성동 1가 498	건축회관인쇄소대표	1938. 8.14	고대.졸	공화당 청년봉사회 회장
제 3 선거구 (5)	金溶直	대구시 동구 신암2동 1196-64	신성지업사대표	1930. 9.24	대구사범 졸	대구교대 동창회장
	金正道	대구시 동구 신암동 4동 153-1	대구종합중기(주)회장	1920 .3.20	영남대 졸	대구 달구라이온스클럽 회장
	朴桂煥	대구시 동구 신암1동 657-144	신명설비(주)대표이사	1932. 5.18	단대 졸	대구시대표 예비군중대장 · 중앙일보 대구지사장
	白基權	대구시 동구 신암3동 181	(합자)국일주택이사부사장	1931. 2.10	청구대 중퇴	대현교육성회장
	李衡錫	대구시 동구 신암동 225	육영사업	1917. 5.28	상주농잠학교 졸	동구 명예구청장 · 다산학원 재단이사장
제 4 선거구 (4)	金命祚	대구시 동구 효목동 469	행정서사	1923.12. 8	고등소학 졸	육군소령예편 · 동구청 계장
	金龍基	대구시 동구 검사동 991	성화산업사대표	1926. 2.26	일본기능학교 졸	대구동북로타리클럽회장 · 초대 대의원
	李鍾汎	대구시 동구 불로동 210	새한식품공업사대표	1935. 7.24	경북대 졸	대구상의의원 · 초대 대의원
	洪大植	대구시 동구 방촌동 1084	신화제재소대표	1937. 7.17	고 졸	삼경물산(주) 대구공장 총무과장

③ 大邱市 西區(3구 15명)

선거구	성명	주소	직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제1선거구 (5)	金秉榮	대구시 서구 내당동 1104-24	우진기계공업사대표	1936.10.12	영남대 경영자 연수원 수료	한일합성(주) 경북총대리점 대표
	朴城亨	대구시 서구 내당동 77	신라섬유(주) 대표이사	1929. 9. 1	영남대 경영대학원 수료	신라교역(주) 대표이사
	朴龍寬	대구시 서구 내당동 87-24	성안섬유(주) 대표이사	1928. 1.10	구남실업중학 졸	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李株夏	대구시 서구 내당동 804	유양산업대표	1928. 9.20	해양대 수료	한국포푸라가공조합 이사장 · 초대 대의원
	車碩鎔	대구시 서구 성당동 208-2	식용유제조업	1936. 2.15	영남대 경영대학원 졸	서구개발 자문위원 · 대구 상고동창회 부회장
제2선거구 (5)	金容煥	대구시 서구 평리동 1093	건축업	1934. 1.20	대구대 중퇴	평리 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지도자
	朴重求	대구시 서구 비산동 236-2	메리야스제조업	1930. 3.10	영남대 경영대학원 수료	한일섬유공업사 대표 · 대구상의 의원
	裴相斗	대구시 서구 평리동 772	대흥나염공업사대표	1934.10.27	영남대 졸	비산교육성 회장 · 평리 명예파출소장
	李昭鉉	대구시 서구 비산동 451-2	대한지적공사 경북도지사장	1935.10.16	한대 졸	세화관광(주) 총무이사 · 초대 대의원
	崔中實	대구시 서구 평리동 1054-1	중흥건설공사대표	1940. 7.17	경북대 중퇴	서구 민방위협의회 부위원장
제3선거구 (5)	姜寬泰	대구시 서구 원대동3가 1298-3	동보주택(주) 대표이사	1938. 4.17	대 중 퇴	동구시장(주) 대표
	金鍾夏	대구시 서구 원대동 3가 1217	상업	1941. 2.20	경북대 졸	경북야구협회 회장 · 초대 대의원
	朴龍壽	대구시 서구 비산동 530	상업	1927.10.19	대관공업학교 졸	비산2구 동마을금고 이사장
	朴興俊	대구시 서구 비산동 5구 1033-24	상업(주)팔당신시장대표이사	1911. 7. 8	대성중 5년 졸	경북지구 이북5도 연합회장
	趙壹濟	대구시 서구 원대동 2가 157	농장대표	1926.11.15	대구대 수료	중고교 교사 · 통역관

④ 大邱市 南區(4구 18명)

제1선거구 (5)	金相俊	대구시 남구 남산동 677-101	매일신문사 회장	1918.10.21	관입관시험 합격	대구시 총무국장 · 초대 대의원
	成道鎔	대구시 남구 대명동 2569	고려화학공업사대표	1930. 1. 9	새진야학 졸	남구청 자문위원 · 경상북도 보이스카웃 시행위원
	李東榮	대구시 남구 대명동 6구 2642	의사	1926. 2.25	경북대 대학원 수료 의학박사	남광의원 원장
	崔淸吉	대구시 남구 대명동 2304	삼미주택(주) 대표이사	1942.11. 4	영남대 경영대학원 졸	대흥제재소 대표
	河五明	대구시 남구 대명동 2416-2	삼협화학대표	1936. 6.16	영남대 대학원 박사과정	대구상의 상임의원 · 초대 대의원

선거구	성명	주소	직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제 2 선거구 (5)	權海植	대구시 남구 대명동 28-10	대덕버스(주) 대표이사	1932.11.13	영남대 졸	경북시내버스조합 이사장 · 초대 대의원
	金相德	대구시 남구 대명동 2005-5	신도극장대표	1925. 1.16	영남대 경영대학원 수료	반공연맹 경북도지부장 · 초대 대의원
	金海碩	대구시 남구 대명8동 2007-9	마을금고시지부 사무국장	1939.11.21	중대 졸	재건국민운동 경북도간사 · 초대 대의원
	安溶旭	대구시 남구 대명동 550	인산약국약사	1924. 4. 9	대구대 졸	경북약사회 부회장
	車俊夫	대구시 중구 봉산동 165	유신학원 이사장	1940.11.26	한사대 대학원 졸	유신장학회 회장
제 3 선거구 (4)	南龍鎭	대구시 남구 봉덕동 472-2	의사	1930. 4.25	경북대 대학원 졸 의학박사	대구시의사회장 · 초대 대의원
	徐正淳	대구시 남구 봉덕동 3구 706-14	동문백화점 사장	1931.3.23	경북대 졸	백암장학회 재단이사장 · 협성중 육성회장
	鄭輝進	대구시 남구 봉덕동 943	현대택시(주) 대표이사	1936. 3.19	영남대 경영대학원 수료	경북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 · 삼성주유소 대표
	洪鍾鉉	대구시 남구 봉덕동 729-5	대영건설(주) 대표이사	1928. 7. 5	대구공업학교 졸	국제라이온스 대구남클럽장 · 동개발위원장
제 4 선거구 (4)	姜信出	대구시 남구 대명동 1구 3003-12	남산합판대표	1939. 5. 2	동아대 중퇴	동개발위원 · 대구로타리클럽 회원
	金海東	대구시 남구 대명동 1135-2	세동운수 대표이사	1931. 2.15	중학 중퇴	성장교통(주) 대표이사
	徐潑源	대구시 남구 대명동 9구 539-1	대덕양조장 대표	1936. 5.29	영남대 경영대학원 졸	경북펜션연맹 회장 · 초대 대의원
	李忠基	대구시 남구 대명동 1220-31	이화염직공업사 대표	1936. 1. 1	경북대 졸	경북농진원 및 대구시청근무 · 동촌출장소장

⑤ 大邱市 北區(3구 13명)

제 1 선거구 (5)	具正會	대구시 북구 침산동 458	삼윤산업(주) 이사	1925. 5.19	대구농림학교 졸	시의원 · 공화당 중앙위원 · 초대 대의원
	金成達	대구시 북구 침산동 642	신성공업사 대표	1934. 3.18	모계고 졸	중앙관상대 근무
	朴東沼	대구시 북구 침산2동 81	제재업	1928. 7.19	영천농업실습학교 졸	북부목재 대표 · 북구청 자문위원
	宋命俊	대구시 북구 고성동 3가 6	약사	1940. 1.14	영남대 졸	북구약사회장 · 경북약사회 개국약사위원장
	李相洪	대구시 북구 침산동 329	(주)상신회장	1920. 3.10	계명대 졸	한국직물조합 연합회장
제2 선거구 (5)	朴承國	대구시 북구 대현동 228-3	제일상공사 대표	1940. 4. 1	영남대 대학원 졸	대인건설(주) 대표이사
	朴潤泰	대구시 북구 산격1동 790	경북아류공업사 대표	1928. 3.17	홍익대 3년수료	경북산업사 대표

선거구	성명	주소	직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제2선거구(5)	朴鍾甲	대구시 북구 대현2동 318	동양종합통신교 육원출판부대표	1931. 7.18	우석대 졸	시선용산업전수학교장
	裴孝鎭	대구시 북구 산격동 3구 1498-58	농협북구단위 조합장	1934. 5.22	영남대 졸	제일학원 원장·초대 대의원
제3선거구(3)	徐正植	대구시 북구 산격3동 1433-4	대원산업사 대표	1928.12.30	대중퇴	북구개발자문 위원장·초대 대의원
	金在三	대구시 북구 노곡동 143	대한행정서사회중앙회 회장	1935. 7. 6	체신대졸	대구농촌자원지도자연합회장·초대 대의원
	李鍾烈	대구시 북구 노원동3가 1087-1	협신주물공업사 대표	1933. 3.10	영남대 경영대학원 수료	삼일주물공업사 대표
	全武龍	대구시 북구 노원동2가 155	공업	1939. 1.10	영남대 경영대학원 수료	북경산업사 대표 영남종합중기(주) 상무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가 끝난 뒤 7월 6일 서울장충체육관에서 제2대 통일주체 국민회의 1차 총회를 가졌다. 이 날 회의에서 朴正熙대통령은 그해 12월27일부터 6년간의 임기가 시작되는 제9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朴正熙대통령은 단독 후보로 출마했고 투표결과 2,577표의 찬성과 무효 1표로 당선이 확정됐다.

第5節 第10代 國會議員選舉

제9대 국회의원 임기가 1979년 3월 11일로 끝날 예정임에 따라 정부는 1978년 11월 24일 10대 국회의원선거를 그해 12월 12일로 확정 공고했다. 각 정당들은 선거일이 공고되기 전에 대비해 공천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慶北·大邱지역에서는 共和黨이 1978년 10월 5일부터 공천신청자를 접수했고 新民黨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공천신청자를 접수했다. 결국 共和,



〈사진 6-6〉

10대 총선유세

新民 양당은 10월말 공천자를 2~3배수로 조정압축했으며 共和黨은 11월초 공천자를 거의 확정한 것이다. 大邱지역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새로운 인물이 공천신청을 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大邱西·中·北區에는 4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무소속이 1명 당선돼 화제를 빚었고 大邱東, 南區는 후보자가 7명이나 난립해 여야가 동반 당선했다. 大邱市內 제10대 당선자명단과 선거상황및 제3기 유정회의원명

단은 <表 6-14>와 <表 6-15>이다.

<表 6-14> 大邱市內 候補者別 得票數(▲는 當選者)

구 분		선거인수	투 표 자	투표율%	공 화 당	신 민 당	통 일 당	무 소 속			
1 지 구	후보자				▲李萬燮	曹逸煥	李鍾燮	▲韓炳來			
	대구서	170,607	131,946	77.3	30,604	29,935	8,983	60,568			
	대구중	65,076	46,996	72.2	12,055	7,645	2,460	24,227			
	대구북	126,834	92,755	72.98	23,939	17,610	6,135	44,015			
	계	362,518	272,977	74.9	66,598	55,190	17,578	128,810			
2 지 구	후보자				▲李孝祥	▲辛道煥	尹英漢	文洋 申鎮旭 李致浩 曹和兄			
	대구동	208,974	162,325	77.7	44,592	39,524	5,023	16,623	22,638	26,371	5,695
	대구남	183,206	129,694	70.8	34,707	28,101	3,787	12,645	22,324	22,405	4,105
	계	392,180	292,019	74.5	79,299	67,625	8,810	29,268	44,962	48,776	9,800

<表 6-15> 3期 維政會議員

이 름	나이	출 신 지	출 신 학 교	비 고
葛 奉 根	46	釜 山	서 울 大	1,2期
金 世 培	47	牙 山	서 울 農 大	2期
白 斗 鎮	69	信 川	東 京 商 大	1,2期
邊 禹 亨	43	醴 泉	中 央 大	2期
申 光 淳	47	慶 山	서 울 大	2期
高 在 弼	64	潭 陽	日 中 大	1,2期
朴 東 昂	56	北 青	서 울 大	2期
鄭 在 虎	48	大 邱	成 均 大	1,2期
崔 宇 根	52	注 文 津	陸 士	2期
咸 明 洙	50	平 壤	海 士	1,2期
白 永 勳	48	金 堤	高 麗 大	2期
徐 英 姬	40	서 울	梨 花 大	1,2期
申 範 植	54	清 原	高 麗 大	2期
尹 汝 訓	41	論 山	高 麗 大	2期
李 承 潤	47	仁 川	서 울 大	2期
申 相 楚	55	定 州	東 京 大	2期
李 聖 根	40	中 原	延 世 大	2期
李 永 根	54	定 州	陸 士	1,2期
李 鍾 植	46	高 靈	高 麗 大	1,2期
全 富 一	54	光 州	陸 士	2期
李 廷 植	46	光 陽	서 울 大	2期
李 鍾 贊	62	鎭 海	日 本 陸 士	2期
鄭 一 永	51	蔚 山	서 울 大	2期
崔 榮 喜	56	平 澤	日 本 修 大	1,2期
韓 泰 淵	62	永 興	早 稻 田 大	1,2期

이 름	나 이	출 신 지	경 력
金 鳳 基	49	서 울	前 大韓公論社長
金 聖 煥	59	서 울	前韓銀總裁
金 永 光	47	平 澤	中央情報部 局長
金 榮 洙	43	清 道	MBC보도국장
金 英 子	55 女	서 울	保社部 婦女局長
金 玉 烈	48 女	서 울	淑大교수(政治學)
金 容 浩	47	光 山	共和黨 조직부장
金 潤 煥	46	善 山	朝鮮日報 국장代理
金 鍾 河	44	昌 原	국회의장 비서실장
金 周 仁	62	巨 濟	6,7,9代議員
朴 俊 圭	52	서 울	서울대 教授
朴 賢 緒	54 女	서 울	KBS 審査委員
朴 衡 圭	49	槐 山	서울신문 監事
鮮 于 煉	49	定 州	靑瓦臺 공보비서관
宋 邦 鏞	65	金 堤	經科審委員
申 東 順	44 女	救 國	奉仕團 사무총장
申 尙 澈	54	公 州	스페인大使
申 喆 均	54	洪 州	共和黨 江原사무국장
沈 融 澤	42	大 田	靑瓦臺 政務비서관
安 甲 濬	52	槐 山	국민회의 사무차장
吳 俊 碩	51	蔚 珍	共和 7,8,9代議員
尹 埴 埴	39	達 城	國際經研 研究員
尹 仁 植	56	咸 平	共和 7,8,9代議員
李 垞 鎬	61	서 울	前 保社部長官
李 道 煥	53	馬 山	共和 9代議員
李 東 元	52	서 울	前 外務長官
李 明 春	55	서 울	總理室 行調室長
李 相 翊	50	舒 川	共和 8代議員
李 錫 濟	53	서 울	前 監査院長
李 亮 雨	46	서 울	海軍法務監 辯護士
李 慈 憲	43	平 澤	無任所 政策室長
李 丁 錫	61	陰 城	5, 7, 8代議員
李 鍾 律	37	南 原	外交安保研 教授
李 哲 熙	55	서 울	中央情報部 次長
李 海 元	48	堤 川	共和 8,9代議員
張 基 善	52	서 울	共和黨 政策研究次長
張 志 良	53	서 울	덴마크大使
全 ? 九	46	長 水	7代議員, 辯護士
鄭 炳 學	51	서 울	共和黨 사무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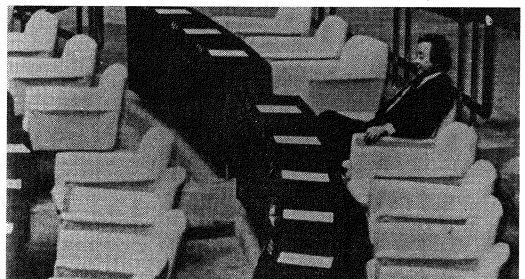
이 름	나 이	출 신 지	경 력
鄭 熙 彩	51	咸 安	釜大교수, 評價교수
趙 炳 奎	55	泗 川	慶南知事
曹 相 鎬	52	潭 陽	이탈리아大使
趙 一 濟	50	咸 安	中情次長輔・駐日公使
趙 洪 來	38	咸 安	新民黨 8代議員
千 柄 圭	60	安 東	財務長官・瑞西大使
崔 慶 祿	58	陰 城	陸參總長・交通長官
崔 大 賢	52	서 울	關稅廳長
崔 泰 浩	49	서 울	傷痍軍警會 회장
太 完 善	63	寧 越	副總理・商議代表
韓 基 春	49	星 州	延大교수(經濟學)
韓 沃 申	58	서 울	大檢特殊部長
玄 己 順	59	서 울	서울家庭大學長

예비후보자 8명

① 高 貴 男	45	康 津	共和 全南실장
② 南 載 漢	50	蔚 珍	維政會 행정次長
③ 李 鎬 東	41	高 靈	共和 青年分委員
④ 金 遺 腹	53	서 울	鄉軍서울支會長
⑤ 黃 潤 慶	42	榮 州	5.16 民族賞사무장
⑥ 金 仁 基	49	서 울	共和議長 비서실장
⑦ 辛 達 善	44	金 陵	共和 경북실장
⑧ 李 敏 永	50	洪 城	共和 忠南실장

第6節 維新反對運動과 大統領弑害事件

1972년 12월 27일, 계엄하의 국민투표로 확정된 유신헌법의 시행에 따라 朴正熙대통령이 취임하고 통치가 시작되었으나 많은 국민들이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듬해 후반기부터 반 유신운동을 전개했다. 처음엔 주로 학원가를 소용돌이쳤던 반유신 바람이 74년 접어들면서 문인 종교인등을 포함한 재야세력에 연결되어 개헌청원 서명운동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유신규탄성명등이 나왔고 야당인 新民黨에서는 개헌대강을 마련하는일까지 있었다. 이때 서울, 大邱등 대도시지역



〈사진 6-7〉 김영삼의원 제명파동



〈사진 6-8〉

부마사태

에선 학원 재야, 야당 등을 중심으로 반유신의 행동표시가 있었고 상당한 민심동요도 가져왔다.

이같은 유신반대운동과 여론에 위기감을 느낀 朴正熙대통령은 75년 1월 22일 담화를 통해 그해 2월 12일에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朴대통령은 이 담화에서 이번 국민투표는 비단 현행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로 간주하고, 만일 국민이 현행헌법의 철폐를 원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여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투표를 자신과 정부의 신임과 연계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북괴의 땅굴사

건, 대통령저격사건등 어수선한 국내외정세를 들어 유신체제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12일의 국민투표결과 투표율 79.84%, 찬성율 73.11%를 얻어 제4공화국헌법과 朴正熙정부의 재신임을 획득했다.

그러나 야당측과 재야는 이같은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는 태도를 계속했다. 정부는 이같은 반유신운동을 국가안보적 긴급상황으로 단정 일체의 헌법사안에 대한 논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경우 법적 처리를 강제하는 긴급조치 9호를 공포했다. 그럼에도 유신반대운동은 여전히 계속됐다.

대정부 강경투쟁을 전개해온 新民黨은 1978년 12월의 제1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民主共和黨을 1.1% (총선 개표결과 =新民 32.8%, 共和 31.7%, 統一 7.39%, 무소속 28.1%) 앞지르게되자, 이를 「수권의 명령」으로 규정한 新民黨 金泳三계에서는 선명야당의 기치를 내걸고, 정부 여당을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노조운동이 격렬해지면서 이른바 YH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데 이어 대여강경파인 金泳三 신민당 총재를 총재직에서 축출하려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고,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뿐만아니라 金泳三총재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하는 여당측의 무리한 조치로 정계의 파문을 몰고왔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釜山, 馬山시민들의 반유신, 反朴政

權시위사태가 벌어져 사상자를 내는등 이른바 釜馬사태를 빚었다.

이러한 야당과 재야에 대한 탄압과 유신체 제반대의 분위기로 극도로 긴장된 정국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朴正熙대통령이 金在圭 중앙정보부장에게 피격, 서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같은 朴대통령의 서거소식에 애도하는 시민들은 大邱 시내 慶北실내체육관에 마련된 빈소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추모했다. 제2군계 업무사무소에도 분향소가 설치되었고 천주교 大邱 대교구는 徐正吉대주교의 집전으로 朴正熙대통령의 추모미사를 집전했다. 10·26후 대통령



〈사진 6-9〉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검정

권한대행을 맡게된 崔圭夏총리는 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보선을 통해 찬성 2,455표, 무효 84표로 대통령에 당선돼 12월22일 1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崔대통령이 취임한 이날 긴급조치 9호를 해제함으로써 개헌논의의 금지와 불법화문제는 4년7개월만에 풀려 유신헌법 반대운동은 막을 내리게 됐다. 이에따라 개헌논의는 국회와 정당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다.

第7節 過渡危機管理時代의 政治動向

崔圭夏대통령정부가 긴급조치9호를 해제하자 국회는 헌법개정심의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이 기구를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한편 新民黨도 연말께 대통령중심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시안을 마련 1980년 1월부터 개헌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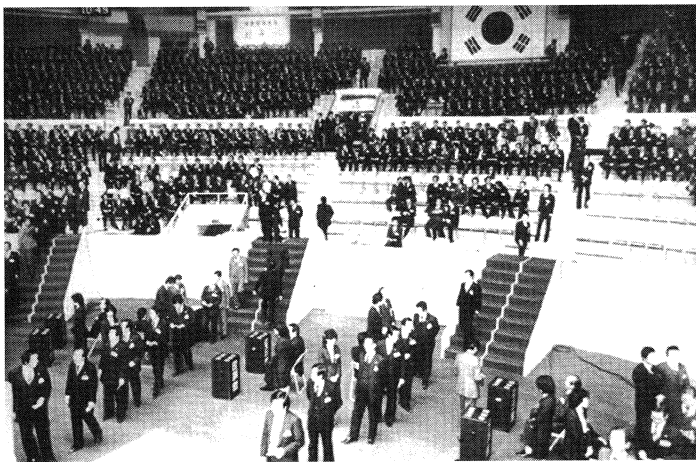
그러나 1979년12월12일, 朴대통령 시해사건 수사과정에서 兇手 鄭昇和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을 사건관련 혐의로 체포 구속해 정국의 또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이같은 사태가 10·26사건 이후 개헌추진에 혼선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고 과도위기 관리정부시대의 정치적 혼란을 부른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12·12사태이후의 상황전개가 결국 5·17 전국계엄을 가져왔고 그것이 光州민주화운동에 따

른 비극을 초래했다. 그 결과 12·12사건을 주도했던 신군부가 헌법개정을 전횡하고 5공화국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신군부의 등장을 예비하는 상황속에 1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崔대통령은 새정부가 과도기적 과제를 빨리 마무리짓고 정치일정을 단축해야 한다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정치일정을 멀리 잡았다.崔대통령은 12월21일의 취임사에서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년정도면 국민이 찬동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헌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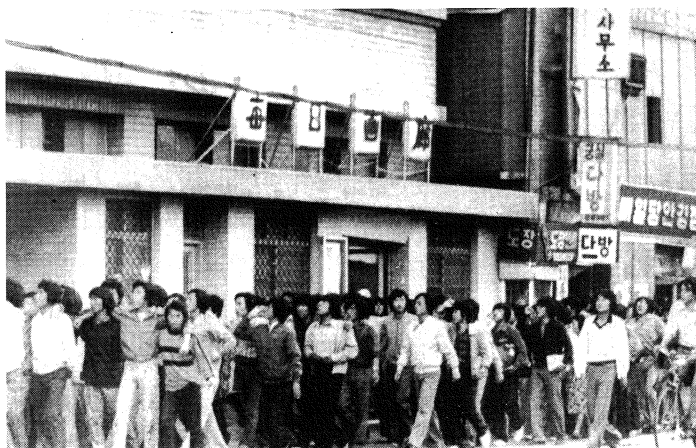
그리고崔대통령은 80년말까지 개헌을 끝마치고 이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정치일정을 상당히 멀찍이 밝혔다.

위기관리 정부로 지칭된崔圭夏대통령정부의 최대과제는 개헌과 정부이양이었던만큼崔대



〈사진 6-10〉

10대 대선 투표장



〈사진 6-11〉

1980년 5월 대구시위

통령의 개헌에대한 소신은 정국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 ①새헌법은 분단상황에서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국가보위를 확고히 할 수 있어야 하며 ②정치권력의 남용과 부패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하고 ③극단적인 국론의 분열과 사회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서는 안되며 ④사회정의와 형평의 구현은 우리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 하겠으나 이것이 우리의 자유경제체제에 도전하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되겠다는게崔대통령의 방침이었다. 그리고 그는 개헌절차 문제에 언급, 이것이 어떤 정당이나 단체등의 범주안에서만 처리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또 어떤 이해관계

자들의 편의적인 타협의 산물이 되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정부도 국회개헌특위와는 별도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인 연구와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이같이 개헌을 담당하려는 기관이 야당과 국회와 유신헌법에 따른 崔圭夏대통령정부등으로 나뉘어져 혼란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朴正熙대통령의 시해사건이 유신체제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란 인식은 지배적이지만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갈 주체의 문제는 불투명한 상태였기때문에 정치적인 세력간에 이견과 마찰이 생겨났다.

第8節 5·17戒嚴과 國保委

10·26 朴正熙대통령 시해사건으로 국내외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위해 1979년 10월 27일 새벽 4시를 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따라 전국 모든 대학을 임시 휴교조치하고 시위등 단체활동금지, 언론, 출판, 검열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조치는 대통령시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18년에 가까운 民主共和黨의 장기집권체제와 유신체제반대의 정치적상황을 배경으로 朴正熙대통령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곳곳에서 불만이 분출된데 따른 것이다. 때마침 대통령긴급조치 9호해제 등의 해빙무드를 타고 정치, 사회 각분야에서 혼란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다.

더욱이 12·12사건이후 정치일정의 불투명과 개헌문제에 대한 혼선등으로 각 정치세력간의 갈등은 이같은 혼란상을 가중시켰다.

일부 정치인과 복권인사 및 복교생들의 영향을 받은 대학가의 시위는 당초 학원내의 민주화, 자율화요구에서부터 차츰 현실문제로 비화하기 시작했다. 그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난폭, 과격한 양상을 띠게 됐다. 일부 대학가의 농성, 데모는 학원의 민주화 학생활동의 자율화 수준을 넘어 시국에 관한 과격한 비판과 반정부적 양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유신잔당은 인민의 적」, 「외세배격과 미제의 추방」등을 들고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1980년 3월부터 5월중순까지 전국적으로 2,300여회에 걸쳐 120개 대학 연 35만 여명의 학생이 시위에 참가했다. 5월14일과 15일에는 전국 45개 대학 10만여학생이 일제히 대규모 반정부시위를 전개, 과열화됨으로써 치안은 마비상태에 이르렀다. 5월16일부터 17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국 55개대학 학생회장단회의에서는 ①5월 22일까지 비상계엄을 해제할 것 ②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군과의 정면충돌도 불사할 전국규모

의 가두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는 등 폭발직전의 사회분위기로 치달았다. 崔대통령의 과도정부적 위기관리의 한계를 보인 것이다.

한편 노동현장에서도 많은 불만이 터져나와 4월이후만도 176개업체에서 8만여 근로자들이 농성 파업등에 참가했다. 특히 4월 21일 江原道 정선군 사북읍 동원타좌에서 발생한 광부집 단시위사태는 나흘동안 사북읍일대를 광부들이 점거, 외부와 차단된 가운데 폭행과 난동을 벌이는등 무법천지를 빚었다.

이같이 崔圭夏대통령정부의 위기관리에 많은 허점을 드러내자 이미 12·12사태를 통해 군 부를 장학했던 신군부가 전면에 부상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먼저 각군에서는 5월 17일 오전 9시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사회혼란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결의했고 그날 오전 11시 국방장관주재로 전국(육·해·공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소집, 지역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전환시켜 혼란요인을 배제할 것에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가 신현확 국무총리에게 보고되고 다시 崔대통령과의 검토끝에 국무회의에 회부돼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전환키로 의결했다. 崔대통령은 18일 자정을 기해 전국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사령부는 이에따라 정치활동중지, 대학휴교조치등을 내용으로 한 계엄포고 제10호를 발표했다. 이와 아울러 계엄하에서의 국민의 여망과 사회정의구현을 위해 권력형 부정부패와 부조리 척결작업에 나서 국민의 지탄을 받아오던 4공화국까지의 권력형 부정축재혐의자와 그동안 사회불안조성 및 학생노조소요의 배후조종혐의자를 연행 조사중이라 발표했다. 이때 金大中씨와 그의 측근등을 구속한 이른바 金大中내란음모사건을 발표함으로써 비상계엄의 정치적 성격의 한 단면을 드러

냈다. 특히 光州시내의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이러한 계엄선포와 정치적 조치에 대해 계엄하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시위에 나서 유혈참사를 빚은 이른바 光州민주화운동의 비극적 사태를 맞았다. 계엄을 반대하고 민주화를 촉구하는 光州시민들과 계엄군의 충돌은 光州일원에 10일동안의 교통통



〈사진 6-12〉

국가보위입법회의 발족



〈사진 6-13〉 계엄확대 매일신문호외를 읽고 있는
대구 시민들 (1980. 5)

신이 두절된채 많은 희생자를 냈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정치.경제.사회적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기를 바로잡아 효율적인 계엄업무를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정부는 5월 31일 대통령의 자문보좌기관으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주요행정각료 10명과 주요군요직자 14명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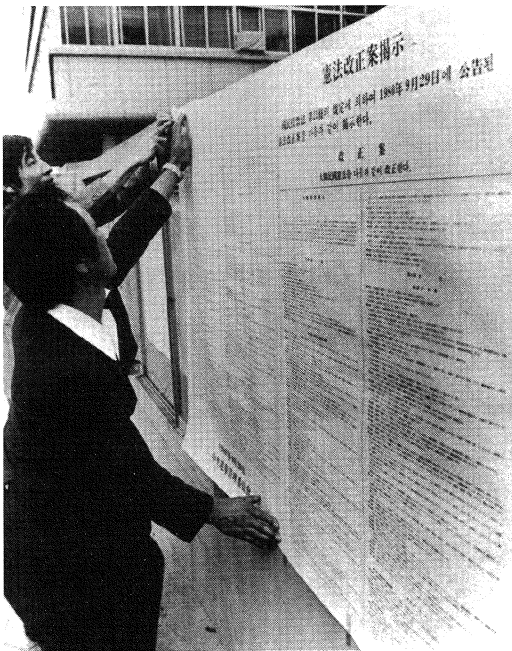
24명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 崔대통령은 兪斗煥위원을 상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국보위는 비상계엄하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의결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대통령을 보좌하고 실제로 행정·사법 전반에 걸친 주요업무의 지휘, 감독, 통제,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와 부총리, 안보관계부처의 장관과 계엄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군의 주요지휘관을 위원으로 구성한 국보위는 산하에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어 정부의 실질적권한이 兪斗煥국보위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한 신군부로 집중되고 말았다.

국보위는 ①안보태세의 강화 ②경제난국 타개 ③정치발전과 내실도모 ④사회악 일소를 통한 국가기강 확립 등 4대 기본목표를 확정하고 9개 추진지침을 밝히는 등 국정전면적 개혁을 천명했다. 9개 추진지침은 ①권력형 부조리등 공직자의 축재, 부조리를 척결하고 불신 풍조를 불식하며 ②문란해진 정치풍토를 쇄신, 도의정치를 구현하고 ③민주화의 추진을 위해 사리사욕과 빚나간 주장을 일삼는 일부세력을 배격하며 ④학원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불법시위와 소요행위로 복란을 이롭게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⑤윤리와 도덕이 존중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종교를 빙자한 정치활동을 통제하고 ⑥학원의 기업화와 과열과외등의 교육풍토를 바로잡으며 ⑦기업인의 비윤리적 행위와 노조의 불법시위활동을 시정하는 동시에 ⑧언론은 국익이 우선되도록 하며 ⑨밀수, 마약, 부정식품등 각종사회악을 근절, 사회정화를 기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에따라 비위공무원의 대대적 숙정과 강패 및 폭력배의 순화교육등으로 국보위의 사회기강 확립방침을 구현했다. 이러한 국보위의 사회기강확립과 兪斗煥 국

보위 상임위원장의 부각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상이 저하돼가던 崔圭夏대통령은 8월 16일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고 사가로 돌아갔다. 崔대통령은 이땅에 평화적 정권교체의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 대통령직을 하야하는 것이라고 하야변을 밝혔다. 崔대통령의 하야에 따라 朴忠勳국무총리서리가 후임대통령의 선출때까지 대통령권한을 잠정 대행케 됐다. 朴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궐위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각 지역별로 집회를 소집하여 당시 全斗煥장군을 대통령후보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全장군은 8월 22일 대장으로 예편했으며 8월 27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있는 대통령선거를 위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집회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全斗煥대통령은 9월1일 취임식을 갖고 대통령직에 정식취임했고 5·17 계엄조치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가운데 9월20일 제105회 정기국회가 개최되어 남덕우 국무총리 등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휴회에 들어가 10대국회는 사실상 끝을 맺었다.

第9節 改憲案과 國民投票



〈사진 6-14〉 5공 헌법 국민투표

10·26사건후 여러갈래로 논의돼온 개헌문제는 5·15계엄확대조치와 국보위설치등 상황변화로 정부가 이를 주도하게 됐다. 정부의 개헌심의위원회는 10·26이후 고조돼가던 민주화 분위기에 아랑곳없이 대통령 임기 7년단임, 간선제에 의한 대통령선출을 골자로한 개헌안을 마련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대신 대통령선거인단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거한다는 것이었다. 全斗煥대통령은 9월 29일 정부의 개헌심의위원회가 성안한 개헌안을 공고하고 10월 22일 국민투표에 붙였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반논의는 금지된채 국민투표참여에 대한 홍보속에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투표결과 총투표자수 20,373,869명 가운데 19,453,926표명이 투표, 17,829,354명이

찬성해 법정통과선인 과반수 9,726,964표를 상회했다. 그래서 새헌법안은 우리나라 투표사상 최고인 95.5%의 투표율과 91.6%의 찬성율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大邱지역에는 5개구에서 93.32~95.15%의 투표율과 89.46~92.14%의 찬성율을 보였다. 大邱·慶北지역의 국민투표상황은 <表 6-16, 17>과 같다. 정부는 통과된 개정헌법을 10월 27일 정식으로 공포했다.

<表 6-16> 國民投票 市道別 開票結果

市道名	投票人數	投票數	贊 成	反 對	無 效	棄 權	投票率 (%)	有 效 投票率(%)	贊 成 投票率(%)
慶 北	2,695,724	2,613,745	2,456,928	126,586	30,231	81,970	96.96	98.8	94
서 울	4,779,371	4,386,846	3,817,071	509,363	68,412	392,525	91.8	98.4	87
釜 山	1,717,898	1,602,832	1,430,658	146,400	25,774	115,066	93.3	98.4	89.3
京 畿	2,701,219	2,604,212	2,457,368	116,545	30,299	97,007	96.4	98.8	94.4
江 原	938,739	926,160	881,314	33,981	10,865	12,579	98.7	98.8	95.2
忠 北	768,426	751,860	711,785	30,789	9,286	16,566	97.84	98.7	94.7
忠 南	1,578,252	1,516,887	1,398,688	91,609	26,590	61,365	96.1	98.2	92.2
全 北	1,187,895	1,161,271	1,081,368	63,554	16,349	26,624	97.8	98.6	93.1
全 南	1,951,113	1,897,695	1,709,754	157,799	30,231	53,418	97.3	98.4	90.1
慶 南	1,929,951	1,776,067	1,674,509	83,567	17,991	53,884	97.06	99.0	94.3
濟 州	225,281	216,351	209,911	5,480	960	8,930	96	99.6	97
總 計	20,373,869	19,453,926	17,829,354	1,357,673	266,899	919,943	95.48	98.6	91.6

<表 6-17> 大邱市內 開票結果

區 別	投票人數	投票數	贊 成	反 對	無 效	棄 權	投票率 (%)	有 效 投票率(%)	贊 成 投票率(%)
大邱西	197,792	189,563	174,675	12,061	2,827	8,229	95.8	98.51	92.14
大邱中	113,898	106,556	95,951	9,187	1,418	7,342	93.6	98.7	90.1
大邱北	138,203	129,035	118,792	8,563	1,680	9,168	93.4	98.7	92.1
大邱壽城	112,568	105,053	93,983	9,594	1,476	7,515	93.32	98.59	89.46
大邱東	141,827	124,980	113,620	9,601	1,759	6,847	94.81	98.59	90.91
大邱南	140,093	131,290	117,565	11,512	2,213	8,803	93.72	98.31	89.55

第 10 節 立法會議時代와 政治活動再開

새헌법의 확정공포에 따라 10대국회와 기존정당(共和·新民·統一·統社黨등), 그리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해산됐다. 국회가 선거에 의해 다시 구성될때까지 국회기능을 대행할 입법기

구로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확대개편된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10월 29일 발족됐다.

입법회의 의원은 28일 오전 쏘대통령이 81명을 임명발표했는데 정계 20명, 학계 13명, 문화사회계 9명, 국보위 10명, 여성 4명, 법조계 8명, 종교계 8명, 경제계 3명, 언론계 3명, 향군 2명, 노조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같은 입법의원 임명에 대해 李雄熙청와대대변인을 통해 직능을 대표하는 양식있는 각계인사를 망라하고, 입법회의가 초당적으로 운영되게하여 국민적 단합의 기반을 공고히 한다고 설명했다. 입법회의는 29일 오전 9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참의원 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1명, 부의장 2명과 운영, 법사, 외교국방, 내무, 경제 제1, 경제 제2, 문교, 공보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회의구성을 마쳤다.

입법의원과 출신분야는 <表 6-18>과 같다.

입법회의는 정치질서확립의 전제가 되는 정당법과 대통령선거인단과 대통령선거법,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정치관계법 심의에 착수해 11월 3일, 먼저 정치풍토 쇄신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에따라 11월 7일 정치쇄신 9인위를 발족 기성 정치인가운데 정치활동을 금지시킬 규제대상자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이같은 정치권에 대한 정리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정부는 11월 21일 계엄포고 15호를 발표하고 정치활동 금지조치를 일부완화 정당의 창당활동을 허용하였다. 이에따라 11월 27일 구신민당 10대의원 17명이 중심이된 가칭, 민주한국당의 발기를 선언했고, 이어 다음날인 11월 28일 군부 집권세력이 중심이된 가칭 민주정의당의 창당 발기선언이 있었다. 이밖에도 많은 정당이 속출해 정당활동이 허용된지 열흘도 못돼 19개의 정당들이 속출했다. 이같이 정치활동의 선별적 허용과 많은 정당의 거의 동시적 탄생을 놓고 1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관제정당 시비가 일었고 그로인해 상당수의 정당들이 12대 선거에서부터 퇴조하는 현상을 빚었다.

민주정의당은 제일 먼저 지구당창당에 들어가 연말까지 전국 77개 지구당의 창당을 마무리 짓고 81년 1월 15일 중앙당 창당대회겸 대통령후보 지명대회를 가졌다. 그리고 共和·維政 등 구여권의원이 중심이된 한국국민당과 혁신계가 중심이된 민주사회당도 창당을 마쳤다.

朴正熙 대통령이 강행했던 유신체제는 1980년 10월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있는 제5공화국 헌법공포와 동시에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해체되고 5공화국의 정부수립에 따른 정치활동 등의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약 8년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表 6-18〉

立法議員名單

政 界 (20人)	丁來赫(10대국회의원 共和)	法曹界 (8人)	李丙昊(변호사)
	朴命根(")		李範烈(")
	南載熙(")		仕煥得(")
	鄭石謨(")		
	張承台(")	宗教界 (8人)	姜信明(목사)
	蔡汶植(" 新民)		李炳主(成均館재단이사장)
	韓英洙(")		李永福(天道教 교령)
	高在淸(")		徐京保(佛教 철박)
	柳漢烈(")		趙香祿(목사)
	吳世應(")		全達出(신부 毎日新聞사장)
	孫世一(전 新民총재 特補)		金鳳鶴(YMCA이사장)
	權仲敦(전신민전당대회의장)		李鍾興(신부)
	劉沃祐(전신민당의원)	女性界 (4人)	金正禮(여성유권자연맹회장)
	金潤煥(10대국회의원 維政)		金幸子(梨大교수 政治學)
	申相楚(")		安牧丹(軍警未亡人會회장)
	李鍾律(")		李慶淑(淑大교수 政治學)
	金 哲(舊統社黨고문)	勞動界(1人)	鄭漢株(勞總위원장)
	李泰九(舊統一黨)		
	趙鐘昊(尹전대통령비서실장)	文 化 社會界 (9人)	李 滿(大韓赤十字社총재)
	陳懿鐘(전보사부장관)		宋志英(문예진흥원장)
經濟界 (3人)	鄭壽昌(大韓商工會議所회장)		鄭範錫(大韓教聯회장)
	柳琦諄(中小企協회장)		朴仁珪(以北五道대표)
	朴泰俊(韓國鐵鋼協會회장)		金 準(새마을연수원장)
			權正達(예비역장성)
	金相浹(高大총장)		朴潤鍾(전 光州시장)
	鄭義淑(梨大총장)		李正植(실업인)
	權懿赫(서울대총장)		李鍾贊(전 駐英참사관)
	徐明源(忠南대총장)	言論界 (3人)	方又榮(朝鮮日報사장)
	安世熙(延世대총장)		李源京(合同通信社회장)
	朴奉植(서울대 國際政治學)		李振義(文化 京鄉사장)
	朴承載(漢陽대교수 政治學)	鄉軍代表 (2人)	李孟基(재향군인회회장)
	金大煥(梨大교수 社會學)		李亨根(반공연맹이사장)
	羅昌柱(安保研究所長政治學)		李光魯(전 國保委內務위원장)
	金滿堤(韓國開發院長經濟學)		
	韓基春(前延世대교수經濟學)	國保委代表 (10人)	李基百(軍營)
	朴一慶(明知대교수 憲法)		沈裕善(財務)
法曹界 (8人)	尹謹植(成均館대교수政治學)		趙英吉(保社)
	鄭喜澤(변호사)		李祐在(交遞)
	金泰淸(")		金永均(法司)
	李珍雨(")		盧載源(外務)
	尹吉重(")		朴鍾汶(農水產)
	金仕龍(")		鄭泰秀(文公)
			徐東烈(國防連絡室長)

第7章 第5共和國時代

第1節 大統領選舉人團選舉와 第12代 大統領選舉

1981년 3·25총선은 집권당인 民正黨이 전국 92개 선거구중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1위로 당선되는 이변이 속출했다. 정치활동 규제등으로 조직과 자금면에서 월등한 民正黨이 선거에서 유리했다는 사실을 반영했다고도 할 수 있다.

5공화국은 출범과 동시에 全斗煥대통령의 방미, 아세안 순방 등 대외적인 활동과 1·12 및 6·5 제의등 대북한 제의에 따른 남북문제가 국내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제11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의회정치가 재현되었으며 해방이후 정치권의 최대의 조직정비를 가져왔다.

이에 앞서 民正黨은 1월 15일 창당대회를 갖고 全斗煥대통령을 12대 대통령후보와 당총재로 추대하면서 정치일정을 잡아 나갔다. 집권당으로 출발한 民正黨의 창당에 이어 民韓·國民·民權·社會·圓一·新政·安民黨등 제 정당들이 얼마간씩의 시차를 두고 창당되었다.

民韓黨은 柳致松 전 新民黨 최고위원을 대통령 후보와 총재로 추대했고 國民黨은 金鍾哲씨를 각각 대통령 후보와 총재에 추대했다. 이어 2월 11일의 대통령선거인 선거에서 民正黨은 압승



〈사진 7-1〉 대통령선거인단 선거투표소
(월배읍 월성1동 사무소·월배 제4구투표구)

하였다. 2월25일 선거인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서 全斗煥 후보는 재직선거인 5,277명중 4,755표를 얻어 유효표의 90.2%를 차지하였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비율에 따라 전국구의석을 배정하는 이른바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3·25총선에서 각 정당의 의석분포(전국구 포함)는 民正 151석, 民韓 81석, 國民 25석, 기타 19석등으로 나타났다. 한 선거구에서 2인



〈사진 7-2〉

12대 대통령 취임 광경

을 선출하는 제4공화국때의 방법을 그대로 따른 제11대 총선에서 전례없이 집권당인 民正黨이 전국 92개 선거구중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1위로 당선되는 이변을 속출하였다.

3·25총선이 끝나자 그동안 의회기능을 대행해온 입법회의는 활동 156일 만인 3월31일에 폐회하고 4월11일 국회가 개원되었다.

개원국회는 의장에 丁來赫,

부의장에 蔡汶植, 金殷夏씨를 각각 선출하고 13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원구성을 마쳤으며 국정 심의활동은 제107회 임시국회(5월4일)부터 시작됐다. 군부의 집권이었지만 5공은 그 이전의 군부내 권력암투양상을 정리하고 5·16이후 다시 이른바 「신 군부」가 정권을 창출함으로써 사회 각 영역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全斗煥 대통령의 군부와의 안정적인 관계는 12·12를 통해 군부내 세력을 정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12대 대통령선거는 간선제로 실시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인 선거가 1981년 2월11일 실시되었다. 무투표 당선지구를 제외한 대통령선거인 후보자 총수가 9,478명이고 선거인 정수는 5,278명으로서 대통령 선거인 선거는 전국 평균 1.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대통령선거인 후보등록 상황에 따르면 전국 1,905개 선거구에서 모두 9,581명이 등록했으나 99명이 사퇴하고 1명은 사망, 3명이 등록 무효됨으로써 후보자 총수는 9,478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들중 53개 선거구에서는 선거인 정수만이 등록, 125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이 선거인 선거경쟁률 1·8대1은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때의 2.3대1, 제2대 대의원 선거때의 2.1대1보다 낮은 것으로 대통령 선거인 정수가 대의원 선거때보다 거의 배가 많아 비교적 낮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각 시·도별로는 江原道가 2.03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濟州道가 1.5대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大邱市의 경우 31개구에 154명을 뽑았는데 20명이 정수인 大邱 中區는 32명이 등록해 1.60대1, 大邱 東區는 25명에 41명이 등록하고 1명이 사퇴하여 1.60대1, 大邱 西區는 39명 정수에 52명이 등록했지만 1명 사퇴로 1.30대1, 大邱 南區는 25명 정수에 35명이 등록해 1.40대1, 大邱 北區는 25명 정원에 38명이 등록, 2명 사퇴로 1.44대1이었고 壽城區는 20명

〈表 7-1〉 大邱市 選舉人團 選舉區別 定數

選舉區別	區 數	定 數	選舉區域
大 邱 市	31	154	
中 區	4	20	
第1選舉區	1	5	東仁1·2街洞, 東仁3街洞, 東仁4街洞, 三德1·2街洞, 三德3街洞, 東城洞
第2選舉區	1	5	鳳山洞, 南山1洞, 大鳳洞, 大鳳2洞
第3選舉區	1	5	西城洞, 南城洞, 北城洞, 大新1洞, 大新2洞, 達城洞
第4選舉區	1	5	南山2洞, 南山3洞, 南山4洞
東 區	5	25	
第1選舉區	1	5	新岩1洞, 新岩4洞
第2選舉區	1	5	新岩2洞, 新岩3洞, 新川2洞
第3選舉區	1	5	新川1洞, 新川3洞, 新川4洞
第4選舉區	1	5	孝睦洞, 孝睦2洞
第5選舉區	1	5	坪廣洞, 鳳舞洞, 不老洞, 道洞, 枝底洞 立石洞, 檢沙洞, 芳村洞, 釜洞 新坪洞
西 區	8	39	
第1選舉區	1	5	聖堂洞, 內唐1洞
第2選舉區	1	5	內唐2洞, 內唐3洞, 內唐4洞, 內唐5洞
第3選舉區	1	5	飛山3洞, 飛山4洞, 坪理2洞
第4選舉區	1	5	飛山1洞, 飛山6洞
第5選舉區	1	5	坪理1洞, 坪理4洞
第6選舉區	1	5	坪理3洞, 上中梨洞
第7選舉區	1	5	飛山2洞, 院垞1·2街洞, 院垞3街洞
第8選舉區	1	4	飛山5洞, 飛山7洞
南 區	5	25	
第1選舉區	1	5	梨泉1洞, 梨泉2洞, 鳳德1洞
第2選舉區	1	5	鳳德2洞, 鳳德3洞, 大明5洞
第3選舉區	1	5	大明6洞, 大明9洞
第4選舉區	1	5	大明1洞, 大明4洞
第5選舉區	1	5	大明2洞, 大明3洞, 大明7洞, 大明8洞

選舉區別	區 數	定 數	選舉區域
北 區	5	25	
第1選舉區	1	5	古城洞, 七星1街洞, 七星2街1洞, 七星2街2洞
第2選舉區	1	5	砧山1洞, 砧山2洞, 砧山3洞
第3選舉區	1	5	魯院1·2街洞, 魯院3街1洞, 魯院3街2洞, 助也洞, 魯谷洞
第4選舉區	1	5	大賢1洞, 大賢3洞, 伏賢洞, 檢丹洞
第5選舉區	1	5	山格1洞, 山格2洞, 山格3洞, 東西邊洞
壽 城 區	4	20	
第1選舉區	1	5	泛魚1洞, 壽城2·3街洞
第2選舉區	1	5	泛魚2洞, 泛魚3洞, 晚村1洞, 晚村2洞
第3選舉區	1	5	壽城1街洞, 壽城4街洞, 中洞
第4選舉區	1	5	上洞, 巴洞, 黃金洞, 斗山洞, 池山洞, 凡勿洞

에 29명이 등록하여 1.4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表 7-1>.

제12대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民正黨의 全斗煥 후보가 선출되었다. 2·25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 정수 5,278명중 당선무효 1, 선거부정 혐의에 따른 구속으로 인한 기권 4명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1백%에 가까운 투표율을 보였다.

대통령 후보에 등록한 후보는 民韓黨의 柳致松 총재, 國民黨의 金鍾哲 총재, 民權黨의 金義澤 총재를 포함한 4명이었다.

民韓黨의 柳致松 후보는 2·11선거인 선거에서 확보한 民韓黨 소속 선거인 411명보다 7명이 더 적은 404명의 지지로 2위를 했으며 國民黨의 金鍾哲 후보는 85명, 民權黨의 金義澤 후보는 26명의 지지를 받아 각각 3·4위를 했다.

全대통령은 民正黨 소속 선거인 3,675명(당초 3,676명 중 당선무효 1명 제외)외에도 1,122명의 무소속 선거인 중에서 1,080명을 확보하는 등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慶北의 경우 11개 투표구에서 선거인 총수 755명중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慶北 제1투표구(大邱 中, 西, 北區)의 朴相述씨를 제외한 754명이 2월25일 오전중으로 투표를 끝내 99.98%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개표는 10개 개표구(慶北 제1개표구 제외)에서 바로 개표에 들어가 이날 낮 12시 30분에 개표가 완료됐다. 개표 현황은 <表 7-2,3,4,5>와 같다.

大統領選舉人 候補者 登錄 狀況

〈表 7-2〉

시 도	선거구수	선거인정수	등록자수	사퇴자수	등록무효	후보자수	경쟁률
서울	172	856	1,512	6		1,506	1.76
부산	68	324	517	3		514	1.59
경기	242	670	1,234	9		1,225	1.83
강원	121	299	610	3		607	2.03
충북	113	256	498	11		487	1.90
충남	194	465	790	4	1	785	1.69
전북	177	407	746	12		734	1.80
전남	255	606	1,117	17	2	1,098	1.81
경북	294	755	1,413	18	1	1,394	1.85
경남	251	587	1,063	15		1,048	1.79
제주	18	53	81	1		80	1.51
계	1,905	5,278	9,581	99	4	9,478	1.80

大邱市 候補者 登錄 狀況

〈表 7-3〉

구분	선거인 선거구수	선거인정수	등록자수	사퇴자수	등록무효수	후보자수	경쟁률
대구 중구	4	20	32			32	1.60
대구 동구	5	25	41	1		40	1.60
대구 서구	8	39	52	1		51	1.30
대구 남구	5	25	35			35	1.40
대구 북구	5	25	38	2		36	1.44
대구 수성구	4	20	29			29	1.45

대구시 투표 상황(괄호안은 부재자수)

〈表 7-4〉

(1981. 2. 12)

대 구 시	유 권 자 수	투 표 자 수	기권자수	투표율
대구 중구	115,424 (4,400)	83,968 (4,176)	31,456	72.8
대구 동구	136,840 (5,633)	102,435 (5,165)	34,405	74.9
대구 서구	210,164 (6,040)	155,645 (5,700)	54,519	74.1
대구 남구	144,160 (5,966)	102,535 (5,695)	41,625	71.1
대구 북구	143,161 (4,440)	108,281 (4,187)	34,880	75.6
대구 수성구	114,159 (5,207)	87,055 (4,801)	27,104	76.3

〈表 7-5〉 정당별 당선자 현황(대구시)

대 구 시	정수	民正	民韓	무소속
대구 중구	20	15	1	4
대구 동구	25	17	3	5
대구 서구	39	33	-	6
대구 남구	25	16	5	4
대구 북구	25	18	1	6
대구 수성구	20	11	3	6

第2節 平和統一諮問會議 構成

平和統一諮問會議는 1981년 6월5일 헌법에 따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기구로서 발족되었다.

정부는 이에 앞서 3월14일 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시행령을 공포하고 4월7일에는 초대 사무총장에 李範奭통일원장관을 겸임 발령했다.

평화통일자문회의는 ①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확인 ②범국민적 의지와 역량 집결 ③평화통일에 필요한 제반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갖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①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의 핵심체가 되고 ②통일이념을 구현하는 데 있어 국민의 참여를 적극화하여 ③국민단합의 모체가 되는 역할을 맡도록 되었다.

평통자문회의장은 법에 따라 全斗煥대통령이 됐으며 지역대표 자문위원 5,214명(대통령 선거인 전원)의 임기는 7년이고 나머지 직능대표의 임기는 2년이였다.

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및 전국 2백25개 시·군·구협의회 회장단회의를 2차례씩, 운영위원회 및 7개 분과 위원회는 4차례씩 개최기로 합의, 평통 발족 3주년을 맞이해서는 13개 시·도단위에서 지역회의를 개최하였다.이외에도 해외홍보활동 및 학술회의 연수를 확대하는 등 국민적 통일염원의 구체적인 확산에 힘썼다.

건국사상 초유의 범국민적 헌법기구로 탄생한 평통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열망과 예지와 역량을 모아 조국통일을 향한 노력을 추진해 나갔다.

제5공화국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역사적 사명이자 민족의 지상과제로 설정하여 전 문에서 이를 국가지표로 제시하고 제38조에서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함과 동시에 제68조에서

는 통일정책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와 자문을 하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평통발족의 시대적 상황은 우리의 통일정책이 일대 방향전환을 모색하던 때였다.

1981년 1월 全斗煥대통령은 '南北韓당국최고책임자 상호방문'을 내용으로 하는 '1·12對北제의'를 발표했다. 이는 南과 北의 대결구조를 과감히 청산하고 南北韓간 교류와 협력의 길을 터 평화통일로 다가서는 민족화합의 시대를 열려는 획기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었다.

평통은 이를 받아 그해 6월5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장 全대통령의 발표를 통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제의로 확대 발전시켰고, 다시 자문 및 건의활동을 토대로 하여 1982년 1월 全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내외에 천명하게 됐다.

조국의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범국민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대통령에게 건의와 자문'이라는 평통의 법적기능에 비추어볼 때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평통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수렴·반영한 것으로 국가정책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되었다.

평통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구현을 위해 △20개 실천사업 실시방안 △공산권 거주 동포 문호개방 선언 △남북경제회담과 대책 △북한의 '三者會談'제의 및 그 저의 △남북한 교류 및 긴장완화를 위한 문제 등 모두 23건에 달하는 통일정책과 관련한 자문 및 건의활동을 폈었다. 또 '高麗연방제의 허구성과 모순' '북한의 대남정책변조에 대한 해부' '남북한 문화예술 접근방안' 등 56건의 자체연구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밖에 '북한의 합영법채택과 그 배경' '남북경제 교류의 전망' '소련의 권력 구조 변화와 한반도 문제' 등 총 1백20건에 달하는 정부보고를 통해 자문 및 건의하였으며 대국민 계도에도 활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평통의 활동은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친여적 성격으로 해서 여론 수렴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 또한 컸었다.

第3節 第11代 國會議員選舉

3·25총선에 출마한 전국 92개 지역구의 입후보자수는 3.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78년 12월12일에 실시된 제10대 국회의원총선의 3.1대1보다는 다소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7대1로 가장 높고 다음이 忠北 3.7대1, 그 다음 全南순이고, 江原道

가 2.6대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10대 총선거는 총입후보자중 무소속 후보가 53.9%를 차지했는데 반해 3·25총선에는 후보자중 무소속후보자는 16.5%에 불과하였다. 이와같은 무소속후보 비율이 낮은 것은 제5공화국의 다당제 방침에 따라 12개의 정당이 공식 출현,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정당들에게 흡수됐고 유권자 추천인수와 기탁금 액수등 무소속 출마 요건을 크게 강화한 선거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정당별로 보면 民正黨이 92명으로 가장 많고 民韓 91, 民權 82, 國民 75, 新政 54, 民社 50, 社會 20, 民農 15, 基民 15, 圓一 13, 安民 12, 統民 10의 순이었다. 한편 각 정당의 전국구 후보총수로 2백28명으로 정당별로는 民正 75, 民韓 45, 國民 29, 民權 21, 新政15, 民社 13, 社會·圓一·基民이 각 6, 統民 5, 民農 4, 安民 3명 등이었다. 慶北도내 국회의원 정수는 13개 지구구에 26명이었으며, 모두 84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3.20대1의 경쟁률을 보여 10대때의 3.1대1보다 약간 높았다. 도내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榮州·榮豐·奉化지구로 10명이 등록해 5대1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大邱 東·北區로 3명이 나와 1.5대1이었다.

각 정당의 후보등록상황은 民正·民韓黨이 도내 13개 전지역구에서 모두 후보를 냈고 國民黨은 大邱 東·北區와 金泉·金陵·尙州·達城·高靈·星州등 세지구를 제외한 10개 지구에서 등록했다.

民韓黨은 龜尾, 善山, 軍威, 漆谷과 達城, 高靈, 星州 등 2개 지구를 제외한 11개 지역에서 등록을 마쳤고 민자당은 大邱 東·北區, 大邱南·壽城區, 慶州·月城·淸道, 金泉·金陵·尙州, 安東·義城, 龜尾·善山, 軍威·漆谷, 聞慶·醴泉등 7개 지구를 제외한 6개 지구에서 후보를 냈다.新政黨은 7개 지구, 安民黨은 2개 지역, 社會黨은 4개 지역, 基民黨은 3개 지역, 民農黨은 2개 지역등에서 각



〈사진 7-3〉

11대 총선

각 등록했고 무소속은 13명이 출마했다.

3·25총선 투표율 및 大邱·慶北도내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表 7-6, 7.8, 9, 10>과 같다.

<表 7-6>

3·25 總選 投票率

도 별	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전 국	20,909,120	16,403,093	78.4%
서울	5,048,348	3,589,446	71.1
釜山	1,617,925	1,241,428	76.7
京畿	2,796,272	2,127,868	76.1
江原	947,977	834,343	88.0
忠北	788,748	683,659	86.7
忠南	1,613,381	1,297,037	80.4
全北	1,237,238	1,001,198	80.9
全南	1,996,274	1,618,566	81.1
慶北	2,772,236	2,259,859	81.5
慶南	1,857,765	1,550,316	83.5
濟州	233,956	199,373	85.2

<表 7-7>

慶北道內 候補者別 得票狀況

候選人 選舉區域		候選人	票 壽	기 호							棄權數	投票率	有效 投票率
				1	2	3	4	5	6	7			
1				李萬燮 (國民)	韓柄來 (民正)	徐明教 (民韓)	玄漢祚 (民權)	朴商勳 (民社)	羅學鎮 (無)	李鍾燮 (無)			
	大邱西區	212,187	160,904	47,166	44,858	23,099	4,907	2,526	8,971	27,911	51,283	75.8	99.1
	大邱中區	115,757	80,684	27,010	22,964	13,409	2,077	1,325	2,741	10,381	35,073	69.7	99.0
	計	327,944	241,588	74,176	67,822	36,508	6,984	3,851	11,712	38,292	86,356	73.7	99.1
2				金瑬泰 (民政)	金正斗 (民權)	陸堯相 (民韓)							
	大邱北區	144,946	116,045	50,445	26,895	37,490					28,901	80.1	99.0
	大邱東區	137,072	100,385	40,687	21,298	37,265					36,687	73.2	93.8
	計	282,018	216,430	91,132	48,193	74,755					65,588	76.7	98.6
3				申鎮洙 (民韓)	金海碩 (國民)	李致浩 (民正)	權萬旻 (民權)	朴三玉 (無)	李尙熹 (無)				
	大邱壽城區	115,913	93,915	24,434	13,252	34,031	3,499	4,923	12,683		21,998	81.0	98.8
	大邱南區	143,120	103,831	29,798	17,618	36,363	3,727	3,299	11,967		39,289	72.5	98.98
	計	259,033	197,746	54,232	30,870	70,394	7,226	8,222	24,650		61,287	76.3	98.9

〈表 7-8〉

대구시내 제11대 국회의원

성명	나이	소 속 학 력 및 경 력
李萬燮	53	中·西(國民) 연세대정외과졸업,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민주공화당 당무위원, IPU한국대표, 한국국민당 부총재
韓柄索	53	中·西(民正) 고려대법대 졸업, 고등고시사법과합격, 판사, 변호사 국회문교공보위원장, 국회법사위원장
金塔泰	49	東·北(民正) 서울대법대졸업, 미국하바드대수학, 조선일보사 정치부장 남북회담평양특파원, 민정당대변인, 중앙집행위원
陸堯相	52	東·北(民韓) 서울대법대졸업, 제93회고등고시사법과 합격, 판사, 변호사, 민한당조직위원, 원내 부총무, 대변인
李致浩	48	南·壽城(民正) 연세대졸업, 고등고시 사법·행정양과합격, 판사, 변호사 국회사법위간사, 민정당원내부총무, 의원실장
申鎭洙	49	南·壽城(民韓) 美남가주교육학박사, 신일전문대 교수, 학장, 이사장, 보이스카우트대구시위원장, IPU, APU이사, 예결특위원, 외무위간사

〈表 7-9〉

各政黨別 全國區 候補

民正黨	
1. 李載滌 (66) 당대표위원	2. 羅吉祚 (58) 대법원판사
3. 金鍾潤 (57) 검찰총장	4. 李龍薰 (54) 법제처장
5. 金基喆 (64) 체신부장관	6. 宋志英 (64) 당중앙위의장
7. 鄭喜澤 (61) 당윤리위원장	8. 朴東鎭 (58) 前외무부장관
9. 鄭元民 (64) 해군1차장, 중장	10. 金正浩 (50) 해군2차장, 중장
11. 尹碩淳 (43) 당사무차장	12. 金宗鎬 (46) 내무부차관
13. 金龍洙 (52) 교육기지사령관	14. 朴泰俊 (52) 포항제철회장
15. 朴敬錫 (44) 당대변인	16. 崔相榮 (58) 前西江大 부총장
17. 黃炳峻 (57) 중앙대 교수	18. 柳根桓 (53) 정보사령관, 소장
19. 李佑在 (48) 입법의원, 준장	20. 李春九 (47) 정화위원장, 준장
21. 金賢子 (52) 당중앙집행위원	22. 鄭順德 (46) 군관참모장, 준장
23. 裴成東 (45) 당정책 조정실장	24. 金仕龍 (64) 입법위원
25. 李建鎬 (63) 당전당대회 부의장	26. 申相楚 (59) 당평통위 부의장
27. 吳制道 (63) 당중앙위 부의장	28. 金潤煥 (48) 당정책위 부의장
29. 鄭熙彩 (53) 당정책위 부의장	30. 金春洙 (58) 영남대학장
31. 朴鉉兌 (47) 당선전국장	32. 李亮雨 (48) 당정책위 부의장

- | | |
|-----------------------|------------------------|
| 33. 朴鍾寬 (53) 서울시경국장 | 34. 高貴男 (47) 全南도당 사무국장 |
| 35. 羅雄培 (46) 한국타이어 사장 | 36. 金 洙 (55) 慶北 醫大外來교수 |
| 37. 池甲鍾 (54) 당선전분과위원장 | 38. 許淸一 (40) 헌병감실 육군대령 |
| 39. 李相鮮 (61) 咸南지사 | 40. 孫春昊 (54) 행당외과병원장 |
| 41. 丁時采 (46) 전남부지사 | 42. 安敎德 (50) 정우개발 사장 |
| 43. 崔洛喆 (49) 계성제지 사장 | 44. 金慕姬 (45) 대한간호협회장 |
| 45. 李憲琦 (42) 당정책 부의장 | 46. 李潤子 (52) 당여성분과장 |
| 47. 李敏燮 (42) 당조직부국장 | 48. 李寧熙 (49) 한국일보 논설위원 |
| 49. 金鍾仁 (40) 서강대 교수 | 50. 朴源卓 (44) 외국어대 교수 |
| 51. 李祚泰 (42) 동아제약 이사 | 52. 李榮一 (41) 당청년국장 |
| 53. 李英姬 (43) 숙명여대 교수 | 54. 韓南熙 (43) 중앙일보 정치부장 |
| 55. 金幸子 (37) 입법의원 | 56. 李榮勳 (44) TV연예協 이사장 |
| 57. 金榮龜 (41) 당청년분과위원장 | 58. 黃 浩 (41) 신원산업 대표 |
| 59. 河舜鳳 (41) MBC정치부장 | 60. 郭定鉉 (48) 새마을연수원 교수 |
| 61. 全炳宇 (50) 전북지사 | |

民韓黨

- | | |
|-------------------------|-------------------------|
| 1. 劉沃祐 (67) 입법위원 | 2. 李泰九 (61) 부총재 |
| 3. 黃山城 (37) 당인권옹호위원장 | 4. 金文錫 (55) 연락분과위원장 |
| 5. 梁在港 (53) 재정분과위원장 | 6. 鄭圭泰 (53) 당무위원 |
| 7. 孫泰坤 (53) 전당대회부의장 | 8. 申宰休 (45) 대한석유회社 부회장 |
| 9. 李廷彬 (47) 재정분과위 부위원장 | 10. 金進基 (49) 삼양선박 대표 |
| 11. 李重熙 (50) 재정분과위 부위원장 | 12. 延濟源 (54) 삼보기업 대표 |
| 13. 崔守桓 (43) 창단준비위원 | 14. 孫延赫 (38) 국신건설 대표 |
| 15. 徐鍾烈 (46) 창당준비위원 | 16. 金魯植 (36) 범아건설 대표 |
| 17. 李潤基 (49) 정책위원 | 18. 李義永 (51) 정책분과위 부위원장 |
| 19. 李演國 (?) 선거대책 분과부위원장 | 20. 趙柱衡 (41) 변호사 |
| 21. 康源采 (39) 출판업 | 22. 尹起大 (52) 전 윤대통령 비서 |
| 23. 金炯來 (41) 당 부대변인 | 24. 李洪培 (44) 기획분과위 부위원장 |
| 25. 金德圭 (40) 선전위원 | |

國民黨

- | | |
|---------------------|--------------------|
| 1. 金永光 (50) 당사무총장 | 2. 李弼雨 (50) 통일운수회장 |
| 3. 魯且泰 (52) 영진건설 대표 | 4. 趙鼎九 (65) 당중앙위원 |
| 5. 金翰宣 (42) 당사무차장 | 6. 金遺腹 (56) 예비역 준장 |
| 7. 姜棋弼 (47) 당기획조정실장 | |

〈表 7-10〉 全國市道別 3·25總選 投票率

도	별	선 거 인 수	투 표 자 수	투 표 율(%)
全	國	20,909,120	16,403,093	78.4
서	울	5,043,348	3,589,446	71.1
釜	山	1,617,925	1,241,428	76.7
京	機	2,796,272	2,127,863	76.1
江	原	947,977	834,343	88.0
忠	北	788,748	683,659	86.7
忠	南	1,613,381	1,297,037	80.4
全	北	1,237,238	1,001,198	80.9
全	南	1,996,274	1,618,566	81.1
慶	北	2,772,236	2,259,859	81.5
慶	南	1,857,765	1,550,316	83.5
濟	州	233,956	199,373	85.2

第4節 第12代 國會議員選舉

제1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1985년 4월 10일 만료되어 1984년 7월 제122회 임시국회에서 제12대 총선을 앞두고 民主正義黨, 民主韓國黨, 韓國國民黨등 3당의 사무총장과 실무대표들이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을 위한 수차의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 결과 정당추천선거관리위원제를 부활시키고 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선거운동방법을 일부 개선하는 등 동년 7월 25일 국회의원선거법을 부분 개정하였으며, 정부에서는 1985년 1월 18일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동년 2월 12일로 확정하고 동년 1월 23일에 공고하였다. 한편 정치활동의 규제에서 풀려난 解禁인사들은 독자적으로 신당 창당을 준비한 결과 1985년 1월 18일 新民黨을 창당하였는데 新民黨은



〈사진 7-4〉

12대 총선

창당 25일 만에 제 11대 국회때의 제1야당이던 民韓黨을 누르고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다.

지역구 의원 정수 1백84명에 총 입후보자 수는 4백40명으로 2.3: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선거에 참가한 정당은 民主正義黨등 9개 정당이었으나 民主正義黨 87인, 新韓民主黨 50인, 民主韓國黨 26인, 韓國國民黨 15인, 新政社會黨과 新民主黨이 각각 1석, 무소속이 4석을 차지하였다. 大邱·慶北지역의 12대 총선 유권자수는 大邱 1,148,657명, 慶北 1,865,046명, 투표율은 大邱가 82.0%, 慶北이 88.3%였다.

大邱·慶北 13개 지역구 당선자는 모두 26명(1지역구 2명)으로 정당별로는 民正黨이 12명, 新民主黨이 6명, 民韓黨 4명, 國民黨 2명, 무소속 2명등으로 구성됐다.

이 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현역의원은 大邱中·西區의 4선관록을 가진 民正黨의 韓柄宋의원을 비롯 民韓黨의 申鎭洙(大邱南·壽城)의원, 國民黨의 再選의원 李聖秀(浦項지구) 朴在旭(永川지구) 金基洙(聞慶지구)의원, 新民主의 金燦于(青松지구) 崔守桓(全國區)의원등이다. 선거결과 예상을 뒤엎은 사례도 속출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大邱 中·西區의 兪成煥후보(新民主), 兪후보는 첫 개함부터 줄곧 선두를 유지해 결국 차점자와 6만표라는 큰 차이로 대승, 경합자인 4선의 여당 두거물후보를 누르는 이변을 낳았다. 兪후보의 이변은 또 다른 이변으로 이어져 같은 구의 경합자인 李萬燮후보와 韓柄宋후보 사이에 은메달을 놓고(1구2의원 선출로 남은 1명을 여기에서 가림) 대역전극을 벌이는 드라마를 연출해 처음에 패색이 짙었던 李후보가 韓후보를 1천9백표차로 누르고 승리 했다.

大邱지역 당선자와 전국구 당선자는 다음<表 7-11,12>와 같다.

<表 7-11> 대구 제12대 국회의원

성명(나이)	소속·학력·경력
兪成煥(55)	中·西(民主) 영남대학교 졸업, 신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 당대변인, 「민추」인권특별위원, 통일민주당 대구중서구 당위원장
李萬燮(55)	中·西(國民) 연세대 졸업, 동아일보 정치부기자, IPU 한국대표, 민주공화당 당무위원, 한국국민당 총재
金瑬泰(51)	東·北(民正) 서울대 법대 졸업, 조선일보사 정치부장·편집국장, 민정당 경북도당위원장, 국회재무위원장, 한·그리스의원 친선협회장
陸堯相(52)	東·北(民主) 서울대 법대 졸업, 고시사법과 합격, 대구·서울 형사지법 및 서울고법 판사, 변호사, 신민당 헌특위원·정무위원

성명(나이)	소속·학력·경력
李致浩(48)	南·壽城(民正) 경북대·연세대 졸업, 고시 사법·행정 양과 합격, 서울·청주지법 판사, 변호사, 국회특헌위 간사, 대구·경북도당 위원장
辛道煥(65)	南·壽城(新民) 일본명치대학 법학과 졸업, 대한반공청년단총본부 단장, 대한체육회장서리, 신민당 정무위원·사무총장·최고위원

〈表 7-12〉 第12代 全國區 當選者

추천순위. 성명(성별, 생년월일)

(① 본적 ② 주소 ③ 직업 ④ 학력 ⑤ 경력 ⑥ 비고)

〈民主正義黨〉

- 李載滢(남, 1914.11. 7 생)
 - 경기 ② 서울 종로구 사직동 262-77 ③ 국회의원 ④ 일본 중앙대 법학부
 -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제1·2·4·5·7·11·12대 국회의원
 - 7選(1·2·4·5·7·11·12대)
- 陳懿鍾(남, 1921.12.13 생)
 - 전북 ② 서울 종로구 삼청동 106 ③ 국무총리
 - 경성제대 ⑤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제8·9·11·12대 국회의원
 - 4選(8·9·11·12대)
- 盧泰愚(남, 1932.12. 4 생)
 - 大邱 ②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08-17 ③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 육사(11기) ⑤ 내무부장관 ⑥ 初選
- 王相殷(남, 1920. 3.31 생)
 - 부산 ② 부산 중구 대청동 4가 80 ③ 국회의원 ④ 일본 동지사대
 - 대한상의 부회장 · 제11대 국회의원 ⑥ 2選(11·12대)
- 兪學聖(남, 1927. 2.28 생)
 - 경북 ② 서울 강남구 방배1동 843-5 ③ 반공연맹 이사장 ④ 고대 경영대학원
 - 안전기획부 부장 ⑥ 初選
- 李相宰(남, 1934. 8.22 생)
 - 서울 ② 서울 용산구 이촌동 203-7 ③ 민주정의당 사무차장
 - 연대 경영대학원 ⑤ 사정비서관 ⑥ 初選
- 徐廷和(남, 1933. 3. 4 생)
 - 경남 ②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17-33 ③ 서울대 법대
 - 내무부장관 ⑤ 初選
- 朴鍾汶(남, 1932.11. 5 생)
 - 경남 ②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60 현대 APT 23-1204
 - 농수산부장관 ④ 경북대 농학과 ⑤ 강원도지사 ⑥ 初選

9. 姜慶植(남, 1936. 5.10 생)
 - ① 경북 ②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APT 2-905 ③ 서울대 법대
 - ④ 대통령비서실장·재무부장관 ⑤ 初選
10. 黃寅性(남, 1926. 1. 9 생)
 - ① 서울 ② 서울 용산구 동부 이촌동 한강맨션APT 38-204 ③ 국회의원
 - ④ 육사(4기) ⑤ 교통부장관·제11대 국회의원 ⑥ 2選(11·12대)
11. 朴東鎭(남, 1922.10.11 생)
 - ① 서울 ②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PT 76-503 ③ 국회의원
 - ④ 일본 중앙대 법과 ⑤ 외무부장관·제11대 국회의원 ⑥ 2選(11·12대)
12. 李龍薰(남, 1927. 2. 9 생)
 - ① 서울 ②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1-9 ③ 국회의원 ④ 서울대 법대
 - ⑤ 법제처장·제11대 국회의원 ⑥ 2選(11·12대)
13. 羅雄培(남, 1934. 7.24 생)
 - ① 서울 ②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PT 112-403 ③ 아주대총장
 - ④ 미국 캘리포니아대 ⑤ 재무부장관·제11대 국회의원 ⑥ 2選(11·12대)
14. 趙一文(남, 1917.12.17 생)
 - ① 서울 ② 서울 마포구 하수동 97-21 ③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
 - ④ 중국 남경대 ⑤ 건국대 총장 ⑥ 初選
15. 權重東(남, 1932. 9.10 생)
 - ① 경북 ② 서울 종로구 부암동 95-22 ③ 증권협회장 ④ 서울대 미대
 - ⑤ 노동부장관 ⑥ 初選
16. 李成烈(남, 1926. 8. 5 생)
 - ① 전남 ② 서울 강동구 풍납동 326-4 ③ 조선대 정치학과
 - ④ 대법원 판사 ⑤ 初選
17. 金賢子(여, 1928. 3.23 생)
 - ① 서울 ② 서울 마포구 신수동 91-265 ③ 국회의원
 - ④ 이화여대 영문학과 ⑤ YWCA부회장·제11대 국회의원
 - ⑥ 2選(11·12대)
18. 裴成東(남, 1936. 6.21 생)
 - ① 대구 ② 서울 도봉구 수유동 535-17 ③ 국회의원·민주정의당연수원장
 - ④ 서울대 정치학과 ⑤ 서울대교수·제11대 국회의원 ⑥ 2選(11·12대)
19. 玄鴻柱(남, 1940. 8.19 생)
 - ① 서울 ② 서울 성북구 정릉동 402-74 ③ 서울대 법대
 - ④ 서울고검 검사·안기부 차장 ⑤ 初選
20. 李永旭(남, 1932. 8.12 생)
 - ① 경남 ② 서울 마포구 성산동 13-10 ③ 서울대 법대
 - ④ 법무부차관·법무연수원장 ⑤ 初選
21. 金榮作(남, 1941. 1. 4 생)
 - ① 서울 ② 서울 종로구 구기동 149-17 ③ 국민대 교수
 - ④ 일본 동경대 정치학과 ⑤ 한국일보 논설위원 ⑥ 初選

22. 曹祥鉉(남, 1924. 1.13 생)
 - ① 서울 ②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3-3 ③ 예총 부회장 ④ 서울대 음대
 - ⑤ 한양대 교수 ⑥ 初選
23. 金榮植(女, 1929.10. 5 생)
 - ① 서울 ② 서울 마포구 성산동 255-2 ③ 한국여성개발원장
 - ④ 이화여대 영문학과 ⑤ 이화여대 교수 ⑥ 初選
24. 安甲濬(남, 1926.12.22 생)
 - ① 충북 ② 서울 강남구 서초동 신동아APT 8-406 ③ 국회의원
 - ④ 국민대 경제학과 ⑤ 전남·북부지사. 제10·11대 국회의원 ⑥ 3選(10·11·12대)
25. 金聖基(남, 1935. 8.16 생)
 - ① 서울 ②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29 ③ 서울대 법과
 - ④ 대구고검장·사회정화위원장 ⑤ 初選
26. 趙鍾昊(남, 1921.12.22 생)
 - ① 충북 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③ 국회의원
 - ④ 국민대 정치학과 ⑤ 입법의원·제4, 5, 11대 국회의원 ⑥ 4選(4·5·11·12대)
27. 李祥義(남, 1938. 9. 1 생)
 - ① 서울 ② 서울 종로구 동숭동 129 광명주택B동2호 ③ 국회의원
 - ④ 서울대 약대 ⑤ 동아제약 고문·제11대 국회의원 ⑥ 2選(11·12대)
28. 柳根桓(남, 1928.11.24 생)
 - ① 충남 ② 서울 강남구 논현동 43-3 ③ 국회의원 ④ 건국대법학과
 - ⑤ 정보사령관·제11대 국회의원 ⑥ 2選(11·12대)
29. 韓良順(여, 1929. 9.20 생)
 - ① 서울 ② 서울 강남구 반포동 우성APT 102-801 ③ 연세대 교수
 - ④ 이화여대 ⑤ LA올림픽 여성단장 ⑥ 初選
30. 洪鍾旭(남, 1924. 1. 9 생)
 - ① 강원 ② 강원 춘천시 교동 158-9 ③ 국회의원 ④ 성균관대교육학과
 - ⑤ 강원도 교육감·제11대 국회의원 ⑥ 2選(11·12대)
31. 鄭昌和(남, 1940. 8. 2 생)
 - ① 경북 ② 서울 강동구 잠실5동 주공고층APT 507-1103 ③ 국회의원
 - ④ 연세대 정외과 ⑤ 민주정의당연수원 부원장·제11대 국회의원
 - ⑥ 2選 (11·12대)
32. 金鍾仁(남, 1940. 7.11 생)
 - ① 서울 ②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APT 51-902 ③ 국회의원
 - ④ 서독 윈스터대 ⑤ 서강대 교수·제11대 국회의원 ⑥ 2選(11·12대)
33. 金榮龜(남, 1940. 1.12 생)
 - ① 서울 ② 서울 강남구 서초동 1045-2 정유빌라 B-9호 ③ 국회의원
 - ④ 동국대 경제과 ⑤ 중립전기 대표·제11대 국회의원 ⑥ 2選(11·12대)
34. 崔秉烈(남, 1938. 9.16 생)
 - ① 경남 ②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APT 5-902 ③ 서울대 법대
 - ④ 조선일보 편집국장 ⑤ 初選

35. 康容植(남, 1939. 5. 8 생)
 ① 서울 ②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PT 92-802 ④ 서울대 법대
 ⑤ 방송공사 보도본부장 ⑥ 初選
36. 宋庸植(남, 1932. 6.28 생)
 ① 서울 ② 서울 강남구 서초동 569 진흥APT 8-1006 ④ 서울대 법대
 ⑤ 연합통신 상무이사 ⑥ 初選
37. 池蓮泰(남, 1928. 2.15 생)
 ① 전남 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APT C-901
 ④ 미국 뉴욕대 ⑤ 주이태리 대사 ⑥ 初選
38. 任斗彬(남, 1933. 9. 7 생)
 ① 서울 ② 서울 성동구 광장동 산21 위커힐APT 25-103 ③ 변호사
 ④ 서울대 법대 ⑤ 명지대 교수 ⑥ 初選
39. 鄭顯榮(남, 1933.12. 5 생)
 ① 전남 ② 서울 강동구 대치동 452 한보미도맨션 110-901
 ④ 해사(9기) ⑤ 해군 1차장·해군 작전참모부장 ⑥ 初選
40. 陳治範(남, 1931.12.16 생)
 ① 충북 ② 서울 강남구 역삼2동 개나리APT 34-102 ③ 民主正義黨중앙위원
 ④ 공사(2기) ⑤ 30방공관제단장 ⑥ 初選
41. 崔永德(남, 1928. 3.10 생)
 ① 서울 ② 서울 서대문구 연희2동 96-19 ④ 명지대 법학과
 ⑤ 해경대장·경기도경국장 ⑥ 初選
42. 任煥得(남, 1932. 4.10 생)
 ① 전남 ②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9-22 ③ 변호사 ④ 서울대 정치학과
 ⑤ 농정차관보·제10대 국회의원 ⑥ 2選 (10·12대)
43. 金 濤(남, 1926.12.15 생)
 ① 경북 ② 서울 강남구 반포동 257-3 신반포 한신4차APT 209-506
 ③ 국회의원 ④ 경북대 의대 ⑤ 대한체육회 부회장·제11대 국회의원 ⑥ 2選(11·12대)
44. 池甲鍾(남, 1927. 2.10 생)
 ① 서울 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서울APT 2-208
 ③ 국회의원 ④ 연세대 상대 ⑤ UN한국참전국협회 처장·제11대 국회의원
 ⑥ 2選 (11·12대)
45. 崔明憲(남, 1929. 6.16 생)
 ① 서울 ② 서울 구로구 독산3동 189-23 ③ 국회의원 ④ 육사(9기)
 ⑤ 수출공단 이사장·제11대 국회의원 ⑥ 2選 (11·12대)
46. 李鍾律(남, 1941. 9.26 생)
 ① 전북 ② 서울 종로구 관훈동 155-2 ③ 민주정의당 정세분석실장
 ④ 미국 예일대 ⑤ 입법의원 ⑥ 初選
47. 趙庚穆(남, 1937. 6.26 생)
 ① 서울 ②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60 현대APT 22-301
 ④ 서울대 공대 ⑤ 과학기술처 차관 ⑥ 初選

48. 金炯孝(남, 1940. 3.16 생)

① 서울 ② 서울 강동구 잠실동 101-1 우성APT 20-102

④ 벨기에 루뱅대 ⑤ 정신문화원 부원장·서강대 부교수 ⑥ 初選

49. 金學俊(남, 1943. 1.28 생)

① 인천 ② 서울 종로구 신교동 2-30 ③ 서울대 교수 ④ 미국 켄트주립대

⑤ 서울대 교수 ⑥ 初選

50. 徐廷華(남, 1939. 8.20 생)

① 경기 ② 경기 시흥군 과천면 별양리 주공 5단지 507-207

③ 민주정의당 조직국장 ④ 육사(19기) ⑤ 경일섬유 대표 ⑥ 初選

51. 金斗宗(남, 1939. 8.21 생)

① 서울 ② 서울 강남구 서초1동 152-116 ③ 민주정의당 훈련국장

④ 건국대 정치학과 ⑤ 민주정의당 조사국장 ⑥ 初選

52. 梁慶子(여, 1940. 7.25 생)

① 서울 ② 서울 도봉구 우이동 73-102 ③ 민주정의당 여성국장

④ 고대 법대 ⑤ 여성경제인협회 이사 ⑥ 初選

53. 文熹甲(남, 1937. 6. 9 생)

① 경북 ②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 ④ 서울대 법대

⑤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⑥ 初選

54. 金良培(남, 1938.11. 6 생)

① 전남 ②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9-17 ③ 민주정의당 내무전문위원

④ 서울대 정치학과 ⑤ 전북 부지사 ⑥ 初選

55. 鄭輝東(남, 1925. 5.30 생)

① 경북 ② 경북 상주군 상주읍 남성동 13-20 ③ 국회의원

④ 영남대 경영학과 ⑤ 퍼시픽호텔 대표·제10, 11대 국회의원

⑥ 3選 (10·11·12대)

56. 金長淑(여, 1934. 3.25 생)

① 전북 ② 서울 은평구 불광동 532 ③ 여약사회장

④ 서울대 약대 ⑤ 황금당약국 대표 ⑥ 初選

57. 朴惠敬(여, 1941. 8. 2 생)

① 서울 ② 서울 강남구 반포동 반포APT 89-305 ③ 숙명여대 교수

④ 서독 만하임대 ⑤ 숙명여대 부교수 ⑥ 初選

58. 李轍雨(남, 1934. 1. 8 생)

① 충남 ② 경기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795 ③ 새마을본부 중앙본부 회장

④ 서울대 농대 ⑤ 새마을 경기회장 ⑥ 初選

59. 安永和(남, 1941. 5. 3 생)

① 경남 ②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PT 94-207

④ 경북대 화학과 ⑤ 국회운영 전문위원 ⑥ 初選

60. 崔祥鎭(남, 1941. 7. 5 생)

① 서울 ② 서울 동작구 상도3동 256-199 ③ 민주정의당 중앙위원

④ 중앙대 행정학과 ⑤ 직업청소년학교 육성회장 ⑥ 初選

61. 李聖浩(남, 1938.12.18 생)

- ① 경기 ② 서울 강동구 암사동 485-12 ③ 민주정의당 경기도지부 사무국장
④ 고대 법학과 ⑤ 민주정의당 중앙정치연수원 교수 ⑥ 初選

〈新韓民主黨〉

1. 辛達洙(남, 1923. 3.10 생)

- ① 경남 ② 부산 남구 광안동 379-83 ③ 운수업 ④ 건국대
⑤ 반탁투쟁·경남버스 대표이사 ⑥ 初選

2. 林春元(남, 1938. 3. 1 생)

- ① 서울 ②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10-2 ③ 동아대재단 이사
④ 서울대 경영대학원 ⑤ 통일문제연구회 회장·한림장학회 이사장 ⑥ 初選

3. 高漢俊(남, 1930. 7.30 생)

- ① 제주 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한양APT A305 ③ 정당인
④ 미국 유니온대 ⑤ 아세아상사 대표·재일거류민단 간부·민추협 운영위원 ⑥ 初選

4. 金炯環(남, 1934. 3.12 생)

- ① 부산 ② 부산 서구 서대신동 1가 50-3 ③ 정당인 ④ 동아대
⑤ 김영삼 총재특별보좌역·당창당 발기인 ⑥ 初選

5. 鄭在文(남, 1936.10.31 생)

- ① 경남 ② 서울 종로구 혜화동 26-16 ③ 회사사장 ④ 미국버클리대
⑤ 대한상공회의소 감사·버스터미널협 회장 ⑥ 初選

6. 韓錫奉(남, 1946. 9. 7 생)

- ① 부산 ② 부산 동구 범1동 1436-6 ③ 정당인 ④ 미국뉴욕주립대
⑤ 세화학원 재단이사장·민추협 특별보좌역 ⑥ 初選

7. 尹榮卓(남, 1933. 6. 4 생)

- ① 경북 ② 경북 경산군 용성면 당리동 109 ③ 회사원 ④ 서울대
⑤ (주)대우 상무이사 ⑥ 初選

8. 辛秉烈(남, 1935. 2.13 생)

- ① 경남 ② 서울 용산구 동부 이촌동 300-10 점보 205호 ③ 정당인
④ 경희대 ⑤ 신민당 중앙상무위원, 당창당 발기인 ⑥ 初選

9. 朴鐘律(남, 1929. 3.14 생)

- ① 전북 ② 서울 종로구 평창동 533 ③ 당선거대책본부차장
④ 고대 경영대학원 ⑤ 장면국무총리 비서관·제8대 국회의원 ⑥ 2選(8, 12대)

10. 趙永壽(남, 1941. 4.17 생)

- ① 부산 ② 부산 동래구 온천동 48-2 ③ 부산체육회 이사
④ 부산사대 ⑤ 중학교 교사 ⑥ 初選

11. 金炳洙(남, 1934. 5.12 생)

- ① 전북 ② 서울 강동구 잠실3동 428-505 ③ 당재정 부위원장
④ 고려대 ⑤ 신민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⑥ 初選

12. 金東旭(남, 1938. 1.14 생)

- ① 경남 ② 서울 강남구 역삼2동 개나리APT 35-207 ③ 정당인
④ 연세대 ⑤ 제10대 국회의원 ⑥ 2選(10·12대)

13. 李佶範(남, 1938. 3.20 생)

- ① 전남 ② 서울 동작동 66-19 ③ 정당인 ④ 고대 교육대학원
⑤ 신민당 중앙상무위원·民權黨 조직국장 ⑥ 初選

14. 金容午(남, 1928. 3. 5 생)

- ① 부산 ② 부산 중구 신창동 1가 6 ③ 동국대재단이사
④ 미 캘리포니아오리엔트대 ⑤ 서울 조계사주지·불교회보신문 사장 ⑥ 初選

15. 張忠準(남, 1936.10.15 생)

- ① 서울 ②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09 민영APT P-103 ③ 정당인
④ 동국대 ⑤ 신민당 조직국장·신한민주당 조직부위원장 ⑥ 初選

16. 崔 薰(남, 1928. 7. 8 생)

- ① 서울 ② 서울 강남구 서초동 산98-2 ③ 정당인 ④ 성균관대
⑤ 신민당 중앙상무위원·청년국장 ⑥ 初選

17. 申敬說(남, 1932. 1.19 생)

- ① 충남 ②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2-7 ③ 정당인 ④ 충북대
⑤ 신민당 사회노동국장·당부정선거 조사위원장 ⑥ 初選

〈民主韓國黨〉

1. 李泰九(남, 1920.11. 3 생)

- ① 서울 ② 서울 종로구 홍제동 69-2 ③ 국회의원
④ 일본 조도전대 경제과 ⑤ 민주한국당 부총재·제11대 국회의원 ⑥ 2選(11, 12대)

2. 朴海充(남, 1928.12.12 생)

- ① 경북 ② 서울 도봉구 월계동 산75 ③ 정당인 ④ 경희대 법과 4년중퇴
⑤ 제5·8·9·10대 국회의원 ⑥ 5選(5·8·9·10·12대)

3. 申宰休(남, 1936. 7.15 생)

- ① 경북 ②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PT 85-404 ③ 국회의원
④ 영남대 경제과 ⑤ 제11대 국회의원 ⑥ 2選(11·12대)

4. 孫泰坤(남, 1928. 2.28 생)

- ① 경남 ②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8-9 ③ 국회의원 ④ 독학
⑤ 제11대 국회의원 ⑥ 2選(11·12대)

5. 鄭相九(남, 1925. 4.28 생)

- ① 부산 ②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423 ③ 학교재단이사장
④ 일본 동경대학원 정치학연구과 5년수료 ⑤ 참의원·제7대 국회의원 ⑥ 3選(참의원·7·12대)

6. 崔雲芝(남, 1927. 9.15 생)

- ① 서울 ②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2-31 ③ 국제전선(주)사장
④ 서울대 행정대학원 ⑤ 대학교수 ⑥ 初選

7. 申東準(남, 1932.12.10 생)

- ① 경북 ② 서울 동작구 상도2동 159-78 ③ 정당인
④ 건국대 행정대학원 ⑤ 신민당 류진산총재 비서실장 ⑥ 初選

8. 黃大鳳(남, 1927. 4.23 생)

- ① 경북 ② 경북 포항시 죽도동 71-16 ③ 대원교통(주)회장
④ 포항수산전문대 제조과 ⑤ 국제로타리클럽 포항회장 ⑥ 初選

9. 宋鉉燮(남, 1936.10.12 생)

- ① 서울 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 APT H동 509호 ③ 건설업
④ 성균관대 정치학과 ⑤ 민주한국당 후원회회장 ⑥ 初選

〈韓國國民黨〉

1. 金鍾哲(남, 1920.11. 7 생)

- ① 충남 ②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5 ③ 한국국민당 총재 ④ 일본 명치대 상과
⑤ 제 4, 7, 8, 9, 10대의원, 한·일의원 안보협회 부의장, 한국국민당 창당준비 위원장
⑥ 6選(4·7·8·9·10·12대)

2. 鄭始鳳(남, 1916.12. 7 생)

- ① 서울 ②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8-32 ③ 한국시장협회의회장
④ 고대 경영대학원 ⑤ 공화당 동대문지구당 부위원장, 제1·2기통대 의원
로타리클럽동서울1·2·3대회장 ⑥ 初選

3. 文炳夏(남, 1932. 5. 3 생)

- ① 서울 ② 서울 종로구 종로6가 42-1 ③ 대양상선(주)대표이사
④ 서울대 법과 ⑤ 상공부 중공업국장·무역회사 사장 ⑥ 初選

4. 金奎元(남, 1928. 5. 30 생)

- ① 서울 ② 서울 도봉구 미아4동 3-10 ③ 국제가스공업(주) 사장
④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⑤ 국제운수(주) 대표이사, 공화당 중앙위원
한국국민당후원회 부회장 ⑥ 初選

5. 崔載九(남, 1929. 7.13)

- ① 경남 ② 서울 도봉구 수유5동 391-27 ③ 불교사상사 회장
④ 동국대 행정대학원 ⑤ 제8·9·10대의원·불교신도회 회장·KOC상임위원
⑥ 4選(8·9·10·12대)

第5節 民主化運動과 4·13護憲措置

1985년 2월 12일의 12대 총선에서는 新民黨이 67명의 당선자를 내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졌으며 5월 13일 1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본격적인 개헌공방이 시작되었다. 이해 8월 29일을 기해 新民黨은 개헌추진본부를 발족하여 끈질긴 투쟁의 막을 열었다. 86년 1월 16일 全斗煥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1989년 이후 개헌 논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그 파장은 더욱 거세졌다.

2월7일 당시 金泳三 民推協공동의장이 新民黨에 입당하게 되고 2월12일 新民黨과 在野에서 직선제 개헌 1천만명 서명운동에 착수하게 되었다. 2월24일 全斗煥 대통령은 청와대 3당 대표회담에서 89년 개헌 구상을 제시했다.

3월7일 李新民총재와 두 金씨는 89년 개헌을 정면거부했으며 3월8일에 民正黨 中央委는 선출될 차기 대통령후보자가 이를 공약키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3월11일 新民黨은 서울을 시발로 개헌추진 시·도지부 현판식에 돌입하였다.

당시 밤낮없이 거리에는 자욱한 최루탄연기와 돌과 화염병이 난무한 가운데 수천명 단위의 연행, 수백명 단위의 구속사태가 일상화되었다. 개헌문제 특히 대통령 직선제등, 권력구조를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전은 85년 2·12 총선에서부터 가장 큰 쟁점으로 표면화 되었던 것이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자”는 선거구호를 내걸었던 新民黨이 12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제1야당으로 부상했고 이후 여야는 ‘직선제 개헌’이나 ‘호헌’이나를 놓고 1년 가까이 극한 대립을 하게 되었다. 이같은 대립양상은 1년후쯤인 1월16일 全斗煥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개헌논의는 89년 이후에 가능하다’며 개헌에 대한 첫 긍정적 입장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개헌’ 자체를 입에 담기만 해도 ‘犯法視’ 하던 상황에서 개헌논의가 가능한 상황이 되자 당시 新民黨은 다음달인 2월6일 民推協共同議長인 金泳三씨의 입당을 계기로 총선 1주년인 86년 2월12일 개헌서명운동을 전격적으로 강행했다. 정부여당도 이에 밀릴세라 新民黨舍, 民推協事務室 봉쇄와 서명부 압수등으로 강경 대처했으며 그런 과정에서도 당시 新民黨은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당시 서소문로 민주협 사무실 앞길에서 金泳三 씨가 경찰에 의해 강제로 차에 실려 나가고 취재기자들이 집단폭행을 당하는 와중에서 뒤틀린 정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열린 것이 2·24 청와대 3당대표회담이었다. 이 자리에서 全대통령은 국회안의 헌법특위설치에 호의적인 반응을 표시함과 아울러 정부내의 개헌을 위한 특위구성 의사까지도 밝혔다. 全대통령은 그와 함께 ‘88년까지 헌법을 연구해 89년 개헌가능’의 입장을 보다 강하게 표명했다.

그러나 야권의 대응은 당장 정면거부로 나타났다. 3월 7일 당시 李敏雨 新民黨총재와 金泳三·金大中씨등 3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全대통령의 ‘2·24제의’를 정면 거부하고 86년까지 직선제개헌을 끝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하며 이른바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3월11일 서울을 시발로 시작된 개헌추진 시도지부 현판식이 장외투쟁을 현실로 보여줬다.

그러다가 이해 4월 30일 全대통령은 유럽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3당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마침내 임기중 개헌 용의를 분명히 밝혔다. 全대통령은 이날 “개인적으로는 88년까지 현행헌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전제를 달긴 했으나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건의하면 재임기간중에 개헌하는 데 반대하지 않겠다.”고 표명함으로써 개헌논의의 분위기는 한결 희망적인 기운이 감돌게 되었다.

5월 3일 仁川사태의 불길한 행사도 없지 않았으나 어쨌든 ‘4·30 청와대회동’에 따라 5월 29일 盧民正黨대표와 李新民黨총재는 회담을 갖고 6월 열리는 국회에서 헌특을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6월 24일 본회의에서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기에 이르렀고 7월

30일 民正 23, 新民 17, 國民 4, 무소속 1명 등 모두 45명의 의원으로 헌특을 공식발족시켰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 헌특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개헌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했으나 民正黨에서 내각 개헌안을 新民黨과 國民黨



〈사진 7-5〉

故 박종철군의 영정을 앞세우고
시위를 벌이는 서울대 학생들

에서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해 팽팽히 맞서기만 했다. 더우기 ‘공청회 TV생중계’라는 문제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바람에 개헌특위는 그 출발점부터 좌초하고 말았다. 국회 헌특이 이름만 있을 뿐 활동중지상태에 머물러 있던 터에 李新民黨총재와 두 金씨는 9월 29일 회동, “난국타개의 유일한 길은 실세대화”라면서 “이 실세대화가 이뤄질때까지 헌특에 불참한다”고 선언해버렸다.

‘두 열차의 정면충돌’ ‘벼랑끝’ ‘막다른 골목’이란 어휘가 신문지상에 자주 등장하면서 李新民黨총재는 10월 10일 그 타개책으로 ‘선택적 국민투표’를 내놓았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기만 한 상태에서 시간만 가니 국민에게 직접 묻자”는 아이디어였으나 民正黨은 위헌임을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

10월 17일 俞成煥의원이 국시발언문제로 구속되고 「개스턴 시거」美國무성 亞太차관보가 방한하는 가파른 정국 전개속에 ‘11·29개헌추진 서울대회’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좌절되고 李新民黨총재는 12월 24일 이른바 ‘李敏雨 구상’을 발표 新民黨 분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全대통령은 1월 12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합의개헌의 조속매듭을 거듭 촉구’하면서 합의가 안될 경우 중대결단을 예고했다.

이틀후인 1월14일 서울대생 朴鍾哲군 고문치사 사건이 불거지고 釜山 형제복지원 사건등이

잇따르면서 난기류에 빠져든 개헌논의는 ‘고문정국’으로 바뀌어 ‘2·7추도회’ ‘3·3대행진’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지더니 4월8일 新民黨은 두 金씨가 신당 창당을 선언함으로써 마침내 분당의 길을 걷고 말았다. 그러자 全대통령은 국회헌특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고 新民黨이 분당하는 정국등을 들어 마침내 ‘4·13개헌 유보’의 결정을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무엇보다도 평화적 정부이양으로 들어서게 될 ‘새정부’의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함에 있었다고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강경방법으로 개헌을 도출하지 않은 것은 당초의 합의개헌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오히려 ‘새정부’에 부담을 안겨준다고 본 때문이었다.

정부이양 10여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새정부’의 계속성 여부에 있었다. 全대통령은 ‘새정부’의 성격규정을 유보하고 있으나 현행법절차에 따라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겠다고 밝혀 새정부가 기존의 정부의 연속성을 중단하는 정부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全대통령의 ‘결정’의 또다른 배경에는 정국운영 주도권의 확보라는 또다른 측면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당시 70명 이상의 의원들이 新民黨을 탈당, 統一民主黨 창당에 참여한 것은 여권으로는 충격적 사태였으며, 이 신당이 물고 올 ‘강경태풍’을 사전에 잠재우고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개헌논의 지양’이란 대응카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이 중대발표는 여권은 물론 개헌의 기대에 찻던 대다수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이는 곧 6·10대회와 6·26대회를 불러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 개헌관련 일지

〈1986년〉

- 1월16일 대통령 국정연설서 89년까지 개헌논의 유보 천명
- 2월12일 新民黨직선제개헌 서명개시
- 2월24일 全대통령, 청와대 3당대표회담에서 89년 개헌가능 의사 피력
- 3월 8일 民正黨, 89년 개헌당론 채택
- 3월11일 新民黨 개헌추진 결성식
- 4월30일 全대통령, 청와대 3당대표 회동, 국회서 합의하면 임기중 개헌용의 표명
- 5월 1일 국무회의, 정부 헌정연구위 구성의결
- 5월 3일 仁川사태
- 5월29일 盧·李회담, 국회 개헌 특위설치 합의
- 6월3일 全대통령, 新民黨 李총재단독회담,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고 피력
- 6월24일 국회헌특위구성 결의
- 7월11일 民正黨 盧대표, 정기국회에서 합의개헌추진→87년초 民正黨 후계자 선정
→87년말 ~ 88년초 새헌법에 따른 총선실시등 정치일정 공개
- 7월30일 국회헌특위 출범

- 8월18일 民正黨, 내각제개헌안 확정
- 9월29일 新民黨 李 총재, 두 金씨, 헌특위 불참선언
- 10월10일 新民黨 선택적국민투표 제의
- 11월 5일 金大中씨 직선제 전제 대통령 불출마 선언
- 11월29일 新民黨 서울대회 무산
- 12월16일 3당대표 연쇄회담, 국회헌특위 시한 연장 합의
- 12월24일 新民黨 李 총재, 조건부내각제 수용 용의(李敏雨구상) 발언
- 12월26일 民正黨 盧대표, 李敏雨구상 긍정검토 천명

<1987년>

- 1월 7일 李 총재 온양행
- 1월23일 民正黨 盧대표 연두회견, 합의개헌되면 사면·복권 검토
- 2월19일 新民黨 李哲承의원 내각제 지지발언
- 3월 3일 蔡汝植헌특위위원장 7월까지 개헌안되면 89년 개헌 국민투표 검토
- 3월25일 조대통령, 盧대표에게 개헌정국 전권위임
- 3월31일 李 총재·두 金씨 3자 회동, '仁石구상' 사용불가등 3개항 합의
- 4월 8일 두 金씨 新民黨 분당선언
- 4월 9일 신당 籌備委구성
- 4월11일 民正黨의 총, 합의개헌 불가능 선언
- 4월13일 대통령 특별담화, 개헌유보

第6節 6月抗爭과 6·29宣言

‘4·13개헌유보’ 발표이후 전국적으로 시위가 줄을 잇는 안개정국이 계속되었다. 말없던 민의의 폭발은 대량연행과 구속의 일상화로 견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6월 들어서 이러한 양상은 더욱 거세져 야권에서는 6월 10일 ‘고문살인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가려 하자 정부에서는 8일 이를 불법대회라고 지적,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야권의 대회를 원천봉쇄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자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야권은 金泳三 民主黨총재의 기자회견 및 성명을 통해 民正黨의 대통령후보지명 전당대회의 즉각 중지와 4·13호헌조치 철회를 촉구하면서 규탄대회 강행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위태로운 분위기에 민중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10일로 예정된 ‘고문살인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국민대회’를 전국 20개 지역에서 실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운동본부가 밝힌 행사지역 및 장소는 △서울의 대한성공회 대성당을 비롯, △부산 남포동

대각사 △大邱중앙 공원 △광주 YMCA대강당 △울산 옥교동 주리원 △대전 가톨릭 문화회 관 △청주 남문로1가 제일교회 △전주 덕진성당 △포항 죽도시장입구 △춘천 죽림동 성당 △원주 원동성당 △인천 동인천역앞 △성남 종합시장앞 △천안 오룡동 성당 △안동 문화회관 △군산 월명동 성당 등이었다. 행사시간은 淸州 오후 3시, 安東 오후 4시, 蔚山·城南 오후 7시 등이고 나머지 지역은 오후 6시라고 밝혔다.

서로의 팽팽한 대결속에 6월 10일 ‘6·10 국민대회’ 서울대회장인 대한성공회 대성당 안에 서는 사전에 들어간 楊淳植 통일민주당 부총재, 桂勳梯민총련 의장대행, 金顯秀 민주당의원, 金命潤 민주협 부의장 등 국민운동본부 관계자 20명이 상오 8시30분께 성당내 영빈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회의를 갖고 국민대회 일정을 재점검 하였다.

하오 5시 40분께 변호사 22명이 성공회 앞에 도착,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다 30분 만에 해산됐고 5시 45분께는 金哲사민당 당수, 文益煥목사의 부인, 朴容吉 민가협공동의장, 민주당 張基旭의원 등도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하오 6시 55분께 金泳三 민주당총재와 崔炯佑부총재가 탄 승용차를 앞세운 民主黨의원들의 승용차 10여대가 성공회앞에 도착하자 시민들은 ‘민주주의만세’를 외치며 박수로 맞았다. 6시 25분께는 중구 오장동 제일교회 신도 10여명이 봉고차를 도착, 안으로 들어가려다 저지당했다. 하오 6시 30분께 광화문쪽에 집결한 학생, 시민, 재야단체회원등 2백여명의 시위대가 ‘독재타도’의 구호를 외치며 성공회쪽으로 접근하자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경찰이 최루탄으로 저지, 해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1백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사진 7-6〉

6월항쟁 시위군중(대구백화점 앞)

성공회안에서 대회를 마친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은 하오 8시 30분께 경찰이 金命潤 민주협 부의장등 5명을 연행하자 이중 30여명이 11일 상오 6시까지 철야농성했다.

이들은 11일에도 성당 앞 도로를 점거 경찰과 대치한 상황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한편 6·10 시위와 관

런, 시민과 경찰관등 7백38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전국에서 연행된 인원은 3천8백54명이고 이중 3천2백여명이 훈방조치되고 나머지 6백여명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철야 정밀분류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 연일 시위와 연행이 연속되면서 ‘비상조치설’ 까지 나돌게 되었다.

한편 大邱의 경우 당초 중앙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회는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고 노상에서 약식대회를 치른 뒤 대회에 참석하러온 학생, 시민등 3천여명이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의 대회장봉쇄로 중앙공원에 들어가지 못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大邱慶北지역 회원과 학생 1백50여명은 대회시작 시간인 하오 6시께 애국가 제창을 한 뒤 ‘6백만 大邱지역 애국시민들에게’란 제목의 유인물을 낭독, 5분간 약식대회를 연 뒤 경찰의 제지로 해산됐다.

이때 공원입구쪽으로 몰려든 학생, 시민 5백여명은 유인물 5백여장을 시민들과 택시기사들에게 나눠준 뒤 태극기를 흔들고 박수소리에 맞춰 ‘호헌철폐’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기도 했다.

서울의 명동성당내의 농성은 계속되고 전국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계속되었다.

18일 오후 6시쯤 啓明大생 3천여명이 大邱시 계산동 오거리 고려예식장 앞에서 ‘최루탄추방’ ‘호헌철폐’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는등 반월당 네거리와 동성로 런던제과앞 등 10여곳에서 大邱시내 5개대생등 1만여명이 산발적 시위를 했다. 학생들은 경찰이 최루탄을 쏘면 피했다가 또다시 다른 곳에 모이는 방법으로 밤 늦게까지 시위를 계속했다.

일부시민들은 학생들의 대열에 참가, ‘최루탄을 쏘지마라’는 구호를 같이 외치기도 했는데 이날밤 중심가인 중앙통 일대의 상가는 거의 철시했다.

오후 7시쯤 중앙통 서쪽 입구에 모인 5천여명의 학생들은 동원예식장까지 이르는 2백여개의 도로를 점거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페인트로 길바닥에 쓰고 30여분간 연좌시위를 하였다.

학생들은 밤 10시20분쯤 반월당 네거리에서 시위진압차 출동한 남부경찰서장 승용차에 화염병과 돌을 던져 전소시켰다. 이날 시위도중 三德파출소와 南山 4파출소가 불에 탔고 남산 1·3파출소 및 東山·中央·達城파출소등 5개파출소가 시위대의 투석으로 유리창과 사무실 집기등이 파손되기도 하였다. 술한 중경상자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시위는 그칠줄 몰랐고 급기야 李漢烈군의 죽음으로까지 번져 정국은 견잡을 수 없게 되었다. 당혹한 정부 여당 뿐만아니라 야당조차도 ‘비폭력’으로 선회하고 대화의 실마리와 해결책 찾기에 나서게 되었다.

‘6·10대회’는 시위양상이나 파문, 규모면에서 5·17이후 최대사건이었으며, 범야권이 주

도한 국민대회는 동기유발에 불을 지폈으나 민의의 폭발적인 힘앞에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까지도 새로운 변신을 꾀하게 한 민주화 항쟁의 획기적 사건이 되었다.

급기야 6월 24일 全斗煥대통령은 청와대에서 金泳三 민주당총재와 약 3시간동안 만나 시국수



〈사진 7-7〉 6·29 선언 (노태우 민정당 대표)

습방안을 논의하였다. 5공화국 출범후 최초의 대좌인 이날 회담에서 全대통령은 개헌논의의 재개를 다짐하고 6·10사태 관련 구속자의 석방을 내각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全대통령은 金大中씨에 대한 연금해제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표시, 이에 따라 12시간뒤 해제조치가 이뤄졌다.

이후 6월 29일 盧泰愚民正

黨대표가 직선제 합의개헌, 대통령선거법 개정, 金大中씨 사면·복권, 기본적 인권신장, 언론기본법개폐, 지방의회구성 검토, 정당활동 보장, 사회정화조치 등을 포함한 8개항에 관한 특별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실로 파란만장하고 엄청난 희생을 치른 끝에 나온 역사적 일대사안이었다.

제12대 총선이후 한국사회는 그동안 개헌문제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갈등과 대립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렀던 것이다. 유신헌법에 의한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었으며 또 제5공화국 출범때에도 대통령 선출을 대통령 선거인단선거에서 선출하도록 헌법이 바뀌어졌었다.

이에 반대하던 재야·학생들은 대통령직선제를 위시한 민주화 항목을 내걸고 가두시위등 극한 투쟁을 계속, 사회가 날로 혼란에 빠지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더이상 민의를 억누르는 것이 불가함을 깨닫고 1987년 6월 29일 民正黨의 盧泰愚 대표위원은 이른바 「6·29 선언」으로 일컬어지는 민주화 8개항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계기로 정국타개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던 것이다.

第7節 改憲案과 國民投票

6·29선언에 따라 국회는 1987년 10월 12일 본회의를 열어 與野가 공동발의한 대통령중심 직선제 개헌안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합의 의결했다.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6조로 짜여진 이 개헌안은 27일의 국민투표를 거쳐 1988년 2월 25일 새정부출범과 더불어 발효될 예정이었다. 국회는 개헌안의결에 따라 이를 정부로 이송했고 정부는 이를 10월 27일 국민투표에 붙였다.

27일의 국민투표에서 총 2천5백61만5천6백48명의 투표인 가운데 93.1%가 투표했고 78.2%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확정됐다. 大邱는 1백26만2천4백86명의 투표인 가운데 92.9%가 투표했고 74.13%의 찬성율을 나타냈다<表 7-13, 14>.

市道別 投票開票現況
<表 7-13>

市道別	투표인수	투 표 수	찬 성	반 대	무 효	기 권	투표율(%)	찬성율(%)
서울	6,393,728	4,183,464	3,921,067	207,300	55,091	2,210,26432	65.4	93.7
釜山	2,259,577	1,637,111	1,515,709	96,967	24,167	622,466	72.5	92.6
大邱	1,262,486	935,896	869,421	54,860	11,615	326,590	74.13	92.9
仁川	933,522	667,581	624,513	33,397	9,669	265,941	71.5	93.5
光州	513,958	337,071	312,441	20,516	4,090	176,887	65.6	92.7
京畿	3,284,968	2,674,657	2,498,639	125,272	50,598	610,311	81.4	93.4
江原	1,042,573	905,813	841,597	51,245	12,858	136,760	86.9	92.9
忠北	852,999	737,294	681,548	44,142	11,642	115,705	86.4	92.4
忠南	1,781,759	1,599,211	1,486,264	89,423	22,816	182,548	89.8	93.0
全北	1,296,644	1,092,633	1,009,932	66,960	15,618	204,011	84.3	92.4
全南	1,660,186	1,466,724	1,361,788	82,287	22,230	193,462	88.3	92.9
慶北	1,882,286	1,728,173	1,606,634	96,308	25,231	154,113	91.8	93.0
慶南	2,177,019	1,838,765	1,699,659	112,446	26,458	338,254	84.5	92.4
濟州	277,943	226,335	211,413	11,579	3,334	51,608	81.4	93.4
합계	25,615,648	20,032,276	18,640,625	1,092,70	295,345	5,587,372	78.2	93.1

大邱 投票開票狀況
<表 7-14>

區 別	투 표 인 수	투표수	찬 성	반 대	무 효	기 권	투표율(%)	찬성율(%)	반대율(%)
합 계	1,262,486	935,896	869,421	54,860	11,615	326,590	74.13	92.9	5.9
中 區	105,252	78,951	73,169	4,702	1,080	26,301	75.01	92.6	6.0
東 區	201,759	147,202	136,137	9,171	1,894	54,557	72.96	92.5	6.2
西 區	346,340	253,646	235,222	14,982	3,442	92,694	73.24	92.7	5.9
南 區	222,811	159,240	148,534	8,955	1,751	63,571	71.47	93.3	5.6
北 區	195,175	154,472	143,475	9,137	1,860	40,703	79.15	92.9	5.9
壽城區	191,149	142,385	132,884	7,193	1,588	48,764	74.49	93.3	5.6

第8章 第6共和國時代

第1節 第13代 大統領選舉

1987년 12월 16일에 실시된 직선제 개헌에 따른 제13대 대통령선거는 6월 항쟁의 결과에 의한 군정종식과 문민정부 수립가능성, 지역별로 어느 후보가 집권할 것인지에 대한 지역감정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비상하게 쏠린 나머지 전국 유권자 2천5백87만3천6백24명중 2천3백6만6천4백19명이 투표하여 건국 이래 가장 높은 89.2%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것은 지난 71년 共和黨의 朴正熙 후보와 新民黨의 金大中 후보가 격돌한 제7대 대통령 선거때의 76%보다 13%나 높은 투표율이었다. 시·도별 투표율은 光州가 92.4%로 가장 높았고 忠北이 91.0% 慶北 91.0% 江原 90.7% 全北 90.3% 全南 90.3%로 6개 시도가 90%를 넘었고 이밖에 大邱 89.9% 慶南 89.5% 濟州 88.5% 釜山 88.4% 京畿 88.4% 忠南 88.3% 仁川 88.1% 서울88.1% 순으로 최종 집계됐다. 大邱의 경우 총유권자 1백27만5천2백93명중 1백14만6천6백52명이 투표했으며 기권자수는 12만 8천 4백 25명으로 나타났다.

慶北도내 33개 시·군의 투표율은 총유권자 1백87만8백25명중 1백70만9천2백44명이 투표했으며 시·군별로는 靑松郡이 가장 높은 93.3%로 71년 善山郡의 95.9%에 이어 이 선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 선거의 후보별 득표양상은 民正黨의 盧泰愚후보, 民主黨의 金泳三후보, 平民黨의 金大中후보, 共和黨의 金鍾泌후보가 제각기 忠南이남을 4개 지역으로 분할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중부지역 일대에서 대세를 가름한 것이 특징이었다.



〈사진 8-1〉 6공 헌법국민투표
(중리동 제3 투표구 투표소)



〈사진 8-2〉 13대 대선 유세

네 후보 모두가 연고지에서 선전, 盧泰愚 후보가 大邱·慶北, 金泳三 후보가 釜山·慶南, 金大中 후보가 光州·全南, 金鍾泌 후보는 忠南에서 각각 승리 했다. 이들 후보 가운데 盧후보는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했으며 서울·京畿지역에서도 예상외의 선전을 함으로써 당선 하게 됐다. 투표상황은 <表 8-1, 2, 3, 4, 5, 6, 7, 8>과 같다.

第13代 大統領選舉 現況
市·道別人口數對 選舉人數 比率

<表 8-1> (單位:名)

市·道別 區分	計	서 울	釜 山	大 邱	仁 川	光 州	京 畿
人口數 (A)	41,338,959	9,973,913	3,625,497	2,074,049	1,477,049	900,190	5,164,693
選舉人數 (B)	25,873,624	6,486,710	2,290,038	1,275,293	955,271	520,488	3,352,554
比率 (B/A)	62.6	65.0	63.2	61.5	64.7	57.8	64.9

江 原	忠 北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1,727,734	1,402,889	2,948,872	2,184,340	2,805,214	3,031,524	3,555,270	466,825
1,040,632	854,232	1,788,014	1,298,522	1,659,767	1,878,025	2,193,206	280,872
60.2	60.9	60.6	59.4	59.2	61.9	61.7	60.2

市·道別 選舉人數

<表 8-2> (單位:名)

選舉人數	서 울	釜 山	大 邱	仁 川	光 州	京 畿	江 原
25,873,624 (100%)	6,486,710 (25.1)	2,290,038 (8.8)	1,275,293 (4.9)	955,271 (3.7)	520,488 (2.0)	3,352,554 (13.0)	1,040,632 (4.0)

忠 北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854,232 (3.3)	1,788,014 (6.9)	1,298,522 (5.0)	1,659,767 (6.4)	1,878,025 (7.3)	2,193,206 (8.5)	280,872 (1.1)

歷代 大統領選舉 投票狀況

<表 8-3> (單位:名)

代別 區分	2代	3代	4代	5代	6代	7代	13代
選舉人數	8,259,428	9,606,870	11,196,490	12,985,015	13,935,093	15,552,236	25,873,624
投 票 數	7,275,833	9,067,063	10,862,272	11,036,175	11,645,215	12,417,824	23,066,419
投票率(%)	88.1	94.4	97.0	85.0	83.6	79.8	89.2

〈表 8-4〉 市・道別 投票狀況 (單位:名)

市・道 區分	計	서 울	釜 山	大 邱	仁 川	光 州	京 畿
選舉人數	25,873,624	6,486,710	2,290,038	1,275,293	955,271	520,488	3,352,554
投 票 數	23,066,419	5,717,805	2,024,324	1,146,652	841,983	481,126	2,962,014
投票率(%)	89.2	88.1	88.4	89.9	88.1	92.4	88.4
江 原	忠 北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1,040,632	854,232	1,788,014	1,298,522	1,659,767	1,878,025	2,193,206	280,872
943,379	777,739	1,578,557	1,172,867	1,498,755	1,709,244	1,963,376	248,598
90.7	91.0	88.3	90.3	90.3	91.0	89.5	88.5

〈表 8-5〉 候補者別 得票數對比 (單位:名)

有效投票數	候補者別得票數				
	民主正義黨 盧 泰 愚	統一民主黨 金 泳 三	平和民主黨 金 大 中	新民主共和黨 金 鍾 泌	한主義統一韓國黨 申 正 一
22,603,411	8,282,738	6,337,581	6,113,375	1,823,067	46,650
比率(100%)	36.6	28.0	27.1	8.1	0.2

〈表 8-6〉 市・道別 候補者別 得票率 對比

市・道別 候補者別	計	서 울	釜 山	大 邱	仁 川	光 州	京 畿	江 原	忠 北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民主正義黨 盧 泰 愚	36.6	30.0	32.1	70.7	39.4	4.8	41.5	59.3	46.9	26.2	14.1	8.2	66.4	41.2	49.8
統一民主黨 金 泳 三	28.0	29.1	56.0	24.3	30.0	0.5	27.5	26.1	28.2	16.1	1.5	1.1	28.2	51.3	26.8
平和民主黨 金 大 中	27.1	32.6	9.1	2.6	21.3	94.4	22.3	8.9	11.0	12.4	83.5	90.3	2.4	4.5	18.6
新民主共和黨 金 鍾 泌	8.1	8.2	2.6	2.1	9.2	0.2	8.5	5.4	13.5	45.0	0.8	0.3	2.6	2.6	4.5
한主義統一韓國黨 申 正 一	0.2	0.1	0.2	0.3	0.1	0.1	0.2	0.3	0.4	0.3	0.1	0.1	0.4	0.4	0.3

〈表 8-7〉

候補者別 得票狀況（全國）

委員會別	區分	選舉人數	投 票 數	候 補 者 別 得 票 數						無 效 投票數	棄權數	投票率 (%)	有 效 投票率 (%)
				民主正義黨	統一民主黨	平和民主黨	新民主共和黨	한 主義統一韓國黨	計				
				盧 泰 愚	金 泳 三	金 大 中	金 鍾 泌	申 正 一					
合 計		25,873,624	23,066,419	8,282,738	6,337,581	6,113,375	1,823,067	46,650	22,603,411	463,008	2,807,205	89.2	98.0
서 울		6,486,710	5,717,805	1,682,824	1,637,347	1,833,010	460,988	4,560	5,618,729	99,076	768,905	88.1	98.3
釜 山		2,290,038	2,024,324	640,622	1,117,011	182,409	51,663	3,612	1,995,317	29,007	265,714	88.4	98.6
大 邱		1,275,293	1,146,652	800,363	274,880	29,831	23,230	3,774	1,132,078	14,574	128,641	88.9	98.7
仁 川		955,271	841,983	326,186	248,604	176,611	76,333	1,126	828,860	13,123	113,288	88.1	98.4
光 州		520,488	481,126	22,943	2,471	449,554	1,111	74	476,153	4,973	39,362	92.4	99.0
京 畿		3,352,554	2,962,014	1,204,235	800,274	647,934	247,259	5,621	2,905,323	56,691	390,540	88.4	98.1
江 原		1,040,632	943,379	546,569	240,585	81,478	49,954	2,628	921,214	22,165	97,253	90.7	97.7
忠 北		854,232	777,739	355,222	213,851	83,132	102,456	2,796	757,457	20,282	76,493	91.0	97.2
忠 南		1,788,014	1,578,557	402,491	246,527	190,772	691,214	3,902	1,534,906	43,651	209,457	88.3	96.9
全 北		1,298,522	1,172,867	160,760	17,130	948,955	8,629	1,501	1,136,975	35,892	125,655	90.3	97.4
全 南		1,659,767	1,498,755	119,229	16,826	1,317,990	4,831	994	1,459,870	38,885	161,012	90.3	99.6
慶 北		1,878,025	1,709,244	1,108,035	470,189	39,756	43,227	7,812	1,669,019	40,225	168,781	91.0	98.1
慶 南		2,193,206	1,963,376	792,757	987,042	86,804	51,242	7,567	1,925,412	37,964	229,830	89.5	97.4
濟 州		280,872	248,598	120,502	64,844	45,139	10,930	683	242,098	6,500	32,274	88.5	97.4

〈表 8-8〉

候補者別 得票狀況（大邱）

開票區名	選舉人數	投票數	候 補 者 別 得 票 數						無 效 投票數	棄權數	投票率 (%)	有 效 投票率 (%)
			民 主 正 義 黨	統 一 民 主 黨	平 和 民 主 黨	新民主 共和黨	한 主義統一韓國黨	計				
			盧 泰 愚	金 泳 三	金 大 中	金鍾泌	申 正 一					
西 區	(9,342) 350,291	(9,153) 316,781	226,444	70,991	7,667	6,299	1,265	312,666	4,115	33,510	90.4	98.7
中 區	(3,147) 104,996	(3,070) 94,186	65,203	23,013	2,585	1,864	272	92,937	1,249	10,810	89.7	98.7
北 區	(5,807) 196,065	(5,634) 175,962	126,672	38,546	4,613	3,263	457	173,551	2,411	20,103	89.7	98.6
東 區	(6,792) 202,921	(6,635) 183,114	129,607	42,187	4,749	3,560	593	180,696	2,418	19,807	90.2	98.7
壽城區	(6,358) 194,153	(6,221) 173,660	115,085	47,470	4,637	3,874	535	171,601	2,059	20,493	89.4	98.8
南 區	(7,521) 226,867	(7,279) 202,949	137,352	52,673	5,580	4,370	652	200,627	2,322	23,918	89.5	98.9
合 計	(38,967) 2,275,293	(37,992) 1,146,652	800,363	274,880	29,831	23,230	3,774	1,132,078	14,574	128,641	89.9	98.7

第2節 第13代 國會議員選舉

I. 改憲後の 첫 總選舉

1988년 4월 26일 실시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1988년 2월 25일 제6공화국이 출범한 후 첫 입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로서 그 어느때보다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 속에 치러진 선거였다. 그 동안의 경과를 보면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1988년 2월 25일 발효된 제6공화국 헌법에 따라서 새로운 국회 구성을 위하여 여야는 길고도 지루한 국회의원 선거법 협상에 들어갔다.

여야는 선거구제 결정 문제로 대립하여 난항을 거듭하다가 결국 民正黨에서 民主黨·平民黨 등의 야당이 주장해 온 소선거구제 안을 받아들여 새 국회의원 선거법이 확정되었다.

이 국회의원 선거법의 주요골자는 선거구제에 있어 2백13인의 중선거구에서 1백31인의 소선거구제로 하였고, 의원정수는 2백76인 정수에서 지역구 2백24인과 이의 3분의 1인 75인을 전국구로 한 2백99인을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후보자 기탁금액을 정당 및 전국구 후보자 1천만원과 무소속 후보자 2천만원으로 인상하고 투표통지표 교부 입회인 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리하여 4월 8일 선거일을 공고하고 4월 26일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시행하였다. 선거일이 공고되자 각 정당들은 후보등록을 마친후 제5공화국의 비리와 光州 民主化運動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선거전을 펼쳤다.

지역구 의원정수 2백24인에 총 후보자 수 1천46인이 입후보하여 4.6:1의 치열한 경쟁을 보였으며 투표율은 75.8%로 12대 총선에 비해 8.8% 낮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치열한 선거전만큼이나 투표결과는 예상을 뛰어 넘는 정국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여당인 民正黨이 전체의석 2백99석중 불과 1백25석만을 차지하여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는 헌정초유의 여소야대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또한 야당에서도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여 서울등 수도권에서 강세를 보인 平和民主黨이 70석을 확보하여 제1야당이 되었고 統一民主黨 59석, 新民主共和黨 35석, 한겨레民主黨 1석, 무소속이 9석을 차지하는 이변을 낳았다.

개표결과 民正黨은 江原·忠北·京畿·慶北·大邱·仁川에서, 民主黨은 釜山·慶南에서, 平民黨은 서울과 全南·北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 선거에서도 지난 대통령선거때와 같이 정당별 지역연고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과거의 與村野都 현상 대신 지역연고성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입증했다.

盧泰愚 대통령과 3金등 각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의 연고에 따라 民正黨은 大邱·慶北의



〈사진 8-3〉

13대 총선 개표장

전체 29석중 25석을 차지, 압승을 하였고 民主黨은 金泳三씨의 연고지인 釜山에서 1석을 제외한 14석을 석권하였다. 平民黨은 光州·全南·全北에서 1석(全南)을 제외한 36석을 모두 차지했다.

또 金鍾泌총재가 이끄는 共和黨 역시 아성인 忠南을 발판으로 忠淸道에서 완승을 거뒀다. 民正黨이 전승한 大邱

의 경우 中區에서는 신인인 劉守鎬후보가 民主黨 원내총무인 金鉉圭의원을 제치고 승리한 것을 비롯 達西區에서도 역시 신인인 金漢圭후보가 國民黨 李萬變총재를 누르고 당선됐다.

또 西甲에서는 鄭鎬溶후보가 압승을 했으며 서울에서는 지역구에 첫 출전한 崔雲芝의원이 2.12총선 기린아였던 俞成煥의원을 꺾었고 東區에서는 朴浚圭후보가 3선 가도를 치달던 睦堯相의원에게 제동을 걸었다.

이밖에 大邱 北區와 壽城區에서 金瑑泰, 李致浩의원이 3선고지를 차지했으며 南區의 李廷武후보 역시 낙승했다. 또 慶北道內에서도 民正黨은 李珍雨(浦項)·金一潤(慶州)·黃潤鎰(慶州郡)·李相得(迎日·鬱陵)·金潤煥(軍威·善山)·張永喆(漆谷·星州)·柳惇佑(安東郡)·鄭東允(永川)·金瑾洙(尙州)·朴定洙(金泉·金陵)·俞學聖(醴泉)·鄭昌和(義城)·黃炳禹(青松·靈德)·金重權(蔚珍)·金晋滌(榮州·榮豐)·吳漢九(英陽·奉化)·朴在鴻(龜尾)후보가 당선 17석을 확보했다. 民主黨은 申榮國(聞慶·店村)·吳景義(安東市)후보, 共和黨은 具滋春(達成·高靈)·李在淵(慶山·淸道)후보가 당선, 각각 2석만을 확보했을 뿐이다.

13대 총선에는 전국 총유권자 2천 6백 19만 8천 2백 5명 중 1천 9백 85만 8백 15명이 투표에 참가해 75.8%의 투표율을 기록하여 지난 85년 2월 12일에 실시된 총선투표율 84.6%보다 8.8% 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慶北이 83.3%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69.3%로 가장 낮았다.

평균 76.9%의 투표율을 보인 大邱는 中區가 76.9%로 가장 높았고 達西區가 74.6%로 가장 낮았다. 慶北은 善山이 9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반면 龜尾가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大邱지역 입후보자와 전국구 후보자는 〈表 8-9, 10〉과 같다.

제13대 大邱地域 候補者 (1989년)

① 대구 중구 (5인)

<表 8-9>

성명	성별	생년	주 소	직 업	학 력 및 경 력	소속정당단체명	득표수	비 고
劉守鎬	남	1931	대구시 중구 삼덕3가 112-12	변 호 사	고려대 법정대학원 졸업 대구지법및 고법판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민주정의당	47,594	당 선
金鉉圭	"	1937	대구시 중구 서문로2가 24-1	국회의원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졸업 10,11,12대 국회의원 통일민주당 원내총무	통일민주당	31,660	
具 永	"	1943	대구시 서구 비산4동 251-13	정 당 인	영남대 경영대학원 1년수료 13대대선 대구·경북선거 대 책유세국장 평화민주당 중앙위원	평화민주당	549	
李守萬	"	1950	대구시 중구 동인1가 344-6	학 원 장	영남대 정의과 졸업 행정공무원 매일신문사 기자	신민주공화당	2,783	
徐秉煥	"	1949	대구시 중구 동인2가 18-4	국제문화 연 구 소 이 사 장	뉴저지주립대학원 졸업 미주동아일보 편집국장 뉴저지주 한인학교 설립 이사장	무 소 속	1,099	

② 대구 동구 (5인)

朴浚圭	남	1925	대구시 동구 신암4동 620-62	무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유엔총회 대표 국제의회연맹이사	민주정의당	85,854	당 선
陸堯相	"	1935	대구시 동구 신암3동 221-5	국회의원	서울대 법대 졸업 11,12대 국회의원 통일민주당 인권옹호위원장	통일민주당	46,725	
安柄遠	"	1933	대구시 동구 효목동 120-63	정 당 인	동국대 정경과 졸업 영천YMCA 이사장 대구대 강사	평화민주당	2,163	
崔圭泰	"	1941	대구시 동구 신암4동 251-1 큰고개A5동8호	회사대표	영남대 법학과 졸업 (주) 세기항공 경영 신민주공화당 동구위원장	신민주공화당	16,230	
權寧植	"	1938	대구시 동구 각산동 389-2	정 당 인	경북대 대학원 졸업 유신학원장 개성학교 총동장회 사무국장	한겨레민주당	5,350	

③ 대구 서구갑 (5인)

성명	성별	생년	주 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단체명	득표수	비고
鄭鎬溶	남	1932	대구시 서구 중리동 99 중리시영A9동207호	무	서울대 공과대학원 졸업 육군참모총장 내무·국방부장관	민주정의당	52,847	당선(중도사퇴. 補選으로 文憲甲당선)
徐勳	"	1942	대구시 서구 내당2동 969-1	정당인	전남대 대학원 정외과 졸업 김영삼총재 보좌역 민주산악회 대구·경북 지부대변인	통일민주당	19,242	
梁義綱	"	1925	대구시 서구 내당4동 411-40	정당인	청구대 법학과 졸업 3대 대구시의회 의원 평민당 대구·경북선거 대 책위원장	평화민주당	884	
白承弘	"	1943	대구시 서구 평리4동 1428-7	정당인	영남대 경영대학원 졸업 4.19동지회장 남북학생회담 남한측대표	신민주공화당	22,234	
金顯根	"	1959	대구시 서구 중리동 꽃동네A101동510호	사회운동가	서울대 수학과 졸업 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연구회 민중의당 창준위 총무국장	민중의당	2,044	

④ 대구 서구을 (5인)

崔蕓芝	남	1927	대구시 서구 평리3동 1039-1	국회의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관세청차장 건국,명지,한양대교수	민주정의당	43,323	당선
俞成煥	"	1931	대구시 서구 평리1동 1059-4	국회의원	영남대 경영대학원 수료 경북도도의회 의원 통일민주당 중앙청년 위원 회위원장	통일민주당	30,575	
辛達善	"	1934	서울 강남구 청담동 109-15	정당인	동국대 행정대학원 졸업 민주공화당 청년,총무국장 신민주공화당 대구·경북지 부 사무국장	신민주공화당	5,391	
徐重鉉	"	1951	대구시 서구 평리동 484-2	정당인	경북대 대학원 졸업 신명여고 교사 경북대 강사	한겨레민주당	2,333	
李宗燮	"	1930	대구시 중구 서성로2가 7번지	정당인	경북대 정치학과 졸업 경북대 총학생회장 11대국회의원 무소속 출마	한국국민당	4,785	
崔 洪	"	1962	대구시 동구 신암4동 664-4	노동자	대륜고 졸업 (주) 신아금속 근무 이현공단 노동운동	민중의당	1,730	

⑤ 대구 남구 (5인)

성명	성별	생년	주 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단체명	득표수	비고
李廷武	남	1941	대구시남구대명1동629-1 정우맨션1동301호	(주)대구 백화점 부회장	서울대 법대 졸업 대구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대구시 행정자문위원	민주정의당	55,611	당선
成萬鉉	"	1943	대구시남구봉덕3동686	정당인	고려대 대학원 졸업 럭키금성상사 이사	통일민주당	14,440	
宋孝翼	"	1940	대구시남구대명10동 1593-14	잡지사	연세대 행정대학원 수료 민주협통일안보특별위원 인물과진상·월간상품 아이디어방호사 대표	평화민주당	1,839	
金海碩	"	1939	대구시남구대명8동2007-9	사회 사업가	중앙대 정외과 졸업 대구시 상임자문위원 한국國民黨 국제분과위원장	신민주 공화당	42,540	
申鐵旭	"	1924	대구시남구봉덕3동1238	협성교육 재단이사장	영남대 대학원 졸업 8대 국회의원 10대 대구 YMCA 이사장	무소속	18,352	

⑥ 대구 북구 (4인)

金瑑泰	남	1936	대구시 북구 침산동 536	국회의원	서울대 법대 졸업 11,12대 국회의원 민정당 중앙당 대변인	민주정의당	68,064	당선
朴承國	"	1940	대구시 북구 대현동 239-14	오복예식장 대표	영남대 대학원 졸업 통일민주당 대통령선거 대책 위원장 신민당 대구 제2지구당위원장	통일민주당	62,293	
徐正植	"	1928	대구시 북구 산격동 1258	대원산업 대표	영남대 대학원 졸업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대구 북구 개발 자문위원회 위원장	신민주 공화당	14,136	
徐正達	"	1958	대구시 북구 노원3가 990-4	자유업	영남대 통계학과 졸업 통일민주당 중앙청년위원회 대구 서구 조직부장겸부지부장	무소속	3,314	

⑦ 대구 수성구 (5인)

李致浩	남	1939	대구시 壽城區 만촌2동 955-1	국회의원	연세대 법학과 졸업 서울·청주지방법원 판사 11,12대 국회의원	민주정의당	66,731	당선
尹榮卓	"	1933	대구시 壽城區 중동 532-10 채한빌라1-206	국회의원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12대 국회의원 건설부 서울국토관리청장	통일민주당	50,184	

⑧ 대구 수성구 (5인)

성명	성별	생년	주 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단체명	득표수	비고
李尙熹	남	1934	대구시 壽城區 범어2동 186-6	변 호 사	고려대 정치학과 졸업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사 신민주공화당 壽城區 지구당 위원장	신 민 주 공 화 당	21,727	당 선
李康哲	"	1947	대구시 壽城區 수성2가 123-2	정 당 인	경북대 정외과 졸업 민주통일국민회의 중앙위원 겸 대구·경북 조직책 공정선거감시단 대구·경북 본부 부분부장	한 거 레 민 주 당	8,459	
權萬晟	"	1948	대구시 壽城區 두산동 882-7	정 치 인	한국외국어대 정외과 졸업 국제경제연구원 연구관 민추협 운영위원장겸 인권옹 호특별위원	무 소 속	2,366	

⑨ 대구 달서구 (5인)

金漢圭	남	1940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110 주공A29동 301호	홀트아동 복지회장	캘리포니아주립대 대학원 졸업 재미한국총유학생회장 국가보위입법회의 문공분과 전문위원	민주정의당	57,434	당 선
權炳台	"	1947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50 그린맨션108동 107호	출 판 업	서울대 법대 졸업 새길사 대표 청한건설 대표	통일민주당	25,806	
李旺植	"	1952	대구시 달서구 성서3동 424	상 업	영남대 경영대학원 수료 평민당 도지부 선전국장 민한당 대구제1지구당 사 무국장	평화민주당	1,101	
任甲壽	여	1952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110 성당주공A116동 406호	정 당 인	영남대 법학과 졸업 노동부 근로여성 상담실장 당선거대책위원회 근로여성 특별위원장	신 민 주 공 화 당	5,353	
崔한별	남	1954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137-10	목 사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원 졸업 전국새생활운동본부 총재 세계선교협회 이사	신한민주당	972	
李萬燮	"	1932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306-1	국회의원	연세대 정외과 졸업 6,7,10,11,12대 국회의원 한국國民黨 총재	국 민 당	44,742	

第13代 全國區當選者

〈表 8-10〉

성명(연령):	학 력 및 경 력
〈民主正義黨·3당통합전〉	
蔡汝植(66):	서울대문리대 정치학과 졸, 8·9·10·11·12대 국회의원, 국회의장, 민정당 대표위원
尹吉重(75):	일본대법과졸, 일본고문행정·사법양과 합격, 2·5·8·11·12대 국회의원, 국회부회장
鄭石謨(62):	서울법대졸, 서울대행정대학원 수료, 10·11·12대 국회의원, 민정당 사무총장
李炳勇(65):	연세대정의과졸, 부장판사, 변호사회 회장
朴泰俊(63):	早稻田대수료, 육사졸, 포철회장, 11대 국회의원, 민정당 대표위원
金東仁(64):	부산상고·경희대 경영대학원 수료, 한국노총위원장
李光魯(60):	육대졸, 사단·군단장, 국보위내무분과위원장, 이북5도위원장
李潤子(63):	경성여자사범졸, 전국주부교실중앙회장, 11대 국회의원, 민정당 중앙여성분과위원장
李源祚(58):	경북대졸, 제일은행상무이사, 한국은행감독원장
金鍾坤(60):	해군사관학교졸, 해군참모총장, 駐中大使
金仁基(58):	공사졸, 공군참모총장
李東鎭(60):	경희대·서울대행정대학원, 제1군사령관보좌관, 6·11대 국회의원, 國民黨 원내총무
李道先(59):	전남대농대졸, 교보문고사장, 8·9·10대 국회의원, 민정중집위원
金鍾基(52):	경북대법정대·서울대경영·성대무역대학원, 10·11·12대 국회의원, 국회농림수산위원회
池蓮泰(62):	상대법과졸, 외무부의전실장, 12대국회의원, 민정당 광주전남 위원장
朴哲彦(50):	서울법대, 대통령 정무·법무비서관, 검사장, 정무제1장관, 체육 청소년장관
趙庚穆(54):	서울공대, 과거처차관, 12대 국회의원, 13대 대통령 선거대책 본부기획단장
崔在旭(51):	경북고 영남·대구대대학원졸, 동아일보정치부차장, 경향신문사장, 청와대 대변인
劉基天(64):	평상졸, 상대경영대학원·동국대행정대학원졸, 육사8기, 충북부지사, 평남지사
羅昌柱(57):	건국대 정의과졸, 제1무임소장관실정책조정실장, 건대부총장
徐相穆(44):	경기고, 스탠포드대경제학박사, KDI부원장
朴承載(58):	고대정치과, 대학원 졸, 한국정치학회 이사
李相河(54):	광주고, 서울법대, 동아일보사회부장, 정치부장 부국장, 民自黨 부대변인
金長淑(57):	서울대약대, 여약사회장, 12대 국회의원, 민정당 여성실장
梁景子(51):	고대법대, 민정여성국장, 민정사회복지국장
李相回(56):	서울문리대 영문과, 연세대 교수, 언론중재위원장, 방송위원회 위원장
李世基(62):	국학대법학부, 동대문경찰서장, 경찰대학장
金吉弘(49):	외대영문과, 신아일보 정치부장, 경향신문부국장 겸 정치부장
姜在涉(43):	서울법대, 사시합격, 서울지검 검사
金政吉(55):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료, 대조산업대표
趙南煜(58):	서울대 법대, 중앙선관위 총무국장, 대한건설협회장
李在晃(43):	한양대 공대졸, 궤도공영 대표
林仁圭(52):	국제대, 중앙대신문대학원, 동화출판공사 대표
申英順(54):	상대치과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
都英心(43):	이화여고 졸, 佛소르본대 불문학 수료, 국회의장 비서관
洪起燮(47):	성대상과, 강릉 농협 조합장, 민정세제 특별위원
安瓚熙(60):	홍익대 법대, 서울중구청장, 인천시장, 민정서울지부사무국장
崔祥鎭(50):	중앙대, 12대 국회의원, 서울 JC홍보위원장

성명(연령):

학 력 및 경 력

宋斗源(62): 서울의대, 경남중고 동창회장, 재부서울대 동창회장
 李幸九(70): 日本慶應大 중퇴, 재일거류민단 중앙본부부단장
 魯興俊(46): 한양대, 서울시승마협회 부회장, 민정당 총재 특별보좌역
 柳升蕃(65): 성대경영대학원 수료, 광복회원, 라이온스한국A지구 총재
 黃大鳳(61): 포항수산대, 포항버스회장, 대아카훼리회장
 文峻植(68): 성대 정치과졸, 전국유도회 사무총장
 石準規(58): 동아대 정치과, 민주당 부산·경남지부 간부
 권현성(33): 미국 프린스턴대 정치과 졸, 통일민주당, 기조실부실장
 崔二鎬(57): 부산대 토공학과 졸, 수자원국장
 朴鍾律(63): 고대대학원, 국무총리 정부비서관, 8·12대 국회의원
 金沄桓(45): 동아대 정외과, 一松문화 장학회장, 김영삼 대통령 후보 경주 선거대위장
 金成龍(64): 경희대 정외과, 공군작전사령관, 공군참모총장
 金 楠(61): 단국대 정치과, 동아일보 미주지역 회장
 鄭始鳳(74): 고대경영대학원, 韓國市場協議會長
 延濟源(64): 又新國, 中東, 수도공고총동창회장, 三模흥업회장
 金斗潤(62): 건대경영대학원 수료, 아폴로 의료기 회장
 申鎮洙(49): 남가주대 교육학박사, 경북일보 회장, 신일전문대학장
 玉滿鎬(66): 경희대 정외과, 공군참모총장
 申喆均(66): 서울대 법대, 춘천시장, 10·11·12대 국회의원
 權五錫(68): 건대정외과, 경기병사구 사령관

〈新民黨·야당통합 前〉

朴英淑(59): 이대영문과 졸, YMCA 연합회 총무, 신민당 최고위원
 宋鉉燮(54): 성대정치과, 대한하키 협회장, 평민당 구로구당위원장
 李東根(52): 성대법과, 현대경제일보 동경특파원, 당 경북도지부장
 崔鳳九(51):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대검찰청 비서관, 국회 5·18광주특위위원
 金榮度(62): 중앙대국제경영대학원 수료, 동남산업 회장, 재경 전남향우회 이사
 李敬載(59): 조선대 경제과, 동대학 총학생회장
 金柱鎬(59): 전남대 문리대 철학과, 남광주 로터리클럽 회장
 李炯培(52): 연세대 APPO이사, 월간 장생 발행인
 許萬基(60): 연세대 경영대학원, 제3대 경남도의원
 金大中(65): 경희대 대학원 경제과, 7대 대통령 출마(신민), 13대 대통령출마(평민),
 5·6·7·8·13대 국회의원, 목포일보 사장, 신민당 총재
 文東煥(70): 한국신학대 교수, 평민상임고문
 崔泳謹(68): 서울법대, 경남도의원, 보사부차관, 제일생명 사장
 趙昇衡(56): 서울법대, 고시9회, 검사 지청장
 鄭基榮(62): 동국대 정치과, 민주당 고흥위원장
 曹喜澈(63): 연세대 정외과 민정당 부대변인
 金仁坤(63): 목포중, 성대, 조대 법학석사, 호심학원 이사장

〈民主黨·야당통합 전〉

李敎成(52): 연세대 철학과, 9·11대 국회의원 출마, 평민당 고양위원장

Ⅱ. 在野의 制度圈 進入

13대 총선은 6월항쟁의 결과로 치뤄진 선거인만큼 정치판의 물갈이와 在野인사의 제도정치권 진입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지역구당선자 224명중 초선이 절반을 넘는 1백14명에 이르렀고 전국 곳곳에서 거물들이 침몰하는 현상을 빚었다. 지역구의 50.8%, 전국구까지 합치면 167명으로 전체의 원의 56%로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루었다. 세대교체를 이룬 정치인들의 주류는 재야운동권출신들의 제도권의 세력들과 변호사, 의사, 교수등 전문직업인들이었다.

재야출신가운데는 서울 冠岳乙의 李海瓚씨, 光州 西甲의 鄭祥容씨, 光州 光山の 趙洪奎씨등을 들수 있다. 大邱에는 在野출신의 당선자는 없었으나 李康哲씨등이 이때부터 제도정치권 진입을 시도했다.

第3節 3黨合黨과 大邱의 政治動向

13대 총선결과 與小野大국회가 탄생하면서 정국은 안정기조가 흔들릴때가 잦았다. 그것은 與野관계에서도 여러가지 갈등을 빚었지만 野黨끼리의 관계에서도 마찰적인 경쟁이 빚어지기 일쑤였다. 이같은 정국상황은 與黨은 與黨대로 野黨은 野黨대로 정국운영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원하는 강한 의욕을 갖게 했다.

이것이 여당인 民正黨과 제2야당인 民主黨, 제3야당인 共和黨이 합당을 추진하는 배경이 된것이다. 1990년 1월 22일, 民正黨총재인 盧泰愚 대통령과 金泳三 民主黨총재, 金鍾泌 共和黨총재가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정식 합당에 합의함으로써 與小野大 정치상황이 뒤집히는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이날 3당 총재는 3黨合黨의 합의를 발표하면서 黨名을 가칭 民主自由黨으로 정했다.

또 新黨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및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며 평화통일을 주도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앞장선다는 점을 당이념으로 삼는다고 했다. 당체제는 盧泰愚대통령이 당총재를 맡고 金泳三 민주 총재, 金鍾泌 공화 총재와 朴泰俊 민정당 대표위원 등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했다. 그리고 이들 대표위원가운데 金泳三총재가 民正黨의 대표최고위원으로 추대됐다.

한편 이같은 3黨合黨에 대해 야당인 平民黨과 재야단체들은 영구집권을 노린 보수대연합을 획책하는 것이라며 이를 반대했다. 平民黨은 합당은 주권에 대한 반란행위라며 합당반대결의안

을 2월 국회에 제출기로 결의했고 全民聯등 재야단체들은 즉각 합당반대세력의 결집에 나섰다.

뿐만아니라 합당결의에도 불구하고 前民主黨의 李基澤, 金鉉圭부총재등은 통합신당참여를 거부했다. 이와 더불어 平民黨내 非湖南圈을 축으로 野圈統合의 계기를 만들어 그후 새로운 民主黨이 탄생하게 됐다.

이같은 정치적 파장으로 大邱·慶北지역의 일부 도지부 간부들과 당원들이 통합신당에 참여를 거부하고 새로운 야당창당쪽으로는 돌아섰다. 그러나 합당당시의 大邱시내 3黨현역의원들은 모두 民自黨에 참여하게 되면서 지구당위원장 지명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합당결과 民自黨의 大邱·慶北지역 국회의원분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民自黨 大邱시 지부 초대사무처장에 民主黨系의 金鍾煥씨가 임명된것은 合黨사실을 大邱에서도 실감케 한 것이었다.

第4節 第14代 國會議員選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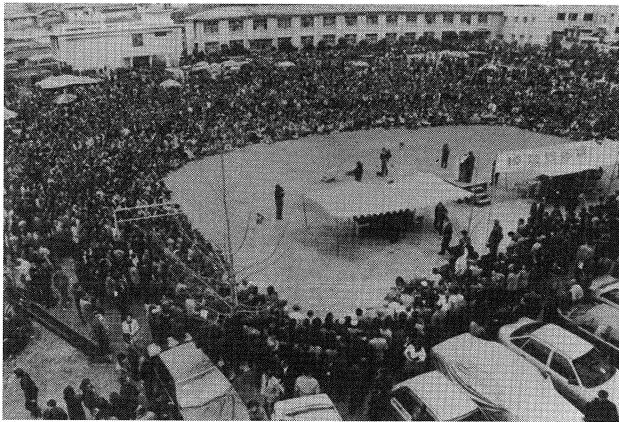
14대 국회의원 선거는 92년 3월 24일 오전7시부터 오후6시까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전국의 총선거인수는 2천9백만3천8백28명(남 1천4백29만6천4백73명, 여 1천4백70만7천3백55명)이었다. 이는 88년에 실시된 13대때보다 2백80만5천6백23명이 늘었다.

大邱·慶北은 大邱市가 1백47만2천14명, 慶北이 1백92만1천3백29명으로 지난 13대때보다 大邱는 13.2%, 慶北은 2.2%가 증가한 것이다. 지구별로 보면 大邱 11개, 慶北 21개등 모두 32개 지구에 1백30명이 입후보, 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大邱 慶北지역의 14대 총선거결과, 지지도를 크게 믿고 있던 民自黨은 10개 선거구를 잃는 충격을 받았다.

반면 기존 정치권의 불신을 비집고 들어선 國民黨이 4석을 획득한 선전으로 지역 제1야당의 자리를 굳혔다. 또 5공인사등 친여 무소속 후보들은 6개 선거구를 석권, 향후 정계 재편 과정의 가능성을 시사, 주목받기도 하였다. 전체적인 각 당별 득표율에서 民自黨은 大邱 46.9%, 慶北49%를 기록했으며 國民黨은 28.6%, 17.7% 民主黨이 11.8%, 6.8%를 각각 차지했다. 무소속 후보는 大邱에서 8.8% 慶北에서 24%를 나타냈다.



〈사진 8-4〉 統一國民黨 創黨(1992. 2. 8)



〈사진 8-5〉

14대 총선 유세장



〈사진 8-6〉

3당 합당 주역들의 기념촬영

14대 총선에서 民自黨의 중진인사가 대거 고배를 마신 것은 물가문제, 경제불황등 6공의 실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역적인 상황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법사위원장인 蔚珍 金重權의원이 정치초년생인 李學源후보(國民黨)에게 패배한 것은 핵폐기물처리장 설치등 현실적인 지역현안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 한몫했으며 慶北도지부 위원장인 黃炳禹의원(靑松·靈德)의 낙선은 생활권이 판이한 靑松과 靈德의 소지역 대결양상도 원인으로 꼽혔다. 民自黨의 경우 3선의원인 大邱 壽城區의 李致浩의원이 國民黨 尹榮卓후보에게 밀려나는 이변을 낳기도 했다.

그리고 13대 국회후반인 1990년 4월3일 치러졌던 大邱 西甲의 4·3보선에서 鄭鎬溶후보가 타의에 의해

사퇴한 상황속에서 당선됐던 文熹甲의원(후보)이 ‘명예회복을 위해 다시 출마’한 鄭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다. 民自黨의 공천후유증 여파로 무소속후보가 곳곳에서 돌풍을 일으켰는데 현역의원을 탈락시켜 잡음이 심했던 英陽·奉化, 義城, 慶山·淸道에서는 民自黨의 姜信祚, 金東權, 李永稔후보가 무난히 당선권에 진입했다.

그러나 民自黨 공천에서 1차 고배를 마셨던 전국구 金吉弘의원(安東市)과 李昇茂(店村·聞慶) 朴憲基후보(永川)등은 무소속으로, 尹榮卓(壽城乙)·金海碩(男)·金燦于(靑松·靈德)·李學源후보(蔚珍)는 국민당마크를 달고 출전해 공천에서 자신들을 꺾었던 民自黨후보를 따돌렸다. 民自黨의 朴浚圭국회의장(東乙)은 8선으로 최다선을 기록하는 한편 66세의 최고령 당선자가 됐다.

大邱시내 국회의원후보 및 당선자와 전국구 당선자는 〈表 8-11, 12, 13〉과 같다.

第14代 國會議員 立候補者 大邱地域 現況(1992년)

① 대구 중구 (3인)

〈表 8-11〉

성명	성별	생년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명	득표수	비고
劉守鎬	남	1931	국회의원	고려대 법학과 대학원 졸업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제13대국회의원 당선	민주자유당	29,625	당선
李康哲	"	1947	정치인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대표 폐놀식수오염시민단체협의회 회장	민주당	12,122	
朴陽植	"	1935	경북대학교 법과대학교수	한양대 대학원 졸업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 미국하버드법대 교환교수	통일국민당	21,454	

② 대구 동구갑 (4인)

金復東	남	1933	정당인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 육사교장역임 국제문화연구소회장	민주자유당	54,557	당선
林大潤	"	1957	정당인	서울대 대학원 외교학과 졸업 (구)민주당창당 기획실장 대구경실련 집행위원	민주당	11,763	
崔圭泰	"	1941	신국제여행사 사장	영남대 법학과 졸업 대구 동구개발연구소 소장 대구 동구 13대총선 국회의원 입후보	통일민주당	20,613	
尹昌漢	"	1942	정당인	경북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민추협건설 특별위원 역임 제13대 국회의원 입후보	신정당	5,095	

③ 대구 동구을 (3인)

朴浚圭	남	1925	국회의장	서울대 졸업 민주정의당 대표의원 국회의장	민주자유당	35,083	당선
都永和	"	1927	국내식당 경영	한국신학대학 졸업 경일여중 교감	민주당	5,139	
徐勳	"	1942	우성스텐 대리점대표	경북대 졸업 팔공재건학교 교장역임 그린벨트주민회 대구경북지부 고문	통일민주당	29,843	

④ 대구 서구갑 (4인)

성 명	성 별	생 년	직 업	학 력 및 경 력	소속정당명	득표수	비 고
文憲甲	남	1937	국회의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제12,13대 국회의원	민주자유당	26,763	
白承弘	"	1943	정 당 인	영남대 경영대학원 수료 제13대 국회의원 출마 민주당 서구갑지구당 위원장	민 주 당	16,795	
金顯根	"	1959	정 당 인	서울대 수학과 졸업 제13대 국회의원 출마 민중당 서구갑지구당 위원장	민 중 당	3,938	
鄭鎬溶	"	1932	정 치 인	육사 졸업 내무, 국방부장관 제13대 국회의원(민주정의당)	무 소 속	50,533	당 선

⑤ 대구 서구을 (4인)

姜在涉	남	1948	국회의원 (전국구)	서울대 법대 졸업 민자당기획조정실장 제13대 국회의원	민주자유당	44,117	당 선
徐重鉉	"	1951	정 당 인	경북대 대학원 졸업 민주당 서구을 지구당위원장 민주연합운영위원	민 주 당	13,394	
李宗燮	"	1930	정 당 인	경북대 졸업 사회문화연구소장 민주통일정치위원회 부의장	통일국민당	14,745	
金基錫	"	1965	대 구 염 색 공단노동자	대구공업고 졸업 대구염색공단노동조합 사무국장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대의원	무 소 속	6,827	

⑥ 대구 남구(4인)

李 廷 武	남	1941	국회의원	서울대 법학과 졸업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민주자유당 원내부총무	민주자유당	47,531	
金 鎭 泰	남	1954	민주당지구 당 위 원 장	계명대 경제학과 졸업 신정치개혁을 위한 민주연합공동대표 계명대학교 민주동문회 부회장	민 주 당	8,105	
金 海 碩	"	1939	정 당 인	중앙대 법정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신민주공화당 남구지구당위원장 인간상록수대통령표창	통일국민당	52,840	당 선
成 萬 鉉	"	1943	정 당 인	대구상고 졸업 (주)럭키금성 이사 대구미군이전시민운동본부대표상임위원	신 정 당	8,931	

⑦ 대구 복구(6인)

성명	성별	생년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명	득표수	비고
金瑬泰	남	1936	국회의원	서울대 법학과 졸업 조선일보편집국장 제11,12,13대 국회의원	민주자유당	60,107	당선
鄭炳哲	"	1944	정치인	성균관대 대학원 수료 경북일보 논설위원 팔도일보 사회부장	민주당	12,637	
宋花燮	"	1936	대구대학교	미국콜롬비아대 대학원졸 대구대학 가정대학장 대구대학 사회교육원장	통일국민당	37,383	
陳元圭	"	1942	정치인	경북대 졸업 제12대 동·북구국회의원 출마 정치개혁협의회 민권위원장	신정당	7,462	
徐相鶴	"	1961	정치인	영남대 중퇴 전국노동운동단체연합 중앙집행위원 구미지역노조협의회 지도위원	민중당	4,457	
安昊郁	"	1963	노동운동가	계명대 졸업 남선알미늄 전노조위원장 고성동미불하주민철거대책위원장	무소속	6,333	

⑧ 대구 수성구갑(4인)

朴哲彦	남	1942	국회의원	서울대 사범대학원 졸업 체육청소년부장관 제13대 국회의원	민주자유당	51,756	당선
權五先	"	1959	정당인	계명대 졸업 계명대학교 총학생회장 (주)한일산업 노조위원장	민주당	6,451	
李尙熹	"	1934	변호사	고려대 졸업 제13대 국선 신민주공화당 수성구위원장 변호사	통일국민당	22,883	
朴柱徹	"	1957	노동운동가	경북대 졸업 대구노동자협의회 의장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공동의장	무소속	6,910	

⑨ 대구 수성구을 (4인)

李致浩	남	1939	국회의원	연세대 졸업 서울청주지법 판사 제11,12,13대 국회의원	민주자유당	30,072	
宋孝翼	"	1940	시사평론가	중앙대 법정대 졸업 국제민주청년연맹 한국지부장 현시사평론가	민주당	4,640	
尹榮卓	"	1933	정치인	서울대 문리대 졸업 서울국토관리청장 제12대 국회의원	통일국민당	31,990	당선
呂東榮	"	1943	변호사	서울대 졸업 학교법인 계명기독교대학 재단이사장 대구노동청 고용문제조정위원장	무소속	14,836	

⑩ 대구 달서구갑 (3인)

성명	성별	생년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명	득표수	비고
金漢圭	남	1940	국회의원	미국캘리포니아주립대 대학원 졸업 홀트아동복지회회장 민주자유당 정책위의장	민주자유당	39,132	당선
李相燮	"	1953	정당인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복지행정) 졸업 동우전문대 행정학과 출강	민주당	16,257	
任甲壽	"	1952	정당인	영남대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노동부 대구사무소 근로감독관 신민주공화당 달서지구당위원장	통일국민당	24,529	

⑪ 대구 달서구을 (4인)

崔在旭	남	1940	국회의원	대구대 대학원 졸업 경향신문사 사장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겸 청와대 대변인	민주자유당	35,616	당선
李光洙	"	1953	작가	한국방송통신대학 영문학과 졸업 민주헌법쟁취지역본부 상임집행위원 민족자주평화통일청년위원장	민주당	7,029	
徐秉煥	"	1949	정당인	뉴저지주립대학 대학원 졸업 한미타임스신문사 사장 미주동아일보 편집국장	통일국민당	20,360	
裴在演	"	1933	대구대교수	서울대 법대 졸업 제9,11대 국회의원 출마 신정치개혁당 최고위원	신정당	7,944	

〈表 8-12〉

第14代 國會議員 選舉 當選者 (大邱)

中區	劉守鎬:	60세, 고대법대, 13대의원
東區甲	金復東:	59세, 육사11기, 육사교장, 국제문화연구회장
東區乙	朴浚圭:	66세, 서울대, 13대국회의장
西區甲	鄭鎬鎔:	59세, 내무·국방장관, 13대의원
西區乙	姜在涉:	43세, 서울대법대, 민자당기조실장, 13대의원
南區	金海碩:	52세, 중대법대, 정당인
北區	金塔泰:	55세, 서울대법대, 11·12·13대의원
壽城區甲	朴哲彦:	49세, 서울대법대, 체육청소년장관, 13대의원
壽城區乙	尹榮卓:	58세, 서울대, 서울국토관리청장, 12대의원
達西區甲	金漢圭:	51세, 美캘리포니아주립대, 13대의원
達西區乙	崔在旭:	51세, 영남대, 청와대 대변인, 12대의원

全國區議員 當選者 名單

〈表 8-13〉

民自(33席)

金泳三: 9선, 65, 서울대, 민자당대표최고위원
 朴泰俊: 3선, 65, 육사, 민자당최고위원
 金在光: 8선, 70, 건국대, 국회부의장
 盧在鳳: 초선, 56, 서울대, 전국무총리
 權翊鉉: 3선, 58, 육사, 舊민정대표위원
 李萬燮: 6선, 60, 연대, 舊국민당총재
 鄭石謨: 5선, 63, 서울대, 전 내무부장관
 安武赫: 초선, 57, 육사, 전안기부장
 李源祚: 재선, 59, 경북대, 현전국구의원
 崔秉烈: 재선, 54, 서울대, 노동부장관
 金鍾仁: 3선, 52, 獨逸스터대, 청와대경제수석
 金光洙: 4선, 67, 단국대, 전의원
 朴在鴻: 4선, 51, 고대, 현의원
 姜善泳: 초선, 67, 일본예전, 예총회장
 丁時采: 3선, 56, 전남대, 전의원
 崔蕓芝: 3선, 65, 국민대, 현의원
 康容植: 재선, 53, 서울대, 전국무총리비서실장
 金榮秀: 초선, 50, 서울대, 전안기부1차장
 金榮珍: 초선, 52, 서울대, 전내무차관
 姜信玉: 재선, 56, 서울대, 현의원
 徐相穆: 재선, 45, 스탠퍼드대, 현전국구의원
 尹泰均: 초선, 57, 육사, 전도로공사사장
 朴九湓: 초선, 58, 해사, 전해병대사령관
 郭泳達: 초선, 58, 공사, 전공사교장
 李明博: 초선, 51, 고대, 전현대건설회장
 李桓儀: 초선, 61, 서울대, 전MBC사장
 姜仁燮: 초선, 56, 외국어대, 전동아일보논설위원
 金東根: 초선, 62, 육사, 김종필비서실장
 崔相容: 초선, 54, 동아대, 노총상임부위원장
 朱良子: 초선, 61, 고대, 의보공단이사장
 李鉉帥: 초선, 54, 경희대, 유원건설부회장
 盧仁道: 초선, 57, 경동고, 농협상임감사
 具天書: 초선, 42, 고대대학원, 당청년분과위원장

民主(22석)

金大中: 6선, 67, 경희대학원, 민주당 공동대표
 李基澤: 7선, 55, 고대, 민주당 공동대표
 姜昌成: 초선, 65, 육사, 전보안사령관
 張在植: 초선, 57, 서울대, 전주택은행장
 李愚貞: 초선, 69, 한신대, 당최고위원
 羅柄扇: 초선, 58, 육사, 전6군단장
 申鎭旭: 재선, 68, 영남대학원, 전의원
 金玉川: 초선, 52, 전남대, 무등산관광호텔 대표
 張浚翼: 초선, 57, 육사, 전육사교장
 李東根: 재선, 53, 성대, 현전국구의원
 鞠鍾男: 초선, 55, 미국대, 대일필름사장
 金忠賢: 초선, 46, 연대경영대학원, 청기와주유소대표
 姜熹瓚: 초선, 54, 동대대학원, 삼양실업사장
 朴正勳: 초선, 51, 고대, 전대우그룹상무
 朴 一: 5선, 65, 연대수료, 당전당대회회장
 金玉斗: 초선, 54, 고대정책원, 대외협력부위원장
 朴恩台: 초선, 54, 불소르본대, 미주산업협회장
 張基旭: 재선, 49, 서울대, 전의원
 金木龍: 초선, 65, 국학대, 전대한노총회장
 楊文熙: 초선, 52, 연대, 대한의협부회장
 朴智元: 초선, 50, 단국대, 전뉴욕한인회장
 李章熙: 초선, 57, 동아대, 이기택대표특보

國民(7席)

文昌模: 초선, 85, 세브란스 醫專, 전세브란스병원장
 楊淳植: 3선, 67, 서울대, 전의원
 鄭周永: 초선, 77, 송전소학교, 국민당대표최고위원
 趙尹衡: 6선, 60, 연대수료, 당최고위원
 崔英漢: 초선, 52, 한양대, 텔런트(예명: 최불암)
 李建榮: 초선, 66, 육사, 전3군사령관
 丁璋鉉: 초선, 53, 서울대, 전금강개발사장

第5節 地方議會選舉

6월 항쟁의 결과 지방자치제 실시를 골자로하는 헌법안과 관련법률이 정비되었으나 정부는 실시 시기에 대한 단안을 내리지 못한채 여야의 이견이 맞서고 있었다. 그런 상황속에서 야당과 재야가 水西비리사건의 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시점인 1991년 3월 5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시·군·구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회선거의 실시를 결의함으로써 지방 의회선거의 막이 올랐다. 30년만에 실시되는 지방자치선거지만 시국사건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선거의 분리실시를 주장한 여당과 통합실시를 주장한 야당의 의견이 맞선채 타협점을 찾지못하고 정부가 분리실시 강행에 돌입했다. 따라서 지방자치선거는 중앙 정치의 흐름속에 영향을 받게되는 상황에서 치르지게 된것이다.

I. 基礎議會選舉

정부는 1991년 3월 8일, 같은 달 26일자로 시·군·구등 기초단체의회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함으로써 선거가 시작됐다.

이에따라 중앙선관위는 선거공고일인 8일부터 13일까지 후보자등록을 받고 등록직후부터 선거일 전날인 25일까지 18일간의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지난 61년이후 30년만에 부활되는 이번 기초의회선거에는 전국 3천5백62개 선거구에서 모두 4천3백4명의 의원을 뽑고 읍·면·동마다 1인씩 선출하되 인구2만명을 넘는 지역은 2만명마다 1인씩을 추가해서 선출했다. 大邱시의 경우 1백41개선거구에 의원정수 182명이며 東구가 26개동에 의원정수가 32명으로 가장 많다. 中구가 19개동에 19명으로 가장 적고 인구 2만이상으로 2인을 뽑는 선거구는 壽城구 10개동 등 41개동이다.

13일오후 마감된 시군구의회의원 선거후보등록 최종집계결과 전국에서 1만1백20명이 등록, 경쟁율이 2.35대1로 나타났다. 전국 4백41개 선거구에서 5백47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한편 大邱에선 293명이 등록했다가 6명이 도중하차 평균 1.58대1의 전국 최저 경쟁율을 나타냈다. 또 시내 1백41개 선거구의 42%인 61개 선거구에서 의원정수의 41.2%에 해당하는 77명이 무투표당선돼 여당의 후보조정개입등으로 투표기회마저 상실된 선거의 일면을 보여줬다.

大邱시내서 가장 경합이 치열했던 곳은 東구 屯山동, 釜동의 5대1이었으며 직업은 상업이 21.5%로 가장 많았고 광공업이 19%순이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수료가 9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및 대졸이 각 65명, 연령은 40세이상인 264명으로 91.6%를 차지했다. 이들의 정

〈表 8-14〉 기초의회 투표상황

구분	선거인수	투 표 수	투표율
서울	5,689,107	2,405,571	42.3
부산	1,952,310	969,455	49.7
대구	770,241	342,391	44.5
인천	926,008	395,098	42.7
광주	647,569	329,018	50.8
대전	498,791	244,644	49.0
경기	3,878,400	2,024,904	52.2
강원	956,929	657,795	68.7
충북	765,652	497,213	64.9
충남	1,150,928	774,471	67.3
전북	1,243,946	810,850	65.2
전남	1,476,583	1,025,126	69.4
경북	1,707,899	1,199,923	70.3
경남	2,172,831	1,400,640	64.5
제주	229,950	161,209	70.1
합계	24,067,144	13,238,308	55.0

치성향은 民自黨의 당직자거나 관변단체의 간부가 주류를 이루었다. 대체로 참신한 인물이 부족한 가운데 의회구성후의 행정의 비판엔 큰 역할을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여론이었다.

선거전략에선 野黨측이 水西비리를 공격하면서 3黨合黨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는 한편 與黨은 정국안정을 호소하면서 침묵으로 밀어붙였다.

26일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돼 전국의 선거인수 2천4백6만7천1백14명중 1천3백23만8천3백8명이 투표해 55%의 투표율을 보였고 大邱시지역은 77만2천41명의 선거인중 34만2천3백91명이 투표해 44.5%의 투표율을 보였다 〈表 8-14, 15〉. 大邱시내 구의원당선자는 다음 〈表 8-16〉과 같다.

〈表 8-15〉

市郡區의회 의원 후보등록 상황

구분	선거구수	의원정수	후보자수	경쟁률	무 투 표	
					선거구수	의원정수
서울	494	778	1,440	1.9:1	83	144
부산	222	303	605	2.0:1	49	63
대구	141	182	288	1.6:1	60	75
인천	106	153	280	1.8:1	34	40
광주	92	110	247	2.2:1	9	10
대전	76	91	191	2.1:1	21	23
경기	409	526	1,431	2.7:1	13	14
강원	223	240	672	2.8:1	15	15
충북	158	173	414	2.4:1	20	22
충남	206	223	614	2.8:1	10	10
전북	267	280	749	2.7:1	12	12
전남	325	337	933	2.8:1	14	14
경북	380	404	1,014	2.5:1	44	45
경남	420	453	1,147	2.5:1	46	47
제주	43	51	95	1.9:1	11	13
합계	3,562	4,304	10,120	2.35:1	441	547

〈表 8-16〉

기초의회 당선자 득표상황(대구)

〈중 구〉

동인1·2가동: 朴英宰(56), 대, 토목업
 동인3가동: 金洙慶(53), 대, 약국
 동인4가동: 金基麗(39), 대, 신협이사장
 삼덕1·2가동: 崔俊高(51), 대학원수료,
 부동산임대업
 삼덕3가동: 金相洙(55), 대학원수료, 상업
 봉산동: 趙成禹(56), 중, 마을금고상무
 동성동: 蔡鍾弼(61), 대졸, 마을금고이사
 서성동: 姜玆中(60): 대학원, 상업
 남성동: 陳宰熙(50), 대퇴, 장식업
 북성동: 柳根斗(55), 대졸, 마을금고이사
 달성동: 申鉉植(53), 대학원수료, 상업
 대신1동: 秦哲洙(40), 중, 상업
 대신2동: 孫振利(62), 대졸, 마을금고이사장
 남산1동: 李 勳(49), 대학원수료, 기업
 남산2동: 朴永保(54), 대학원수료, 한약방
 남산3동: 金益根(52), 대, 직물업
 남산4동: 李基峰(57), 대 약국경영
 대봉1동: 金源基(53), 대, 주유소
 대봉2동: 都基碩(52), 대학원수료, 서적상

〈동 구〉

신암1동(2): 李相度(52), 대, 만춘건설상
 李正鎬(30), 대학원, 회사대표
 신암2동: 韓海龍(49), 대학원, 공업
 신암3동: 權寧煥(58), 대학원, 가구점
 신암4동(2): 白基權(60), 대학, 공업
 李在弘(46), 대학원, 상업
 신암5동: 金文吉(50), 고, 상업
 신천1동: 權五賢(52), 대퇴, 공업
 신천2동: 千成祚(49), 대학원, 대일상사
 신천3동: 朴晚權(49), 대학원, 상업
 신천4동: 南永昱(57), 대졸, 상업
 효목1동(2): 徐丙桔(54), 국졸, 상업
 曹圭鶴(52), 대학원, 공업
 효목2동(2): 林昌成(49), 고졸, 상업
 鄭成權(40), 대퇴, 상업
 평광동: 禹熹植(49), 중, 농업
 불로·봉무동: 南鍾煥(55), 대, 상업
 도동: 孫榮銖(49), 대학원, 직물회사

지저동: 朴允熙(42), 대퇴, 한국타일사
 입석동: 朴相壽(49), 대, 자동차정비업
 검사동: 全春植(52), 대학원, 공업
 방촌동(2): 全永靑(46), 대, 포항항업이사
 張在杓(54), 대퇴, 가람섬유
 둔산·부동: 李兌鎬(57), 독학, 농업
 신평동: 朴完熙(58), 대, 상업
 안심1동(2): 政洙滿(46), 대, 수토건회사
 姜渭太(50), 대학원, 농업
 안심2동: 裴永洙(57), 대, 계량중명업
 안심3동: 金相奎(57), 국, 농업
 안심4동: 李鍾甫(47), 대, 일신목욕탕
 공산1동: 羅再洙(60), 국, 공산건설물
 공산2동: 朴鍾遠(46), 고, 성안산업

〈서 구〉

내당1동(2): 尹祥壽(44), 대, 신협이사장
 李台永(55), 대, 준설업
 내당2동: 蔡相俊(51), 고, 농산물중개인
 내당3동: 金基淑(57), 고, 공업
 내당4동(2): 金道石(56), 대퇴, 건설업
 姜周鉉(49), 중, 세차장업
 비산1동(2): 張泰胤(48), 대학원, 의류업
 金浚羽(62), 고퇴, 약국대표
 비산2동: 姜信河(54): 대퇴, 건설업
 비산3동: 洪遠植(51), 대, 마을금고이사장
 비산4동: 金判岩(51), 대학원, 금고이사
 비산5동: 尹 震(44), 대, 건설업
 비산6동: 李大哲(41), 대학원, 공업
 비산7동(2): 朴成鶴(58), 고, 공업
 裴又煥(39), 대학원, 여관업
 평리1동(2): 姜 滉(46), 대학원, 직물업
 裴相斗(56), 대, 공업
 평리2동: 李信助(49), 대퇴, 상업
 평리3동(2동): 金萬石(52), 고, 공업
 崔範俊(49), 대학원, 공업
 평리4동(2): 洪泰煥(50), 대, 금고이사장
 許禧道(44), 대학원재, 목사
 평리5동(2): 姜錫烈(54), 대학원, 건설업
 政夏澤(52), 중, 부동산중개업
 상리동: 白花根(61), 고, 상업

<p>중리동(2): 韓明鉉(44), 대학원, 운수업 申鳳湜(56), 대, 금고이사장 원대1·2동: 申水鏡(66), 무, 건설업 원대3동: 沈載春(51), 대, 공업</p>	<p>대현1동: 朴東沼(62), 고졸, 북부목재소 대현2동: 金圭培(53), 대퇴, 상업 대현3동: 朴允道(56), 대졸, 사업 북현1동: 呂吾東(52), 고졸, 마을금고이사장 북현2동(2): 金洙旭(47), 대, 방위협부회장 呂元基(46), 대, 신탁이사</p>
<p>〈남 구〉 이천1동: 朴鍾大(42), 대학원, 황제모텔 이천2동: 河元浩(63), 고, 삼흥섬유 봉덕동: 李正勳(43), 대학원수료, 서울우유총판 봉덕2동(2): 金尙泰(57), 대학원수료, 극동자동차대표 鄭輝進(55), 대학원수료, 현대택시대표 봉덕3동(2): 崔日五(47), 고, 제조업 楊炳華(54), 대학원, 유성직물 대명1동: 崔東日(54), 대학원, 우성산업 대명2동: 李吉雄(49), 고졸, 새마을금고이사장 대명3동: 申相道(59), 중, 동개발의원 대명4동(2): 李鉉圭(45), 대, 대보산업대표 白鍾敎(42), 대, 마을금고이사 대명5동: 金喆煥(58), 고졸, 송학공업사대표 대명6동: 閔泰述(52), 대학원, 농장경영 대명7동: 趙順濟(56), 대졸, 직물제조 대명8동: 李實根(60), 대학원수료, 대화기업대표 대명9동(2): 金在喆(44), 대학원, 거창산업 金大城(61), 대학원, 효성농장 대명10동: 鄭應奎(47), 대졸, 성화건설대표 대명11동: 安龍洙(48), 대학원, 서비스업</p>	<p>김단동: 李錫重(38), 대졸, 건도주택 무태동: 李在昌(48), 대졸, 농장경영 조야동: 金圭允(41), 대졸, 사업 노곡동: 金在淙(60), 중졸, 농업 칠곡1동: 李鍾林(50), 대졸, 한약방 칠곡2동: 黃海鳳(58), 대졸, 농업 칠곡3동: 閔炳昊(46), 중졸, 체육회회장</p>
<p>〈북 구〉 고성동: 金鎮述(57): 대졸, 금아종합상사대표 칠성1가동: 張景勳(45), 대졸, 상업 칠성2가1동: 孫鏞吉(58), 고졸, 상업 칠성2가2동: 李京男(58), 전문대졸, 마을금고이사장 침산1동: 申國根(52), 대졸, 공업 침산2동: 金昌淳(50), 대졸, 공업 침산3동: 秦炳龍(68), 중졸, 평화면업사 노원1·2가동: 全武龍(52), 대졸, 벽진플라스틱대표 노원3가1동: 金昌鎬(48), 대졸, 농장경영 노원3가2동: 李在烈(58), 대학원졸, 협신주물대표 산격1동(2): 金相澤(52), 대졸, 상복합섬대표 申揚休(62), 국졸 산격2동: 金海龍(42), 고졸, 신원산업사 산격3동(2): 金泰達(43), 대졸, 하나주택 金終業(55), 고, 성일금속공업</p>	<p>〈수성구〉 범어1동(2): 權寧煥(48), 고, 금고이사장 朴龍夏(55), 대학원, 사회사업 범어2동: 具日會(57), 대, 행정서사 범어3동: 金英大(51), 대학원, 신탁장 범어4동(2): 李正植(54), 대학원, 정비업 李寬植(52), 대학원, 약국 만촌1동(2): 李基雄(49), 대학원, 상업 崔圭海(54), 대학원, 전기공사 만촌2동(2): 鄭英植(52), 대학원, 마을금고 金貞植(43), 대, 상업 수성1가동(2): 鄭兌載(63), 사보, 회사대표 全鎮根(61), 고, 상업 수성2·3가동: 金鎮脩(52), 대학원, 건설업 수성4가동: 金鎮浩(51), 대, 양곡상 황금동(2): 尹赫周(57), 대퇴, 건축업 李芙蓮(52), 여, 대학원, 호텔이사 중동(2): 孫正吉(39), 대학원, 제조업 李章基(54), 대퇴, 회사대표 상동(2): 孫邦男(51), 고, 무직 朴光憲(44), 대학원, 건축업 파동(2): 朴達植(55), 대, 위생업 金用輝(53), 고, 제조업 두산동: 許水龍(50), 대, 제조업 지산동(2): 楊九興(57), 대, 상업 余江守(48), 대학원, 치과기공 범물동: 朴潤鎔(58), 중, 무직 고산1동: 楊春鶴(52), 중, 공업</p>

고산2동: 藏佑錫(53), 고, 제조업	본리동(2): 李鍾鶴(45), 전문대, 상업
<달서구>	朴秉基(41), 대, 상업
성당1동: 韓正壽(53), 대학원, 금고이사장	월배1동: 李鍾宅(52), 중퇴, 금고이사장
성당2동(2): 李在永(47), 대, 공업	월배2동(2): 禹勝基(46), 대퇴, 금고이사장
朴利燦(50), 고, 건축업	孫永日(35), 고졸, 새마을위원
두류1동: 梁宗學(45), 대학원, 민자당원	월배3동(2): 李章雨(47), 대졸, 목욕업
두류2동(2): 河鍾洙(56), 중, 건설업	權春甲(51), 대졸, 상업
崔鶴得(55), 대학원, 섬유업	월배4동: 孫性泰(52), 대학원, 농업
두류3동: 施禧竣(41), 대, 운수업	송현1동(2): 金昌植(48), 대학원, 섬유업
성서1동: 金永洙(45), 대퇴, 민자당원	裴榮七(46), 고, 공업
성서2동(2): 李起道(54), 중졸, 농업	송현2동(2): 金石峰(46), 대졸, 건설업
柳柄魯(36), 대학원, 건설업	全富璫(47), 대학원, 민자당원
성서3동: 朴鎔甲(46), 고, 공업	본동: 朴良憲(50), 대학원, 공업
성서4동(2): 柳廣鉉(53), 대학원, 공업	
金正海(54), 고, 축산업	

II. 廣域議會選舉

기초의회선거가 끝난지 2개월 남짓 광역의회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은 공천과 관련 금품 수수등 갖가지 후유증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정부는 1991년 6월 1일 광역의회선거를 공고했다. 6일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20일에 투표를 실시기로 한것이다.

여야는 선거공고와 동시에 당은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 民自黨은 당수녀부가 전국을 돌며 옥내 당원단합대회를 가졌고 新民黨은 서울, 釜山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가지고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民主黨은 지구당 창당대회등을 통해 득표활동을 폈다.

6일마감된 후보등록결과 전국의 의원정수 866명에 2,877명이 등록, 평균 3.5대1의 경쟁율을 보였다. 또 후보등록에서 전국서는 63명의 여성후보가 출마했고 大邱에서는 3명의 여당후보가 출마했다. 이번선거에선 무소속이 967명등록, 33.6%나 차지해 여당공천의 탈락자들이 대거 불복하고 출마했던 것이다. 무투표 당선 지역으로 전국에 14명이 나왔으나 大邱에는 모두 경합지역이 됐다.

광역의회선거에서 民自黨은 물가·주택·환경 등 11

<表8-17> 투표상황

구분	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서울	7,212,887	3,781,990	52.4
釜山	2,519,619	1,450,847	57.6
大邱	1,439,609	762,916	53.0
仁川	1,243,072	670,335	53.9
光州	712,477	395,793	55.6
大田	671,919	401,721	59.8
京畿	3,958,349	2,194,890	55.4
江原	1,106,647	696,518	68.5
忠北	892,420	586,143	65.7
忠南	1,180,314	813,860	69.0
全北	1,304,059	828,261	63.5
全南	1,522,590	996,938	65.5

개부문 58개 항목의 정책공약과 각 지역별 공약 338개 항목을 확정, 당조직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한편 新民黨은 공안과 세력의 퇴진, 거국 내각구성등 정치공세를 펴면서 反 民自黨 여론 확산에 주력했다.

20일의 투표결과 총유권자 2천8백8만3천24명중 1천6백53만5천1백48명이 투표에 참가 58.9%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民自黨이 총866석중 564석을 차지해 압승했다. 大邱시는 총유권자 1백43만9천6백9명중 76만2천9백16명이 투표해 53%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民自黨이 26석 무소속이 2석을 차지해 야당인 新民黨과 民主黨 등은 단1석도 얻지 못했다. 안정회구 세력이 전국적으로는 여당에 물표를 던져줌으로써 나타난 전국광역의회의 일당의회화는 지방의회의 행정 시너화의 우려를 낳았다. 大邱지역의 선거 상황과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表 8-17,18,19>

<表8-18> 市·道議會 정당별 당선자 현황

구분	의원정수	民 自	신 민	민 주	민 중	무소속
서울	132	110	21	1		
釜山	51	50		1		
大邱	28	26				2
仁川	27	20	1	3		3
光州	23		19			4
大田	23	14	2	1		6
京畿	117	94	3	2		18
江原	54	34		1	1	18
忠北	38	31		2		5
忠南	55	37		4		14
全北	52		51			1
全南	73	1	67			5
慶北	87	66		5		16
慶南	89	73	1	1		14
濟州	17	8				9
합계	866	564	165	21	1	115

대구지역 당선자
① 대구 중구

<表 8-19>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소속정당	학 력 및 경 력
第1選舉區	金泓殖	1928. 1.20	民主自由黨	서울대 經營大學院 卒 (株)금복주 會長 大邱商工會議所會長(第11,12代)
第2選舉區	李龍八	1926.12. 3	民主自由黨	日本복지산 商業學校 5年 卒 國際라이온스協會 309-D地區 第17代 總裁被選
第3選舉區	鄭東壽	1928.12.26	民主自由黨	嶺南大 經營大學院 修了 (株)대양 産業 代表理事 平統 中區會長
第1選舉區	金德鎰	1938. 7.6	民主自由黨	啓明大 貿易大學院 修了 民自黨 東區地區黨 副委員長 東區廳 防衛協議會長

② 대구 동구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소속정당	학 력 및 경 력
第2選舉區	尹相雄	1948. 1.23	民主自由黨	慶北大 經營大學院 修了 (株)삼우綜合食品 代表理事 東區廳 區政諮問委員
第3選舉區	洪大植	1938. 7.17	民主自由黨	嶺南大經營大學院 修了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 民族統一東區協議會 副會長
第4選舉區	蔡鍾百	1934. 9.12	無所屬	慶北大 獸醫科大學 卒 大邱市 獸醫師會 會長 民主平和統一政策諮問委員

③ 대구 서구갑

第1選舉區	崔宗萬	1934. 4.10	民主自由黨	啓明大 貿易大學院 修了 西區防衛協議會 委員 啓明大 政策開發大學院學生會 副會長
第2選舉區	崔萬石	1939. 9.28	民主自由黨	啓明大 政策開發大學院 修了 平統諮問委員 洞政諮問委員長
第3選舉區	崔栢永	1948. 6.16	民主自由黨	慶北大 經營大學院 修了 地域社會研究會 代表委員 중리國教 總同窓會長

④ 대구 서구를

第1選舉區	金相演	1939. 5.30	民主自由黨	嶺南大 經營大學院 卒 韓國自動車 整備事業組合聯合會長 西區 區政諮問委員長
第2選舉區	楊丁壽	1938. 5.30	民主自由黨	嶺南大 經營大學院 修了 第12代 大統領選舉人團 當選 飛山5洞 새마을金庫理事長
第3選舉區	金鉉模	1936.11.16	無所屬	嶺南大 經營大學院 修了 마르게살기運動 西區協議會長 民主平和統一政策諮問委員

⑤ 대구 남구

第1選舉區	徐文教	1934. 4.13	民主自由黨	嶺南大 經營大學院 卒 慶尙北道 漢醫師會 會長 東國大 漢醫科大學教授
第2選舉區	成道鎔	1930. 1. 9	民主自由黨	啓明大 貿易大學院 修了 民自黨 南區 地區黨 首席副委員長 韓國自由總聯盟 大邱南區 支部長
第3選舉區	郭烈圭	1936. 7.26	民主自由黨	慶北大 經營大學院 修了 大邱商工會議所 第11,12代委員

⑥ 대구 북구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소속정당	학 력 및 경 력
第1選舉區	李張魯	1933. 9.26	民主自由黨	嶺南大 經營大學院 修了 北區廳 區政諮問委員 韓國自由總聯盟 北區支部長
第2選舉區	徐永澤	1932.12.29	民主自由黨	慶北大 文理科大 3年 中退 慶尙北道 道政諮問委員 全國새마을金庫聯合會 中央理事
第3選舉區	朴承國	1940. 4. 1	民主自由黨	嶺南大 大學院 卒 民自黨 中央黨務 委員 前統一民主黨北區地區黨委員長
第4選舉區	李鎮浩	1935.11.24	民主自由黨	嶺南大 卒 漆谷農協民選組合長

⑦ 대구 수성구

第1選舉區	李源炯	1951.10.29	民主自由黨	서울大 工科大学 卒 (株)嶺南호텔 副社長 大邱直轄市觀光協會理事
第2選舉區	李聖秀	1949. 5.15	民主自由黨	大邱 教育大 卒 民自黨 中央委員 靑年指導者聯合會 壽城支部長
第3選舉區	金時立	1949.11.27	民主自由黨	嶺南大 經營大學院 修了 大邱直轄市廳 公務員 (株)태성住宅建設代表理事
第4選舉區	權赫千	1932. 8. 3	民主自由黨	慶北大 經營大學院 最高經營者過程 修了 大邱陸士 競技聯盟 副會長 東區 새마을支會長

⑧ 대구 달서구

第1選舉區	金元八	1928.11. 8	民主自由黨	嶺南大 經營大學院 修了 國會議員 金漢圭 後援會長 새마을運動 達西區 支會長
第2選舉區	趙環濟	1922. 2. 5	民主自由黨	嶺南大 經營大學院 修了 初代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 大邱市 政策諮問委員
第3選舉區	禹貞澤	1931. 11. 16	民主自由黨	慶北大 經營大學院 修了 民自黨達西區地區黨 副委員長 月背새마을金庫理事長
第4選舉區	鄭相錄	1930. 4. 1	民主自由黨	嶺南大 卒 동산教會長老 가야기독病院 理事長

第6節 第14代 大統領選舉

1992년 12월 18일 치러진 14대 대통령선거는 역사적 의미에서나 선거양상 측면에서 우리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다. 우선 이번 대선은 32년 만에 문민대통령을 탄생시켰고 이에 따라 정권의 정통성 기반을 어느때 보다도 확고히 다져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는 과거 ‘민주 대 반민주’ ‘군정종식’ 등 이분법적 구호에 따른 ‘편가르기’ 형태나 대규모 유세를 통한 소모적인 세력의 과시가 거의 사라졌다.

다만 극단적인 지역대결양상이 선거과정에서는 자제되는 듯했으나 선거결과는 오히려 심화된 측면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더해 주었다.

또 선거전중반에서는 ‘금권선거’ ‘색깔론’을 둘러싼 民自·民主·국민당의 3각공방은 구태의연한 비방폭로전을 재연하면서 건전한 정책대결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무산시켰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그룹의 비자금의 국민당 유입과 정부의 수사착수는 기업의 정치참여 문제와 관련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釜山기관장 모임’ 사건은 내각의 중립성에 큰 상처를 입히면서 판세 반전의 변수로 작용되기도 했다.

金泳三 民自黨 후보가 당초 혼전지역으로 분류되던 首都圈과 大邱·慶北에서 기선을 제압하여 1백90여만 표차로 승리한 선거결과는 여전히 지역감정의 벽이 높다는 사실과 안정을 바라는 보수 중산층이 우리사회에 두껍게 깔려 있음을 재확인 시켜 주었다.

이 밖에 12·18대선은 문민정부시대의 본격적인 출범과 함께 兩金시대의 종언이라는 역사적 결과를 가져왔다. 民主黨의 金大中 전 대표는 개표가 거의 매듭된 19일 상오 기자회견을 통해 정계은퇴를 선언함으로써 40년간의 파란만장한 정치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金전대표의 정계은퇴는 70년 新民黨 대통령후보 경선이래 20여년간 한국국민의 정치의식을 지배해온 이른바 兩金구도가 청산되면서 새로운 정치구도의 태풍을 예고하기도 했지만 야권의 경우 지도력의 공백상태를 초래케 됐다.

3黨合黨이후 대선후보의 결정을 싸고 혼미를 거듭하던 民自黨의 경우 대선후보가 金泳三 후보로 가시화 되면서 盧대통령은 선거의 공정성을 기한다는 명분 아래 民自黨 탈당을 선언, 현직대통령으로서 집권당이탈이라는 정치사상 유례없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盧대통령의 탈당 이후 朴泰俊 최고위원 등 일부 민정계 중진의원들의 탈당사태가 줄을 이었는데 大邱 中區의 劉守鎬 의원과 大邱 東甲의 金復東 의원이 民自黨을 떠나 국민당으로 옮겨갔다.

반면 이러한 충격 속에서 출범한 玄勝鍾 중립내각은 선거기간중 중립성 공방을 낚는 다소의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대체로 선거관리에 성공적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제14대 대통령선거는 18일 오전7시부터 전국 1만5천3백46개 투표구에서 일제히 시작되었다.

총유권자 2천9백42만2천6백58명중 2천4백9만6천6백3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81.9%의 투표율을 기록, 지난 87년 대선때의 89.2%보다 조금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하오 8시께부터 전국 3백8개 개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개표는 부재자 투표함의 개함이 있는 개표초반 金泳三·金大中 후보간의 각축전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전국적으로 15%선의 개표가 완료된 자정께부터 民自黨 金泳三후보가 40%선을 넘어선 반면 民主黨의 金大中후보가 34%선 내외, 국민당 鄭周永 후보가 16%선의 득표율을 보여 金泳三 민자후보의 6~8%포인트선의 우세가 계속되었다.



〈사진 8-7〉

14대 대선유세

金泳三후보는 자신의 아성인 釜山·慶南에서 70%선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大邱·慶北에서도 60%내외의 득표를 얻는 등 압도적 우세를 보여 光州 및 全南北에서 90%의 몰표를 얻은 金大中 民主黨후보를 앞질렀다. 金泳三후보는 仁川·大田·京畿·江原·忠南北등 중부권에서도 金大中·鄭周永후보를 10%포인트 내외의 득표차로 눌러 우세를 지켰다.

반면 金大中후보는 光州 全南에서 92%선, 全北에서 87% 내외의 기록적인 몰표를 기록했고 서울에서도 金泳三후보를 2~3% 포인트차로 눌러 우세를 유지했으나 타지역에서의 부진으로 힘겨운 추격전을 보였다. 한편 鄭周永 國民黨후보는 출신도인 江原에서 30%정도의 득표로 2위를 기록하는등, 서울·仁川·大田·忠南北지역에서 20%선을 유지했으나 民自·民主의 兩金후보의 아성인 嶺·湖南에서 부진 16%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최종 집계결과 金泳三 民自黨후보가 유효표의 41~42%를 득표, 金大中 民主黨후보를 7% 안팎의 차이로 제치고 전반적인 우세를 보이면서 당선되었다.

이로써 金泳三후보는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문민정부 수립이라는 헌정사적 의미를 지니고 대선에서 승리의 영광을 안았다. 金泳三후보의 당선으로 民自黨은 집권당의 위치를

고수하게 되었으나 金大中후보가 이끌어왔던 民主黨과 鄭周永후보의 國民黨은 대선후유증으로 큰 내부진통을 겪게 되었다.

金泳三후보의 승리는 국민의 대다수가 정권교체가 가져올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원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金泳三후보는 초반 개표결과가 兩金의 2과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자신의 지지기반인 釜山·慶南에서의 압도적 지지와 다소의 혼전이 예상됐던 大邱·慶北에서의 절대적 지지에 힘입어 金大中 후보를 앞섰다.

7명의 후보가 열전을 벌인 이번 선거는 처음에는 치열한 3과전 속에서 金泳三·金大中 후보의 兩金의 박빙의 선두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金大中후보는 자신의 아성인 光州와 全南北에서 흔들리지 않는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나 釜山·慶南 및 大邱·慶北에서 金泳三후보와의 득표차이를 줄이는 데 실패했다.

金大中후보는 또 상대적 우세를 노렸던 서울에서도 박빙의 우위만을 확보했고, 전략지역으로 선정한 仁川, 京畿등 수도권지역에서도 열세를 보였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투표율이 낮은 지역은 大邱의 78.5%로 지역출신 후보를 내지 않은 데 따른 관심의 저조를 그대로 반영했다.

14대 대통령선거에는 모두 8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나 李鍾贊 새한국당후보가 중도사퇴해 民自黨 金泳三, 民主黨 金大中, 국민당 鄭周永, 新正黨 朴燦鍾, 大韓正義黨 李丙昊, 무소속 金玉仙, 白基琬후보등 7명이 출마했었다.

직선제로 치러진 역대 대선투표율은 52년 2대 88.1%, 56년 3대 94.4%, 60년 4대 97.0%, 63년 5대 85.0%, 67년 6대 83.6%, 71년 7대 79.8%, 87년 13대 89.2%등 평균 88.2%에 이르렀다. 전국시도별 투표상황과 후보별 득표수, 大邱시내 후보별 득표상황은 <表 8-20, 21, 22, 23>과 같다.

〈表 8-20〉 全國 市道別 投票狀況 (선관위 최종집계)

시·도	선 거 인 수	투 표 자 수	투 표 율 (%)	
			제 14 대	제 13 대
계	29,422,658	24,096,636	81.9	89.2
서 울	7,394,554	6,021,557	81.4	88.2
부 산	2,565,831	2,135,969	83.2	88.4
대 구	1,494,057	1,172,858	78.5	89.9
인 천	1,346,964	1,081,488	80.3	88.2
광 주	769,300	685,891	89.2	92.5
대 전	725,583	582,613	80.3	×
경 기	4,354,271	3,502,863	80.4	88.4
강 원	1,025,018	834,908	81.5	90.7
충 북	922,701	750,548	81.3	91.1
충 남	1,232,586	973,119	78.9	88.3
전 북	1,321,778	1,126,597	85.2	90.4
전 남	1,500,662	1,285,110	85.6	90.3
경 북	1,934,544	1,599,478	80.6	91.0
경 남	2,504,339	2,118,601	84.6	89.5
제 주	330,470	265,252	80.3	88.5

〈表 8-21〉 候補者別 得票數 對比 (단위:표)

후보자별 구 분	민주자유당 김 영 삼	민 주 당 김 대 중	통일국민당 정 주 영	신 정 당 박 찬 중	대한정의당 이 병 호	무 소 속 김 옥 선	무 소 속 백 기 완	계
득 표 수	9,977,332	8,041,284	3,880,067	1,516,047	35,739	86,292	238,648	23,775,409
득표율(%)	42.0	33.8	16.3	6.4	0.1	0.4	1.0	100

〈表 8-22〉 市·道別 投票狀況 (단위:명)

시·도별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경 기	강 원
선거인수	7,394,554	2,565,831	1,494,057	1,346,964	769,300	725,583	4,354,271	1,025,018
투표수	6,021,311	2,135,546	1,172,636	1,081,011	685,797	582,613	3,502,774	834,891
투표율(%)	81.4	83.2	78.5	80.3	89.1	80.3	80.4	81.5

시·도별 구 분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선거인수	922,701	1,232,586	1,321,778	1,500,662	1,934,544	2,504,339	330,470	29,422,658
투표수	750,438	973,070	1,126,597	1,285,110	1,599,478	2,118,601	265,252	24,095,170
투표율(%)	81.3	78.9	85.2	85.6	80.6	84.6	80.3	81.9

〈表 8-23〉 大邱市內 候補者別 得票狀況

개표구명	선 거 인 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유효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민주당	통 일 국민당	신정당	대 한 정의당	무소속	무소속	계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박찬중	이병호	김옥선	백기완					
중 구	(2,333)	(2,246)										(87)		
	91,770	72,678	42,989	5,571	14,120	7,890	67	165	885	71,687	991	19,092	79.2	98.6
동 구 갑	(3,693)	(3,559)										(134)		
	137,546	107,628	61,370	8,635	20,817	13,759	98	281	1,388	106,348	1,280	29,918	78.2	98.8
동 구 을	(2,542)	(2,473)										(69)		
	107,755	83,266	47,351	6,875	16,308	10,287	117	250	934	82,122	1,144	24,489	77.3	98.6
서 구 갑	(2,832)	(2,731)										(101)		
	131,228	102,958	60,350	8,135	19,936	12,013	70	276	997	101,777	1,181	28,270	78.5	98.9
서 구 을	(2,626)	(2,583)										(88)		
	116,028	90,878	54,552	7,010	16,809	9,855	118	270	958	89,572	1,306	25,150	78.3	98.6
남 구	(4,565)	(4,389)										(176)		
	171,703	134,882	79,591	10,363	25,465	15,905	103	251	1,565	133,243	1,639	36,821	78.6	98.8
북 구	(5,107)	(4,916)										(191)		
	213,166	166,394	99,721	12,637	30,339	19,013	173	427	1,876	164,186	2,208	46,772	78.1	98.7
수성구갑	(3,332)	(3,197)										(135)		
	132,618	104,935	61,169	7,836	20,923	12,447	78	206	1,134	103,793	1,142	27,683	79.1	98.9
수성구을	(3,159)	(3,028)										(131)		
	134,714	107,407	64,513	8,102	20,619	11,746	82	186	1,123	106,371	1,036	27,307	79.7	99.0
달서구갑	(2,949)	(2,842)										(107)		
	128,187	100,253	58,654	7,657	19,477	11,832	105	245	987	98,957	1,296	27,934	78.2	98.7
달서구을	(2,672)	(2,558)										(114)		
	129,342	101,357	59,985	7,820	19,829	11,290	92	196	925	100,137	1,220	27,985	78.4	98.8
합 계	(35,810)	(34,477)										(1,333)		
	1,494,057	1,172,636	690,245	90,641	224,642	136,037	1,103	2,753	12,772	1,158,193	14,443	321,421	78.5	98.8